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2022. 04.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인천시청과 2021년 9월 계약 체결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용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4월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진

<책임연구원>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연구원>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주 명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 임 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정 현 인하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과 교수

박 수 진 (주)아트컨설팅 에스에이씨 대표

김 원 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 유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미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도 경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우 정 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목 차

I. 연구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5
II. 환경분석	9
1. 인천시 환경분석	9
1) 역사·지리적 환경	9
2) 인구통계적 환경	13
3) 교육·문화 환경	16
2. 인천시립미술관 조성 현황	25
1) 사업 개요	25
2) 건립추진 경과 및 계획	26
3. 인천시 소장품 관련 현황	27
1) 인천시청 미술품 관리대장	27
2) 인천문화재단 보유 소장품	29
3)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32
4. 국내 미술관 소장품 관련 논의	34
5. 분석결과	43
III. 소장품 정책 기초	47
1. 국내외 미술관 사례분석	47
1) 개요	47
2) 국내 미술관	48
3) 국외 미술관	66
4) 사례분석 시사점	74
2. 인천미술의 역사 및 지역성	75
1) 인천미술의 역사	75
2) 인천 지역성 및 문화담론	80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87
1) SWOT분석	87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89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90
4) 미술인 대상 인식조사	92
IV. 소장품 정책 구상	103
1. 소장품 정책 기본구도	103
1) 소장품 개념과 기능	103
2) 소장품 동향 및 새로운 접근	105
3) 소장품 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10
4) 소장품 정책의 기본구도	116
2. 소장품 정책 수립방향	121
1) 미션	121
2) 연구	127
3) 수집	132
4) 관리·보존	146
5) 이용	157
3. 소장품 수집계획 및 규정	161
1) 개요	161
2) 소장품 수집계획	164
3)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167
4. 아카이브 정책	170
1) 아카이브의 이해	170
2) 미술관 아카이브의 특징	174
3) 미술관 아카이브 정책의 구도	179
5. 소장품 활용방안	182
1) 활용방안	182
2) 영역별 활용사례	184
V. 소장품 수집 로드맵	205
1. 개관 전 (2022 ~ 2025)	206
1)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206
2)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209

2. 개관 후 (2025. 12. ~ 2030)	212
1) 개관 및 미술관 운영	212
VI. 부 록	217
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안)	217
2. 국외 미술관 소장품 정책 사례	229
1) J. 폴 게티 미술관	229
2)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	241
3. 연구형 자문위원회 회의록	255
참고문헌	269

표 목 차

[표 II-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인구 증감률	14
[표 II-2] 전국 및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비율	14
[표 II-3] 행정구역별 다문화 가구 증감	15
[표 II-4] 인천예술고등학교 개요	16
[표 II-5] 인천광역시 내 미술관련 대학·대학원	17
[표 II-6]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 수	18
[표 II-7] 인천광역시 미술 관련 주요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개요	19
[표 II-8] 미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자 현황	21
[표 II-9]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현황	22
[표 II-10] 인천시 주요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23
[표 II-11] 인천시 주요 미술행사	24
[표 II-12]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현황	25
[표 II-13] 인천시청 미술품 현황 분석요약표	27
[표 II-14] 분과위원회 별 역할 및 구성	32
[표 II-15] 작품 수집 방법	33
[표 II-16] 인천시립미술관 수집작품 부문	33
[표 II-17] 국립현대미술관 심포지엄 내용	35
[표 II-18]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큐레토리얼 전략	37
[표 II-19] 서울시립미술관 심포지엄 내용	39
[표 II-20] 2021 경기도미술관 심포지엄 내용	41
[표 II-21] 인천시청, 인천문화재단 소장품 현황 분석결과	44
[표 III-1] 국내 광역 단위 공립미술관 소장품 주요 현황	47
[표 III-2] 국외미술관 및 관련기관 소장품 정책 주요 현황	47
[표 III-3]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49
[표 III-4]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51
[표 III-5]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9개 부문)	53
[표 III-6]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55
[표 III-7]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1개 부문)	57
[표 III-8]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9개 부문)	59
[표 III-9]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현황(5개 부문)	61
[표 III-10]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63
[표 III-11] 대구미술관 소장품 현황 (7개 부문)	65
[표 III-12]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66

[표 III-13]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 현황 (31개 부문)	67
[표 III-14] 구겐하임재단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68
[표 III-15] 구겐하임재단 소장품 현황 (7개 부문)	69
[표 III-16] 폴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 구성	70
[표 III-17] 케티뮤지엄 소장품 현황 (18개 부문)	71
[표 III-18] V&A 주요 소장품 정책 구성	72
[표 III-19] 테이트 소장품 현황(21개 부문)	73
[표 III-20] 인천미술의 흐름 요약	75
[표 III-21] 인천 지역성 키워드	80
[표 III-22] 인천 문화담론 키워드	80
[표 III-23] 인천 문화담론 관련 주요사례	81
[표 III-24] 국내외 디아스포라 주제 전시	85
[표 III-25] 인천시립미술관 외부 인식조사 개요	92
[표 III-26] 인식조사 내용	92
[표 IV-1] 미술관 소장품 관련 주요 기능	104
[표 IV-2] 뉴미디어 작품 보존에 대한 입장	106
[표 IV-3] 미술관 작품관리의 흐름	110
[표 IV-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조례, 규정 및 정책	110
[표 IV-5] 선행연구의 소장품 정책의 용어 및 구성내용	111
[표 IV-6] 국외미술관 소장품 관련 정책명	111
[표 IV-7] 미국박물관·미술관협회(AAM) 소장품 관리 정책 필수 요소	117
[표 IV-8] 미국뮤지엄협회(AAM)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및 내용	118
[표 IV-9] 사례: 폴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 항목	119
[표 IV-10]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 소장품 정책 항목	119
[표 IV-1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120
[표 IV-1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미션	121
[표 IV-13] 미션의 정의와 기본방향	121
[표 IV-1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	127
[표 IV-15] 정책 연구의 내용적 범위	128
[표 IV-16] 소장품 정책 개발의 프로세스	129
[표 IV-17]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집	132
[표 IV-18]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범주	133
[표 IV-19]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지역작가 기준	134
[표 IV-20]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유형	135
[표 IV-2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방법	138
[표 IV-2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방식(안)	139

[표 IV-2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위원회	140
[표 IV-24] 수증 및 관리전환의 기준	141
[표 IV-25] 기존 소장품 가치평가 기준	142
[표 IV-26]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가치평가 기준 (신규)	143
[표 IV-27] 저작권의 분류	144
[표 IV-28] 미술관의 대상별 저작권 계약	144
[표 IV-2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관리·보존	146
[표 IV-30] TATE : 주제별 분류 및 내용	147
[표 IV-3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	148
[표 IV-32]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 예시	149
[표 IV-33] 소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을 위한 고려사항	150
[표 IV-34]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종합보험 가입 제안공고 및 입찰결과	152
[표 IV-35] 미국아카이비스트협회(SAA) : 뮤지엄아카이브분과(Museum Archives Sections)의 아카이브 가이드라인	154
[표 IV-36]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의 구분	155
[표 IV-37]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이용	157
[표 IV-38] 미술관 소장품 열람방식	158
[표 IV-39]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복제 관련 가이드라인	158
[표 IV-40] 소장품 콘텐츠 유형	160
[표 IV-41] 국공립미술관 예규, 조례, 규정	161
[표 IV-42] 국내 광역 공립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 구성 : 소장품 관련	162
[표 IV-43] 국립현대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64
[표 IV-44] 서울시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64
[표 IV-45] 전라북도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65
[표 IV-46] 경상남도도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65
[표 IV-47] 소장품 수집계획 내용구성(안)	166
[표 IV-48]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발 근거	167
[표 IV-49] 아카이브의 개념(이호신, 2018)	170
[표 IV-50] 아카이브의 구성요소	170
[표 IV-51] 미술관 부서별 생성 기록 예시	175
[표 IV-52] 미술관 수집 기록의 예시	175
[표 IV-53] 아카이브 구축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	180
[표 IV-54] 아카이브 관련 업무 흐름도	181
[표 IV-55] 소장품 활용 영역 및 특징	183
[표 V-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로드맵	205
[표 V-2]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 단계별 추진과제	206
[표 V-3]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 단계별 추진과제	209

[표 V-4]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 단계별 추진과제	212
[표 VI-1] 정책 연구의 내용적 범위	220
[표 VI-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유형	221
[표 VI-3]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가치평가 기준	222
[표 VI-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	223
[표 VI-5] 소장품 콘텐츠 유형	227

그림 목차

[그림 II-1] 인천시의 역사적 흐름	10
[그림 II-2] 인천광역시 지도	11
[그림 II-3]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	12
[그림 II-4] 인천시 연도별 인구추이	13
[그림 II-5] 인천광역시 연령별·성별 인구분포	13
[그림 II-6] 인천시 다문화 가구 수 및 다문화 가구 가구원 수	15
[그림 II-7] 전국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정원	17
[그림 II-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시설 수	18
[그림 II-9] 박신의(2021), “한국 미술계의 소장품 경쟁력은 어디에?”	34
[그림 II-10] 모더니즘의 재구성: 동남아시아, 유럽, 그 너머의 회화	37
[그림 II-11] 구겐하임 UBS MAP 세계 미술계획 웹사이트	38
[그림 II-12]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39
[그림 II-13] 미술관 수집의 새로운 표준 불러오기	41
[그림 III-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전경	48
[그림 III-2]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전경	50
[그림 III-3] 광주시립미술관 내부 전경	50
[그림 III-4] 광주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1
[그림 III-5] 대전시립미술관 본관 전경	52
[그림 III-6] 대전시립미술관 본관 내부 전경	52
[그림 III-7] 대전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3
[그림 III-8]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54
[그림 III-9] 내 손안의 미술관 (언택트 콘텐츠)	54
[그림 III-10] 부산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5
[그림 III-11] 전북도립미술관 내·외부 전경	56
[그림 III-12] 전북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7
[그림 III-13] 경남도립미술관 전경	58
[그림 III-14] 경남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9
[그림 III-15] 경기도미술관 전경	60
[그림 III-16] 제주도립미술관 내·외부 전경	62
[그림 III-17] 제주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63
[그림 III-18] 대구미술관 전경	64
[그림 III-19] 대구미술관 특별전 : 웰컴홈: 향연(饗宴)	64
[그림 III-20] 대구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65

[그림 III-21] 사례분석 시사점	74
[그림 III-22] 인천의 지역성과 문화담론 : ‘디아스포라’	84
[그림 III-23]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90
[그림 IV-1] 공공재와 정보재로서의 미술관 소장품의 이해	109
[그림 IV-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구성	112
[그림 IV-3]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113
[그림 IV-4]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핵심요소	115
[그림 IV-5]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활동 구도	116
[그림 IV-6]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122
[그림 IV-7] 소장품 미션의 핵심내용	124
[그림 IV-8] 소장품 정책 목적의 핵심내용	125
[그림 IV-9] 책임 및 권한의 주요내용	126
[그림 IV-10] 소장품 연구 주요 내용	127
[그림 IV-1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연구의 핵심내용	129
[그림 IV-1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보존 연구의 핵심내용	130
[그림 IV-13]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활용 연구의 핵심내용	131
[그림 IV-1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범주의 구도	133
[그림 IV-15] 홍명섭, <벽에 종이 찢어붙이기>, 1978	136
[그림 IV-16] 성능경, <신문읽기>, 1976	136
[그림 IV-17] 시애틀 NFT 뮤지엄	137
[그림 IV-18]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증 프로세스	141
[그림 IV-1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전환 프로세스	141
[그림 IV-20] TATE : ART BY THEME	147
[그림 IV-21] 정보시스템의 구도	155
[그림 IV-22] 세마 코랄 주제어	156
[그림 IV-23] 세마 코랄 내 텍스트 정보	156
[그림 IV-24] 제주도립미술관 <탐나는 봄> 전시작품	159
[그림 IV-25]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구성	169
[그림 IV-26]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구성	169
[그림 IV-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171
[그림 IV-28]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172
[그림 IV-29] 《정재철: 사랑과 평화》 전 아카이브 섹션	172
[그림 IV-30]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전시	172
[그림 IV-31]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 및 홈페이지 개설	173
[그림 IV-32] 미술관 아카이브 구성	174
[그림 IV-33] TATE Modern	184

[그림 IV-34] 대구미술관 <소장품 100선>전시 전경	184
[그림 IV-35] 국립현대미술관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전시 전경	185
[그림 IV-36] 서울시립미술관 <멀티-엑세스4913> 전시 전경	185
[그림 IV-3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방형 수장고 전경	186
[그림 IV-38]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 (2020)	187
[그림 IV-39]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전 ‘갤러리0(제로)’ (2020)	187
[그림 IV-40]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수묵 신작로’ (2020)	187
[그림 IV-41] 북서울시립미술관 <빛 :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전시 전경	187
[그림 IV-42] KIKI SMITH RIVER LIGHT	188
[그림 IV-43] OUTLOOKS : MARTHA TUTTLE	188
[그림 IV-44] 리움미술관 야외조각 전시	189
[그림 IV-45]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야외프로젝트	189
[그림 IV-46]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소장품 연계 교육프로그램	190
[그림 IV-47]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뮤지엄 크루즈>	191
[그림 IV-48]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활용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거장들> ‘이준’ 편	191
[그림 IV-49] 국립현대미술관의 치매환자를 위한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프로그램	192
[그림 IV-50] 시각장애인 촉각 체험 프로그램	192
[그림 IV-51] 가족 참여 프로그램	192
[그림 IV-52] 경남도립미술관의 야외조각 교육 프로그램 <정원산책>	193
[그림 IV-53]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교육 <소장품 집콕놀이>	193
[그림 IV-54] 대전시립미술관의 ‘손 끝에서 만나는 소장품’ 미디어월	194
[그림 IV-55]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소장품 연구	194
[그림 IV-56]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195
[그림 IV-57]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	195
[그림 IV-58] MoMA Design Store 홈페이지 - MoMA 출판물 및 전시 카탈로그	195
[그림 IV-59] 테이트 브리튼 Prints and Drawings Room	196
[그림 IV-60] Mediakunst.net 홈페이지	196
[그림 IV-61] 휘트니미술관 홈페이지 - artport	197
[그림 IV-62] 휘트니미술관 - Permanent Collection Documentation Office	197
[그림 IV-63] 구겐하임미술관 - Collection Online(매체별)	197
[그림 IV-64] 구겐하임미술관 - Collection Online(미술사조별)	197
[그림 IV-65] 광주시립미술관 <미래의 역사쓰기 : ZKM 베스트 컬렉션> 전시 전경	198
[그림 IV-66]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지역 전시	198
[그림 IV-67]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미술은행 홈페이지)	198
[그림 IV-68]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	199
[그림 IV-69] 대전시립미술관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전시 전경	199

[그림 IV-70] 한가람미술관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시 전경	199
[그림 IV-71] LaCollection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중인 Hokusai의 NFT	200
[그림 IV-72]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숍 미술가계 홈페이지	200
[그림 IV-73]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숍 아트상품	200
[그림 IV-74] 훈민정음 한정판 NFT 기본사항	201
[그림 IV-75] NFT 제작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201
[그림 IV-76] 테이트 이미지(Tate Images) 홈페이지 카테고리	201
[그림 IV-77] 테이트 이미지(Tate Images) 상세페이지	201
[그림 IV-78] <놀러와요 동물의 숲>의 소장품 QR코드 배포	202
[그림 IV-79] MMCA VR, 서도호 <카르마>	202
[그림 IV-80] MMCA 콘텐츠 <관장이 들려주는 소장품 이야기>	202
[그림 IV-81] 테이트 키즈(Tate Kids) 웹사이트	202

CHAPTER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소장품은 미술관의 존립 근거이자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미술관 경쟁력을 반영하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음. 그런 만큼 소장품은 미술관에 합당한 원칙과 기준, 세부계획에 의해 수집되어야 함
- 최근 인천시립미술관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품 구입 및 수증에 관한 원칙과 합당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전문가들에 의해 인천지역 미술사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관 전 구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에 앞서 소장품 수집과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소장품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소장품 정책 연구를 추진함

(2) 연구목적

-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근거 및 타당성 마련
-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관련 연구, 수집, 관리·보존, 활용에 관한 기본방침 확보

(참고) 국제박물관협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 소장품 정책 채택 공표 강조

- 국제박물관협회(ICOM)은 1970년 소장품 취득 윤리강령을 1986년 전문직윤리규정을 통합하고, 2001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서 박물관 윤리강령으로 개명함. 이후, 2004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 21차 총회에서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박물관 윤리강령의 2장 1절에 따르면, 미술관의 관리주체는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을 채택하여 공표해야 함



[그림 1-1] ICOM 박물관 윤리강령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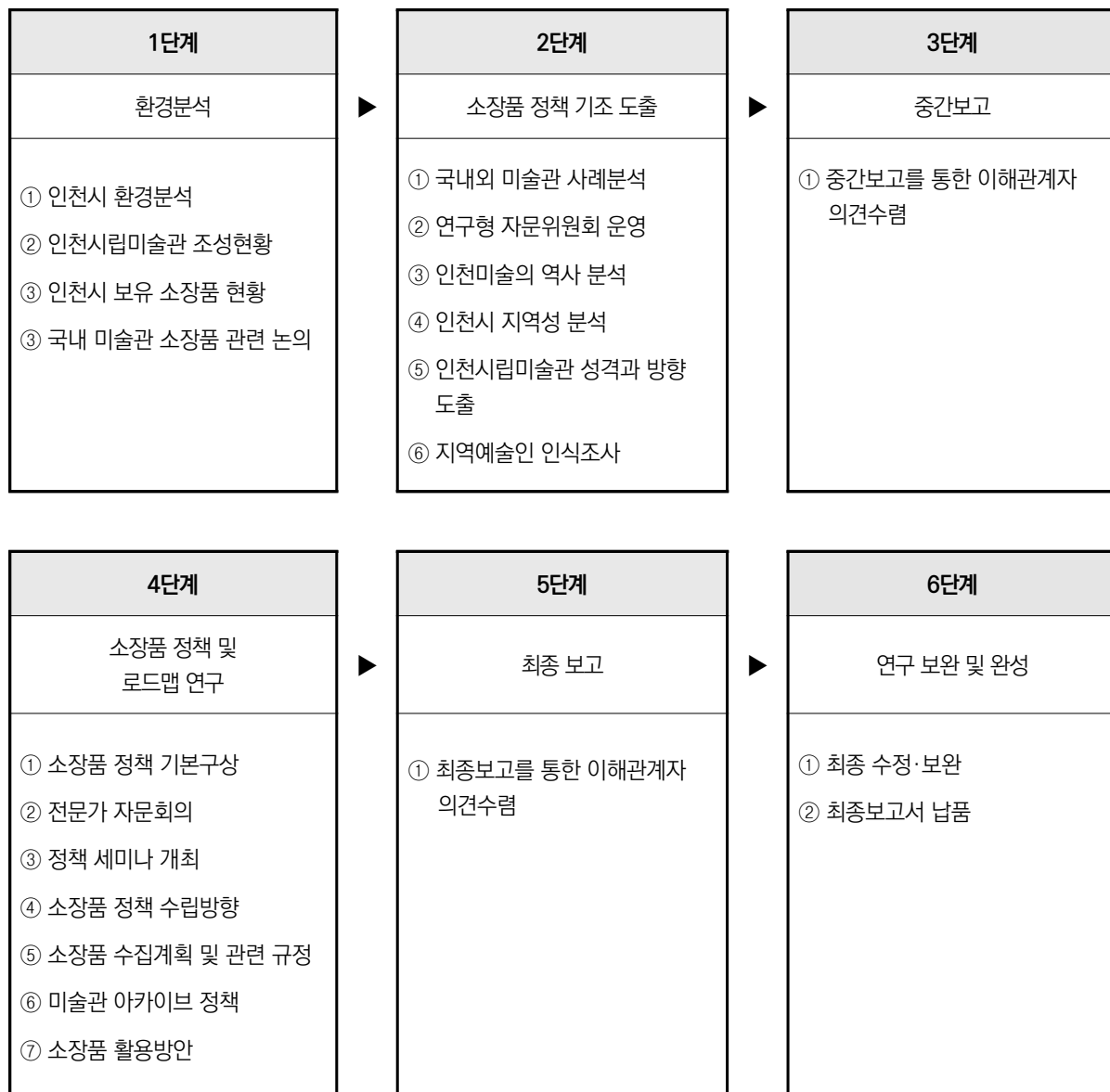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미술관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내용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환경분석 • 인천시 소장품 현황 분석 • 인천시 지역성 및 주요문화 담론 검토 • 국내외 미술관 소장품 정책 사례분석 •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도출 및 지역예술인 인식 조사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방향 모색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구도 및 내용 도출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소장품 정책(안) 및 수집 및 관리규정(안) 제시

(2) 연구방법

구분	내용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미술관 및 인천지역 미술사적 특징에 관련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 수집 검토 • 미술관 소장품 및 아카이브 자원 수집 활용에 관한 학술자료 수집 검토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미술관 소장품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및 정책 자료 수집 검토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형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지역전문가그룹’ 총 3개 그룹의 연구지원 및 자문 추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미술인 대상 인식조사를 통한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의 공감대 형성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개최

3 연구체계 및 추진일정

(1) 연구체계



(2) 추진일정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항목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계약일		17일														
착수보고			8일													
환경분석																
사례분석																
소장품 정책 기초																
인식조사																
연구형자문위원회 운영				21일		18일			23일							
중간보고									20일							
소장품 정책 기본구도																
전문가 자문											19일	15일				
소장품 정책 수립방향																
수집계획 및 아카이브																
세미나													23일			
소장품 활용방안																
중장기 수집계획																
최종보고																4일
수정 및 편집																
최종성과물 납품																
계약완료																14일

CHAPTER

II

환경분석

1. 인천시 환경분석
2. 인천시립미술관 조성 현황
3. 인천시 소장품 관련 현황
4. 국내 미술관 소장품 관련 논의
5. 분석결과



환경분석

1 인천시 환경분석

1) 역사·지리적 환경

(1) 역사적 환경

■ 전근대 인천 : 국제교류의 중심지, 군사적 요충지

- 역사서에 인천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삼국시대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인천 최초의 지명은 ‘미추홀(彌鄒忽)’이었으며, 백제가 한성으로 도읍지를 옮기기 전까지 초기 도읍지이기도 하였음. 삼국시대 인천은 중국과의 대외교통 창구 기능을 하였음
- 고려왕조가 인천에 도읍하며 인천지역은 외침의 방어 및 해상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하였음. 고려시대 인천지역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드나드는 물류의 관문이면서 외교의 핵심 공간이었음
- 조선시대에 들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주(仁州)’에서 ‘인천(仁川)’으로 지명이 변경됨. 조선왕조는 고려왕조와 달리 통상수교거부정책을 고수하여 서해상의 교통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인천은 대외무역의 기능을 상실하여 일반적인 농·어촌이 되었음
- 1600년 전후 왜란과 호란의 영향으로 인천지역은 다시 국방상 요충지가 되었으며, 17세기 말까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 해안지역의 방어체제가 보강되어 거대한 육·해군기지로 변모하였음

■ 근대 인천 : 개항을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도시

- 지금의 인천은 1833년 제물포 개항 이후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인천은 서구 열강과 일본, 청나라와의 수호통상조약의 주요 무대가 되었고, 개항 이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근대 도시의 모습을 형성하였음
- 청일전쟁(1894) 이후 행정과 경제, 인구구성 면에서 일본의 지배가 뚜렷해지고 식민도시적 성격이 지속됨. 이 시기 개항장 인천에는 외국인 거주지가 발달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열악했던 노동조건은 노동운동이자 민족운동으로 이어짐
- 한일합방(1910) 이후 인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1930년까지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조계와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시가지 개발과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졌음. 1940년대에 인천항에 근대적인 대규모 공장(군수공장)이 자리 잡음

■ 현대 인천 :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

- 인천은 해방 후 전쟁 복구와 정비로 산업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경인지구특정개발계획, 수출지향공업화정책에 따라 수도권 내 공업도시로서 고속도로 및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인프라가 구축됨
- 1979년 인구 100만돌과 이후 수도권의 개발 정책과 지역 확장, 공단 활성화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 1981년 인천직할시로 승격됨. 1992년 인구 200만명 돌파 후 1995년 인천광역시로 승격됨. 행정구역 확대 개편으로 행정구역면적이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후 공유수면매립으로 행정구역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함
- 오늘날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 1990년대 초부터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의 시설을 유치하여 교통인프라를 확대하였음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산업·물류, 관광·레저, 주거, 교육·문화 시설이 증설됨. 2010년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16년 총 인구 300만을 달성함



[그림 II-1] 인천시의 역사적 흐름

(2) 지리적 환경

■ 개항도시 인천

- 인천은 경도 동경 126°, 위도 북위 37°에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중앙에 해당함. 우리나라 서쪽 해안인 황해와 접하고 있으며,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 북으로 경기도 김포시, 동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천시, 동남쪽으로 시흥시와 맞닿아 있음. 또한, 북한과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황해남도 및 개성특별시와 접하고 있음
- 인천의 해상은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과 접하고 있으며, 해수 권역이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도시임. 인천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며 섬과 갯벌이 많은 특징이 있음. 개항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해방 이후 간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현재 인천 해안선의 90%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제방과 항만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관문도시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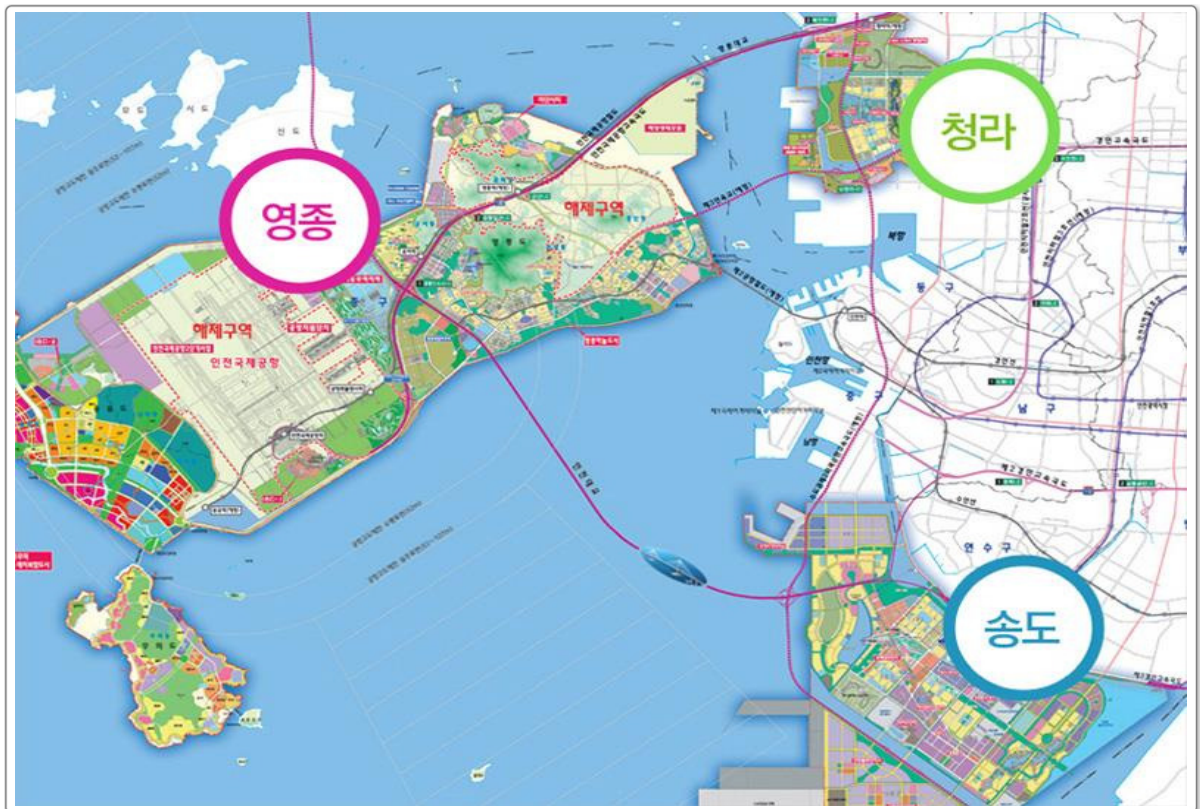
-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교통과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교통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육로 교통 또한 발달함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도가 개통된 지역이기도 하며(1899년 경인선 개통), 도시철도,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도시 역할을 함



[그림 II-2] 인천광역시 지도

■ 동북아경제중심지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23.65km² 규모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서울 및 수도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요 대도시에서 60~90분 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상해·베이징·도쿄·홍콩 등 147개의 국외 도시를 비행기로 3시간 안에 접근 가능하다는 지리적 특징점이 강조되고 있음



[그림 11-3]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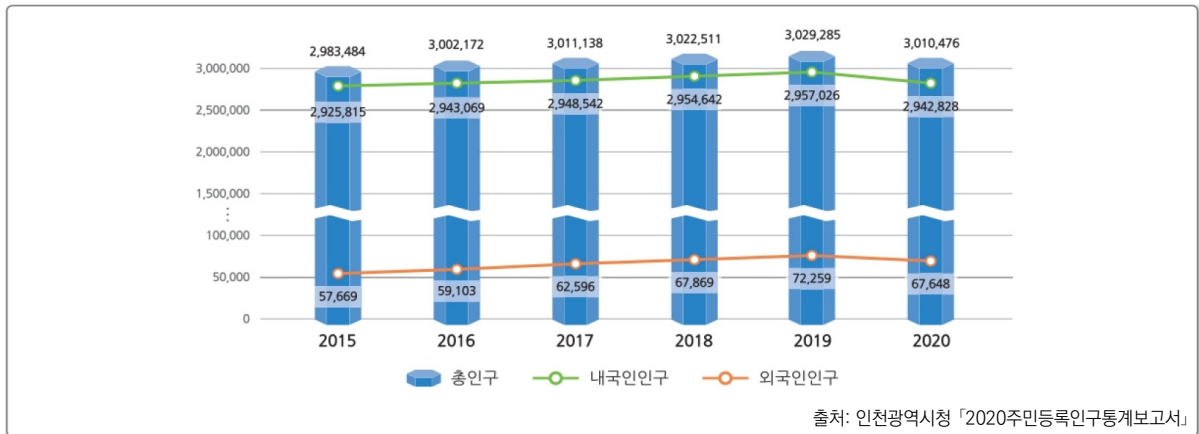
■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

- 인천은 남북분단의 역사와 함께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점을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도시의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인천과 황해도의 인접한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의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향후 남북 교류와 공동협력 사업 등 인천의 새로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2) 인구통계적 환경

■ 인구 추이 변화 : 2015년 이후 인구 증가 둔화 이후 2021년 인구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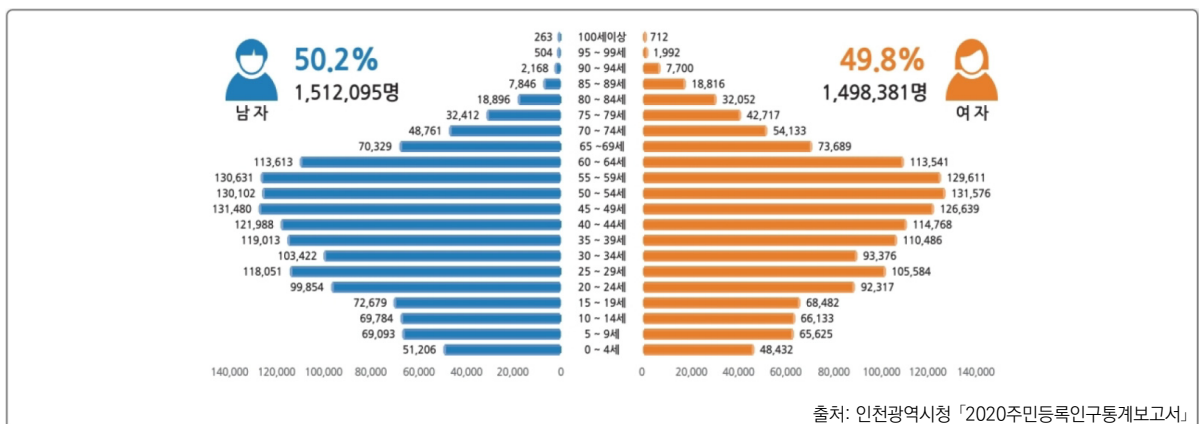
- 인천시 <2020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총 인구수는 3,010,476명으로, 전년 대비 18,809명(0.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시 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하였으며, 2021년 인구수가 소폭 감소함



[그림 II-4] 인천시 연도별 인구추이

■ 연령별 인구 : 고령 인구 증가 대비 유소년 인구 감소

- 인천시의 연령별 인구는 유소년인구(0~14세)는 363,137명(12.1%),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168,208명(72%), 노년인구(65세 이상)는 411,483명으로 나타남
- 인천시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는 50~59세가 전체 인구의 17.4%, 40~49세가 16.6%로 4~50대가 가장 많고, 30~39세가 14.6%, 20~29세가 14% 순임
-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60~69세로 7.75% 증가,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0~9세로 5.82% 감소하여, 고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감소함



[그림 II-5] 인천광역시 연령별·성별 인구분포

■ 지역별 인구 : 인천광역시 서구(18.4%) 인구 최다

-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인구는 서구가 553,890명(18.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동구(536,983명), 미추홀구(413,246명), 연수구(399,869명) 순임. 옹진군의 인구수가 20,670명(0.7%)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II-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별 인구 증감률

단위: 명

구분	인구			
	2019.12.	2020.12.	증감	증감률
중구	139,385	143,656	4,271	3.06
동구	65,362	63,397	-1,965	-3.01
미추홀구	418,494	413,246	-5,248	-1.25
연수구	379,727	399,869	20,142	5.30
남동구	545,131	536,938	-8,193	-1.50
부평구	526,126	508,881	-17,245	-3.28
계양구	306,817	299,904	-6,913	-2.25
서구	557,415	553,890	-3,525	-0.63
강화군	70,037	70,025	-12	-0.02
옹진군	20,791	20,670	-121	-0.58
계	3,029,258	3,010,476	-18,809	-0.62

출처: 인천광역시청 「2020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 외국인 인구 : 인천시 전체 인구 2.2%,

- 인천광역시 외국인 수는 67,648명으로 인천시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2.2%이며, 전년 대비 4,611명(6.8%) 감소함. 전국 외국인 인구 비율(2.2%)과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비율(2.2%)은 유사한 수준으로, 제주도(3.4%), 충청남도(3.0%), 경기도(2.8%), 서울특별시(2.5%), 충청북도(2.3%) 다음 순의 규모를 지니고 있음

[표 II-2] 전국 및 인천광역시 외국인 인구 비율

단위: 명

연도	전국		인천광역시	
	등록외국인 수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등록외국인 수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2020	1,145,540	22.10	67,648	22.99
2019	1,271,807	24.53	72,259	24.44
2018	1,246,626	24.05	67,869	22.97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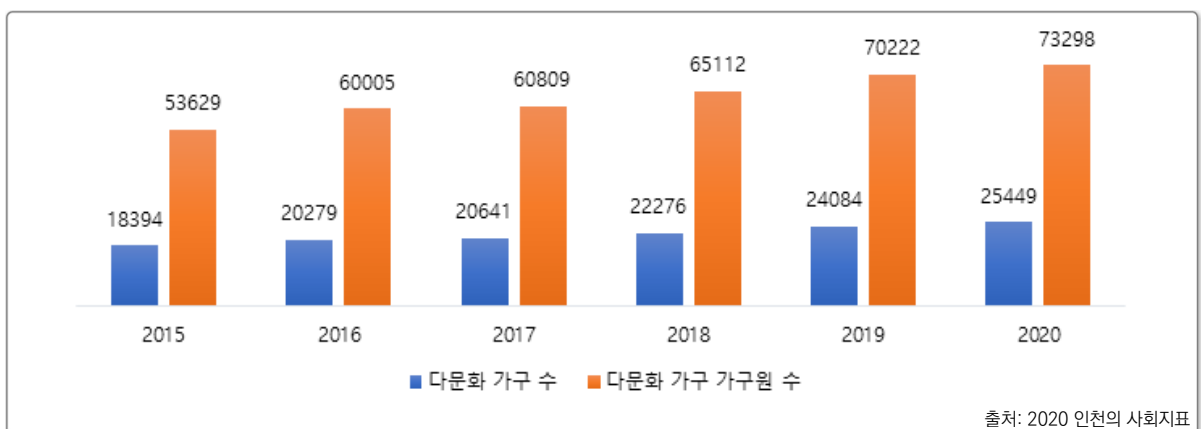
■ 다문화 가구 : 다문화 가구의 높은 증가 추세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수는 25,449가구로, 경기도(110,592가구), 서울(69,790가구)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매년 증가 추세임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수는 전년대비 1,365가구 증가하였으며, 경기도(4,813가구)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증감율은 5.7%로, 세종시(7.9%), 제주도(6.8%), 강원도(6.0%), 충청북도(5.8%) 다음으로, 전국 3.9%보다 높은 수준임

[표 II-3] 행정구역별 다문화 가구 증감

행정구역	다문화가구 계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367,775	13,972	3.9
서울특별시	69,790	52	0.1
부산광역시	15,158	745	5.2
대구광역시	10,919	587	5.7
인천광역시	25,449	1,365	5.7
광주광역시	7,742	395	5.4
대전광역시	7,407	465	6.7
울산광역시	7,079	212	3.1
세종특별자치시	1,656	121	7.9
경기도	110,592	4,813	4.6
강원도	8,934	503	6.0
충청북도	12,002	660	5.8
충청남도	18,514	826	4.7
전라북도	13,207	653	5.2
전라남도	14,626	557	4.0
경상북도	17,241	806	4.9
경상남도	22,044	869	4.1
제주특별자치도	5,415	343	6.8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2020 인천의 사회지표

[그림 II-6] 인천시 다문화 가구 수 및 다문화 가구 가구원 수

3) 교육 · 문화 환경

(1) 교육 환경

■ 초·중·고 교육 : 중고등학생의 감소 추세

- <2020 인천통계연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교육 시설은 유치원 404개, 초등학교 263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125개 등 총 974개의 교육시설이 있음
- 인천의 유치원 원아수는 2019년 기준 3만 9천 373명으로 전년(4만 2천 324명) 대비 2,951명 감소하였으며, 유치원은 403개소로 전년(423개소) 대비 20개소가 감소함
- 인천의 초등학교 취학률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중학교 취학률은 2015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2019년 초등학교 취학률이 9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교(98.0%), 고등학교(94.5%) 순임. 이는 전국 대비 약간 낮은 수준임
- 2019년 초등학교 학생은 16만 1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중·고등학생은 감소 추세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5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성화 고등학교(1만 6천 명), 자율고등학교(5천 명), 특수목적 고등학교(4천 명) 순임

● (참고) 인천예술고등학교 미술과

- 2021년 기준 209명의 학생이 미술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세부 전공으로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이 있음
- 전공과목으로 ‘드로잉’, ‘미술이론’, ‘미술사’, ‘미술 전공 실기’가 있음
- 연중 교육활동으로는 ‘학교 갤러리 운영’, ‘전시 계획’, ‘진로 탐색’이 있음

[표 II-4] 인천예술고등학교 개요

개교	1998	관할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개설학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로 115번길 36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형태	공립
학생수	436명	교원수	6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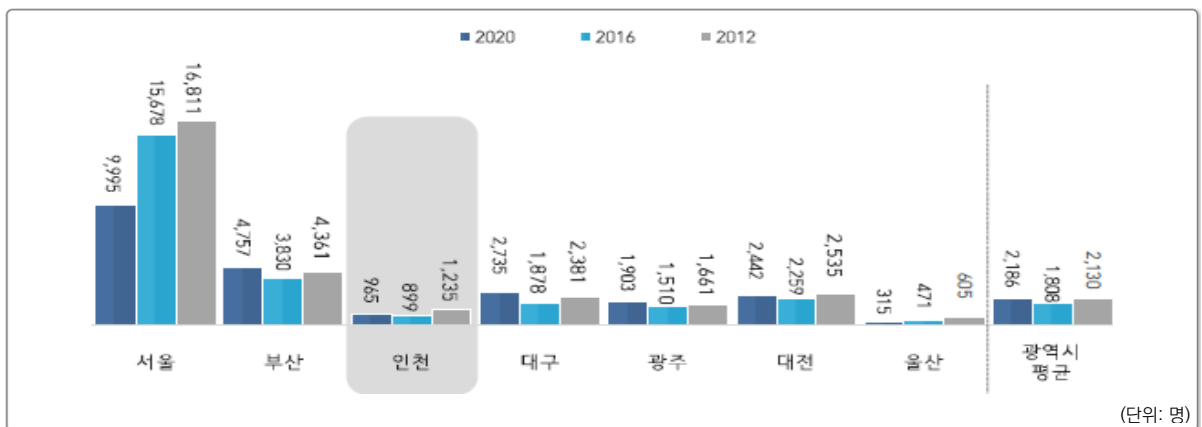
■ 대학교육 : 전국 대비 낮은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정원

- 인천광역시에는 총 4개의 전문대학, 6개의 종합대학교와 1개의 교육대학교가 있음. 미술 관련 학과 보유 대학교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가 있음
- <2020 인천 문화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천 내 문화예술 관련 대학 내 정원은 965명으로, 광역시 평균(2,186명)보다 적은 수치를 보임

[표 II-5] 인천광역시 내 미술관련 대학·대학원

대학명	학사과정		석·박사과정	
	대학	전공	대학원	전공
인천대학교	예술체육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 조형예술학부 동양화 전공 디자인학부 	일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교육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교육전공
			문화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기획전공 문화관광산업전공
인하대학교	예술체육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형예술학과 디자인융합학과 	일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형예술학과 디자인융합학과
	문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협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경영학전공 디지털예술공학전공 휴먼아트테크놀로지전공 인터랙티브콘텐츠전공 기술·철학·문화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화과 환경조각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조형예술학과 융합디자인학과 	일반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형예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교육과 	교육전문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교육전공

출처: 2020인천의문화지표 조사결과보고서



[그림 II-7] 전국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정원

(2) 문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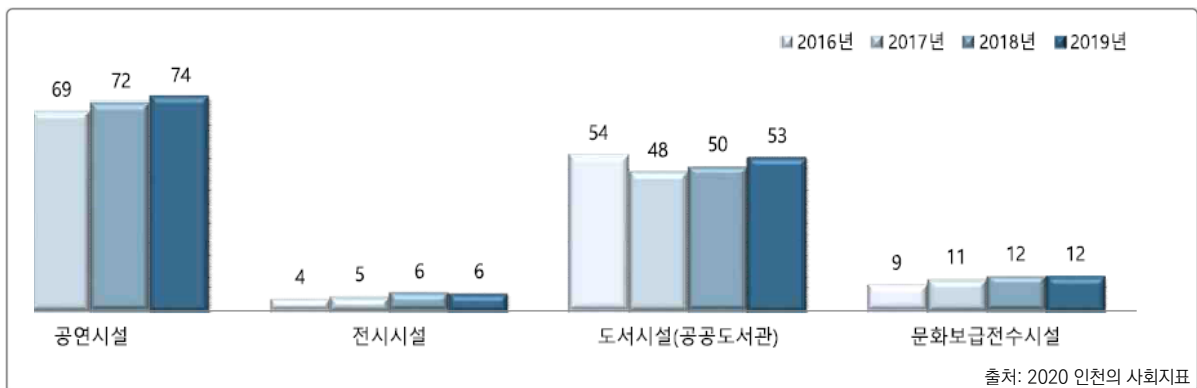
■ 문화기반시설 현황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은 총 115개소로 미술관 5개소, 박물관 28개소, 도서관 53개소, 생활문화센터 8개소, 지방문화원 10개소, 문예회관 10개소, 문화의 집 1개소가 있음
- 한편, <2020 인천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은 총 145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미추홀구·서구(2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함. 문화예술 시설 중 공연시설이 74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서시설(53개소), 문화보급전수시설(12개소), 전시시설(6개소 순임)

[표 11-6] 인천광역시 내 문화기반시설 수

합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 집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지자체	교육청				
115	2	3	16	12	44	9	8	10	10	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그림 1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시설 수

- 인천광역시 내 미술 관련 문화예술시설은 총 5개소의 등록 미술관(공립 2개소, 사립 3개소)이 있으며, 더불어 문화재단 운영 전시공간, 문예회관 부설 전시장, 갤러리, 기타 문화공간 등의 전시시설이 존재함
- 2021년 11월 기준, 인천문화큐 아이큐에 등록된 전시시설의 개수는 약 80여 개로, 공공 운영 시설과 영세한 민간 문화공간을 포함함. 그러나 비등록 시설 또한 존재할 것으로 추측됨
- 인천광역시 내 미술 관련 주요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1-7] 인천광역시 미술 관련 주요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개요

구분	지역	설립 주체	등록 여부	시설명 (개관연도)		개요
미술관	남구	공립	등록	송암미술관 (1992)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속된 미술관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화·조각·공예·도자기 등의 상설전 및 기획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중구	공립	등록	인천아트플랫폼 (2009)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 및 공연, 시민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임
	강화군	사립	등록	더리미미술관 (1995)		아르브뤼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연극공연 및 음악회·미술 체험·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전원미술관 (1995)		1948년 강화에서 출생한 유광상 작가의 작품 120여 점 및 강화도의 특산물인 화문석으로 제작한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음
				해든뮤지움 (2013)		내·외 유명 현대예술가들의 작품을 다소 소장하고 있어 컬렉션 전시를 개최하고, 연령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박물관	연수구	공립	등록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1946)		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 지역의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취지로 설립됨
				인천도시 역사관 (2008)		인천의 도시발전 과정을 주제로 1883년 개항 이후 인천의 도시 역사와 변천 과정을 전시하고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함
	중구	공립	등록	한국이민사 박물관 (2003)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으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개관함. 대한민국 이민의 출발지였던 인천항의 역사와 이민의 역사를 설명하는 상설전시와 관련 특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문화재단 운영 전시공간	동구	공립	미등록	인천 문화재단 (2004)	우리미술관 (2015)	주민들을 위한 기획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스 및 스튜디오를 운영함
	서구	공립	미등록	인천서구 문화재단 (2018)	정서진 아트큐브 (2019)	경인아라뱃길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로 '생태와 도시'를 주제로 기획전시 및 연계프로그램을 개최함
	연수구	공립	미등록	연수 문화재단 (2020)	연수갤러리	연수구의회 1층에 위치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가 가능한 전시시설

구분	지역	설립 주체	등록 여부	시설명 (개관연도)	개요
문예회관 부설 전시실	연수구	공립	미등록	트라이보울 (2009)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공연, 전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됨
	부평구	공립	미등록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2010)	부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평아트센터 부설 전시공간으로, 기획전시 및 부평 지역 아티스트 관련 전시를 주로 진행함
	남동구	공립	미등록	인천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994)	문화예술회관 내에 대전전시실, 중앙전시실, 소전시실, 미추홀실이 있으며, 인천시 미술작가 협회 전시가 주로 열림
		공립	미등록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2011)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남동소래아트홀 부설 전시실로, 기획 및 대관 전시가 주로 열림
	서구	공립	미등록	인천서구문화회관 아트갤러리 (1995)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서구문화회관의 부설 다목적 전시실
		공립	미등록	청라블루노바홀 전시장 (2021)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청라블루노바홀 내 부설 전시공간
	미추홀구	공립	미등록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 (1982)	(사)인천예총에서 위탁운영하는 인천수봉문화회관 부설 전시실
갤러리 및 기타 문화공간	동구	사립	미등록	스페이스 빔 (2002)	1995년부터 지역미술연구 진행 및 미술전문지 발간, 전시 기획 등의 활동을 해온 대안적 미술공간으로, 도시재생 관련 담론 형성 및 방향성을 연구함
	중구	사립	미등록	임시공간 (2016)	인천 원도심 개항장 문화지구 내 위치한 신생공간으로, 지역 시각예술 기획과 매개를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
		사립	미등록	잇다스페이스 (2015)	1920년대 소금 창고로 시작하여 1940년대 일본식 한증막, 1950년대 이후 서적이었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실험적인 전시와 공연을 개최함
		사립	미등록	프로젝트 신포 (2020)	원도심 신포동 거리에 문을 연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각예술 기반 전시를 기획하고, 대담, 예술창작스터디, 워크숍, 강연 등의 행사를 펼침
		사립	미등록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2018)	파라다이스재단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상설전시실과 대중성과 트렌드를 아우르는 특별전이 이루어지는 기획전시실로 구성됨
	남구	사립	미등록	공간 둠 (2014)	주안 신기시장 뒤편에 자리한 대안공간으로, 인천지역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 지역 미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함
	서구	사립	미등록	CoSMo40 (2018)	커피브라더스가 인천 가좌동의 코스모화학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킴. 1층은 전시장, 2-3층은 카페로 활용되고 있음

■ 인천시 미술인 현황 : 약 1천 명 이상의 미술인 존재 유추

- <2020 인천 문화지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의 문화예술인 수는 3,933명으로 광역시 평균(3,165명) 대비 약간 많음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기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인천 528명으로, 광역시 평균(728명) 대비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울산)
- 인천예총 소속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인천미술협회)’에 소속된 예술인은 현재 11개 분과 총 910명(2020년 12월 기준)이며, 인천민예총 소속 예술인은 총 171명(2017년 8월 기준), 인천문화큐아이큐에 등록된 시각예술분야 문화예술인은 238명(2021년 11월 기준)임
- 미등록 예술인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인은 1천 명 이상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II-8] 미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자 현황

구분	전체 예술활동증명자(A)	미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자(B)	미술 분야 예술활동증명자 비율 (B/A)(%)
서울	39,073	5,892	15.07
부산	6,653	1,752	26.33
인천	3,933	528	13.42
대구	2,757	612	22.19
광주	1,923	512	26.62
대전	2,331	584	25.05
울산	1,392	378	27.15
광역시 평균	3,165	728	23.00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2020년 11월 기준)

■ 인천시 문화예술 법인·단체 현황 : 광역시 평균 대비 적은 법인·단체 보유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에 따르면, 인천 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46개가 있으며, 이는 전국 전문예술법인·단체의 3.7%를 차지함
- 인천광역시의 전문예술법인 19개(사단법인 16개, 재단법인 3개), 전문예술단체(임의단체)는 2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광역시 평균(전문예술법인 32.1개, 전문예술단체 59.8개)보다 적은 수준임

[표 II-9] 지역 문화예술법인·단체 현황

구분	전문예술법인(A)	전문예술 단체(B)	합계(A+B)
서울	94	143	237
부산	39	86	125
인천	27	19	46
대구	20	71	91
광주	29	42	71
대전	15	33	48
울산	1	25	26
광역시 평균	32.1	59.8	92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

- 인천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중 지원기관으로는 ‘(재)인천문화재단’,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등이 있음. 2020년 연수구 ‘연수문화재단’이 출범 하였으며, 2022년이 남동구 ‘남동문화재단’이 출범 예정임
- 인천광역시의 시각 분야 전문예술법인은 ‘(사)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미술협회 강화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 서예협회 인천지회’ 5개가 있으며, 기타 분야 ‘인천민예총’에도 ‘미술위원회’에서도 시각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각 분야 전문예술단체는 ‘갤러리 진(眞)’, ‘국제미술진흥협회’,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인천수채화 협회’ 4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인천수채화협회’만 최근 활동이 확인됨
- 인천문화큐 아이큐에 따르면, 인천시 시각예술분야 문화예술단체는 89개로(2021년 11월 기준), 비지정·비공식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됨

[표 II-10] 인천시 주요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구분		법인·단체명 (설립연도)	시각예술 관련 주요 사업
전문예술법인	지원기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2004)	- 인천 연고 문화예술인 전시 지원 - 신진예술가 및 원로예술인 지원 - 인천미술활성화 사업: 인천 연고 작가 작품 구입, 대여, 전시 - 인천아트플랫폼, 우리미술관, 트라이보울 운영
		부평문화재단 (2006)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운영 - 시민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인천서구문화재단 (2018)	- 청라블루노비홀 전시장,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 서구예술단체(인) 활동지원
		연수문화재단 (2020)	- 연수구 시각예술활성화 사업 - 연수갤러리 등 문화공간 운영
		남동문화재단 (2022 출범예정)	
	시각예술분야 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1981)	- 향토 미술 및 민족 미술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 - 인천아트시즌(예술플리마켓 한마당),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인천아트페스타 등 인천광역시 내 미술행사 주최, 주관함
		(사)인천민예총 (1994)	- 진보적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실천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백범김구와 인천·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 시민 교양 프로그램 운영
		(사)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인천의 여성작가를 중심으로 인천의 브랜드화 및 여성미술에 대한 전시 주제 탐구 - 2004년부터 20011년까지 4회 개최된 바 있으나, 현재 개최되지 않고 있음
전문예술단체	인천민족미술인협회 (1994)	- 정기전 및 황해미술제 개최 - 기관지 <황해미술> 발간	
	인천수채화협회 (1980)	- 인천현대수채화제전 개최	

■ 인천시 주요 미술 행사 : 미술행사의 활발한 개최

- 2021년 기준 인천광역시 내 주요 미술행사는 ‘인천아시아아트쇼’, ‘2021 인천아트시즌’, ‘2021 인천아트페스티벌’ 등이 있음
-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대다수의 미술 행사는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인천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시의 대표 미술행사로는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국제여성미술비엔날레’, ‘황해미술제’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

[표 II-11] 인천시 주요 미술행사

행사명	주최	주관	개요 및 특징
인천아시아아트쇼 (IAAS)	(사)인천아시아아트쇼 조직위원회		인천에서 2021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문화 예술행사로서 한국 및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전세계 80여개국 작가 1천여명이 참여함
2021 인천아트시즌 (前인천미술한마당축제)	인천미술협회		2021 인천아트시즌 예술플리마켓 한마당 행사추진위원회
2021 인천아트페스티벌	(사)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가 2021년 진행한 행사로, 여성 미술의 울타리를 벗어 다양한 외연의 예술과 공조하고자 하였음. 60여명 작가가 참여함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인천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미술대회로,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우수작품을 전시·포상함
2019 인천해양국제 미술축전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인천해양 국제미술축전 운영위원회	2018년도까지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던 인천국제아트 페어, 전국공모인천미술대전, 인천미술청년작가전을 포괄하여 개최되는 행사임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광역시, 인천미술협회	인천국제 아트페어 운영위원회	2018년 기준, 6개 광역시 및 제주 예총과의 미술교류 전을 함께 개최하였으며, 국내 160여명의 작가의 작품 및 해외 5개국의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함
인천국제여성 미술비엔날레	(사)인천여성미술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2004년에 시작되어 2007년 세계 최초의 국제여성 미술비엔날레로 성장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 개최 되지 않고 있음
인천미술청년작가전	인천미술협회	인천미술 청년작가전 운영위원회	청년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원로작가들과의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임
황해미술제	인천민예총,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인천민족미술인협회	199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어온 인천 지역의 대표적 미술행사. 2019년 인천평화축제' 프레임에서 '평화로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9회 황해미술제를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음

2 인천시립미술관 조성 현황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인천뮤지엄파크 인천시립미술관
- 개관연도 : 2025년 12월 예정
-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구)OCI 본사 일원)
- 주요시설 : 전시공간, 수장공간, 교육공간, 사무연구공간 등
- 총사업비 : 2,014억 원



[표 II-12]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현황

구분		부지면적	시설연면적	규모	주요시설	사업비
뮤지엄	미술관	25,570㎡	14,982㎡	지하1 / 지상4	전시실, 수장고등	2,014억원 (국) 200 (시) 1,814 * 타당성조사 반영
	박물관		14,625㎡	지하1 / 지상4	전시실, 수장고등	
	주차장 및 공원		10,774㎡	지하2 주차장	지상 공원	
공원(조각)/공원(보존)구역		15,600㎡	1,802㎡	지상1(8개동)	갤러리, 미니박물관 등	
합계		41,170㎡	42,183㎡			

(참고) 인천시립미술관 시설기준면적표

비고	연면적	각 영역별 면적				
		전시공간	수장공간	교육공간	사무연구공간	공용공간
영역별 공간배분(㎡)	13,483.4 (4,078평)	4,125.80 (1,248평)	1,523.58 (460평)	1,146.06 (346평)	1,051.67 (318평)	5,636.29 (1,704평)
구성비(%)	100	30.6	11.3	8.5	7.8	41.8

2) 건립추진 경과 및 계획

구분	시기	내용
추진경과	2016. 11.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부지 기부채납 협약
	2017. 01.	• 인천뮤지엄파크조성 추진계획 수립
	2018. 10.	• 인천뮤지엄파크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9. 05.	•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문체부사전평가 통과
	2019. 11.	• 인천뮤지엄파크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9.12.	• 미술관 콘텐츠개발 학술용역 완료
	2020. 12.	• 행정안전부타당성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06.	• 행정안전부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조건부 승인 주요내용 : 적정 사업규모 재검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
	2021. 07.	• 시립미술관TF구성
	2021. 09.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계약 (~ '22. 4.) • 인천뮤지엄파크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 '22. 4.)
향후계획	2022. 상반기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국제설계 공모
	2022. 하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미술관 소장품 수집
	2025. 12.	• 개관 목표

3 인천시 소장품 관련 현황

1) 인천시청 미술품 관리대장

(1) 개 요

■ 분석개요

- 분석대상 : 인천시청 미술품관리대장(2021년 9월 17일)
- 작품부문 : 서양화, 서예, 한국화, 사진, 공예품, 조각, 도자기, 판화, 기타
- 구입방식 : 구입, 기증, 관리전환, 양여
- 총작품수 : 520점 + 40점(2020년 고정수 작가 기증작품) = 560점

■ 분석요약

- (작품구성) 서양화(25.71%), 서예(20.71%), 한국화(15.89%), 사진(15.71%) ... 순
- (취득방식) 기증(46.61%), 구입(38.39%), 관리전환(13.21%), 양여(1.79%) 순
 - 구입 우세 : 서양화(54.86%), 공예품(66.66%), 조각(65%), 도자기(83.33%)
 - 기증·관리전환·양여 우세 : 서예(68.11%), 한국화(75.28%), 사진(72.73%), 판화(75%), 기타(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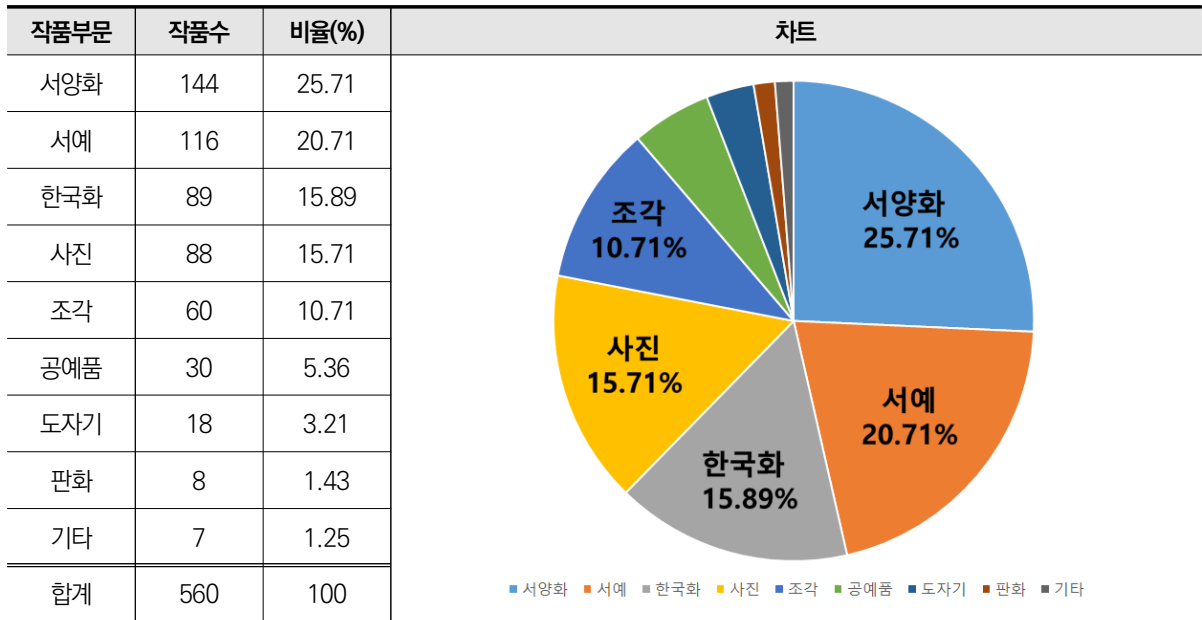
[표 II-13] 인천시청 미술품 현황 분석요약표

작품부문	구분				취득방식 비율		작품수 (%)
	구입	기증	관리전환	양여	구입	기증, 관리전환, 양여	
서양화	79	41	20	4	54.86%	45.14%	144 (25.71%)
공예품	20	9	1	0	66.66%	33.34%	30 (5.36%)
도자기	15	2	1	0	83.33%	16.367%	18 (3.21%)
서예	37	58	20	1	31.89%	68.11%	116 (20.71%)
한국화	22	41	22	4	24.72%	75.28%	89 (15.89%)
사진	24	54	10	0	27.27%	72.73%	88 (15.71%)
조각	13	46	0	1	23.34%	76.66%	60 (10.71%)
판화	2	6	0	0	25%	75%	8 (1.43%)
기타	3	4	0	0	42.86%	57.14%	7 (1.25%)
합계	215 (38.39%)	261 (46.61%)	74 (13.21%)	10 (1.79%)	38.39%	61.61%	560 (100%)

(2)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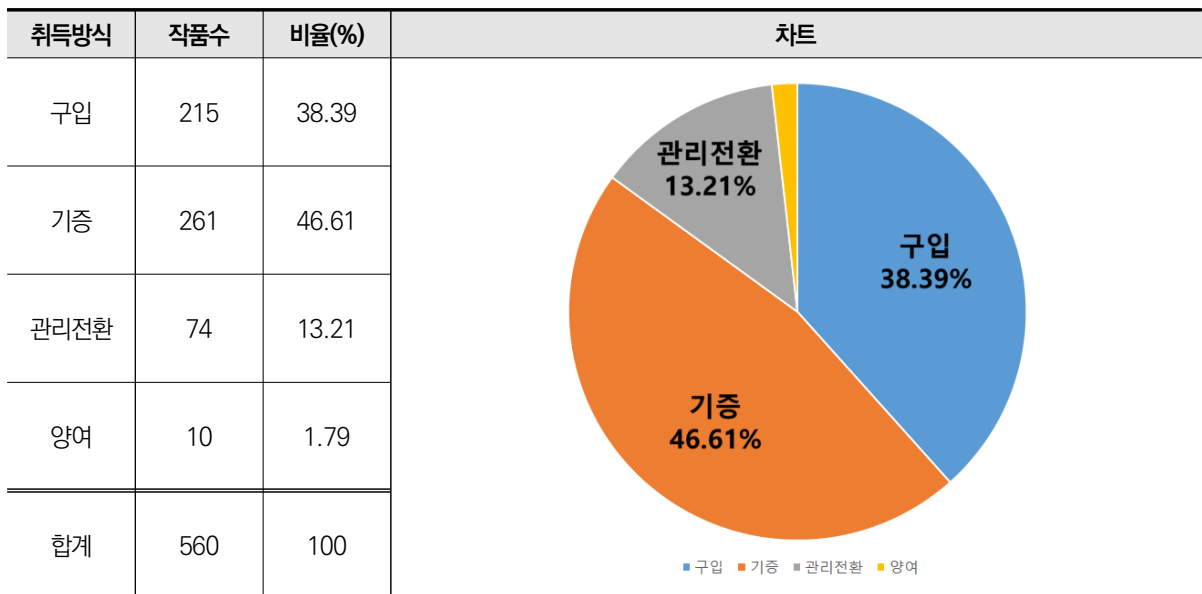
① 작품구성

－ 전체적으로 서양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예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음



② 취득방식

－ 전체적으로 기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입이 두 번째 비율로 나타남



2) 인천문화재단 보유 소장품

(1) 개요

■ 분석개요

- 분석대상 : 인천문화재단 소장 미술품 현황 (2021년 기준 : 인천시청 공유자료)
- 사업명 : 인천미술 활성화 기획지원사업 (인천 연고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미술품을 대여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인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
- 작품부문 : 서양화, 한국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판화, 공예, 서예, 드로잉판화, 만화, 기타
- 총 작품수 : 총 358점
- 취득방식 :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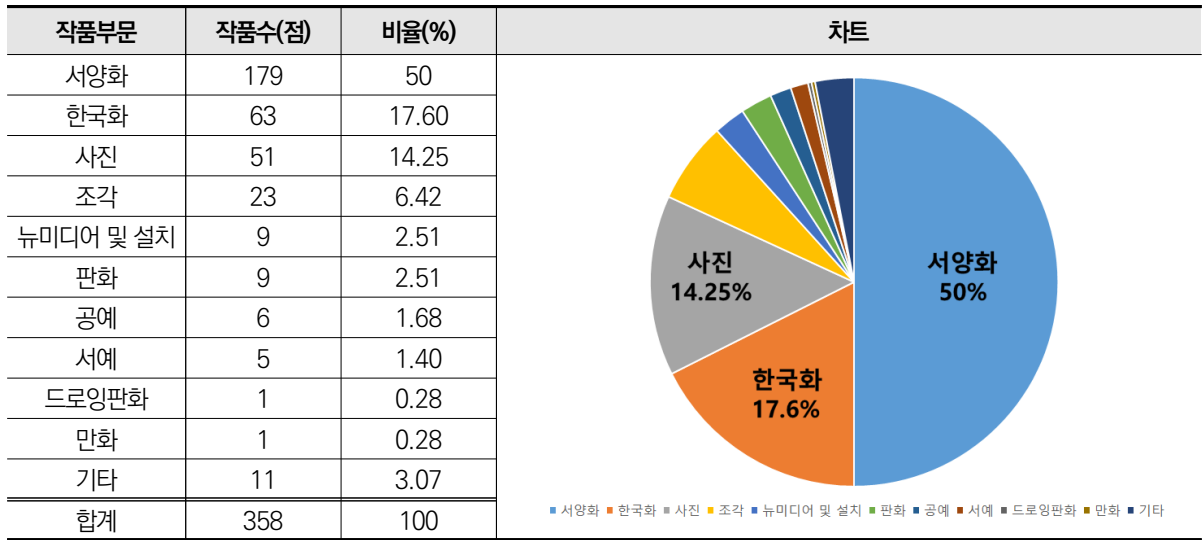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작가 본인 (모두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고의 작가 (인천 연고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천 활동자</td> <td>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작가(작업실 인천 소재 가능, 주소증빙) 또는 인천의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작가(활동 증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천 출신자</td> <td>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작가(주민등록 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증빙)</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인천 활동자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작가(작업실 인천 소재 가능, 주소증빙) 또는 인천의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작가(활동 증빙)	인천 출신자	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작가(주민등록 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증빙)
	구분	내용					
인천 활동자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작가(작업실 인천 소재 가능, 주소증빙) 또는 인천의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작가(활동 증빙)						
인천 출신자	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작가(주민등록 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창작 활동을 해 온 자 • 개인전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국제 비엔날레급 전시회 초청되어 전시한 적이 있는 자, 또는 기획전 or 그룹전 10회 이상(동일 작품 전시 제외)의 경력이 있는 자 							
작고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작가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 						

■ 분석요약

- (작품구성) 서양화(50%), 한국화(17.60%), 사진(14.25%), 조각(6.42%) ... 순
- (연도별 취득작품 추이) 2020년(37.99%), 2009년(10.62%), 2008년(6.98%)
 - 수집량이 가장 많은 시기 : 2020년 136점(37.99%)
 - 수집량이 가장 적은 시기 : 2011, 2015, 2016년 0점(0%)
- (작품 제작연도) '10년대(52.79%), '00년대(23.46%), '20년대(11.17%), 미상(8.94%) ..순
 - 2010년대 제작 작품이 52.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90년대 전 제작 작품은 1.3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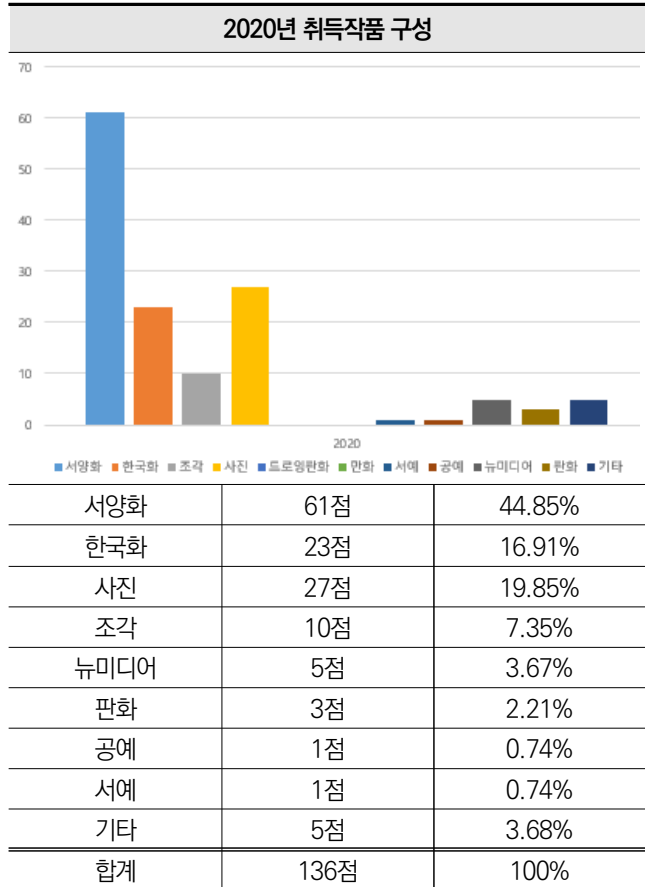
(2) 분석내용

① 작품구성



② 연도별 취득작품 추이

취득연도	작품수(점)	비율(%)
2005	14	3.91
2006	10	2.79
2007	15	4.19
2008	25	6.98
2009	38	10.62
2010	14	3.91
2011	0	0
2012	17	4.75
2013	17	4.75
2014	15	4.19
2015	0	0
2016	0	0
2017	15	4.19
2018	14	3.91
2019	15	4.19
2020	136	37.99
2021	13	3.63
합계	358	100



③ 작품 제작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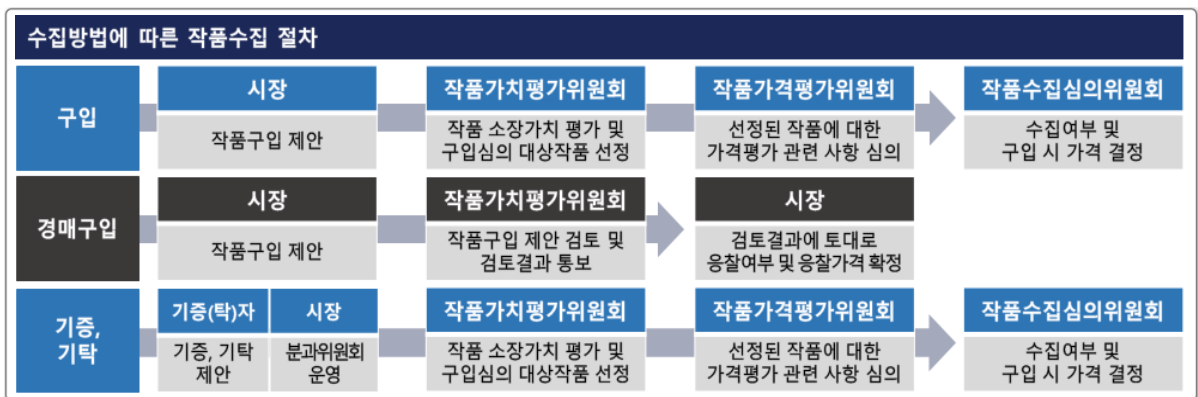
작품부문	제작연도범위	90년대 전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	미상	합계
서양화	1986 ~ 2021	2	4	52	90	17	14	179
한국화	1961 ~ 2020	1	0	13	35	9	5	63
사진	1993 ~ 2020	0	2	6	30	8	5	51
조각	1982 ~ 2020	1	1	5	9	4	3	23
뉴미디어 및 설치	2007 ~ 2019	0	0	2	7	0	0	9
판화	1999 ~ 2020	0	1	1	6	1	0	9
공예	1980 ~ 2017	1	0	2	2	0	1	5
서예	2008 ~ 2020	0	0	3	0	1	1	5
드로잉판화	미상	0	0	0	0	0	1	1
만화	미상	0	0	0	0	0	1	1
기타	2011 ~ 2019	0	0	0	10	0	1	11
합계		5 (1.39%)	8 (2.23%)	84 (23.46%)	189 (52.79%)	40 (11.17%)	32 (8.94%)	358 (100%)

3)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1) 수집주체 및 절차

■ 시장이 주체가 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품 수집

- 규정(2020년 6월 제정)에 따르면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의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으며,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집함



(2)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작품의 가치평가, 가격평가, 수집심으로 구분

- 인천시립미술관의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¹⁾가 존재함
- ‘가치평가위원회’는 작품수집의 소장가치 평가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가격평가위원회’는 가치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작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수집심의위원회’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수집 여부와 구입 시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표 II-14] 분과위원회 별 역할 및 구성

① 작품가치평가위원회	② 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③ 작품수집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수집의 소장가치 평가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작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3명 이상의 외부가격전문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수집여부와 구입 시 가격을 결정함 •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

1) 각 분과 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될 수 없음

(3) 수집대상 및 방법

■ 근·현대기 국내외 우수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관리전환을 통해 수집

- 인천시립미술관의 수집대상은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수집절차는 ‘구입’, ‘경매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따르며,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가 선정·평가한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함

[표 II-15] 작품 수집 방법

구분	내용
수집대상	•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
수집방법	• 수집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 ※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가 선정·평가한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함
경매구입	• 시장은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 ²⁾ 하고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응찰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결정함 • 경매를 통해 작품을 경매 구입하는 경우에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음

(4) 수집 부문

■ 평면, 입체, 부조, 미디어, 기타

-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의 [별지 제7호서식] 수집 작품 제안서에 따르면 작품 부문의 구분은 ‘평면’, ‘입체’, ‘부조’, ‘미디어’, ‘기타’ 총 5가지로 구분됨

[표 II-16] 인천시립미술관 수집작품 부문

구분	내용
평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입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부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매체미술, 뉴미디어 등
기타	-

2)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4 국내 미술관 소장품 관련 논의

(1) 소장품 정책 관련 칼럼

■ “한국 미술계의 소장품 경쟁력은 어디에?”³⁾

- (한국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현황) 한국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경쟁력은 ‘해외 선진 미술관에 비해 장르별 다양성이 낮고, 작품의 질적 수준 편차가 심한 상태이며, 각 미술관을 대표할 만한 소장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공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수립 필요) 국내미술관의 경우 건립 초기에 소장품 수집정책을 수립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그러나 소장품은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가시화함에 따라, 건립 단계에서부터 소장품 수집정책 수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립미술관의 법적 지위에 따른 한계: 직접 운영 한계) 공립미술관의 지자체 직접운영 체제 하에 관장과 학예실장은 공모로 선임되며, 근무 기간은 2~3년 단위로 최장 5년 이상 불가능. 이는 미술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작품을 찾고, 구입하려고 해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야기함
- (공립미술관 소장품 경쟁력 강화 방안) 공립미술관을 법인의 지위에서 전문가에게 미술관 운영과 방향 설정을 위임하여, 소장품 수집에서의 전문성 발휘 보장 필요. 단기적 차원에서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미션과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관장과 학예실장이 바뀌더라도 수집의 기본방향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그림 11-9] 박신의(2021), “한국 미술계의 소장품 경쟁력은 어디에?”

3) 박신의(2021), “한국 미술계의 소장품 경쟁력은 어디에?” <월간미술>, 2021년 9월호, 106-109.

(2) 미술관 심포지움

① 국립현대미술관(2018) -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 주 제 :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 일 자 : 2018년 11월 30일(금), 2018년 12월 1일(토)
-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
- 발제자 : 토니 베넷, 리사 호리카와, 장엽, 임산, 조앤 영, 테리 스미스, 스펀 백슈테테, 마르셀라 리스타, 에밀리 퓨, 장선희, 오인환, 베릴 그레이엄
- 내 용 :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가’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로 ‘수집’을 다룬. 우리와 다른 인종 혹은 문화권에 속하며 다소 소외되어 왔던 ‘타자’와 ‘현대미술의 매체와 형식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이슈에 중점을 둔

[표 II-17] 국립현대미술관 심포지움 내용

구분	주제	발표자
(1부) 미술관과 타자의 수집 : 후기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재수집, 재분류, 재배열: 토착 미술과 동시대 호주 미술	토니 베넷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교수)
	미술관 ‘수집’의 개념적 원류와 동시대 ‘타자성’의 수용	임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국립현대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과장)
	글로벌 코리아, 다문화주의와 타자성에 대한 담론: 코스모폴리타니즘과 현대미술 전시	크리스티나 지에지츠 라이트 (미술관학 연구자)
	중심과 타자의 경계를 흔들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축 및 큐레토리얼 전략	리사 호리카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소장품을 재보정하며: 구겐하임 UBS MAP 세계 미술 계획	조앤 영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학예실장)
(2부) 미술관 수집의 전략과 재매개: 다시 쓰는 미술-역사, 디지털휴머니티, 작품의 운명	포스트모던의 실천: 타자 재현의 딜레마, 그 딜레마의 재현	양효실 (미학자)
	수집, 왜 지금이 중요하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근현대 미술관의 과제	테리 스미스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헬로 월드: 소장품 재검토하기》전에 대하여	스벤 백슈테테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아카이브가 형식이 될 때: 소장품, 정보, 접근	에밀리 퓨 (게티연구소 디지털휴머니티 전문가, 미술사학자)
	새로운 물질성과 새로운 소장: 뉴미디어 아트 이후 전시와 관객의 미래	베릴 그레이엄 (선덜랜드 대학교 교수)
	작품의 삶과 죽음	장선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지속 가능한 미술 실천을 위하여	오인환 (서울대학교 교수)	

■ (1부) 미술관과 타자의 수집

- **(큐레이팅의 목적)**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Ulrich Obrist)는 “큐레이팅의 목적은 연결 고리를 만들고 서로 다른 요소들이 맞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음. 이에 다른 집단들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며 다른 가치, 관습, 관점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요구됨
- **(동시대 미술관 수집의 특징)** 미술관의 수집 방향은 당대의 예술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서 수행되는 예술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음. 이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사물 수집을 행하는 미술관의 본령을 드러내는 현대적 방식으로, 동시대에 공유되는 예술적 가치, 소망, 사회 내 다채로운 열정 등을 향한 제도로서의 입장과 관심사를 공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됨
- **(타자의 수용)** 미술관에서의 타자는 상호 주체적인 교환의 과정을 통해 관계적인 미적 실천으로 검토되어야 함. 미술관은 사회적 타자, 소수자 예술가·연구자·활동가 그룹과의 관계 아래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체험과 이슈를 맥락화하는 큐레토리얼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타자성에 대한 성찰을 보다 사회화할 수 있는 수집의 실천들을 다양한 타자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타자의 존재를 단순히 재현이나 재해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실천으로 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양한 공동체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부) 미술관 수집의 전략과 재매개

- **(공공논의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미술관은 시대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공공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함. 이와 같은 시민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소장품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필요)** 미술관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의 증가하는 규모로 인해, 자료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데이터 및 문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가 됨
- **(뉴미디어아트 소장)** 작품의 고유 특성뿐만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시스템 전반의 이해를 전제로 접근해야 함. 뉴미디어아트의 소장에 관한 접근은 ‘소장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기록화’ 3개의 요소가 상호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타자의 수용 :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소장품 구축 및 큐레토리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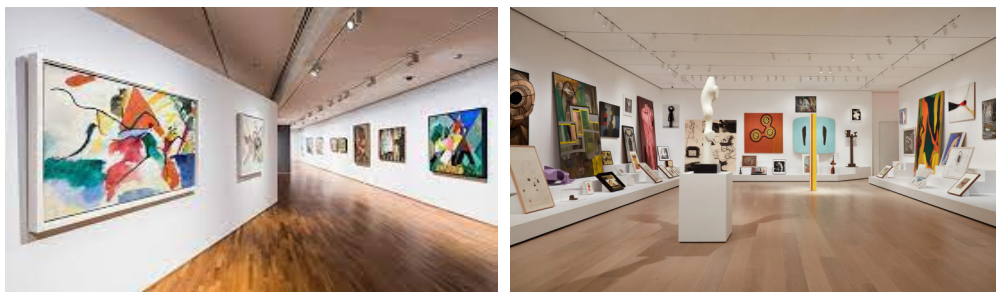
- (타자를 포용해온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의 미술관들의 소장품 구축에서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중심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음. 싱가포르가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두고 초국가적인 소장품을 구축해온 것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국립 미술관들과 비교해서도 특이한 면으로 간주됨(대다수의 국립미술관은 주로 해당 국가의 미술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 따라서 자아와 타자를 규정하는 기준을 민족성과 국적으로 본다면, 싱가포르의 제도권 미술기관은 그 소장 활동에서 항상 ‘타자’를 포용해왔다고 볼 수 있음
- (큐레토리얼 전략)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은 세 갈래의 큐레토리얼 비전을 그려왔음.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미술사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사적인 결과로서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미술사를 (다시)쓰며, 이러한 미술사를 세계 미술의 역사와 연관지어 검토함

[표 II-18]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큐레토리얼 전략

No.	전략
1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미술사 제시
2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미술사 (다시)쓰기
3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미술사를 세계 미술의 역사와 연관지어 검토하기

사례 :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 〈모더니즘의 재구성: 동남아시아, 유럽, 그 너머의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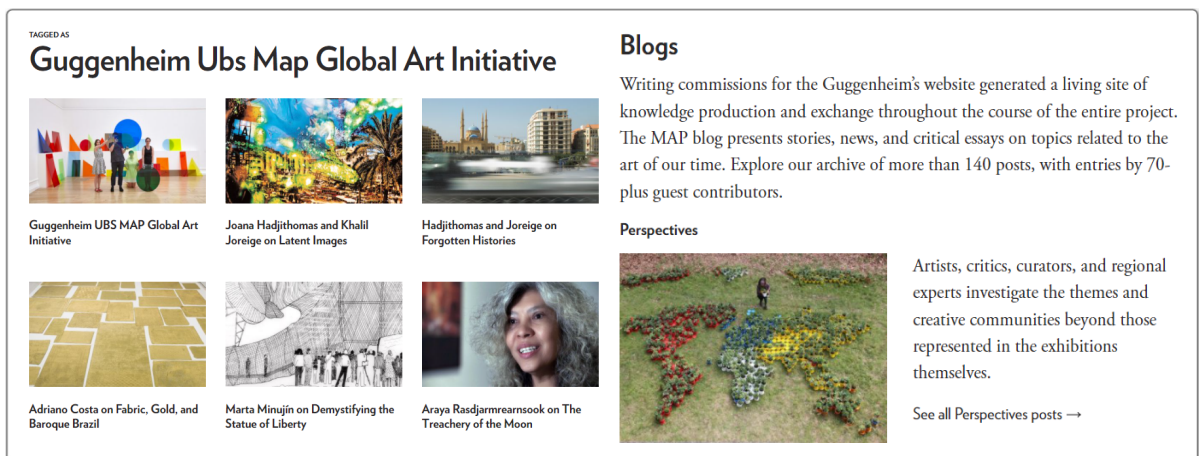
- 본 사례는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이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의 미술사를 세계 미술의 역사와 연관지어 검토하는 방식을 전시를 통해 보여줌
-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은 2016년 개관전에서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모더니즘의 재구성: 동남아시아, 유럽, 그 너머의 회화〉를 개최함
- 미술사에서는 주로 서구 모더니즘이 다른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설명하며, 선형적으로 진행된 미술운동으로 서술하여, 암시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타 지역에서 모더니즘의 양식으로 작업하던 작가들이 파생적이며 모방적임을 암시함
- 이를 고려하여 해당 전시에서는 작가 개개인의 작업에 초점을 두었음. 양식의 진행을 다루는 연대기적 서사나 관습적인 서사를 따르지 않았으며, 작가별로 가장 중요한 시기나 발전을 나타내는 작품군을 선정하여 소개하면서, 작품 중심으로 접근함
- 모더니즘에 대한 작가들의 공통적인 접근법, 작업 방식과 개념적인 지향을 바탕으로 작가의 작품군을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네트워크 같은 구조로 연결시켜 전체 전시회를 구성함



[그림 II-10] 모더니즘의 재구성: 동남아시아, 유럽, 그 너머의 회화

● (참고) 타자의 수용 : 구겐하임 UBS MAP 세계 미술 계획

- (유럽, 북미 너머의 미술 탐구) 2012년 시작된 구겐하임 UBS MAP 세계 미술계획(Guggenheim UBS MAP Global Art Initiative, 이하 MAP)은 UBS 투자는행이 지원해 다년간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소장품에서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세 지역군인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또는 서아시아)과 북아프리카’의 작가, 기획자, 교육자들을 끌어들이으로써 유럽과 북미 너머의 미술을 탐구를 전개하고 있음
-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구겐하임은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함께할 문화 실천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MAP 기획자로 ‘준 얍(June Yap)’, 파블로 레온델라바라(Pablo Leon de la Barra), ‘사라 라자(Sara Raza)’를 선발함. 이들은 오늘날 가장 유효하다고 느껴지는 주제와 실천을 결정하고, 소장할 작품 선정 및 미술관의 서사를 확장시킬 전시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함
- (수집과 전시) MAP을 통해 33개국 출신의 작가 898명의 작품 126점이 소장품에 추가되면서, 이전과 비교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작가는 57%, 라틴 아메리카 작가는 27%,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작가가 18% 증가함. MAP을 계기로 추가된 작가와 작품들은 보다 포용적이고 복합적인 미술사의 초상을 그려내고, 오늘날 전 세계 작가들이 보여 준 양식, 제작, 그리고 긴급한 관념들을 시의적절하게 전시를 통해 재현하면서 이미 소장품의 곁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구겐하임은 MAP을 진행하며 소장품을 연구하고 확장하기 위한 협동적 노력을 지지하는 토대를 고안하였음. 여기에는 기획자 체류 프로그램, 소장품 구매, 전시, 공공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으로 도출된 결과를 배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결부됨. MAP과 관련된 소식과 작품, 작가 정보를 종합한 일종의 허브로 디자인된 MAP 웹 사이트는 사용자가 잡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전 세계 관객들로 배움과 참여의 기회를 확장하는 이 사이트는 공공 프로그램을 기록한 135편의 영상을 제공하고, 동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몇몇 문화실천과 지적 담론을 꿰뚫는 통찰을 공유함



[그림 II-11] 구겐하임 UBS MAP 세계 미술계획 웹사이트

② 서울시립미술관 – SeMA Agenda 2020 ‘수집’

- 주 제 :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 일 자 : 2020년 7월 24일(금) ~ 7월 25일(토)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온라인 생중계)
- 발제자 : 김아영, 임근준, 양지연, 박소현, 김홍석·김신록, 곽영빈, 유운성, 박상애, 박경신
- 내 용 :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모두의 소장품 : 소유에서 공유로’ 및 ‘미래의 소장품 : 유물에서 비트(bit)로’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SeMA 소장품의 진취적인 미래를 타진하고 향후 국공립미술관의 소장제도 개선과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함

[표 II-19] 서울시립미술관 심포지엄 내용

구분	주제	발표자
(1부) 모두의 소장품 : 소유에서 공유로	복합적 동시대성을 구현하는 미술관과 소장품	김아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현대미술관의 소장품과 역사 선점의 헤게모니 : 한국 국공립미술관 소장품의 존재 의의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임근준 (미술·디자인 이론/역사연구자)
	미술관 수집 패러다임의 변화와 수집 제도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미술관 민주주의와 ‘비-관람객’/‘배제된 자들’의 목소리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부) 미래의 소장품 : 유물에서 비트로	미술관의 폐허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넘어서 : 온라인 이주 시대의 소장, 보존과 전시	곽영빈 (미술평론가)
	영상 작품의 비물질적 소장에 관하여	유운성 (영화평론가)
	플랫폼의 확장, 미래 미술관 경험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미래의 소장품 : 법 제도적 준비	박경신 (아트로센터 디렉터)



[그림 II-12] SeMA Agenda 2020 ‘수집’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 (1부) 모두의 소장품 : 소유에서 공유로

- (소장품 수집 패러다임 변화) 소장품 수집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현재를 진단하고, 수집 제도와 소장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 더불어 소장품으로의 접근성 평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관람객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자들의 목소리를 포용하고자 하는 논의를 화두로 삼음
- (공모 수집방식의 한계: 내부추천제 강화 필요) 공모 수집 방식은 소장품 차별성을 약화하는 한계 내재. 전문인력에 의한 내부 추천제 강화 등 수집 제도의 개선과 소장품의 재해석을 통해 미술관마다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수집을 통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구현) 수집은 “의미와 가치 생산의 문화적 과정”이기에,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구현하도록 다양한 공동체간의 협력 등 미래지향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미래지향적 수집의 지향점) 구미의 가치평가 기준의 관점을 재설정하고, 한국이라는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범아시아를 포괄하며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 형성이 요구됨

■ (2부) 미래의 소장품 : 유물에서 비트로

- (새로운 소장 개념의 등장) ‘미래의 소장품: 유물에서 비트로’를 소주제로, 비물질적인 작품의 수집, 보존, 전시, 활용에 관한 논쟁과 새로운 소장 방식의 제안, 법적 쟁점 등을 논의함
- (미디어아트와 수집·관리) 미디어아트는 가변적이므로, 작품에 관한 기록과 문서화(documentation)는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소임. 따라서 미래 미술관의 방향으로 정보와 경험의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미술관을 제안함
- (단체널 영상 작품의 보존과 소장) 단체널 영상 작품들의 보존 및 소장 방식으로, 영상을 다수의 플랫폼에 퍼뜨리고, 작품의 소장권리만을 미술관에서 지니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저작권법 문제 제기) 비물질성 기반 작업은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③ 경기도미술관(2021) - 미술관 수집의 새로운 표준 불러오기

- 주 제 : 미술관 수집의 새로운 표준 불러오기
- 일 자 : 2021년 11월 23일(화)
- 발표자 : 김정현, 김종길, 안소연, 양지연, 유원준, 현시원
- 질의자 : 구정화, 김계원, 김재리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유튜브(온라인 생중계)
- 내 용 : 경기도미술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미술관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본 심포지엄은 경기도미술관의 향후 3년간 중단기 단계별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미술관의 수집과 관리’를 의제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소장품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를 살펴봄

[표 II-20] 2021 경기도미술관 심포지엄 내용

내용	발표자
미술관 소장품 수집과 보존의 기준과 미래 방향	양지연 (동덕여대 교수)
경기 아트아카이브 연구와 전시 - 신문 스크랩에서 아카이브북까지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수석큐레이터)
미술관의 얼굴;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활용	현시원 (시청각 공동디렉터, 독립큐레이터)
확장된 장에서의 조각 이후 조각에 대한 재인식	안소연 (미술비평가)
퍼포먼스와 미술관의 소장	김정현 (미술비평가)
거울 세계 속 미술관, 수집 및 보존·복원의 문제들: '이주(migration)'와 '대행(emulation)'을 중심으로	유원준 (영남대 교수)



[그림 II-13] 미술관 수집의 새로운 표준 불러오기

■ 미술관 소장품의 미래 방향

- (미술관 소장품과 정체성) 미술관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 구축과 가시화 방식에 직결됨
- (지속가능한 컬렉션 : 선순환 구조) 최근 소장품의 활용과 접근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구-수집-문서화-보존의 유기적 연계성과 선순환의 중요성이 높아짐. 소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재해석을 통해 역동적인 행위로서의 수집이 강조됨
- (소장품 정책 수립 체계화) 소장품 정책은 수집 및 선별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동해야 함. 소장품 정책에 근거한 증장기 수집계획,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함
- (소장품의 활용 가치 확대) 소장품의 활용 가치를 고려한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며, 소장품 활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람객 주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재로서의 소장품 개념이 중요해 짐
- (소장품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소장품의 수집, 문서화, 보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온라인 관람객의 경험 관리와 디지털 소장품의 경험은 무엇이 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미술관의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가치 강조) 아카이브가 보조자료에서 연구의 실질적 실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미술관의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위한 실천을 앞으로의 과제로 강조함

■ 퍼포먼스와 미술관의 소장

- (퍼포먼스의 소장) 수집 시 명확한 선택과 결정을 통해 특정한 작품을 규정하고, 재상연 가능성을 고민해야 함
- (퍼포먼스의 가변성 수용) 라이브 아트의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특성으로 물질적 상황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없는 불완전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수용해야 함

■ 뉴미디어아트와 가상미술관

- (뉴미디어아트의 보존과 복원) 뉴미디어아트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 ‘저장-이주-대행-재해석’의 과정, ‘작품의 소유권 설정’ 등의 문제를 제기함
- (가상미술관의 수집과 보존 및 복원) 최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온라인 가상공간의 형태로 미술관의 장소성이 변화함에 따른 작품 수집, 보존 복원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5 분석결과

(1) 인천시 환경분석 결과

① 역사·지리적 특성

■ 국제교류에 기반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내재한 인천광역시

- 인천은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음
- 또한, 인천은 개항과 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외국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 살았던 문화 다양성의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
-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도시로, 한반도에서 육지 및 해상교통의 거점 구실과 동시에, 높은 서울과의 접근성,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항공교통의 발달로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 또한 열려있음
- 뿐만 아니라, 인천은 남북분단의 역사와 함께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점을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도시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마련하며 대북 교류 거점이자, 대한민국 관문도시에서 한반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마련해가고 있음

② 인구적 특성

■ 지역 구성원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필요

- 인천시의 고령인구는 증가한 반면, 유소년 인구는 감소함. 인천시 다문화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다문화가구 증감율 또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보유한 사회 구성원이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요함

③ 교육·문화적 특성

■ 인천미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미술인 교육, 지역작가 발굴 및 지원 필요

- 인천 내 문화예술 관련 대학 정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예술인 교육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0년 11월 기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인천 528명으로, 광역시 평균(728명) 대비 다소 낮으며, 전체 문화예술인 대비 미술 분야 예술인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음. 그러나 미등록 예술인을 고려할 때, 지역 미술인 발굴을 통한 예술인 지원에 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2) 인천시 소장품 관련 현황분석 결과

■ 인천시청의 소장품 수집·관리 체계성 부족으로 인한 개선된 기준 마련 필요

- 인천시청은 기증(46.61%)을 중심으로 작품 수집이 이루어져 왔으며, 작품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특히 작가 및 작품 제작연도에 관한 정보가 일체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시 소장품 등록 및 기술지침의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표 II-21] 인천시청, 인천문화재단 소장품 현황 분석결과

구분	인천시청	인천문화재단
총작품수	560점	358점
수집방법	기증(46.61%), 구입(38.39%) ...	구입(100%)
인천연고	n.d. (일체의 자료 부재, 별도 확인 필요)	인천 연고 작가에 한정 (인천 활동자 or 출신자)
제작연도	n.d. (일체의 자료 부재, 별도 확인 필요)	2010년대(52.79%), 2000년대(23.46%) ...
작품구성	서양화(25.71%), 서예(20.71%), 한국화(15.89%) ...	서양화(50%), 한국화(17.6%), 사진(14.25%) ...

(3) 국내 미술관 소장품 관련 논의

■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내 미술관은 공모제를 통한 수집방식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으며, ‘내부추천제’와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수집방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뉴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장품 수집, 보존, 관리,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소장품 수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나아가 국공립 미술관은 체계적인 소장품 정책 구축을 통해 소장품에 기반한 미술관의 차별화된 정체성 구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CHAPTER

III

소장품 정책 기초

1. 국내외 미술관 사례분석
2. 인천미술의 역사 및 지역성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III 소장품 정책 기초

1 국내외 미술관 사례분석

1) 개요

- 분석대상 : 국내 광역단위 공립미술관 및 소장품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국외 미술관
- 분석목표 : 국내 공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방향 및 국외 미술관 및 관련 기관의 소장품 정책 내용 구성 및 특징 파악

[표 III-1] 국내 광역 단위 공립미술관 소장품 주요 현황

설립연도	미술관 명	비전	소장품 수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취득방식 비율
1988	서울시립미술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5,277점	구분 없음	구입(66.34%), 기증(33.46%)
1922	광주시립미술관	도시감성을 풍요롭게, 상상력이 넘치는 미술관	5,266점	광주·전남 작가 (65.4%)	구입(21.29%), 기증(75.30%)
1998	대전시립미술관	-	1,302점	대전작가 (57.7%)	구입(38.48%), 기증(53.69%)
	부산시립미술관	사람을 잇고 가치를 담는 21세기 미술관	2,940점	부산 작가 (52.90%)	구입(31.20%), 기증(68.80%)
2004	전북도립미술관	-	1,821점	전북 작가 (60%)	구입(46.05%), 기증(51.38%)
	경남도립미술관	-	1,224점	경남 작가 (58%)	구입(36.37%), 기증(57.87%)
2006	경기도미술관	지역을 잇고, 함께 공유하는 모두의 미술관	669점	구분 없음	구입(79.67%), 기증(18.08%)
2009	제주도립미술관	-	889점	제주 작가 (57%)	구입(42.62%), 기증(41.07%)
2011	대구미술관	대구와 세계, 현재와 미래를 품는 대구미술관	1,790점	대구·경북 작가 (51.46%)	구입(29.61%), 기증(68.44%)

[표 III-2] 국외미술관 및 관련기관 소장품 정책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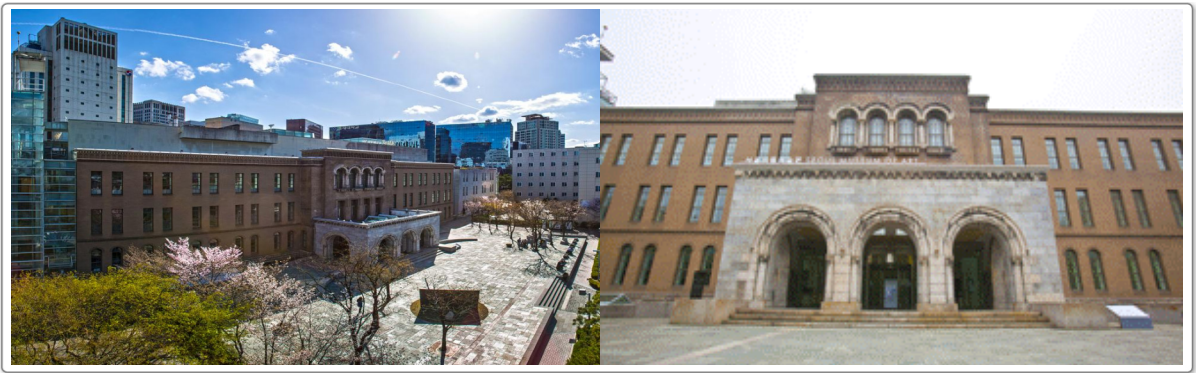
설립연도	미술관명	미션	정책명
1929	뉴욕현대미술관	다양한 지역, 국가 및 국제 관객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 장려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1937	구겐하임재단	근현대미술을 수집·보존·해석하고, 전시와 출판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 단위의 관객 참여 확대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1953	폴 게티 미술관	시각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시민사회를 증진	Collection Policy
1852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세계 최고의 미술·디자인·공연 뮤지엄으로 인정받고, 연구와 지식을 많은 관객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삶의 풍요에 기여	① 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② Collections Care and Conservation Policy ③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④ Collections Information and Access Policy

2) 국내 미술관

(1) 서울시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1988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61
- 관장명 : 백지숙
- 운영방향 :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 규모 : 연면적 13,433㎡(상설전시실 : 578㎡, 기획전시실 : 2,678㎡, 수장고 : 870㎡)
- 소장품수 : 5,277점



[그림 Ⅲ-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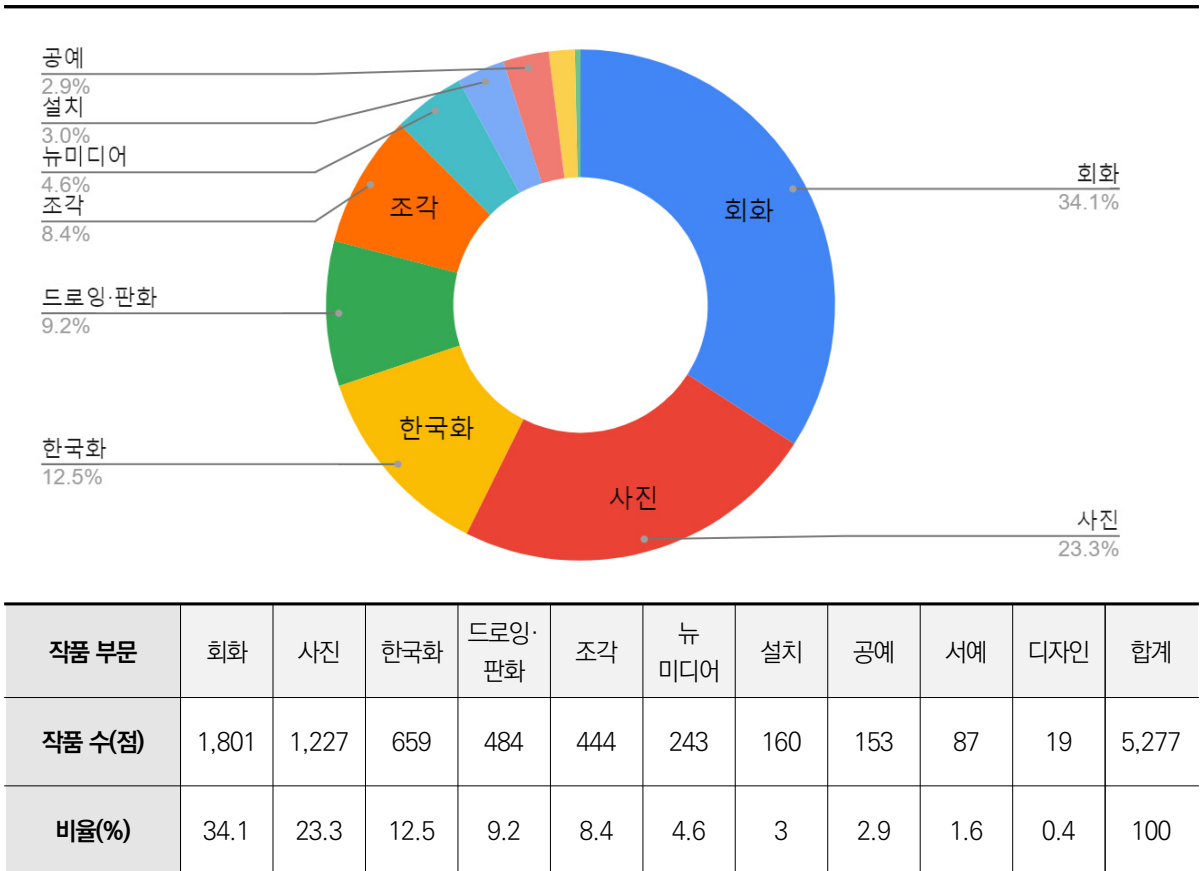
- **(운영목표)**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기억을 짓고, 뜻깊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일구는 미래를 상상함. 서울 전역의 각 분관들이 시대와 미술의 변화에 조응해 교차하고, 서로를 채우고, 성장하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지향함
- **(핵심방향)** 서울시립미술관은 관객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대중성이 균형을 이루고 둘째, 현실적 사회적인 의제들이 전시와 교육 등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녹아들게 하고 셋째,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함께할 수 있는 미술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함. 이처럼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사회교육의 현장이자 문화예술 보급의 발신처가 되고자 함
- **(소장품 구성)** 회화 1,801점(34%), 사진 1,227점(23%), 한국화 659점(12%), 드로잉·판화 484점(9%), 조각 444점(8%), 뉴미디어 243점(5%), 설치 160점(3%), 공예 153점(3%), 서예 87점(2%), 디자인 19점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 3,501점(66.34%), 기증 1,766점(33.46%), 관리전환 10점(0.2%)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서울시립미술관 2021년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소장품은 총 5,277점으로 부문별 구성은 회화 1,801점(34%), 사진 1,227점(23%), 한국화 659점(12%), 드로잉·판화 484점(9%), 조각 444점(8%), 뉴미디어 243점(5%), 설치 160점(3%), 공예 153점(3%), 서예 87점(2%), 디자인 19점 순으로 나타남
- ‘디자인’은 최근 2018년부터 분류되었고, ‘건축’의 경우 공식적 연보나 소장품 연구집 등의 기록에는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음

[표 III-3]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출처: 2021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 지역작가 비율

- 서울시립미술관은 수도권을 포함한 한국의 미술 전반에 걸쳐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구분이 없이 수집하고 있음

(2) 광주시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1992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하서로 52
- 관장명 : 전승보
- 비전 : 도시감성을 풍요롭게, 상상력이 넘치는 미술관
- 설립목적 : 국내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 및 시민을 위한 종합예술공간으로써 문화향유 제공
- 규모 : 연면적 13,329㎡ (전시실 : 2,921㎡, 수장고 : 1,408㎡)
- 소장품수 : 5,266점



[그림 III-2]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전경



[그림 III-3] 광주시립미술관 내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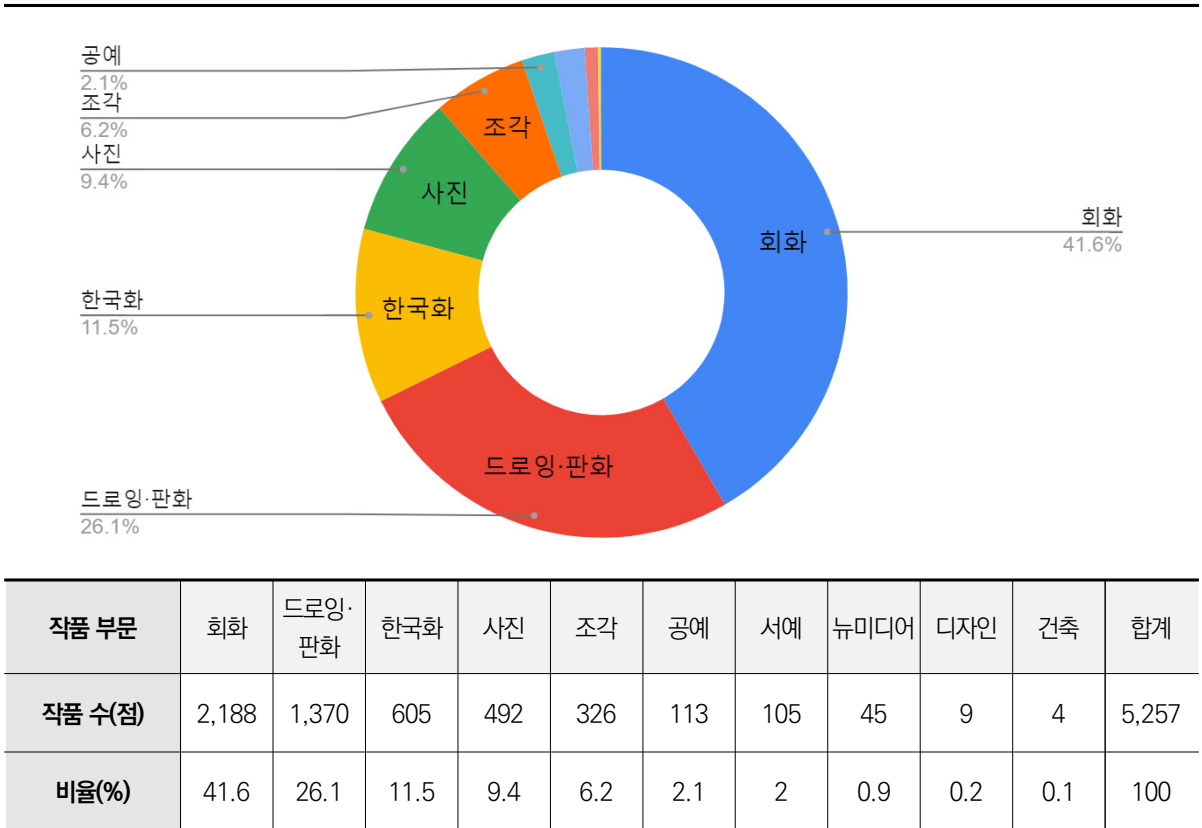
- **(운영목표)** 남도 지역의 미술적 특징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접근과 관계 유지 도모하고자 함
- **(수집방향)** 지역 미술의 주요한 작품들을 조사, 수집, 연구 및 보존함으로써 미술사를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이 담긴 작품들과 남도 미술의 원류인 남종화 분야 등 지역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수집함
- **(소장품 구성)**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연고를 둔 허백련과 오지호, 양수아, 임직순 등 유명 작고작가 작품으로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약 560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음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21.29%), 기증(75.30%), 관리전환(3.21%), 기탁(0.20%)
- **(지역작가 비율)** 광주·전남작가(65.4%), 그 외 국내(16.5%), 국외(18.1%)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의 부문별 구성은 회화 2,188점(42%), 드로잉·판화 1,370점(26%), 한국화 605점(12%), 사진 492점(9%), 조각 326점(6%), 공예 113점(2%), 서예 105점(2%), 뉴미디어 45점(1%), 디자인 9점, 건축 4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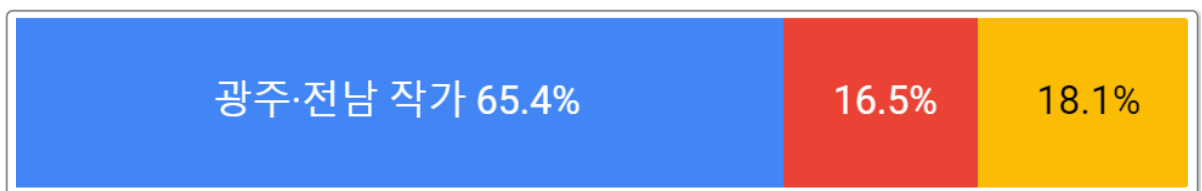
[표 III-4]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출처: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08.)

■ 지역작가 비율

- 광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광주·지역작가 비율은 65.4%, 그 외 국내 작가는 16.5%, 국외 작가 18.1%로 나타남(신소연, 2021)



[그림 III-4] 광주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3) 대전시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1998년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
- 관장명 : 선승혜
- 운영방향 : 대전의 지역 미술사를 정립, 다양한 미술로 시민을 초연결, 과학과 미술의 융복합의 문화기반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 규모 : 연면적 8,427㎡ (상설전시실 : 608㎡, 기획전시실 : 2,346㎡, 수장고 : 726㎡)
 ※ 개방형 수장고(연면적 2,654㎡) 건립공사 진행 중 ('18년 3월부터 '22년 3월까지)
- 소장품수 : 1,302점



[그림 III-5] 대전시립미술관 본관 전경



[그림 III-6] 대전시립미술관 본관 내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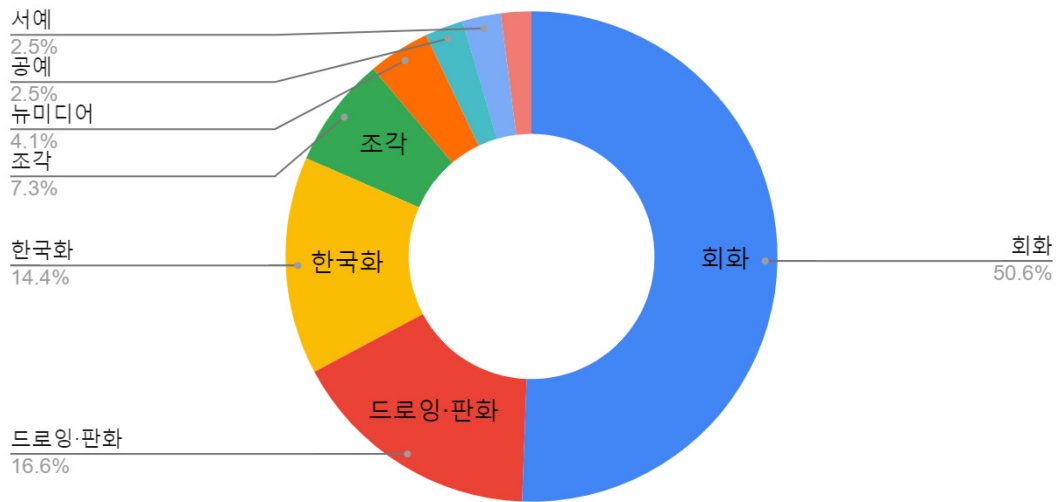
- **(운영목표)** 대전의 지역미술을 일구어 예술가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역문화로 한국미술의 기초가 되고자 함. 동시에 대전의 강점인 대덕연구특구와 협업하여 미술-과학의 융복합의 거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방향)** 대전 미술의 연구·조사·전시 중심기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조망하는 현대미술관, 과학도시 대전의 특수성을 접목한 미디어·디지털 아트를 선도하는 전시 개최, 해외미술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연구·전시로 한국미술의 발전에 기여, 시민과 미술이 융화하여 미술문화를 가꾸고 향유하는 문화공간 추구
- **(소장품 구성)** 회화 659점(51%), 드로잉·판화 216점(17%), 한국화 187점(14%), 95점(7%), 뉴미디어 53점(4%), 공예 33점(3%), 서예 33점(3%), 사진 26점(2%)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38.48%), 기증(53.69%), 관리전환(7.84%)
- **(지역작가 비율)** 대전작가(57.7%), 그 외 국내(23.8%), 국외(18.5%)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의 부문별 구성은 회화가 659점(51%)로 전체 소장품(1,302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드로잉·판화 216점(17%), 한국화 187점(14%), 95점(7%), 뉴미디어 53점(4%), 공예 33점(3%), 서예 33점(3%), 사진 26점(2%) 순으로 분포하였고 공예, 서예는 3%대로 비슷하게 수집됨

[표 III-5]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9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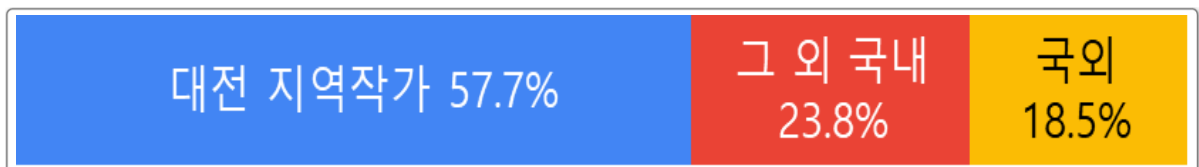


작품 부문	회화	드로잉·판화	한국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서예	사진	합계
작품 수(점)	659	216	187	95	53	33	33	26	1,302
비율(%)	50.6	16.6	14.4	7.3	4.1	2.5	2.5	2	100

출처: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01.)

■ 지역작가 비율

- 대전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대전 지역작가 비율은 57.7%, 그 외 국내 작가는 23.8%, 국외 작가 18.5%로 나타남(신소연, 2021)



[그림 III-7] 대전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4) 부산시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1998년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58
- 관장명 : 기혜경
- 비전 : 사람을 잇고 가치를 담는 21세기 미술관
- 전략 : 시간을 넘어선 지속성, 기대를 넘어선 경험, 경계를 넘어선 관계
- 규모 : 연면적 22,826㎡ (상설전시실: 1,151㎡, 기획전시실: 6,414㎡, 수장고, 2,312㎡)
- 소장품수 : 2,940점



[그림 III-8] 부산시립미술관 전경



[그림 III-9] 내 손안의 미술관 (언택트 콘텐츠)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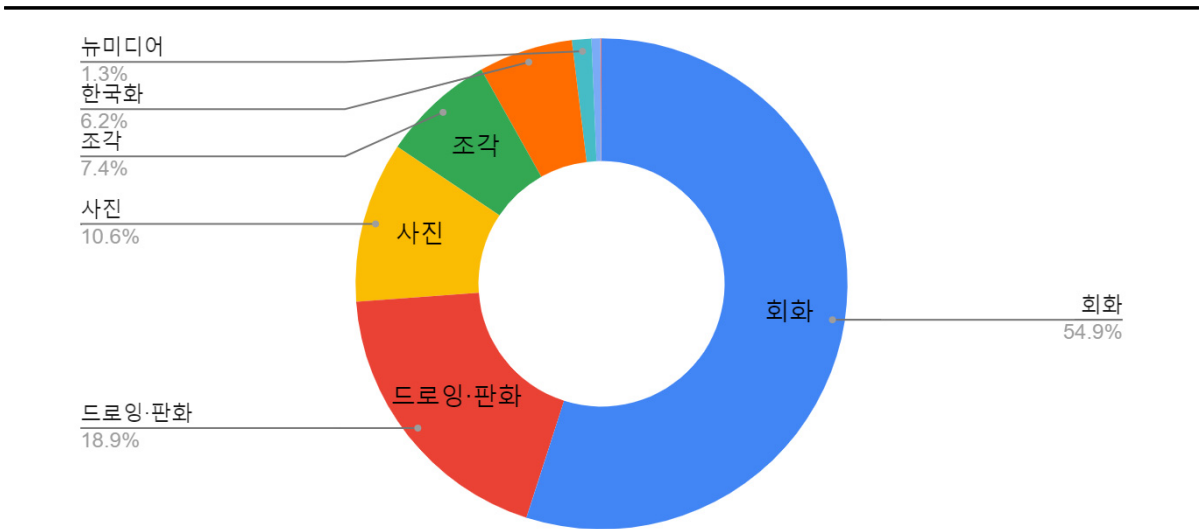
- **(운영목표)** 부산시립미술관은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의 해양 수도에 걸맞는 특색 있는 미술 문화의 제공으로 미술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핵심방향)** 특히 부산시립미술관은 관객들의 행동 양상과 미술관에 대한 기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통해 미술관의 환경개선은 물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스마트 미술관 구축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며, 부산이 가진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소장품 구성)** 회화 1,615점(54.93%), 드로잉·판화 556점(18.91%), 사진 311점(10.58%), 조각 219점(7.45%), 한국화 182점(6.19%) ...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31.21%), 기증(67.73%), 관리전환(1.06%)
- **(지역작가 비율)** 부산작가(52.9%), 그 외 국내(26.4%), 국외(20.7%)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의 부문별 구성은 회화 1,615점(54.93%), 드로잉·판화 556점(18.91%), 사진 311점(10.58%), 조각 219점(7.45%), 한국화 182점(6.19%), 뉴미디어 38점(1.29%), 공예 17점(0.57%), 서예 2점(0.07%) 순으로 나타남

[표 III-6]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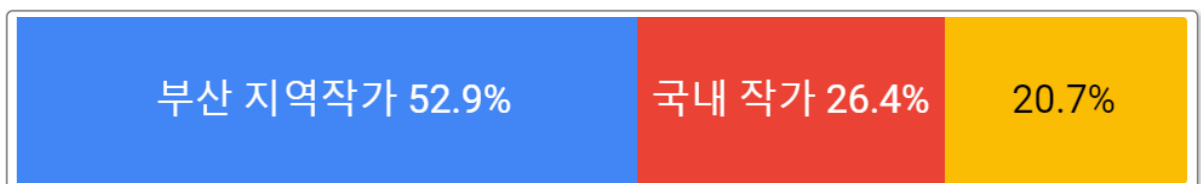


작품 부문	회화	드로잉·판화	사진	조각	한국화	뉴 미디어	공예	서예	건축	디자인	합계
작품 수(점)	1,615	556	311	219	182	38	17	2	0	0	2,940
비율(%)	54.93	18.91	10.58	7.45	6.19	1.29	0.57	0.07	0	0	100

출처: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01.)

■ 지역작가 비율

-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부산지역 지역작가 비율은 52.9%, 그 외 국내 작가 26.4%, 국외 작가 20.7%로 나타남(신소연, 2021)
- 지역작가 소장품으로는 부산 최초의 서양화가인 임응구를 비롯하여, 양달석, 김종식, 김윤민 우선출등 부산 출신 미술가들과 6·25 전쟁 기간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최민식, 김원, 임호, 임응식, 이응노, 박고석 등의 작품을 수집함



[그림 III-10] 부산시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5) 전북도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2004년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 관장명 : 김은영
- 운영방향 : 사람을 잇고 가치를 담는 21세기 미술관을 비전으로 하며, 시간을 넘어선 지속성, 기대를 넘어선 경험, 경계를 넘어선 관계를 운영전략으로 하고 있음
- 규모 : 연면적 8,290㎡ (상설전시실 : 214㎡, 기획전시실 : 1,475점, 수장고 : 1,137㎡)
- 소장품수 : 1,821점



[그림 III-11] 전북도립미술관 내·외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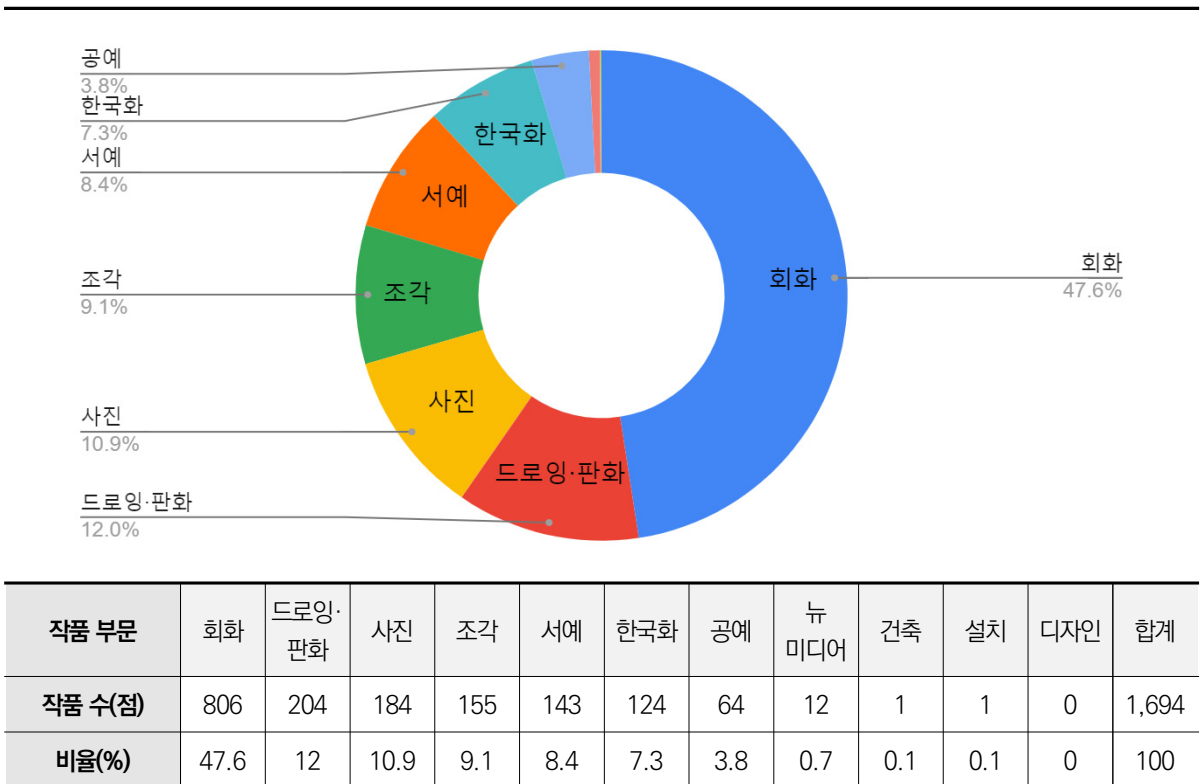
- **(운영목표)** 도립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대중성을 견지하면서 미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열린 미술문화 공간’을 지향함
- **(핵심방향)** 한국 서화 미술의 중심지였던 전북의 전북도립미술관은 전통성에 바탕을 둔 서화, 서예 등 근대미술품과 현대미술품 수집에 주력하면서 전북미술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작품 수집에 힘쓰고 있음. 다양한 기획전시,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문화예술교육과 국제교류 등을 통하여 전북 미술문화 창달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함
- **(소장품 구성)** 회화 806점(47.6%), 드로잉·판화 204점(12%), 사진 184점(9%), 조각 155점(9.1%), 서예 143점(8.4%), 한국화 124점(7.3%), 공예 64점(3.8%), 뉴미디어 12점(0.7%), 건축 1점(0.1%), 설치 1점(0.1%)...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46.05%), 기증(51.38%), 관리전환(2.55%)
- **(지역작가 비율)** 전북 작가(60%), 그 외 (40%)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은 총 1,694점으로 부문별 구성은 회화 806점(4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드로잉·판화 204점(12%), 사진 184점(9%), 조각 155점(9.1%), 서예 143점(8.4%), 한국화 124점(7.3%), 공예 64점(3.8%), 뉴미디어 12점(0.7%), 건축 1점(0.1%), 설치 1점(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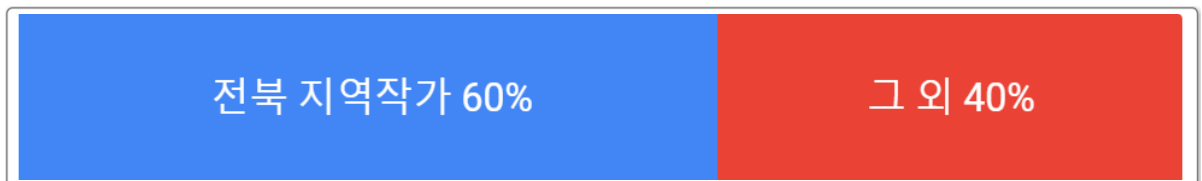
[표 III-7]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1개 부문)



출처: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16.)

■ 지역작가 비율

- 전북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전북 지역작가 비율은 60%, 그 외 작가 40%로 나타남



[그림 III-12] 전북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6) 경남도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2004년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 관장명 : 김종원
- 운영방향 :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 이에 따른 조사·연구와 전시, 그리고 국제교류 및 미술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행사를 수행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규모 : 연면적 8,930.7㎡(상설전시실 : 1,890㎡, 기획전시실 : 751㎡, 수장고 : 789㎡)
- 소장품수 : 1,219점



[그림 Ⅲ-13] 경남도립미술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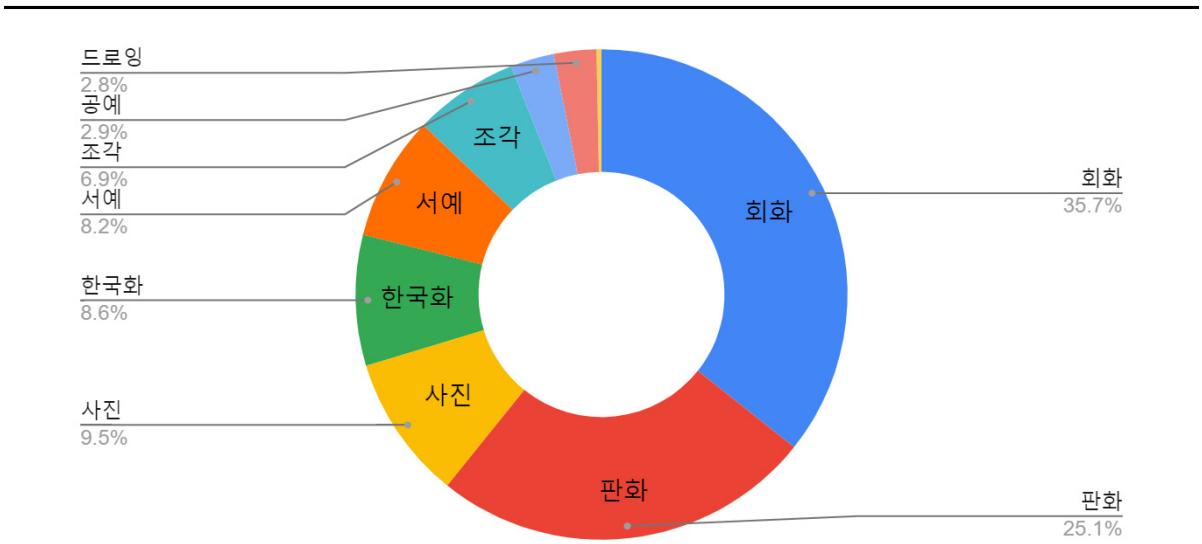
- **(운영목표)** 지역문화발전의 상징(경제성장에 걸맞은 320만 도민의 미술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도민으로서의 긍지 고양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여는 지역 문화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설립되었음
- **(핵심방향)** 경남도립미술관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 미술과 사회의 관계 연구를 바탕으로 양방향 배움을 지향하는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불어 경남 예술의 특징을 추적하기 위해 유의미한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경남 예술을 조명하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소장품 구성)** 회화 435점(36%), 판화 306점(25%), 사진 116점(10%), 한국화 105점(9%), 서예 100점(8%), 조각 84점(7%), 공예 35점(3%), 드로잉 34점(3%), 뉴미디어 4점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36.37%), 기증(57.87%), 관리전환(5.75%)
- **(지역작가 비율)** 경남 작가(58%), 그 외 국내(27%), 국외(15%)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경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은 총 1,224점으로 부문별 구성은 회화 435점(35.7%), 판화 306점(25.1%), 사진 116점(9.5%), 한국화 105점(8.6%), 서예 100점(8.2%), 조각 84점(6.9%), 공예 35점(2.9%), 드로잉 34점(2.8%), 뉴미디어 4점(0.3%) 순으로 나타남

[표 III-8]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9개 부문)



작품 부문	회화	판화	사진	한국화	서예	조각	공예	드로잉	뉴 미디어	합계
작품 수(점)	435	306	116	105	100	84	35	34	4	1,219
비율(%)	35.7	25.1	9.5	8.6	8.2	6.9	2.9	2.8	0.3	100

출처: 경남도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 2021.11.17.)

■ 지역작가 비율

-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경남 지역작가 비율은 58%, 그 외 국내 작가 27%, 국외 작가 15%으로 나타남



[그림 III-14] 경남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7) 경기도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2006년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 관장명 : 안미희
- 운영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림 미술문화기관’을 미션으로 지역을 잇고, 함께 공유하는 모두의 미술관으로 나아가고자 함. 동시대의 새로움을 만드는 미술, 도민의 삶으로 확장되는 교육, 함께 성장하는 지역 네트워크, 새롭게 변화하는 뮤지엄을 전략목표로 함
- 규모 : 연면적 8,277.80㎡ (상설전시실 : 441㎡, 기획전시실 : 1,674㎡, 수장고 : 716㎡)
- 소장품수 : 669점



[그림 III-15] 경기도미술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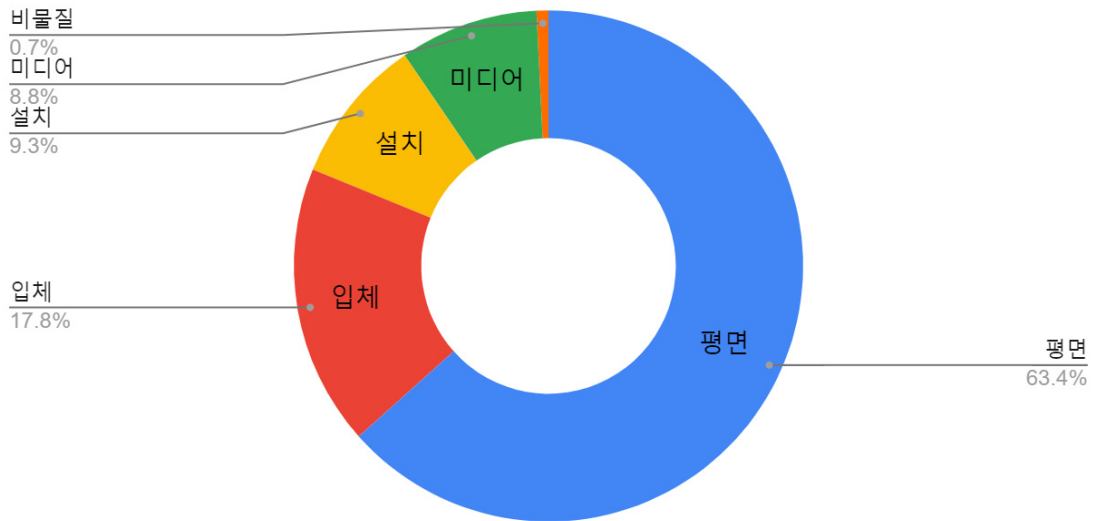
- **(운영목표)** 경기도미술관은 예술과 삶, 지역과 세계, 미술의 안팎을 연결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관점과 해석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도적 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함.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포용적 미술관이 되고자 함
- **(핵심방향)** 경기도미술관의 경영 방향은 미술관 기획의 새로운 도약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뮤지엄 유니버시티의 혁신적 교육미술관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지역협력형 네트워크 구축과 도립미술관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며, 미술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참여미술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소장품 구성)** 평면 424점(63%), 입체 119점(18%), 설치 62점(9%), 미디어 59점(6%), 비물질 5점(1%)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79.67%), 수증(18.08%), 관리전환(2.25%)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2021년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구입 계획(안)에 따르면, 소장품은 총 669점으로 부문별 구성은 평면 424점(63%), 입체 119점(18%), 설치 62점(9%), 미디어 59점(6%), 비물질 5점(1%) 순으로 나타남

[표 III-9]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현황(5개 부문)



작품 부문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비물질	합계
작품 수(점)	424	119	62	59	5	669
비율(%)	63.4	17.8	9.3	8.8	0.7	100

출처: 2021년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구입 계획(안)

■ 지역작가 비율

- 경기도미술관은 수도권을 포함한 한국의 미술 전반에 걸쳐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적인 구분이 없이 수집하고 있음

(8) 제주도립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2009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894-78
- 관장명 : 이나연
- 운영방향 : 창의와 소통, 함께 하는 미술관을 미션으로 하며, 제주문화 정체성을 구현하는 제주 대표미술관, 학습하고 창조하는 평생교육의 장, 평화미술 네트워크의 허브 지향, 제주지역 미술문화의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함
- 규모 : 연면적 7,087㎡ (상설전시실 : 220㎡, 기획전시실 : 2,080㎡, 수장고 : 548㎡)
- 소장품수 : 889점



[그림 III-16] 제주도립미술관 내·외부 전경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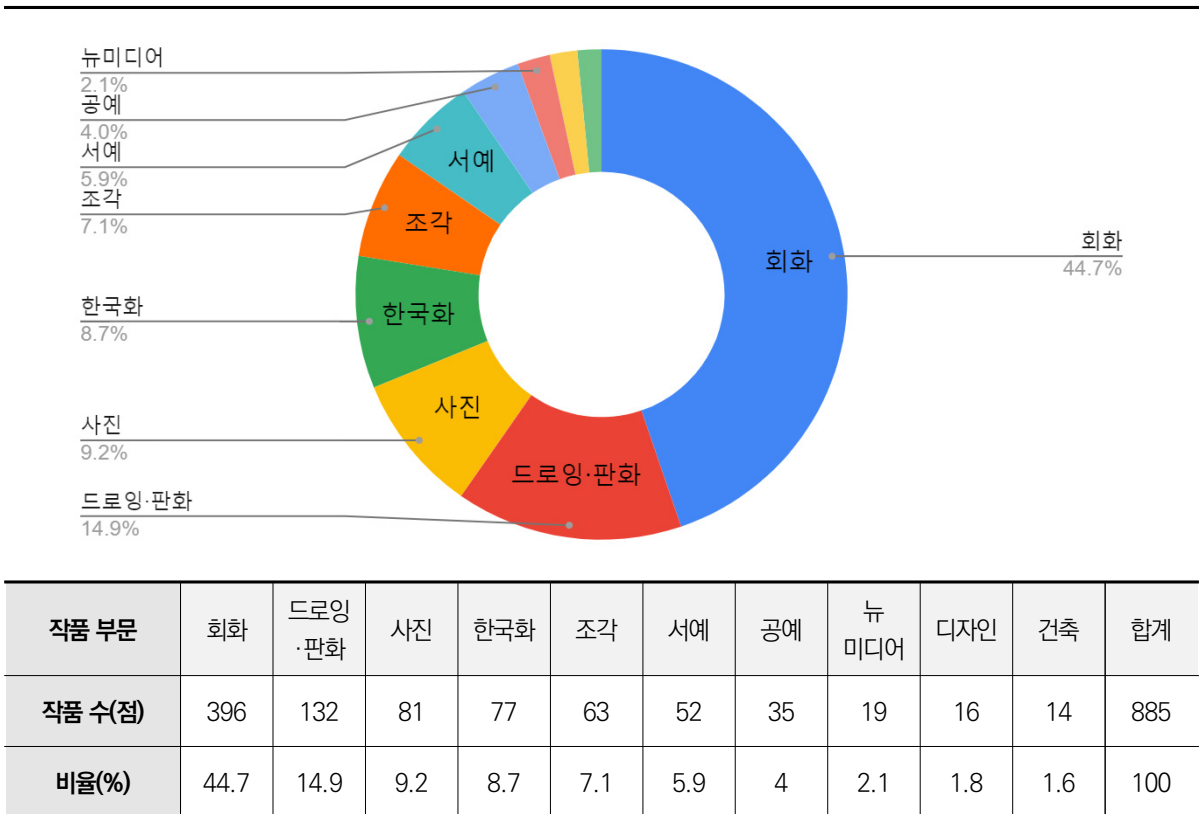
- **(운영목표)** 제주도립미술관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다운 미술관을 지향하기 위해 제주문화 정체성의 구현, 도민의 문화향수권 보호, 지역성과 국제성을 연계한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도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친절한 미술관이 되는 것을 운영목표로 함
- **(핵심방향)** 창의적이면서 관객 친화적인 전시기획, 홍보·마케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운영 활성화, 제주 대표미술관에 걸맞는 가치 있는 소장작품 확보 및 보존·연구, 국내외 미술관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 제주미술사 정립, 제주지역 미술가들의 성장 지원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음
- **(소장품 구성)** 회화 396점(45%), 드로잉·판화 132점(15%), 사진 81점(9%), 한국화 77점(9%), 조각 63점(7%), 서예 52점(6%), 공예 35점(4%), 뉴미디어 19점(2%), 디자인 16점(2%), 건축 14점(2%)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42.62%), 기증(41.07%), 관리전환(16.31%)
- **(지역작가 비율)** 제주 작가(57%), 그 외(43%)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은 총 889점으로 부문별 구성은 회화 396점(45%), 드로잉·판화 132점(15%), 사진 81점(9%), 한국화 77점(9%), 조각 63점(7%), 서예 52점(6%), 공예 35점(4%), 뉴미디어 19점(2%), 디자인 16점(2%), 건축 14점(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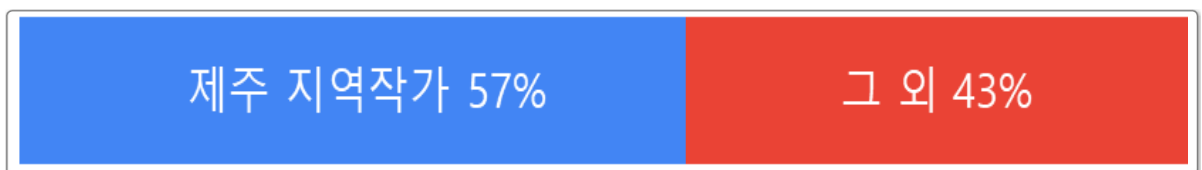
[표 III-10]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10개 부문)



출처: 제주도립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 2021.11.30.)

■ 지역작가 비율

- 제주도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제주지역 작가 비율은 57%, 그 외 작가는 43%로 나타남



[그림 III-17] 제주도립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9) 대구미술관

① 개요

- 설립연도 : 2011년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40(삼덕동 374)
- 관장명 : 최은주
- 비전 : 대구와 세계, 현재와 미래를 품는 대구미술관
- 규모 : 연면적 21,701㎡ (기획전시실 : 5,787㎡, 수장고 : 1,685㎡)
- 소장품수 : 1,790점



[그림 III-18] 대구미술관 전경



[그림 III-19] 대구미술관 특별전 : 웰컴홈: 향연(饗宴)

②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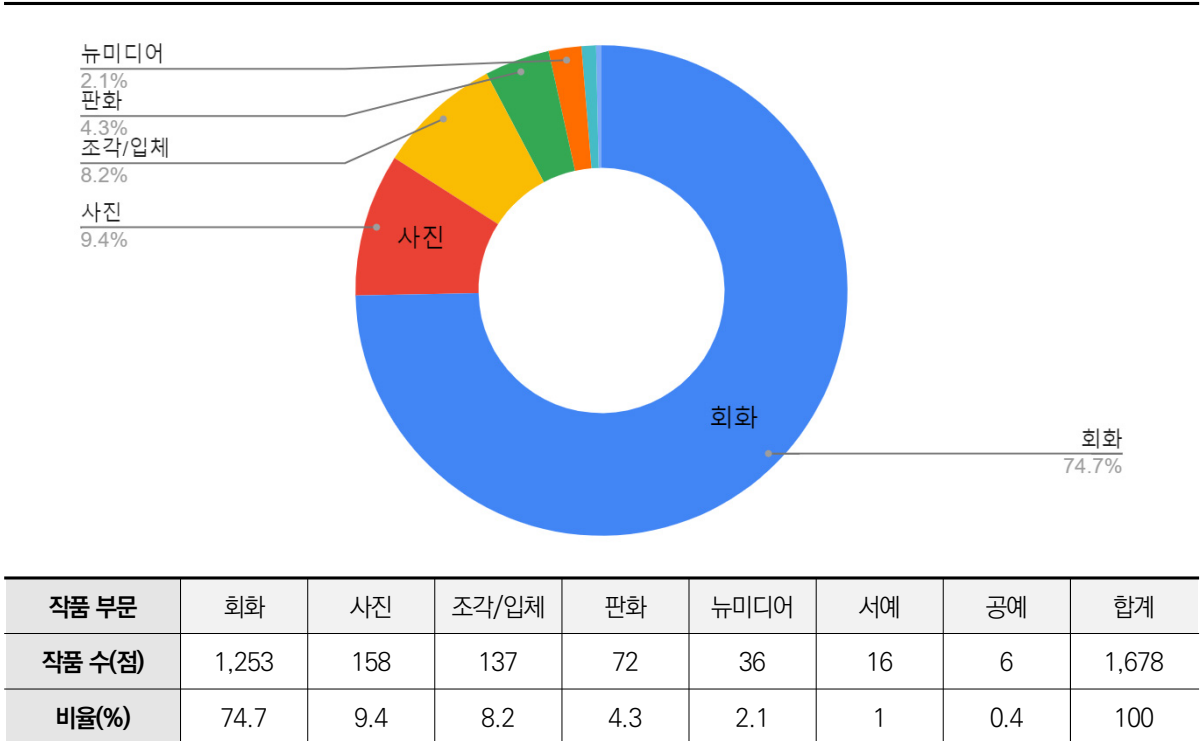
- (운영목표) 대구미술관은 슬로건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 터치 뮤지엄’(High Touch Museum)으로 정함. 슬로건 ‘하이 터치’는 고도의 기술을 도입할수록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찾게 된다는 미래학자 폰 네이스비츠 저서 『메가 트렌드』에서 인용한 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기,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술향유 격차를 줄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구미술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소장품 구성) 회화 1,253점(74%), 사진 158점(9%), 조각/입체 137점(8%), 판화 72점(4%), 뉴미디어 36점(2%), 서예 16점(1%), 공예 6점(%) 순
- (소장품 취득방식) 구입(29.61%), 기증(68.44%), 관리전환(1.95%)
- (지역작가 비율) 대구·경북 작가(51.46%), 그 외 국내(45.54%), 국외(3%)

③ 소장품 주요 현황

■ 부문별 작품 구성

-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장품의 부문별 구성은 회화 1,253점(74%), 사진 158점(9%), 조각/입체 137점(8%), 판화 72점(4%), 뉴미디어 36점(2%), 서예 16점(1%), 공예 6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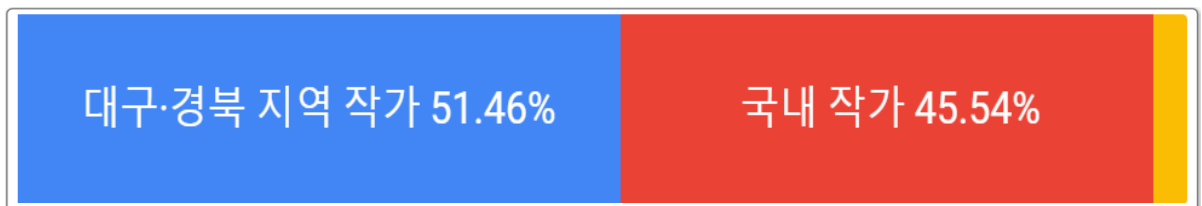
[표 III-11] 대구미술관 소장품 현황 (7개 부문)



출처: 대구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01.)

■ 지역작가 비율

-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중 대구 지역작가 비율은 51.46%, 그 외 국내 작가 45.54%, 국외 작가 3%으로 나타남



[그림 III-20] 대구미술관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3) 국외 미술관

(1) 뉴욕 현대미술관 (The Museum of Modern Art)

① 개요

- 설립연도 : 1929년
- 소재지 : 미국 뉴욕 맨하탄, 퀸즈(MoMA PS1)
- 규모 : 6개 층, 연면적 약 65,000m²
- 관장명 : 글렌 D. 로리 (Glenn D. Lowry)
- 비전 : 세계 제일의 현대미술관
- 미션 : 다양한 지역, 국가 및 국제 관객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향유를 장려
- 소장품수 : 138,151점

② 소장품 정책 구성⁴⁾

- 뉴욕현대미술관은 소장품 정책 관리 정책을 기술함에 있어, 미술관의 ‘미션’을 먼저 작성함. 이를 통해 소장품 관리 정책이 지향점은 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뉴욕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정책(Collection Management Policy)’은 ‘미션’, ‘수집 위원회’, ‘취득(수집)’, ‘해제’, ‘출처’, ‘방치된 자산’, ‘보험’, ‘대여’, ‘부분적으로 소유한 저작물의 소유’, ‘소장품 보존’, ‘기록’, ‘아카이브’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III-12]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I. 미션	VIII. 보험
II. 소장품 위원회	IX. 들어오는 대여
III. 취득	X. 부분 소유 작품의 보유
IV. 처분	XI. 소장품 관리
V. 프로비넌스	XII. 기록
VI. 방치된 소유물	XIII. 아카이브
VII. 관외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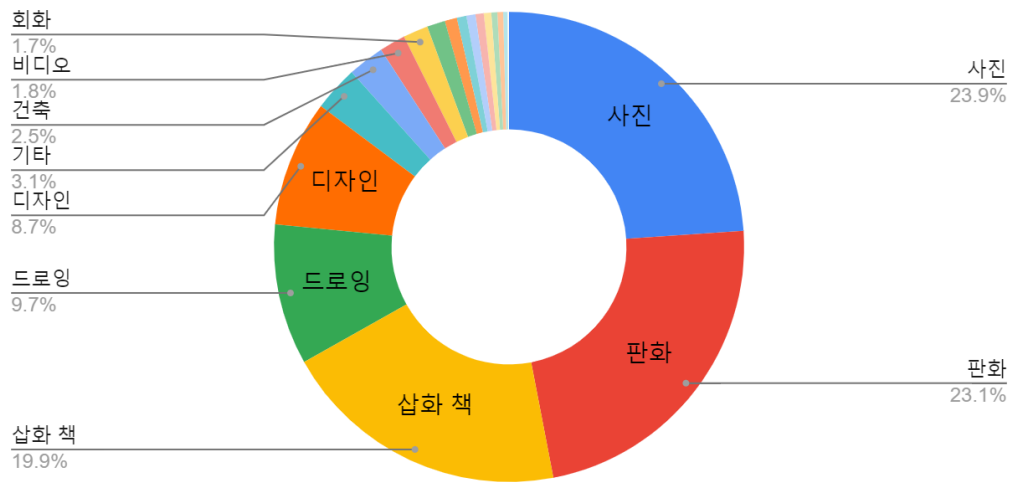
4) 출처: MoMA(2020), MoM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③ 소장품 구성

■ 부문별 작품 구성

- 뉴욕현대미술관은 1929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약 20만 점의 작품을 수집해왔음.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 사진, 건축, 디자인, 영화, 미디어 및 퍼포먼스를 포함하며, 확장적 관점의 시각적 표현 범위를 포함함
- 뉴욕현대미술관 제공 데이터에 따르면, 소장품의 부문별 구성은 30여 개로 세분화되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유형은 ‘사진(23.9%)’, ‘판화(23.1%)’, ‘삽화 책(19.9%)’, ‘드로잉(9.7%)’, ‘디자인(8.7%)’ 순임

[표 III-13]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 현황 (31개 부문)



단위: 점, %

부문	사진	판화	삽화 책	드로잉	디자인	건축	비디오	회화	조각	다매체
작품 수	33,025	31,875	27,462	13,371	12,011	3,460	2,480	2,360	1,726	1,160
비율	23.9	23.1	19.9	9.7	8.7	2.5	1.8	1.7	1.2	0.8
정기 간행물	설치	오디오	필름	이페메라	종이에 작업	미디어	퍼포먼스	섬유	포스터	콜라주
927	851	790	579	545	393	39	31	27	25	9
0.7	0.6	0.6	0.4	0.4	0.3	0	0	0	0	0
디지털	사진 (연구/ 레퍼런스)	그래픽디자인	필름 (오브제)	건축 모형	가구 및 인테리어	출판	소프트웨어	기타 (아카이브)	미할당	합계
6	4	4	3	3	2	2	1	4,285	695	138,151
0	0	0	0	0	0	0	0	3.1	0.5	100

출처: 뉴욕현대미술관 홈페이지(접속일: 2021.11.19.)

(2) 구겐하임 재단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① 개요

- 설립연도 : 1937년
- 소재지 : 미국 뉴욕,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빌바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관장명 : 리처드 암스트롱 (Richard Armstrong)
- 미션 : 근대 및 현대미술을 수집, 보존, 해석하고 역동적인 학예적, 교육적 계획과 협력을 통해 문화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건축적·문화적으로 차별화되는 뮤지엄, 전시, 출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및 전 세계 관객을 참여시킴
- 소장품수 : 1,717점

② 소장품 정책 구성⁵⁾

- 구겐하임 재단의 소장품 관리 정책은 재단의 미션과 전문 뮤지엄 표준에 부합하는 소장품과 연구용 소장품 및 아카이브의 개발 및 관리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겐하임재단 소장품 관리정책(2020)의 항목은 ‘재단 미션’, ‘소장품 관리 정책의 목적’, ‘위원회 및 이사회의 직무’, ‘취득’, ‘퇴역 정책과 절차’, ‘처분과 매각’, ‘미술 취득 기금’, ‘미술 처분 수익의 지출에 관한 임시정책’, ‘대여’, ‘부분기증, 공동 소유 작품, 그리고 약정 기증’, ‘소장품에 대한 접근’, ‘관리’, ‘기록’, ‘보험’,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 ‘금융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소장품’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4] 구겐하임재단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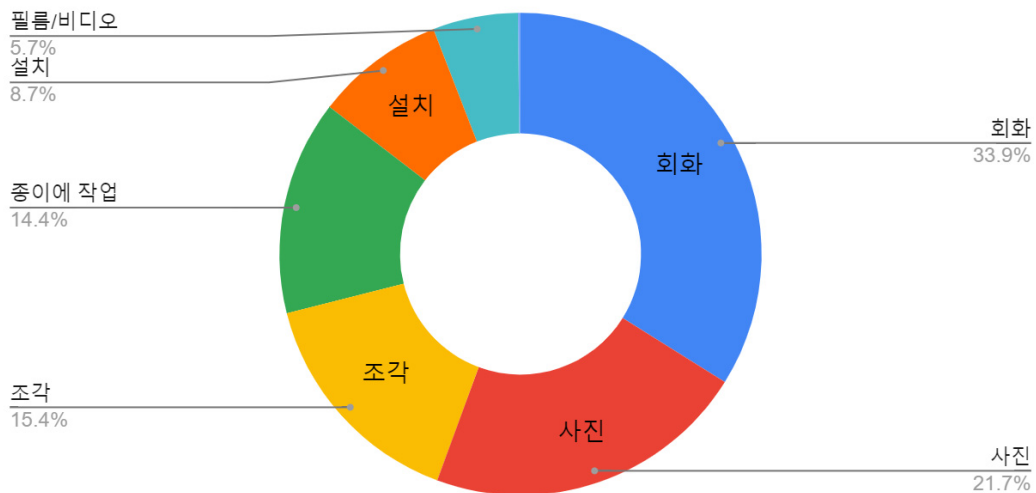
I. 재단 미션	VIII. 미술 처분 수익의 지출에 관한 임시정책
II. 소장품 관리 정책의 목적	IX. 대여
III. 위원회 및 이사회의 직무	X. 부분기증, 공동 소유 작품, 그리고 약정 기증
IV. 취득	XI. 소장품에 대한 접근, 관리, 기록
V. 퇴역 정책과 절차	XII. 보험
VI. 처분과 매각	XIII.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
VII. 미술 취득 기금	XIV. 금융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소장품 ⁵⁾

5) Guggenheim Foundation(2020),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③ 소장품 구성

- 구겐하임 재단은 홈페이지 내 ‘Collection Online’을 통해 625명 예술가의 1,700여개 작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음
- ‘Collection Online’은 구겐하임 재단의 핵심 소장품과 최근 수집품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며, 광범위한 소장품의 폭과 다양성, 취지를 반영함.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하이라이트 컬렉션 외에도 구겐하임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작품목록을 포함함
- 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구겐하임 재단 소장품의 작품 부문별 구성은 ‘회화’가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진(21.7%), 조각(15.4%) 순임

[표 III-15] 구겐하임재단 소장품 현황 (7개 부문)



작품 부문	회화	사진	조각	종이에 작업	설치	필름 /비디오	인터넷 아트	합계
작품 수(점)	582	373	265	247	149	98	3	1,717
비율(%)	33.9	21.7	15.4	14.4	8.7	5.7	0.2	100

출처: 구겐하임재단 홈페이지(접속일: 2021.11.19.)

(3) J. 폴 게티 미술관 (J. Paul Getty Museum)

① 개요

- 설립연도 : 1997
- 소재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 관 장 : 티모시 파츠 (Timothy Potts)
- 비 전 : 세계의 예술적 유산을 전시, 보존 및 해석에 전념하는 문화 및 자선 단체
- 미 셴 : 시각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시민 사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 관심 대중과 광범위한 전문가 커뮤니티에 시각예술의 보존, 연구, 자선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소장품수 : 159,359점

② 소장품 정책 구성⁶⁾

-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2019)은 전반적으로 박물관의 사명과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소장품 운영과 관련된 각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관리 규정과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특히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도 고려하여 담당 책임자가 각각의 돌발 상황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필요한 지침들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음
-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2019)의 항목은 ‘목적과 사명(미션)’, ‘소장품 정책의 목적’, ‘게티 미술관 소장품의 범위’, ‘이사회의 의무’, ‘소장품 취득’, ‘공동 소유 예술작품’, ‘소장품 취득 관련 직원 정책’, ‘처분’, ‘소장품 관리’, ‘기록’, ‘소장품 접근’, ‘관외 대여’, ‘들어오는 대여’, ‘효력일’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6] 폴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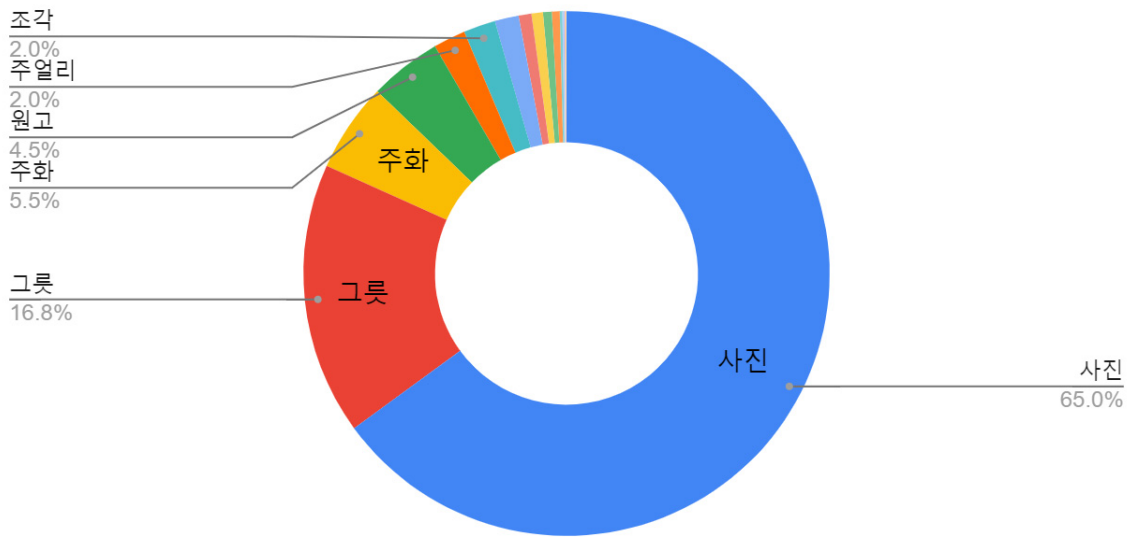
I. 목적과 사명	VIII. 처분
II. 소장품 정책의 목적	IX. 소장품 관리
III. 게티 미술관 소장품의 범위	X. 기록
IV. 이사회의 의무	XI. 소장품 접근
V. 소장품 취득	XII. 관외 대여
VI. 공동 소유 예술작품	XIII. 들어오는 대여
VII. 소장품 취득 관련 직원 정책	XIV. 효력일

6) The J. Paul Getty Trust (2019), J. Paul Getty Museum COLLECTION POLICY

③ 소장품 구성

- J. Paul Getty Museum 컬렉션은 ‘고대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 예술’, ‘중세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예술(원고, 회화, 소묘, 조각 및 장식 예술 등)’, ‘매체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진’, ‘근대, 동시대미술’, ‘유럽 및 미국 야외 조각’ 등을 아우르며 확장되어 왔음
- 게티 뮤지엄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장품 유형을 30여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사진(65%)’임. 이 밖에 ‘그릇(16.8%)’, ‘주화(5.5%)’, ‘원고(4.5%)’, ‘주얼리(2.0%)’, ‘조각(2.0%)’ 등의 유형을 소장하고 있음

[표 III-17] 게티뮤지엄 소장품 현황 (18개 부문)



작품 부문	사진	그릇	주화	원고	주얼리	조각	도구	건축	드로잉
작품수 (점)	103,519	26,723	8,742	7,093	3,156	3,139	2,335	1,261	1,114
비율(%)	65	16.8	5.5	4.5	2	2	1.5	0.8	0.7

회화	장식예술	텍스트	기타	갑옷	판화	서적	시간 기반 매체	장소 설치	합계
857	763	252	197	108	81	9	8	2	159,359
0.5	0.5	0.2	0.1	0	0	0	0	0	100

출처: 게티 뮤지엄 홈페이지(접속일: 2021.11.9)

(4)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Victoria and Albert Museum)

① 개요

- 설립연도 : 1852년
- 소재지 : 영국 런던
- 관장명 : 트리스트람 헌트 (Tristram Hunt)
- 비전 : 세계 유수의 예술 및 디자인 미술관
- 미션 : V&A는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자 디자인 뮤지엄으로서, 디자인 실천을 촉진하고 디자인 세계에 대한 지식, 이해, 즐거움을 증진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함
- 소장품수 : 1,243,716점

② 소장품 정책 구성

- V&A는 소장품 정책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음. 소장품 정책의 프레임워크를 ‘컬렉션 개발 정책’, ‘컬렉션 정보 및 액세스 정책’, ‘컬렉션 관리 및 보존 정책’, ‘개발 정책’, ‘정보 및 접근성 정책’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소장품 수집 및 처분 정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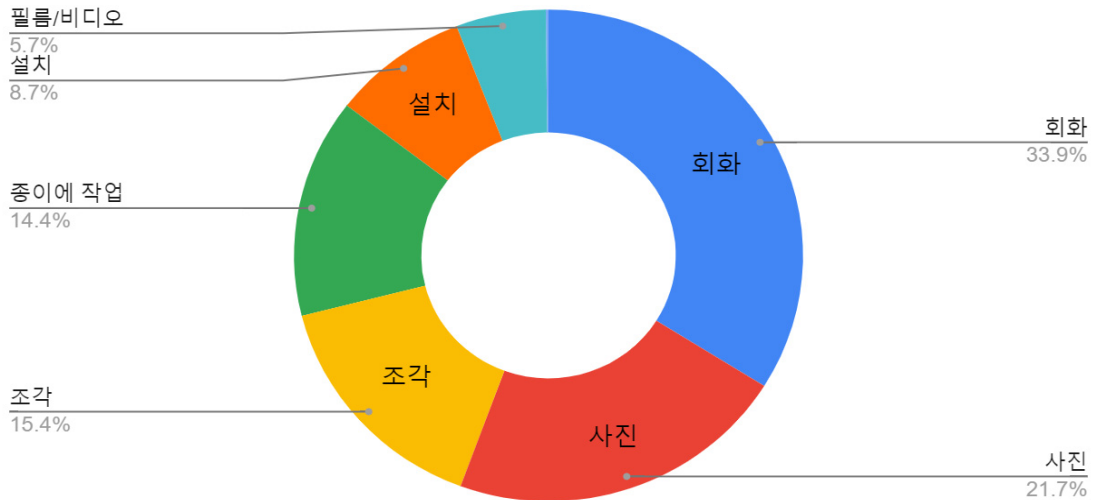
[표 III-18] V&A 주요 소장품 정책 구성

구분	항목
수집 및 처분 정책 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I. 소장품 및 정책의 범위 II. 취득 III. 처분
관리 및 보존 정책 Collections Care and Conservation Policy	I. 정책의 목적 II. 소장품의 관리 III. 위험 관리 및 보안 IV. 보존 등
개발 정책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I. 개요 II. 아시아 부서 III. 디자인, 건축 및 디지털 부서 ... 등 (부서별 소장품 개발 방향 제시)
정보 및 접근성 정책 Collections Information and Access Policy	I. 정책의 목적 II. 문서 III. 접근 IV. 실사(Due Diligence) 등

③ 소장품 구성

- V&A 컬렉션은 영국 국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및 1958년 영국 공공기록법에 따른 지정 예탁 장소로 V&A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으로 구성됨
- V&A 소장품은 2020년 3월 기준, 총 2,697,788점이 있으며, 이중 박물관 유물 및 미술품은 1,470,817점, 도서관 물품(도서, 정기간행물, 원고)은 1,125,925점, 아카이브 소장품(원고, 서신, 업무용지, 종이로 된 물품) 1,046점이 있음
- V&A 전시 컬렉션은 장기 전시에 적합한 259,213개의 유물 및 미술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V&A 컬렉션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시되지 않은 컬렉션은 예약 열람할 수 있음.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V&A 웹사이트 소장품 검색에 따르면(2021년 11월 기준), 1,243,716개의 소장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부문별 소장품 현황을 살펴보면, 30여 개 유형으로 세분되어 있고 ‘판화(15.4%)’와 ‘디자인(10.7%)’, ‘드로잉(8.8%)’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섬유(6.5%)’, ‘사진(6.5)’ 등이 뒤를 이음

[표 III-19] 테이트 소장품 현황(21개 부문)



작품 부문	판화	디자인	드로잉	섬유	사진	오락&여가	세라믹	패션	초상화	건축	의상
작품수 (점)	190,938	133,219	109,106	81,315	80,993	63,954	56,365	47,515	41,040	36,144	34,361
비율(%)	15.4	10.7	8.8	6.5	6.5	5.1	4.5	3.8	3.3	2.9	2.8

금속	여성 의상	오너먼트 프린트	토포 그래피	회화	SCRAN	도자기	약세 서리	포스터	기타	합계
34,301	33,176	30,418	24,887	21,597	19,550	16,494	15,083	15,077	158,183	1,243,716
2.8	2.7	2.4	2	1.7	1.6	1.3	1.2	1.2	12.7	100

출처: V&A 홈페이지(2021.11.9.)

4) 사례분석 시사점

(1) 국내 사례

■ 공립 미술관 소장품의 질적 개선 및 컬렉션 특화 필요

- 지역작가 소장품 비율 평균은 약 57.49%로 나타남
-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취득방식은 ‘구입’이 높으나, 여타 지역 미술관은 ‘기증’이 높음
- 공모제 → 내부 추천(학예실 추천)에 의한 수집 동향 포착으로 전문성 강화 선회
- 공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모델 특성 포착(지역 미술사 형성을 위한 수집 → 지역성 연계 수집 → 컬렉션 특화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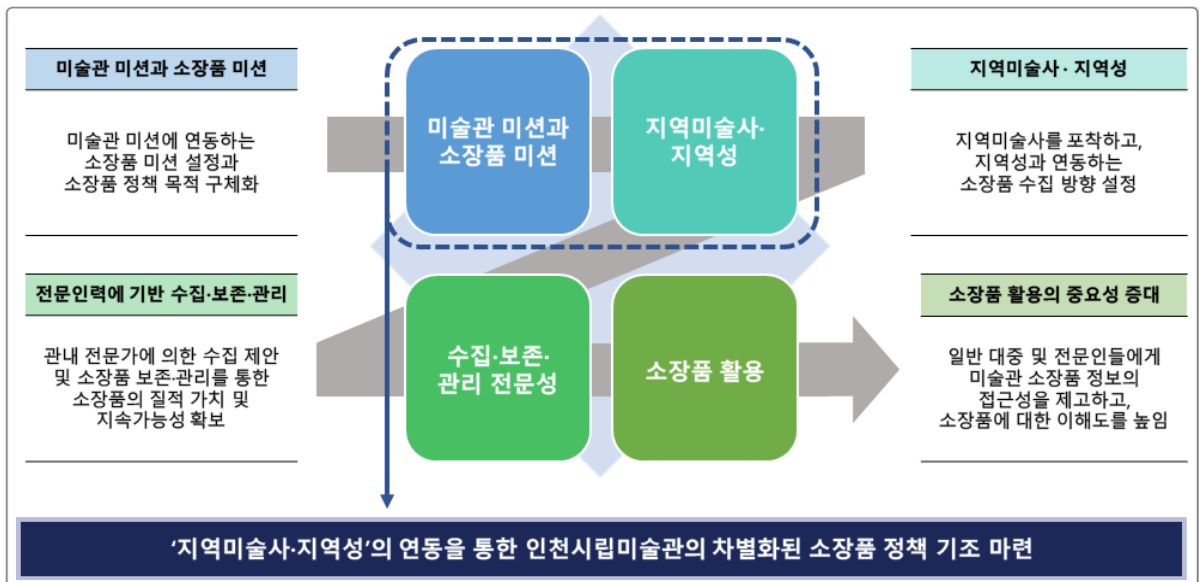
➔ 소장품 수집 방향 내 ‘지역미술사’, ‘지역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마련

(2) 국외 사례

■ 미술관 미션에 따르는 소장품 정책 보유

- 미술관 별로 상이한 분류체계 기준 보유
- 조직(미술관) 미션과의 연동된 소장품 정책 목적 제시
- 아카이브 및 소장품 접근성 관련 강조

➔ 인천시립미술관 미션과 연동되는 소장품 정책 마련



[그림 Ⅲ-21] 사례분석 시사점

2 인천미술의 역사 및 지역성

1) 인천미술의 역사

(1) 개요

■ 한국미술의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인천지역미술의 특수성과 개성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

- 인천은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까닭에 지방도시로서 문화의 고유성을 간직하기 어려운 난점이 존재하여, 지역적 특성문화의 자위권 확보의 기회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음(김인환, 1997). 그럼에도, 인천의 미술가들은 한국미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인천지역미술의 특수성과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함
- 1945년 12월 내동 금융조합 2층에서 개최된 <해방기념 미술전>을 시작으로, 5-60년대의 <앙테팡당전>, 6-70년대 <오소회전>, 80년대 모더니즘 미술운동을 주창했던 <현대미술 상황전>과, 같은 시대 리얼리즘을 이끌었던 <지평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형식 또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고민해온 인천 지역의 깨어있던 작가군으로 꼽힘(이경모, 2007)
- 최근 인천미술계는 예총, 민예총은 물론 지역미술연구모임 등의 지역미술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미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 지역미술사의 궤적을 포착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됨

[표 III-20] 인천미술의 흐름 요약

구분	내용
1946년	• <인천미술동인회> : 최초의 미술단체 발족
1947년	• <인천미술인협회> 결성
1948년	• <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인천미술협회 결성 • 인천미술협회는 1952년 <대한미술협회가 생길때까지 경기도 미술의 구심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1981년까지 경기도 지부로 활동
1954년	• <인천미술협회> 결성
1969년	• 미술평론가 이경성의 발의로 <오소회> 발족 및 결성. 인천작가들이 주축이 된 <현대미술상황> 결성
1980년	• 젊은 작가들의 파격적인 작품으로 인천미술계의 일대 사건이 된 <현대미술상황-인천> 전 개최
1985년	• <지평> 창립. 이 그룹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예술의 참여와 시대인식을 지각하며 '비판적 리얼리즘'을 채택하고 활동 전개
1986년	• <인천청년작가회> 결성
1980년대 이후	• 지역 내 소재 공단이나 빈민지역과 같은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적 미술운동을 펼침 • 현재 인천지역은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아트플랫폼'을 개관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고, 민간 영역에선 <스페이스 빔>의 활동이 큼 • 그 외에도 <노동미술국>과 같은 1980년대의 정신을 잇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미술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음. • 특이할 점은 황해문화를 비롯한 다수의 담론지가 출간되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역의 문화담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출처 : 경기도미술관(2018), 경기아카이브_지금, 31-32.

(2) 인천미술의 전개

① 일제 강점기

■ 화단 형성의 여명기

- 인천에서 미술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서양의 미술 개념이 일본을 거쳐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착, 성장하기 시작함
- 인천에서 본격적인 서양화단의 형성과 미술활동의 시작은 1920년대로 여겨지고 있음. 예컨대 박석태(2022)는 인천에서 ‘서화’ 대신 ‘미술’이라는 말이 등장한 시기가 1920년대로, 인천지역에 미술의 개념이 확산되고 화단이 형성되던 시기를 1920년대로 간주하고 있음
- 조선미술전람회 초기인 1920년대 입선한 인천 거주 화가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나, 1936년 이후에 와서 한국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함(이무영, 김영건, 박응창, 최석재, 김진태 등). 1930~40년대 사이에 일본 동경에서 미술을 전공한 유학생들이 주축이 됨(김인환, 2002; 박석태, 2022)

② 1940 - 50년대

■ 해방 이후, 인천화단의 형성기

- 1940년대 초반 식민지시대 말기에는 이무영이 경영하던 ‘낙랑다방’을 활동 근거지로 삼음. 이 다방은 예술겸용공간으로 화단 형성기 미술인들에게 모임과 발표의 장소가 됨.(김인환, 2002)
- 해방 이후 1946년 <인천미술동인회>라는 최초의 미술단체가 발족되고, 이듬해인 1947년 <인천미술인협회>가 결성되었음. 당시 활동을 펼쳤던 작가로는 ‘김기택’, ‘김순배’, ‘김찬희’, ‘이건영’, ‘임직순’, ‘최석재’, ‘박응창’, ‘김학수’, ‘우문국’, ‘이명구’, ‘윤기영 등과 미술평론가였던 이경성을 들 수 있음
- 1950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의 인천지부가 발족한 이후, 전쟁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52년에 ‘문총’의 산하 단체로 ‘대한미술협회 인천지부’가 출범하였음. 이 시기는 유사한 명칭을 가진 다양한 화단이 등장했다 해체하는 인천화단의 이합집산의 시대로 여겨지기도 함(박석태, 2022)
- 인천 미술인들의 지속적인 미술단체의 결성은 동인들 간의 친목 교류를 통해 해방 전후 혼란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미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 미술인의 노력의 산물로 간주됨

③ 1960년대

■ 인천화단의 활성화

● 신진작가와 기성작가의 교류 : 양데팡당전

- 1959년 인천에서 신인을 위한 공모 성격을 띤 전시회인 「양데팡당」전이 처음으로 등장함. 양데팡당전은 신인과 함께 기성미술인(미협회원)도 출품하여 '인천미술의 오늘'을 보여주며 미래의 인천을 그리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
- 당시의 금융조합 2층에서 열린 “젊은이들의 항변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인전」이 계기가 되어 인천미협 차원에서 마련된 신인과 기성미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범화단적인 행사였음
- 이처럼 양데팡당전은 1964년까지 ‘미협 인천지부’의 주관으로 지속되면서, 인천지역의 ‘범화단적 결속체’로서의 역할을 함. 이는 인천미술계가 미학적 담론을 중심으로 단체나 전시를 이루기보다는 지역예술인 간의 결속력을 지향함(박석태, 2022)

④ 1970 - 80년대

■ 인천 현대미술의 정착기

●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 1969년, <오소회(五素會)>가 결성되었음. 당시 인천에 살며 홍익대에 출강하던 고 석남 이경성 선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오소회는 인천미술계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성되었음. 60-70년대의 상황은 많은 지역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가던 시기이기도 함. 이와 더불어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일간지마저 폐간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미술의 존재 위기를 느낀 작가들이 참여한 모임이 오소회였음(경기문화재단, 2004)
- 1970년대 후반에 와서 서울의 현대미술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던 인천 연고의 작가들이 인천화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여 <현대미술상황>이라는 그룹을 발족하고, 1980년 「현대미술상황-인천」전을 개최함
- <현대미술상황>의 작품의 내용은 당시 한국화단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데, ‘미니멀, 개념예술에 관심을 둔 작가’와 ‘리얼리즘’에 관심을 둔 작가로 크게 구분되었음(강하진, 1998)
- 리얼리즘 작가의 경우 당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술을 통한 현실 참여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구상적, 극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의 소재로 등장시키게 됨. 이에 민중미술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작가군이 별도로 형성되어, 1985년에 <지평>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함
- 인천미술계 역시 우리나라 1980년대 미술운동을 양분하던 논리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이라는 두 주요한 흐름을 축으로 길항관계를 거듭하게 되었으며(경기문화재단, 2004), 당시의 인천 작가들은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토론을 거듭하면서 거의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인천에 현대미술이 정착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강하진, 1998)

⑤ 1990년대

■ 인천 지역성의 탐색 및 확장

● 포스트모던 : 지역성과 새로운 주체개념의 설정

- 인천미술은 고유의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음. 1980년대까지 인천미술사는 지역미술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작동되었음. 당시의 문제의식은 지역미술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미술계의 논리를 수용할 밖에 없는 상황을 겨냥했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화단, 지역미술의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반면, 1990년대의 관심사는 ‘지역성과 새로운 주체개념의 설정’으로 나타남(시각, 1999)
- 90년대에는 동서 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조와 군부독재의 권위적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민족적, 지역적, 계층적, 성적 구분에 따른 자기 정체성의 확인은 시대적 관심사가 되었음. 이에 따라 예술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책무를 지니게 됨과 동시에 활동 방식의 변화도 같이 꾀해야 하는 복합적 사고와 입체적 실천이 요구받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함께 90년대의 인천미술은 80년대 미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성찰하고, 젊은 세대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이어졌음. 당시 다양한 미술운동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이들 그룹은 각기 고민의 지향점이 달랐으며, 결과적으로 형식과 내용 면에서 풍부한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 특히 1994년 <인천미술인협의회>(이하 인미협)의 창립으로 인천은 모더니즘 계열의 미협과 대별되는 리얼리즘 계열이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박석태, 2020). 창립 당시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신들의 예술 이념을 지역적 토대 위에 천착시키려 함. 인미협은 「지방자치와 인천미술」이라는 심포지움의 개최를 시작으로, 자체 기관지 「황해미술」을 발간, 내부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적 현실에 기초한 구체적 테마를 지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함(시각, 1999)
- 1995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성에 몰두하여 6명의 신진작가와 함께 <지역미술연구모임>이 결성되었으며, 지역을 중앙의 하위 단위가 아닌 구체적인 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실천의 현장으로 규정하고 내부 학습을 이어갔으며, 지역 미술의 공공성과 체질 개선을 위한 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들은 시각문화전문지 <시각> 발간하기도 함

⑥ 2000년대 이후

■ 인천미술의 다양화

● 미디어아트

-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 사진, 영상, 설치 등 이른바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대중과 함께 실험하고자 했던 그들은 이후 인천미술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음. 1998년 ‘인천영상미술제’로 시작해 2003년 선보인 ‘2003 인천미디어아트비엔날레-신체적 풍경’도 그러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다양성과 맞닥뜨리는 데 두려움이 없었던 인천미술관에 등장한 그들은 ‘근대’ 혹은 ‘개항장’ 담론에 머물러 있던 인천미술에서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님(박석태, 2020)

● 공동체예술

- 2000년대는 단순한 전시 위주의 예술 활동에서 벗어나 공동체예술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 확장과 방법론의 제시가 연이어 대두되기도 했던 시기였음(박석태, 2020)

● 인천미술의 국제교류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국제아트페어, 인천국제여성비엔날레 등 인천미술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인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통해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시도함
- 2009년 인천아트플랫폼의 개관 이후, 국내·외 예술인들이 레지던시에 입주하면서 국제교류와 함께, 인천에서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와 창작활동을 전개해왔음

● 인천시립미술관의 건립과 아카이브 연구의 중요성 증대

- 인천의 시각문화 환경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수준임. 인천학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체계적인 인천의 근대사 기술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시각예술(미술) 분야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여전히 연구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시각, 2019)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과 더불어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수집·연구를 통해 인천미술에 대한 연구를 공공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인천 지역성 및 문화담론

(1) 개요

①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 인천 지역성

- 인천학연구원, 계간 『황해문화』 등의 학술자료 및 아티클에 대한 문헌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의 지역성 관련 키워드 도출

● 인천 문화담론

- 인천아트플랫폼, 박물관, 문화행사 등 문화예술행사(전시·축제·영화제 사례조사를 통해 인천 문화담론 키워드 도출

② 키워드 도출 결과

■ 인천 지역성

- 조사결과, 인천 지역성에 관한 주요 키워드는 ‘국제교류’, ‘문화다양성’, ‘항만도시’, ‘혼혈사회’, ‘동아시아 거점도시’, ‘다중적 정체성’, ‘진보적 개방도시’, ‘노동자 문화’로 나타남

[표 III-21] 인천 지역성 키워드

국제교류	문화다양성	항만도시	혼혈사회
동아시아 거점도시	다중적 정체성	진보적 개방도시	노동자 문화

■ 인천 문화담론

- 조사결과, 인천 문화담론에 관한 주요 키워드는 ‘이민사’, ‘근현대미술사 발상지’, ‘평화의 서해’, ‘도시개발과 생태환경’, ‘개항과 근대문화’, ‘동아시아 국제교류와 로컬리티’, ‘문화다양성’, ‘근대산업과 노동자 문화’로 꼽힘

[표 III-22] 인천 문화담론 키워드

동아시아 국제교류와 로컬리티	문화다양성	평화의 서해	도시개발과 생태환경
개항과 근대문화	이민사	근현대미술사 발상지	근대산업과 노동자문화

[표 III-23] 인천 문화담론 관련 주요사례

※ 10년 간의 전시 내역 조사 결과

공간명	특징	관련 콘텐츠 (주제, 전시명, 전시연도)
한국이민사박물관 (2008년 개관)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건립된 국내 최초의 이민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 한인 이민역사) 남미의 한인들, 2021년 • (미주한인 2세)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2020년 • (멕시코, 쿠바 한인 이민과 독립운동) 에네켄에 담은 염원, 꼬레아노의 꿈, 2019년 • (우토로의 70년 역사) 기억할게 우토로, 2018년 • (하와이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 새롭게 보는 하와이 韓人독립운동 자료전, 2017년 • (한국의 해외입양 60여년)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 2016년 •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 2015년 • (고려인) 황무지에서 지켜낸 민족혼, 2014년 • (재일한인 민족교육) 자이니치 학교들-재일 한인 민족교육, 2013년 • (파독 광부, 간호여성의 이야기) 젊음,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다-파독 광부, 간호 여성 이야기, 2012년 • (1899년 북간도의 한인마을 명동촌) 북간도의 한인동방을 밝힌 등불, 북간도 명동촌, 2011년 • (타국 선조와 동포 노동자의 삶) 또 다른 삶의 울림 - 낯선 땅, 낯선 생황, 2010년
인천아트 플랫폼 (2009년 개관)	레지던시 기반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으로서 현대미술 전시기획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태환경, 다성과 공존)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 2021년 • (국제교류) 여행하는 예술가의 가방, 2020년 • (문화다양성) 오버드라이브 2009-2019: 여행하는 주체들, 창조자, 장소의 경험, 2019년 • (디아스포라) 잊혀진 흔적, 2019년 • (디아스포라) 태양을 넘어서, 2019년 • (동아시아 국제교류, 문화다양성) 동아시아 문화도시 특별전 <삼의엑스제곱은 인피 니티>, 2019년 • (공업도시 인천) 창고갤러리 개관전 <공업도시 인천>, 2017년 • (국제교류) 중앙 호주 원주민 예술초대전 <DESARTMOB>, 2014년 • (평화)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2011~2013년 • (국제교류) CRAZY WISDOM 2010_TOUR, 2010년
인천시립 박물관 (1946년 개관)	다양성의 도시, 관문도시 인천을 대변,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분단) 불음도, 248명의 삶, 2021년 • (개항도시 원산) 1880 개항도시 원산, 2020년 • (동아시아 삼국의 의식주) 뒷간, 화장실이 되다, 2020년 • (헝가리 의사가 담은 1908년 제물포) 보조끼 데조 1908: 헝가리 의사가 본 제물포, 2020 • (노동자 생활문화) 노동자의 삶, 굴뚝에서 핀 잣빛 꽃, 2019~2020년 • (시대의 관문, 인천해관) 인천해관과 관세 도입의 역사, 2018년 • (화교의 역사) 오래된 이웃, 화교, 2014년
짜장면 박물관 (2012년 개관)	짜장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소개하는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도자산업) 짜장면, 그릇으로 탐하다(2017~2018년) • (중국의 새해 풍속) 공시공시(恭禧恭禧), 2018~2019년 • (화교문화) 싼바다오와 화교 140년의 기록, 2021년 ※ 상설전 : 화교역사와 짜장면, 짜장면의 탄생, 1930년대 공화춘 접객실, 짜장면의 전성기, 현대의 문화아이콘 짜장면, 1960년대 공화춘 주방
디아스포라 영화제 (2013년 부터)	인천의 역사성에 기반한 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항구와 공항을 통해 이동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지역성과 역사성 토대, 디아스포라 주제의 장·단편의 영화상영 및 토론, 전시 프로그램 운영

(2) 주요 특징

■ 근현대미술의 발상지

- 19세기 후반 개항 이래 21세기 인천항과 공항이 열리기까지 대한민국 관문의 역할을 해 온 인천시는 신문물과 세계 문화예술의 관문이었음. 지리적·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최초의 화가와 화단이 인천서 탄생하여, 인천은 한국 근대미술 분야의 발상지로 꼽힘

■ 동아시아 국제 교류와 로컬리티

- 인천시는 예로부터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황해를 접하고 있어 중국의 동해안 지역과 일본의 규슈 지역, 동남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황해문화의 요람으로 불렸음. 또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물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 한국의 관문도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인천시는 ‘세계를 향한 동북아의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의 주요 문화기관들은 국제교류에 있어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다수 개최해왔음. 인천시립박물관은 정기적으로 동아시아 타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음
- 한편, 국제교류에 있어 인천 고유의 지역성은 반드시 담지되어야 하는 부분임. 최근 인천시 주요 전시 공간의 전시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미술 담론을 다루기보다, 인천의 로컬리티를 기반으로 미술 담론을 이끌어어나가는 흐름을 볼 수 있음. 향토적인 관점으로 지역성을 접근하기 보다 지역성을 토대로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미술 담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국제 교류 방향에 대해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근대산업과 노동자 문화

- 인천은 근대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조선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 노동자들로 인해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자본 하에 임금 노동자의 생활한 것으로 보임. 특히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이 인천항의 주도권을 차지하면서 조선인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하역 노동이나 잡역에 종사하였음
- 일본의 식민지 공업화의 과정에서 경인공업지대가 조성됨. 인천지역에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경성과 인천의 중간에 광대한 공업용지가 조성됨. 공업지대는 해방과 분단 이후에도 남북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음
- 인천지역은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설치된 공업단지의 메카가 되었으며, 인천항은 그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인천지역에는 임금 노동자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으며, 노동자 문화는 인천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됨

- 1990년대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인천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역의 노동자 문화를 연구하고 전시 등으로 발표하고 있음.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노동자의 삶, 굴뚝에 핀 잿빛 꽃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음

■ 평화의 서해

- 인천은 서해5도를 중심으로 최북단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인천광역시에는 맥아더 장군 동상, 충혼탑 등 전쟁의 상흔과 냉전시대와 남북 분단에 관련된 문화가 남아 있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음
- 이에 인천시에서는 남북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어 온 바 있음. 예컨대, 2012년 인천아트플랫폼은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전을 선보였으며, 2018년에는 <서해평화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서해5도를 거점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예술가(단체)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됨. ‘2019 인천평화축제’프레임에서 개최된 황해미술제는 ‘평화로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음. 또한, 2019년 인천섬기행전 <평화의 섬 시대를 열며>, 인천해양국제미술 축전에서 <평화의 거점 서해 서막전>이 개최되었음

■ 도시개발과 생태환경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선도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3대 목표로 ‘다같이 누리는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플랫폼 기반의 국제해양도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제시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로 인해 그동안의 서구 근대성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인천의 주요 전시 공간에서도 도시와 생태환경, 다양한 생태계 종들과의 공존에 대한 미술 담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21년 인천아트플랫폼의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는 “도시 인천을 둘러싼 개발과 생태환경, 인간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된 들개와 새, 이러한 비인간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문제”들을 살피고 있으며, 임시공간의 <()는 모든 것의 고유한 울림을>은 “인간종과 비인간종 등 다양한 존재의 공명과 공존”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함

■ 문화다양성

- 인천은 1880년대 개항으로 문호를 개방한 이래, 식민과 분단 등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주와 이민의 중심지였음.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후, 한 세기가 지난 현대에도 항구와 공항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도시임
- 근대 개항지이었던 인천은 지리적, 역사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음. 또한, 최근 <인천비전2050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내국인의 인구가 감소하고 외국인 거주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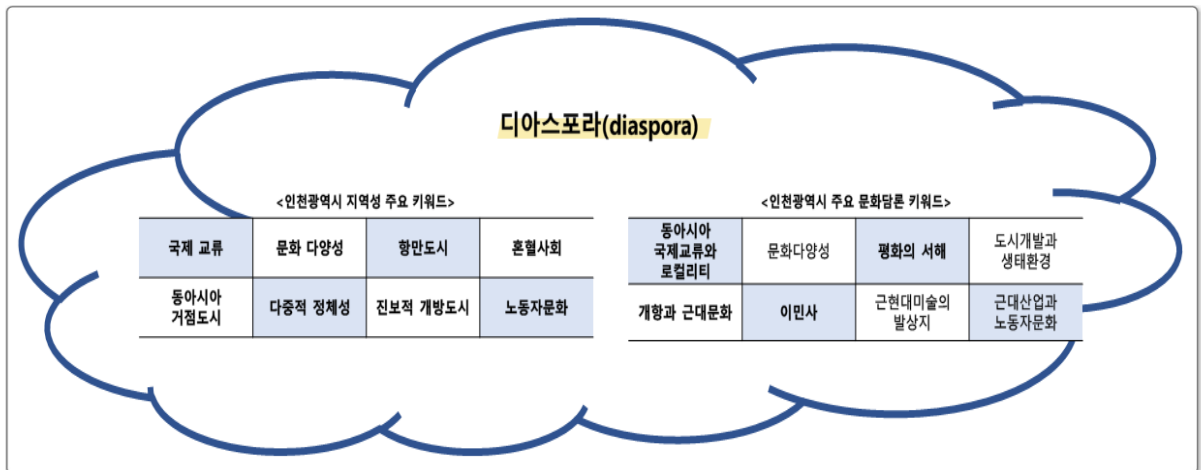
- 이와 같은 특성은 인천의 문화적 혼종성(hybridity)을 보여주며, 이는 인천 고유의 장소성(지역성)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른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변화, 사회의 갈등 양상의 변화가 예측됨으로, 다양한 세대, 민족, 계층 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인천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중심부의 동질적인 정체성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문화적 공유성과 고유성, 이질 문화의 융합 관계를 통하여 생성되어온 인천의 탈식민적 혼종성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문화의 유형이 됨

(3) 인천시립미술관의 특화 컨셉

① 개요

■ 인천의 지역성과 문화담론을 포괄하는 개념 도출

- 인천시립미술관이 타 지역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마련하고, 양질의 소장품 컬렉션 구축과 차별성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
- 인천시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인종이 자리잡고, 이동하는 도시임. 이에, 인천은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문화적 혼종성을 드러냄
- 이에 따라, 인천시의 지역성과 문화담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에 주목하고, 인천시립미술관의 특화 컨셉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⁷⁾



[그림 III-22] 인천의 지역성과 문화담론 : ‘디아스포라’

7) 이미 선행연구인 ‘인천뮤지엄파크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학술용역(2019)’에 따르면, 인천시청의 시립미술관 핵심 컨셉 제시 요청에 따라, 대다수의 자문위원은 ‘디아스포라’를 제안한 바 있음

② 내용

■ 디아스포라(Diaspora)

● 현대미술과 디아스포라

-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기원전 유대인의 이산에 기원하는 것으로, 현대미술에서 ‘디아스포라’는 넓은 의미의 문화정체성 논쟁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는 이산의 역사를 통한 세계 문명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권력에 따른 문화충돌과 혼성 등으로 해석됨
- 주로 이민과 추방, 망명, 탈출에 따른 경계인의 위치에서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은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드러내며, 이들은 종종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표현하고 기존 예술 세계의 아이디어와 구조에 도전함. 이는 예술에서 관계 미학 및 얼터모던(Altermodern)과 같은 예술의 움직임과 관련됨
- 디아스포라 담론은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더불어 확산되었으며, 21세기 들어 새로운 차원의 난민의 발생과 국가간 민족, 종교, 언어, 문화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다시금 전세계적인 담론으로 재등장하고 있음
- 디아스포라 관련 국내 주요 작가는 김환기, 이응노, 박이소, 김주영, 민영순, 양혜규, 함경아, 서도호, 데비한, 송영욱, 조양규, 차학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최근 해외 입양 출신 작가(이미래 등)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표 III-24] 국내외 디아스포라 주제 전시

구분	연도	전시명	주최
국내	2018	코리아 디아스포라, 이산을 넘어	경기도미술관
	2009	아리랑 꽃씨	국립현대미술관
	2002	〈저기: 이산의 땅〉	광주비엔날레
국외	2021	Saison Africa2020: Vue de exposition Ce qui s’oublie et ce qui reste	Palais de la Porte Dorée, Paris.
		Life Between Islands: Caribbean -British Art 1950s - Now	Tate Britain
		Diaspora at home	KADIST
	2020	Fotofest Biennial 2020 : African Cosmologies	Silver Street Studios, Winter Street Studios
		Inter Sectionality: Diaspora Art from the Creole City	Harvey B. Gantt Center for African-American Arts + Culture
	2018	PRIZM Art Fair Brings 63 Artists from the African Diaspora to Miami	PRIZM Art Fair
	2009	Artists "In-Between" South Asian Diaspora Art Over the Past Decade	Asia Society India

● 인천시와 디아스포라

- 인천 역시 제물포 개항 이래 한국 최초의 하와이 이민선(1902)이 출항한 곳이며, 산업화로 인한 국내 노동자들의 인천 유입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지역민과 민족, 언어 등이 섞이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 특성이 ‘디아스포라’로 귀결될 수 있음
- ‘디아스포라’는 이주, 차별, 적응, 문화변용, 동화, 공동체,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 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해석되며,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언어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주제로 확장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동시대 문화예술의 포용적,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시의성을 지니는 개념임
-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개념은 이질적인 것이 섞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의 원천이기도 함
- 인천시는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자원을 기확보하고 있음. 일례로 ‘짜장면’은 디아스포라의 산물이자 지역 고유의 문화 다양성의 양상을 반영함. 또한, 인천시의 <디아스포라영화제>와 연계하면서, 의미론적으로 유목민주의(노마디즘)와 연관하여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거점미술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가능함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1) SWOT분석

(1) 강점 (Strength)

■ 국제교류 거점 도시로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 내재

- 인천시는 개항 당시 외국인 거주지가 발달하고 타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시가지 개발과 도시화가 이루어짐
-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국제교류의 용이성을 담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관문도시로서 교류와 이동을 상징하는 도시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음

■ 디아스포라,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지역성 보유

- 외지인,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도시화가 전개되면서, 인천은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내재함
- 이와 같은 도시의 성격은 사회문화적으로 연구되어왔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디아스포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시 및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인천의 지역성을 해석해왔음
-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접근은 인천시립미술관이 타 지역미술관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함

■ 콘텐츠개발 연구용역(2019)을 통한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기본틀 마련

- 2019년도 추진한 시립미술관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및 콘텐츠 개발 방향의 기본 틀을 보유하고 있음
- 본 연구용역과 함께 인천시립미술관의 향후 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데서 강점을 지님

(2) 약점 (Weakness)

■ 인천시청의 기 확보 소장품 관련 데이터 체계성 부족

- 인천시청이 확보하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소장품의 신뢰도 및 활용 가치의 모호성이 내재함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방향 및 기준 부재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을 위한 방향과 기준 마련이 부재한 상황으로, ‘소장품 정책’, ‘소장품 수집 계획’,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미술관 건립추진단 구성에 따른 실행력 확보 미흡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관장 및 학예사)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미술관 건립 및 소장품 수집의 방향에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3) 기회 (Opportunity)

■ 아카이브에 기반한 지역미술연구의 높은 수요

- 지역미술계에서는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미술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미술사를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지니고 있음

■ 전문인력에 의한 소장품 수집의 필요 인식 확산

- 공공성의 차원에서 미술관의 소장품을 공모제로 운영해오던 방식에서, 미술관 컬렉션의 질적 성장과 컬렉션 연속성을 통한 미술관의 특성 강화를 위해 미술관의 내부 전문인력(관장 및 학예사)의 추천을 통해 수집 대상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디지털,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개발 유통의 중요성 인식 확대

- 팬데믹 이후 문화예술계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온·오프라인 병행구도의 운영 전략이 강조되고 있음

(4) 위협 (Treat)

■ 건립준비에 대한 체계적 전략 수립과 실행에 대한 원칙 여부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단계에 수반되는 물적, 인적 자원 확보에 관한 원칙 여부, 특히 인적 자원(건립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의 불확실성

■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에 따른 실행력 보장 여부

-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미술관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불확실성 (직영, 위탁 여부 판단 필요 및 위탁 시 자율성 확보 가능성)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1) S-O 전략 (기회활용)

■ 인천미술의 국제화

- 문화다양성을 내재한 지역성과 국제교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천미술 국제화 및 교류 거점화함
- 국제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의해 소장품을 수집하여, 소장품의 질적 가치를 담보함.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인천미술사를 체계화하여 인천미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 온·오프라인 병행구도를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국제단위의 교류채널을 확보함

(2) S-T 전략 (위협 최소화)

■ 안정적인 미술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건립추진단 조직

-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맥락에서 건립추진단 조직을 신속하게 추진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작품을 수집하고, 미술관 건립과 개관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인천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지닌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인천시립미술관에 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3) W-O 전략 (약점극복)

■ 지역작가 연구 및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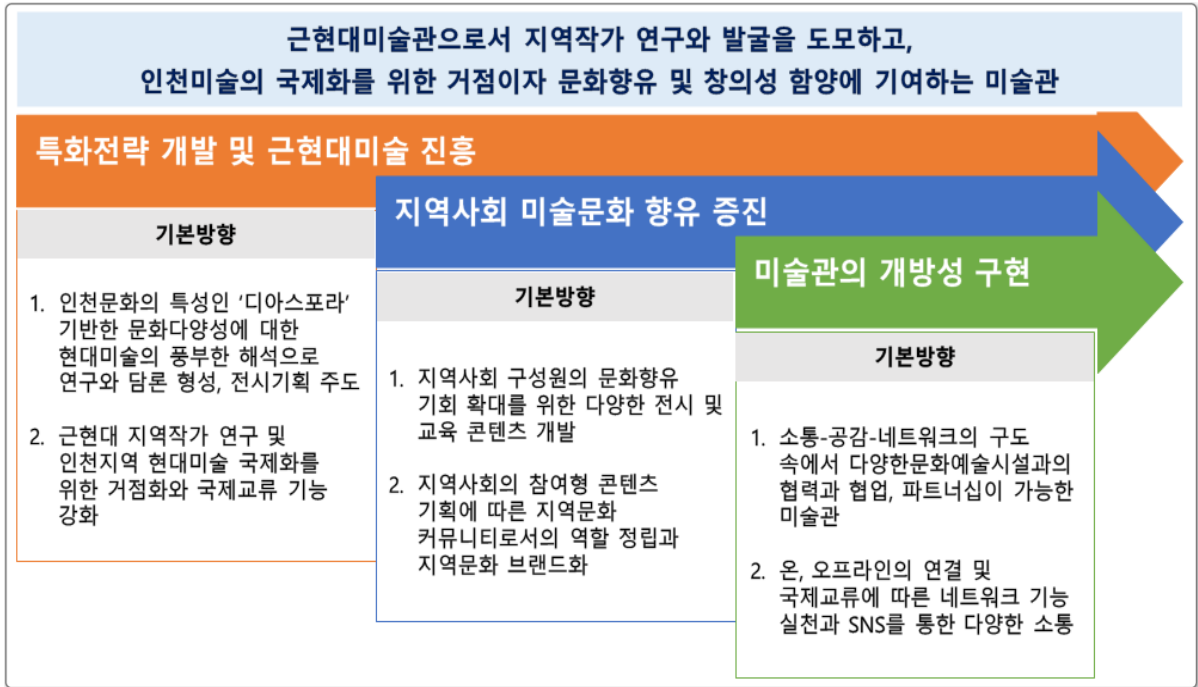
- 인천시청이 보유한 소장품 정보의 체계성 부족, 소장품 수집을 위한 방향 및 기준 등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소장품 기술지침’ 및 ‘소장품 정책’ 수립 등이 요구됨. 즉, 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인천지역 미술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황임
- 인천시립미술관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지역미술 및 작가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미술의 체계화 및 작가 발굴을 수행함

(4) W-T 전략 (약점최소화)

■ 소장품 정책 수립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에 의해 소장품 정책을 수립하여 개관 전 단계의 소장품 수집의 방향성을 마련함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그림 III-23]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1) 성격

**“근현대미술관으로서 지역작가 연구와 발굴을 도모하고,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이자 문화향유 및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는 미술관”**

■ 근현대미술관

- 인천시립미술관은 근현대미술관으로, 1900년대⁸⁾ 이후부터 동시대까지의 미술을 아우름

■ 지역작가 연구와 발굴

- 인천미술사를 체계화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적 작가 및 동시대 작가에 관한 연구와 발굴

■ 인천미술의 국제화

- 국제교류의 거점도시인 도시 성격을 바탕으로, 인천미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성 함양

-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미술감상 및 체험과 참여활동을 통한 창의성 증진

8) 인천미술연구자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미술은 1920년대부터 그 궤를 포착할 수 있음. 그러나 인천시립미술관은 보다 폭 넓은 수집과 연구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1900년대까지 포괄할 것을 제안함

(2) 방향

■ 특화전략 개발 및 근현대미술 진흥

● 특화전략 개발

- 인천광역시 제물포 개항 이후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도시 역사를 일구어왔음
- 관문도시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서 이동과 교류가 활발한 인천시는 문화적으로 ‘디아스포라(diaspora)’ 담론에 관심을 갖고, 전시·영화제 등이 전개되어 왔음
- 이러한 환경적 맥락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은 ‘다문화’, ‘문화다양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디아스포라’를 특화전략으로 설정하는 데 용이성을 지니고 있음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의 특화전략으로 ‘디아스포라’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현대미술 진흥

- 특정 시대에 편중되지 않고, 인천의 근현대미술 및 작가에 대한 조사·수집·연구를 바탕으로 인천미술 진흥의 역할을 모색함
- 지역 내 소재하는 다양한 미술 인프라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천지역 미술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바탕으로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함

■ 지역사회 미술문화 향유 증진

- 동시대 사회문화적 담론을 반영하는 기획전시와 인천시민의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함
- 지역민의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문화를 브랜드화함

■ 미술관의 개방성 구현

- 소통·공감·네트워크의 구도 속에서 시립미술관이 지역미술계의 거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미술관, 인천아트플랫폼, 갤러리, 대안공간, 신생공간, 박물관, 학교,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미술 관련 자원의 활용과 상생방안을 모색함
- 온·오프라인 병행구도 속에서 국제교류 및 시민들의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4) 미술인 대상 인식조사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미술인 및 미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표 III-25] 인천시립미술관 외부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인천 지역 활동 미술인 및 미술 관련 전문가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2021년 11월 26일~ 12월 10일 (15일간)
표본수	187명

● 조사 내용

[표 III-26] 인식조사 내용

구분	주요내용	문항수
인구통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등	3
인천시립미술관 조성 관심도	• 평소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들은 적 있으십니까? •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 타 지역 시립미술관과 차별화를 위한 인천시립미술관의 '핵심사업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인천의 지역성 및 문화담론	• 인천의 지역성을 내포하는 단어의 적절성 여부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인천의 주요 문화담론을 드러내는 단어의 적절성 여부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인천시 문화예술공간에서 디아스포라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볼 때, '디아스포라'에 인천의 다양한 지역성이 수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디아스포라'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함에 있어, 자발적 노마디즘(유목민주의)과 디지털 전환시대의 '초연결' 개념에 따른 새로운 이동과 교류, 연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디아스포라'를 인천시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성격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적 요소에 관한 적절성 여부를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아래 그림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주요 요소를 결합해 도출한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입니다. 이와 같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에 공감하십니까? •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에 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5
합계		16

(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87	100
성별	남성	88	47.1
	여성	99	52.9
연령대	20대	25	13.4
	30대	23	12.3
	40대	40	21.4
	50대	53	28.3
	60세 이상	46	2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11	5.9
	대학교 재학	17	9.1
	대학교 졸업	48	25.7
	대학원 재학	12	6.4
	대학원 졸업	96	51.3
	대학원 수료	2	1.1
	Ph. D	1	0.5
활동 영역	작가	93	49.7
	큐레이터	21	11.2
	평론가	6	3.2
	미술강사	3	1.6
	에듀케이터	-	-
	문화기획자	11	5.9
	갤러리 및 문화공간 운영자	9	4.8
	컬렉터	1	0.5
	정책연구자	4	2.1
	미술 관련 교육인	7	3.7
	미술대학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19	10.2
	언론인	2	1.1
	문화행정	2	1.1
	프리랜서	1	0.5
	문화예술행정	1	0.5
	복지	1	0.5
	예술행정인	1	0.5
	임상심리사	1	0.5
	문화예술인	1	0.5
	예술가	1	0.5
	공무원	1	0.5
	전문직	1	0.5
	거주지역	중구	12
동구		5	2.7
미추홀구		26	13.9
연수구		32	17.1
남동구		30	16
부평구		21	11.2
계양구		5	2.7
서구		11	5.9
강화군		3	1.6
옹진군		-	-
인천광역시 외		42	22.5

(3) 설문내용

① 인천시립미술관 조성 관심도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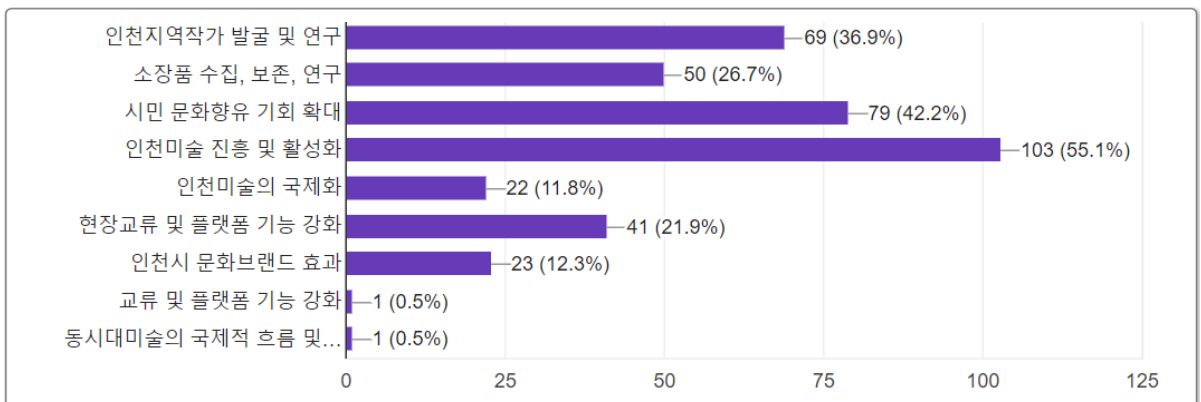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나, 건립 현황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답한 사람이 62%를 차지함

순위	비율(%)	내용
1	62	들어본 적이 있으나, 건립 현황에 대해 잘 모른다
2	27.8	들어본 적이 있고, 건립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	10.2	본 설문 이전에 들어본 적 없다

■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 (*중복 2개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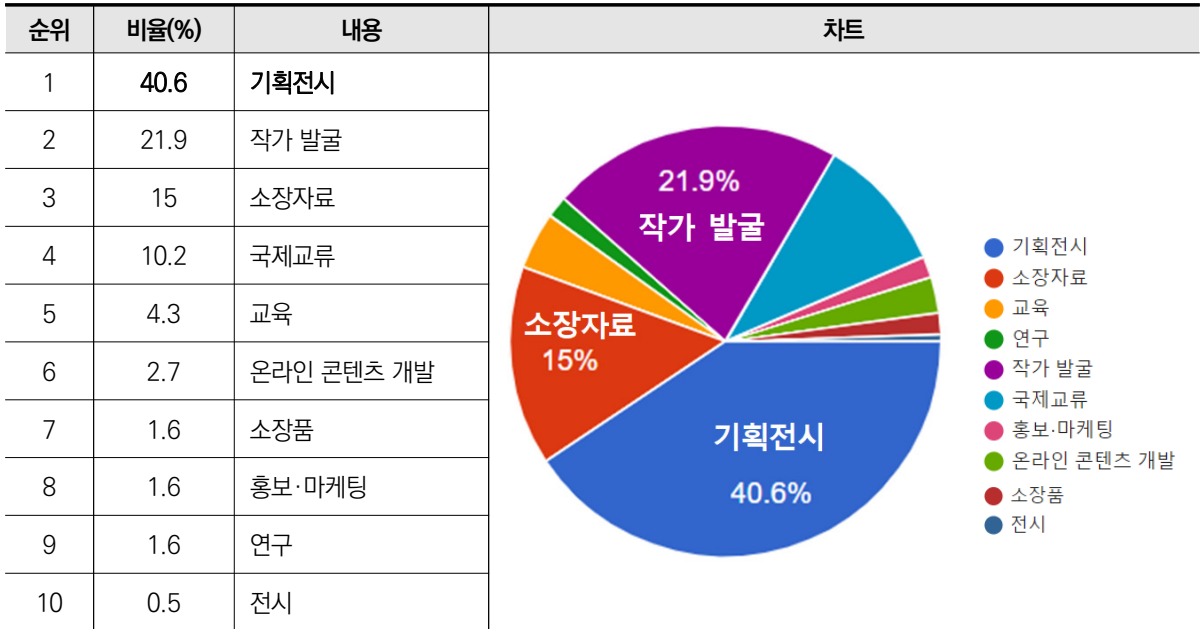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천미술 진흥 및 활성화’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다음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인천지역작가 발굴 및 연구’를 주요 역할로 꼽음

순위	건수	내용
1	103	인천미술 진흥 및 활성화
2	79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3	69	인천지역작가 발굴 및 연구
4	50	소장품 수집, 보존, 연구
5	41	현장교류 및 플랫폼 기능 강화
6	23	인천시 문화브랜드 효과
7	22	인천미술의 국제화
8	1	교류 및 플랫폼 기능 강화
9	1	(기타) 동시대미술의 국제적 흐름 및 서울 주요 미술기관에서의 주안점 반영



■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를 위한 ‘핵심사업영역’

- 타 지역 시립미술관과 차별화를 위한 인천시립미술관의 ‘핵심사업영역’으로는 ‘기획전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는 ‘작가 발굴(2019%)’, ‘소장자료(15%)’ 순으로 나타남



② 인천의 지역성 및 문화담론

■ 인천 지역성 키워드의 적절성 여부

－ 8가지의 인천 지역성 키워드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제교류	적절 (79건) 매우 적절 (70건) 보통 (30건) 부적절 (6건) 매우 부적절 (2건)	문화다양성	적절 (79건) 매우 적절 (69건) 보통 (24건) 부적절 (12건) 매우 부적절 (3건)
동아시아 거점도시	매우 적절 (74건) 적절 (68건) 보통 (36건) 부적절 (5건) 매우 부적절 (4건)	다중적 정체성	적절 (75건) 매우 적절 (53건) 보통 (48건) 부적절 (10건) 매우 부적절 (1건)
항만도시	매우 적절 (97건) 적절 (64건) 보통 (24건) 부적절 (1건) 매우 부적절 (1건)	혼혈사회	보통 (79건) 적절 (56건) 부적절 (30건) 매우 적절 (19건) 매우 부적절 (3건)
진보적 개방도시	적절 (64건) 보통 (62건) 매우 적절 (39건) 부적절 (15건) 매우 부적절 (7건)	노동자 문화	보통 (63건) 적절 (60건) 매우 적절 (35건) 부적절 (28건) 매우 부적절 (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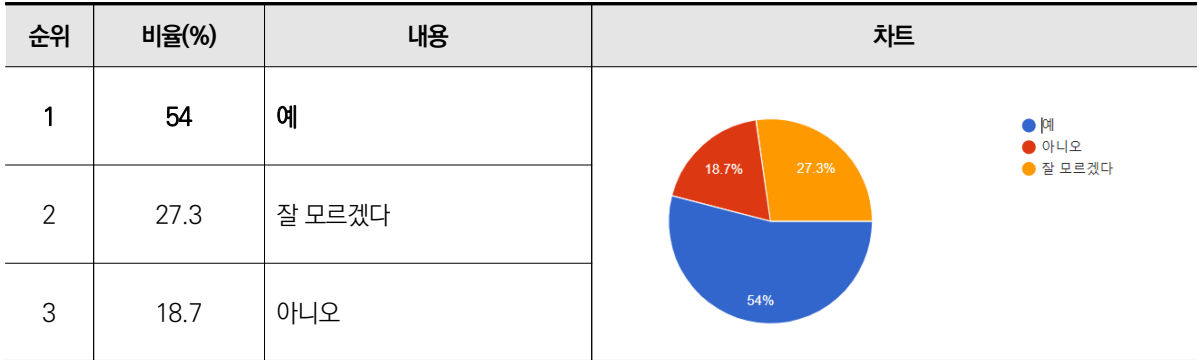
■ 인천 주요 문화담론 키워드의 적절성 여부

－ 8가지의 인천 주요 문화담론 키워드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민사	적절 (89건) 보통 (58건) 매우 적절 (39건)	평화의 서해	보통 (66건) 적절 (56건) 매우 적절 (53건) 부적절 (10건) 매우 부적절 (2건)
개항과 근대문화	매우 적절 (113건) 적절 (55건) 보통 (17건) 부적절 (2건)	문화다양성	적절 (88건) 매우 적절 (54건) 보통 (38건) 부적절 (6건)
근현대미술사 발상지	적절 (70건) 보통 (56건) 매우 적절 (46건) 부적절 (12건) 매우 부적절 (3건)	도시개발과 생태환경	적절 (76건) 보통 (57건) 매우 적절 (40건) 부적절 (12건) 매우 부적절 (2건)
동아시아 국제교류와 로컬리티	적절 (81건) 매우 적절 (62건) 보통 (39건) 부적절 (4건)	근대산업과 노동자문화	적절 (72건) 매우 적절 (51건) 보통 (49건) 부적절 (1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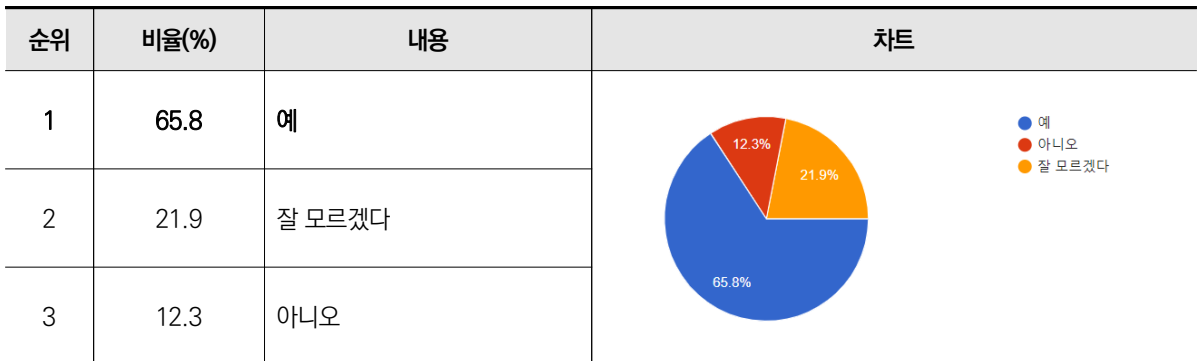
■ ‘디아스포라’에 인천의 다양한 지역성이 수렴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54%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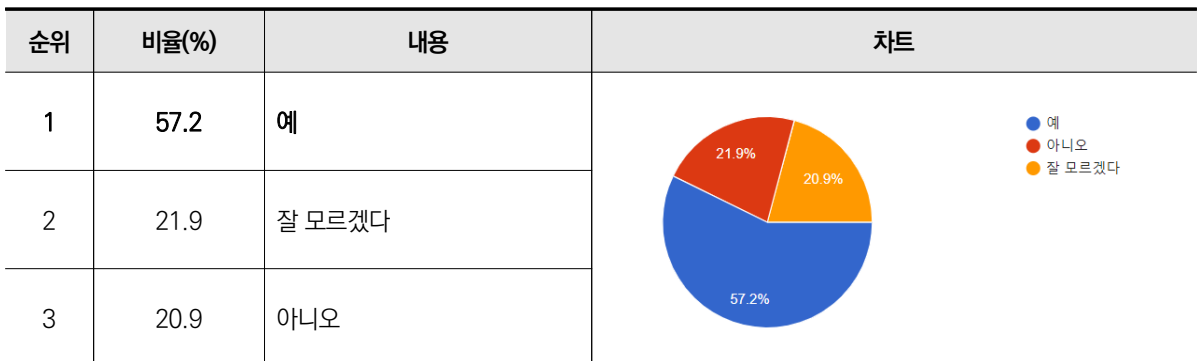
■ ‘디아스포라’를 현대적 의미로, 자발적 노마디즘(유목민주의)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초연결’ 개념에 따른 새로운 이동과 교류, 연대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65.8%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디아스포라’를 인천시립미술관의 대표하는 성격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57.28%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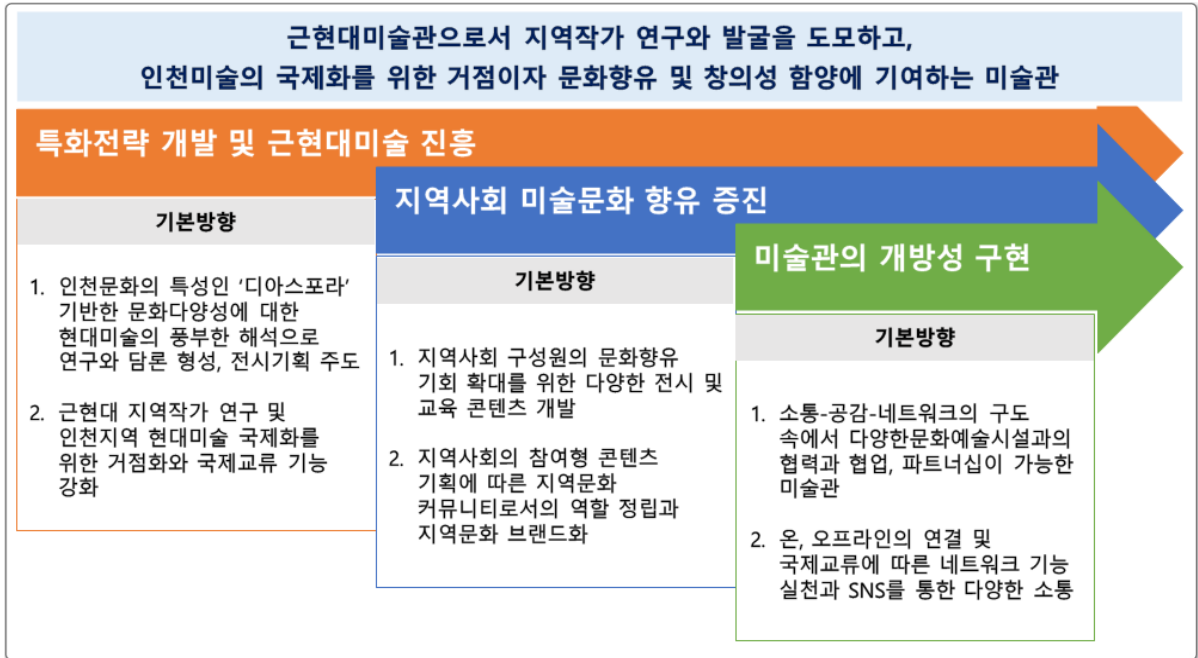
③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적 요소에 관한 적절성 여부

-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적 요소로는 ‘지역작가 연구 및 발굴’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가 103건으로 가장 높은 수요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근현대미술 전시 및 연구’와 ‘국제교류 거점 기능’, ‘인천미술의 지역, 전국, 국제 단위 확산’ 순으로 수요가 나타났음. 3가지 항목 모두 ‘매우 적절’ 항목이 80건 이상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적 요소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나머지 항목은 ‘온·오프라인 병행구도 미술관’, ‘문화향유와 창의성 함양’, ‘참여·소통형 미술관’ 순으로 긍정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작가 연구 및 발굴	매우 적절 (103건) 적절 (58건) 보통 (21건) 매우 부적절 (3건) 부적절 (2건)
근현대미술 전시 및 연구	매우 적절 (87건) 적절 (71건) 보통 (27건) 부적절 (2건)
국제교류 거점 기능	매우 적절 (86건) 적절 (71건) 보통 (25건) 부적절 (4건) 매우 부적절 (1건)
인천미술의 지역, 전국, 국제 단위 확산	매우 적절 (82건) 적절 (66건) 보통 (30건) 부적절 (8건) 매우 부적절 (1건)
온·오프라인 병행구도 미술관	매우 적절 (80건) 적절 (69건) 보통 (33건) 부적절 (3건) 매우 부적절 (2건)
문화향유와 창의성 함양	적절 (85건) 매우 적절 (82건) 보통 (16건) 부적절 (2건) 매우 부적절 (2건)
참여·소통형 미술관	적절 (78건) 매우 적절 (77건) 보통 (29건) 부적절 (2건) 매우 부적절 (1건)

■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의 공감 여부



—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7%의 비율을 차지함

순위	비율(%)	내용	차트
1	77	예	
2	14.4	잘 모르겠다	
3	8.6	아니오	

CHAPTER

IV

소장품 정책 구상

1. 소장품 정책 기본구도
2. 소장품 정책 수립방향
3. 소장품 수집계획 및 규정
4. 아카이브 정책
5. 소장품 활용방안



IV

소장품 정책 구상



1 소장품 정책 기본구도

1) 소장품 개념과 기능

(1) 미술관 소장품 개념

■ 미술관의 존립근거이자 성격과 위상을 형성하는 유·무형의 작품 및 자료

- 사전적으로 소장품(所藏品)은 “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하고 있는 물품”이라는 개념을 내포하며, 컬렉션은 “미술품이나 우표, 화폐, 책, 골동품 따위를 모으는 일 또는 그 모아진 물건들, 관련된 물건들이나 상품들의 집합”으로 규정(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함⁹⁾
- 미술관 소장품은 일반적으로 미술관이 수집과 등록 과정을 거쳐 물리적·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지니며,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보관·관리·활용되는 미술작품으로 정의됨
- 소장품은 현대미술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무형의 작품과 ‘미술관 자료’¹⁰⁾ (아카이브)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소장품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미술작품과 자료를 포괄하여 소장자료로 통칭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소장품’으로 명시함
- 소장품은 미술관 존립의 근거이자 미술관 활동의 핵심요소로서, 미술관 주요활동인 전시와 연구, 보존 및 복원, 활용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미술관 경쟁력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형성하는 척도로 작용함

■ 미술관 소장품 개념 확장에 따른 대응

- 현대미술의 양식적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 수집에 대한 범주가 확장되면서 소장품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음
- 소장품은 작품과 미술 관련 자료를 포괄하고 있지만, 대체로 유형의 작품 및 자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따라 각 미술관은 연구를 통해 꾸준히 소장품 개념 및 범주 확장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주도하게 됨

9) 영어로 컬렉션(collection)은 ‘함께(com-)’ ‘모으다(leg-)’의 뜻을 지닌 라틴어 collig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14세기 후반 프랑스 컬렉터에 의해 번역되어 ‘한 장소 또는 집단으로부터 수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동일한 유형으로 수집된 오브제들(objects)로 정의함(Cambridge Dictionary).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미술관 자료’는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정의된다.

- 이를테면 퍼포먼스와 같은 비물질 작품에 대한 수집 가능성과 소장 매뉴얼 개발 등의 시도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작품 개념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특히 AI 활용 작품에 대한 작품 규정 기준이나 NFT(Non-Fungible Token)¹¹⁾를 통해 소유권이 부여된 디지털 아트의 등장으로 미술관이 소장해야 할 작품의 물리적 범주는 유형 중심에서 무형까지 확장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소장품 개념을 “미술관의 존재 이유이자 성격과 위상을 형성하는 유·무형의 작품 및 기록물”로 설정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소장품 개념을 전제함

미술관 소장품 수집대상의 근거: 작품 및 자료

- 서울시는 새롭게 건립 중인 박물관(미술관) 및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2019.12.31. 시행)를 제정함
-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조례에 따르면 수집대상은 ‘미술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례를 계기로 아카이브 자료 수집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8월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개관 이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내에 자료 수집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소장품 수집 시 작품과 더불어, 자료 수집의 근거를 체계화할 예정임

(2) 미술관 소장품의 기능

- 미술관 소장품은 미술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수집’, ‘관리·보존’, ‘이용’의 범주에서 그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

[표 IV-1] 미술관 소장품 관련 주요 기능

수집	관리·보존	이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및 기록(물) 수집을 위한 가치 설정 및 제반과정을 통한 활동으로서, 궁극적으로 소장품을 미술사에 편입하고 •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증명 	<table border="1"> <tr> <td>관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별 작가, 재료 및 매체, 양식, 주제적 분류 및 정보화를 비롯해 전시와 각종 활용 기반을 마련 </td> </tr> <tr> <td>보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의 물리적 상태를 포괄한 총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원 </td> </tr> </table>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별 작가, 재료 및 매체, 양식, 주제적 분류 및 정보화를 비롯해 전시와 각종 활용 기반을 마련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의 물리적 상태를 포괄한 총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관련 모든 정보와 기록물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며, 전시 및 교육,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활용 방안에 대한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미술관과 소장품 가치의 대중적 인식을 확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별 작가, 재료 및 매체, 양식, 주제적 분류 및 정보화를 비롯해 전시와 각종 활용 기반을 마련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의 물리적 상태를 포괄한 총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원 					

11)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소장품 동향 및 새로운 접근

(1) 미술관 소장품 관련 동향

■ 소장품 정책 수립 필요에 관한 인식 확산

- 최근 국내 미술관은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예컨대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시립미술관, 2021년에는 경기도미술관이 소장품 수집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의 방향 설계와 함께, 보존·관리·활용 방향을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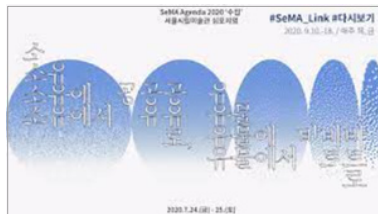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2018) :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관은 무엇을 하는가' 시리즈의 두 번째 연구 프로젝트로 소장품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와 다른 인종 혹은 문화권에 속하며 다소 소외되어 왔던 '타자'와 '현대미술의 매체와 형식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이슈에 초점을 두었음



서울시립미술관(2020) :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모두의 소장품 : 소유에서 공유로' 및 '미래의 소장품 : 유물에서 비트(bit)로'라는 소주제를 통해, SeMA 소장품의 진취적인 미래를 타진하고 향후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제도 개선과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함



경기도미술관(2021) : 미술관 수집이 새로운 표준 불러오기

- 경기도미술관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미술관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본 심포지엄은 경기도미술관의 향후 3년간 중단기 단계별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미술관의 수집과 관리'를 의제로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소장품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를 살펴봄



■ 뉴미디어 아트의 보존·관리에 관한 논의 활성화

- 국내외 미술관은 뉴미디어 아트 작품의 보존·관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뉴미디어 아트는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 기반 미디어(Time-based media)’ 작품이라 지칭되기도 함
- 이와 같은 시간 기반 미디어 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것은 작품 관리자에게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품에 활용된 장비가 구형(舊型)이거나, 이로 인한 고장 등의 발생 가능성에서 비롯됨
- 이에 따라 비물질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보존 전문가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각각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정도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은 학계와 현장에서 모색하는 단계에 있음(권인철·강금만, 2020)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에서도 향후 뉴미디어 아트 작품의 수집과 더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 및 타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표 IV-2] 뉴미디어 작품 보존에 대한 입장

구분	내용
Whitney Museum	현황 유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적극적 개조를 허용
Museum of Modern Art	필요한 경우 구성요소를 교체하지만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려 함
Guggenheim Museum	가능한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데 주안을 둬
TATE modern	원본의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동종 사양으로 대체
ZKM	원본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시 복제본을 만들

출처: 권인철, 강금만(2020: 92)

국립현대미술관(2021) : 「2021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

- 「2021 미술과 보존과학」 학술심포지엄은 <다다익선> 보존·복원 성과를 공유, 중간 점검하고, 성공적인 보존·복원 및 중장기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미디어아트 보존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다다익선> 사례처럼 시대와 기술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미디어아트의 특성을 고려해 각자가 경험한 보존·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미디어아트 보존 분야가 지향해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함

백남준 '다다익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What did 'THE MORE THE BETTER' bring to us?

2021 미술과 보존과학
2021. 11. 24. (수) 13:00 - 2021. 12. 10. (금) 13:00

백남준 '다다익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01 서론
이름 개요

백남준 n. <다다익선>

- 196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6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6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3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5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7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3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5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8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3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5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199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3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5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0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2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3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4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5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6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7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8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20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 2021년 11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남

다다익선 보존·복원 과정과 유지관리 방안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rocess of 'The More The Better'

2021 미술과 보존과학
2021. 11. 24. (수) 13:00 - 2021. 12. 10. (금) 13:00

백남준 '다다익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operation, an electrical safety test was conducted.

■ 소장품 연구 및 교류 활성화

- 최근 국내·외 미술관은 자체적인 소장품 연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술관과의 교류를 주도하는 흐름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및 국가 간의 문화적 특성과 현대미술에 대한 상호이해, 미술관별 성격과 정체성 이해를 도모하는 효과와 함께 소장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우리나라 공립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소장품의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류 활동을 통한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 기능을 갖는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장품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간, 국가 간의 교류를 통해 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접근이 요구됨

대구미술관(2021) : 개관 10주년 기념 해외교류전 《모던라이프》

- 대구미술관과 프랑스 매그 재단(Fondation Marguerite et Aimé Maeght)이 공동주최하고, 객원 큐레이터 올리비에 델라발라드(Olivier Delavallade)와 대구미술관이 공동기획한 《모던라이프》전은, 모더니즘을 주제로 양 기관의 소장품을 공동 연구한 프로젝트 전시임
- 양 기관의 소장품 중 78명 작가의 대표작 144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당대 예술가들이 순수하게 예술에만 의지하며 부단히 추구했던 미적 근대성(Modernity)을 담은 전시로, 향후 지속·발전시킬 해외교류전의 또 다른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대중에게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할 공공미술관으로서의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광주시립미술관-대구미술관(2020) : 〈대구·광주 달빛 동맹전-달이 떴다고〉

-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과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2020년 1월 20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미술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두 미술관은 연합 전시〈대구·광주 달빛 동맹전-달이 떴다고〉를 통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조명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함
- 전시에서는 두 지역의 작품을 함께 놓아 지역의 풍토성, 역사성, 예술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대구와 광주 두 도시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2) 소장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문화자원 및 콘텐츠 소스로서의 소장품

- 미술관 소장품은 인류의 유산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장의 원리로 거래되거나 상품화될 수 없다는 전제 속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로 이해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소장품은 단순히 모두에게 관람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공공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간주하면서 소장품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일테면 소장품 DB화에 따른 정보 제공에서부터 소장품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와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소장품은 무한한 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는 원천소스로서의 의미를 보유하게 됨

구글 아트 앤 컬처 (Google Arts & Culture)

- 전 세계 주요 박물관의 소장품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작, 제공함으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유명 미술관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게 한 프로젝트로서, 2011년에 시작하여 2022년 기준 80여 개국 2천 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하여 1만 개 이상의 온라인 전시를 통해 600만여 개의 예술작품, 사진, 원고를 선보임
- 구글의 사내 전담팀 ‘Google Cultural Institute’이 개발한 것으로, 프로젝트 개발자는 누구나 좀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힘
- 또한, 구글 플러스 기능이 있어 작품에 대한 코멘트를 공유할 수 있고, 구글 행아웃에서 여러 사람과 채팅방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상호소통이 가능함. 특히 화상채팅을 통해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 계층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가상미술관에 화상채팅이 도입된 것은 처음
- 이용자 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누구든 특정 작품을 선택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고, 마이 갤러리에 추가하여 개인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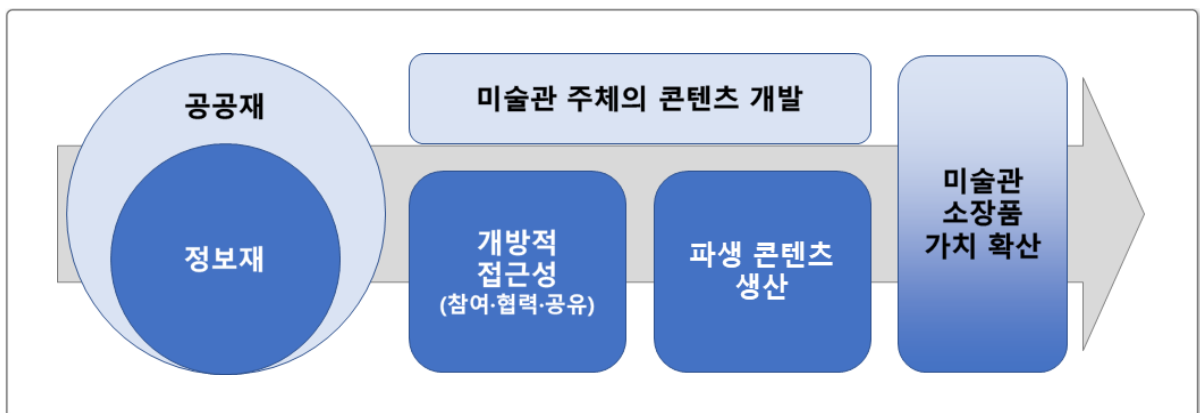
■ 정보재(information goods)로서의 소장품

- 이처럼 소장품을 문화자원으로 간주하면서 활용에 방점이 찍히는 가운데, 소장품의 여러 정보와 지식이 일종의 정보재로 이해되면서 정보자원의 개방적 접근성과 이에 따른 자원의 활용과 가치 확산이 강조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
- 정보재란 ‘디지털화가 가능한(0과 1의 비트 형태로 운송, 저장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며, 책·영화·음악·기술·소프트웨어·음성통신·데이터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매경닷컴)로 규정되며 초기 원본을 생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추가 생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독특한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소장품을 정보재로 간주함은 곧 소장품을 둘러싼 정보와 지식이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독려하는 프로세스로 제시됨을 의미함
- 일례로 2008년부터 시작한 유럽연합의 유로피아나(Europeana)는 대영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 유럽연합 내 1,000여 개의 박물관과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적, 음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합 운영하는 일종의 문화 정보재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2019년 5,800만 개의 항목 제공)
- 이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을 정보재로 이해하는 것은 ‘소장품의 활용’과 ‘참여(participation)’의 가치가 강조되는 미술관 운영 패러다임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다시 말해, 미술관은 소장품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소장품에 대한 가치를 동시대의 이용자와 공유하고 확산해가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재로서 미술관 소장품의 이해가 필요함

유로피아나(Europeana)

- 2008년 출범, 유럽 내 34개국 문화유산 보존 관련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뱅크로 통합·공유·보급
- 문화재 디지털화, 유럽 디지털 도서관 목록화·통합 관리 연구, 유럽 정보사회 전략 수립, 유로피아나의공공재산 선언 (Public Domain Manifesto), 콘텐츠 수집전략 개발 등 유럽의 공동 아카이브 작업 추진
- 유럽 내 국가들이 자국의 유산을 디지털화하고 모두에게 열린 문화자원으로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IT시장 일자리 창출과 지재권 사업모델 개발, 연구자·교육시장·창작활동 등에 기여, 콘텐츠 접근에 따른 비용 절감, 참여기관의 온·오프라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로 관광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부각됨



[그림 IV-1] 공공재와 정보재로서의 미술관 소장품의 이해

3) 소장품 정책의 정의 및 필요성

(1) 선행연구 분석

■ 소장품 정책의 용어 및 내용의 개념적 정비 필요

● 정책(Policy)과 규정(Policy)의 혼용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Policy’는 ‘정책’과 ‘규정’의 의미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음. 관련한 몇 개의 논문을 보면, 소장품 수집정책을 ‘Collection Policy’로 표기하면서 소장품 수집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Collection Policy로 표기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소장품 관리규정을 ‘Collection Management Policy’로 표기하고 있음

[표 IV-3] 미술관 작품관리의 흐름

수집	→	등록	→	보관	→	활용	→	보수·보존	→	불용결정	→	처분
소유권 취득 (물리적 수집)	→	서류 등록 (논리적 수집)	→	현물 관리	→	자체전시 외부대여	→	보존처리 예방보존	→	서류상 삭제 (논리적 처분)	→	소유권 상실 (물리적 처분)
소장품 수집규정 (Collection Policy)	소장품 관리규정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전시규정 (Exhibition Policy) 대여규정 (Loan Policy)	보존규정 (Conservation)	소장품 처분규정 (De-accession Policy)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출처: 황규성(2006: 495)

-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및 ‘조례’에 근거하여 미술관 소장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규정 및 조례 외에,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예컨대,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규분관 개관 완료 이후 명문화된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에, 국내 실정에 부합하도록 소장품 정책과 규정의 용어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표 IV-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조례, 규정 및 정책

구분	명칭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신규분관 개관 이후)

● 용어의 혼재 : 소장품 수집정책, 소장품 정책, 소장정책

-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소장품 수집정책’, ‘소장품 정책’, ‘소장정책’ 등으로 용어 사용이 혼재되고, 정책의 구성내용이 연구자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예컨대 소장품 수집정책이 영문으로는 Collection Policy로 활용되면서, 소장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나, 유지선(2012)의 경우 소장품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을 “미술관의 설립취지와 활동 목적을 반영하여 미술관의 미술작품 소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장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수집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집’에 초점을 둔 협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차이를 보여, 소장품 정책에 관한 용어의 정비가 요구됨
- 뿐만 아니라, 정책의 구성내용에서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됨

[표 IV-5] 선행연구의 소장품 정책의 용어 및 구성내용

연구자	국문명	영문명	구성내용
황규성(2006)	소장품 수집정책	Collection Policy	수집, 관리, 전시, 대여, 보존, 처분
한주원(2008)		Collection Acquisition Policy	보존, 연구, 전시·보급, 특별활동, 공공봉사, 경영
유지선(2012)		Collection Policy	수집
신소연(2021)		Collection Policy	수집, 관리, 활용
이진형(2012)	소장품 정책	Collection Policy	.
김은경(2010)	소장정책	Collection Policy	수집, 관리

(참고) 국외미술관 소장품 관련 정책명

- 국외 미술관 및 관련 기관의 소장품 정책의 명칭을 살펴보면, Collection Manangement Policy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Collection Management Policy는 수집,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한 내용 전반을 아우르고 있음
- 그럼에도, 폴 게티 뮤지엄은 ‘Collection Policy’의 명칭을 활용하는 등 명칭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6] 국외미술관 소장품 관련 정책명

미술관명	정책명
폴 게티 뮤지엄	J.Paul Getty Museum Collection Policy
빅토리아&알버트뮤지엄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뉴욕현대미술관	MoM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테이트	TATE 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구겐하임재단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미국미술관협회	Developing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핀란드문화유산청	A Checklist for Museum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정의

■ 용어설정 : 소장품 정책 (Collec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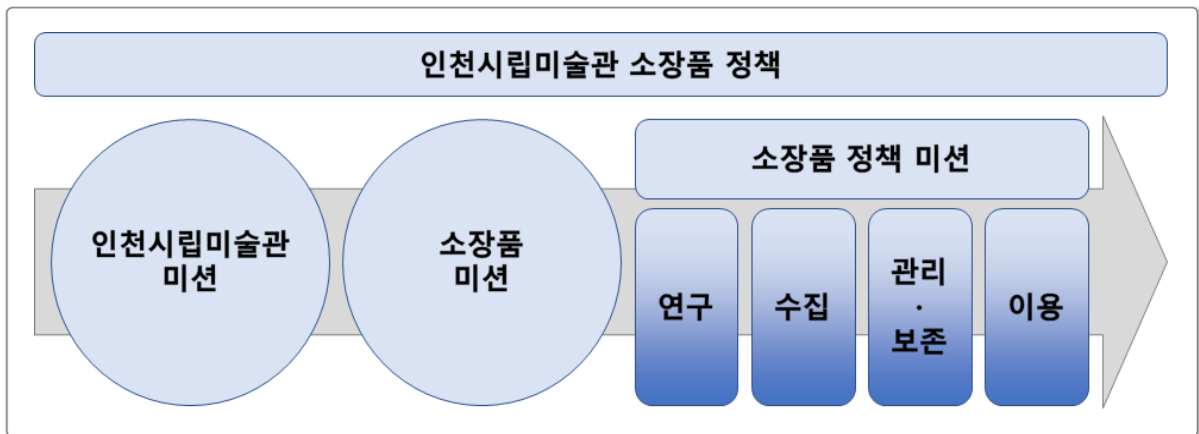
-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박물관 윤리규정을 통해 소장품 정책을 ‘Collection Policy’로 설정하고, 이를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형태로 지칭함
- 이에, ICOM의 기준을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전반에 관한 정책을 ‘소장품 정책’(Collection Policy)으로 명명함

국제박물관협회(ICOM) 박물관 윤리규정 :제2장 1절 (소장품 정책 Collection Policy)

- 박물관 관리 주체는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을 채택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 정책은 소장품 목록에 수록되지 않거나, 보존처리 또는 전시되지 않는 박물관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구성내용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은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 및 소장품 미션과 연동되는 소장품 정책 미션(mission statement)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수집,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미술관 소장품 관련 내용 전반을 포괄함
- 기존 내용과 달리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미술사 및 동시대 미술 연구 등 연구기능을 강조하고자 ‘연구’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함



[그림 IV-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구성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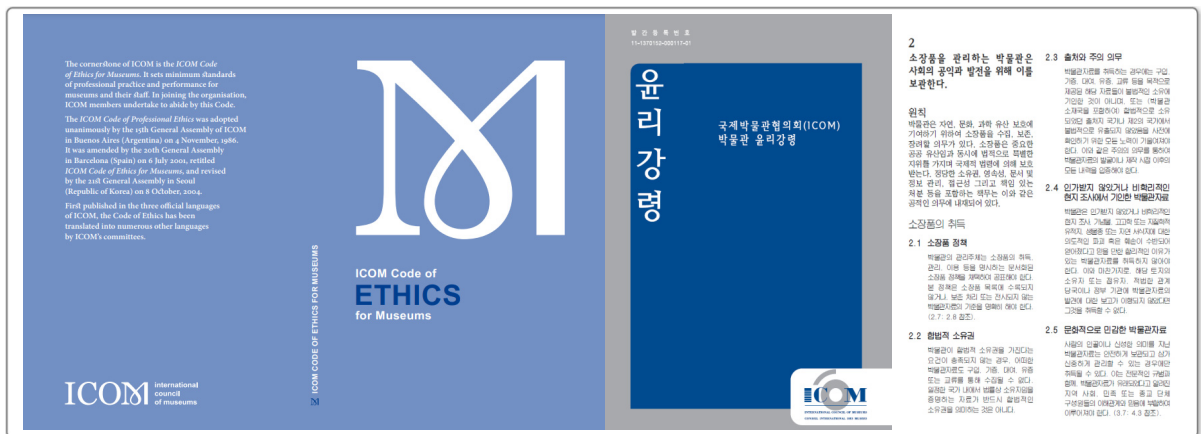
- 미술관 소장품 정책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근거가 되는 소장품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미술관이 실행하게 될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원칙과 지향점을 명시함으로써, 미술관의 모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실행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정의는 “인천시립미술관 미션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수집, 관리·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설정함

(3) 소장품 정책의 필요성

① 제도적 필요성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for Museum)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은 1970년 소장품 취득 윤리강령을 1986년 전문직윤리규정을 통합하고, 2001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0차 총회에서 박물관 윤리강령으로 개명하고, 2004년 10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총회에서 개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해당 강령은 미술관과 미술관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토대가 되며, ICOM 회원들은 가입과 동시에 본 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박물관 윤리강령의 2장 1절에 따르면, 미술관의 관리주체는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을 채택하여 공표해야 함. 이에, 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의 수립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림 IV-3]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 주요 내용

- 제2장 1절 (소장품 정책 Collection Policy) : 박물관의 관리주체는 소장품의 취득, 관리, 이용 등을 명시하는 문서화된 소장품 정책을 채택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 정책은 소장품 목록에 수록되지 않거나, 보존처리 또는 전시되지 않는 박물관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제2장 8절 (활용을 위한 소장품) : 박물관자료가 유형물로서의 기능보다 문화, 과학 또는 기술적 과정의 보전에 중점이 주어지거나, 통상적인 이용 혹은 교육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 박물관의 소장품 정책에는 활용을 위한 소장품 유형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박물관 윤리강령 목차〉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 기관으로서의 적격성
 - 물적 자원
 - 재정적 자원
 - 직원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 소장품의 취득
 - 소장품의 처분
 - 소장품의 관리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
 - 주요한 증거
 - 박물관의 수집 활동과 연구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진열 및 전시
 - 기타 자원
5. 박물관은 공공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
 - 감정 업무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 소장품의 출처지
 -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
8.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법적 체계
9.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직업적 품행
 - 이해의 상충

② 기능적 필요성

■ 미술관의 위상을 마련하는 소장품의 성격과 방향 제시

- 소장품은 미술관 설립의 근거 및 성격과 방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성격과 방향을 가시화하는 소장품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체계적인 수집 방향 및 소장품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원칙 제시

-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당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미술관 소장품의 연속성 및 보존·관리·이용의 합리화를 마련하기 위해 소장품의 체계적인 원칙 확보가 필요함

■ 정보재로서의 소장품 이용을 위한 방향 제시

-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 및 전시·교육을 통한 이용뿐만 아니라, 소장품을 오픈소스 개념의 정보재로서 이해하고, 연구자 및 일반 대중들의 공유와 협력 과정 속에서 미술관 자원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신뢰도 제고

- 인천시립미술관은 개관 전에 건립 취지 및 성격과 방향에 부합하는 소장품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안정적인 소장품 수집과 관리 지침을 얻어내어 소장품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공공의 기대와 신뢰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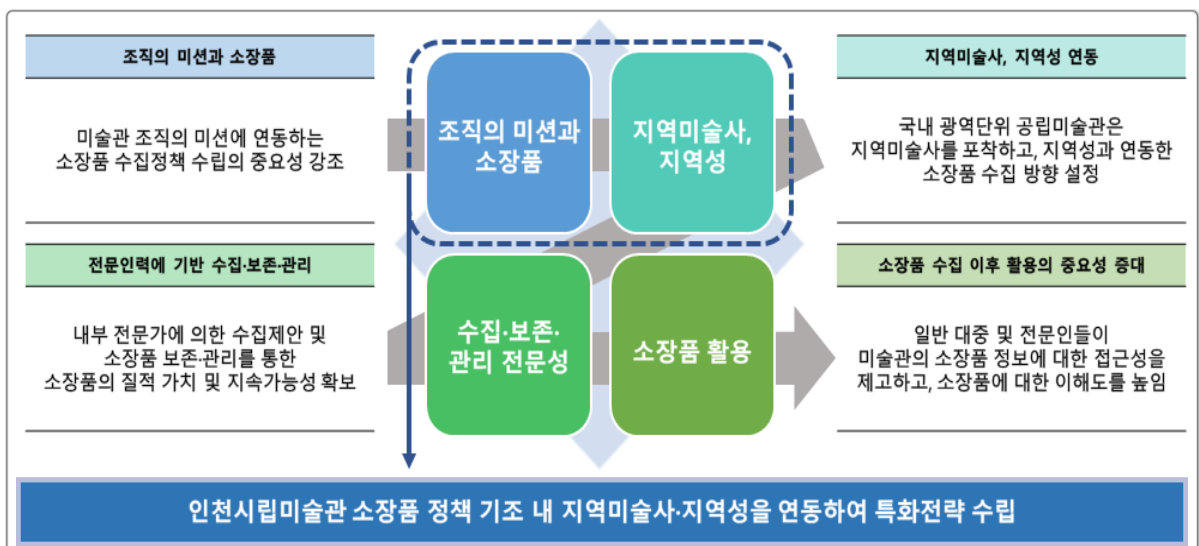
■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 가능한 소장품 정책 수립 필요

- 근현대미술의 특성상 근대미술에서의 미술사적 가치와 평가가 중시되고, 현대미술에서는 새로운 미술 현상과 확장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는바, 소장품 수집 원칙에서 연구와 객관적 기준 설정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하는 정책적 기조가 필요함. 또한, 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와 저작권 관련 등의 여러 법·제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등 수집정책에 대한 시대적 대응 역시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음

(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핵심요소

■ 소장품 정책 내 지역미술사·지역성을 연동하여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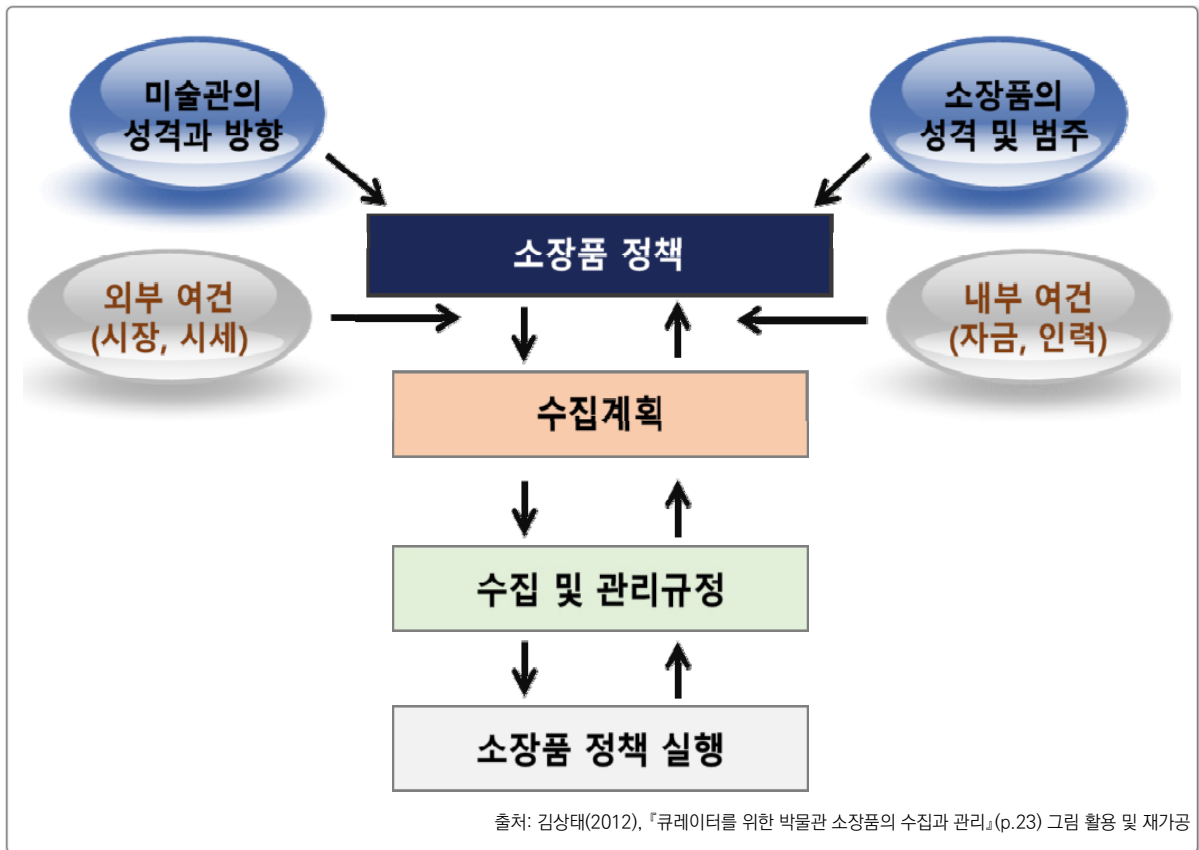
- 소장품 정책의 핵심요소는 조직의 미션과 소장품의 관계 및 역할 명시와 함께 지역미술의 역사 및 지역성과 연동하는 수집범위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 전반의 과정과 보존, 관리에서의 전문적 원칙과 기준, 그리고 소장품의 전시 및 교육,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용이랄 수 있음
- 그 중 지역미술사와 지역성과 연동되는 작품 연구 및 수집범위에 초점을 두고, 타 미술관과 차별화를 지니게 하는 특화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단, 지역성 강조는 동시대미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



[그림 IV-4] 소장품 정책 수립의 핵심요소

4) 소장품 정책의 기본구도

① 기본구도



[그림 IV-5]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활동 구도

■ 정책 ⇄ 계획 ⇄ 규정 ⇄ 실행의 선순환적 구도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정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소장품의 수집,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수집계획 및 수집 및 관리규정에 선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자리함
- ‘수집계획’은 소장품 정책의 토대가 되는 ‘수집’ 활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소장품 수집 시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유연하게 설정되는 계획임
- 다음으로 ‘수집 및 관리규정’은 법령의 형태로서 수집 과정과 관리에 필요한 상세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실행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규정임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정책 → 수집계획 → 수집 및 관리규정 → 소장품 정책 실행의 단계로 소장품 관련 활동을 전개해나감에,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함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 및 계획과 규정을 점진적으로 수정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함

② 정책구성

■ 기관별 대내외 상황에 적합한 소장품 정책의 내용구성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구도를 도출하기 위해 국외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검토함
- 가이드라인 및 국외 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션, 정책목적, 이사회의 의무, 취득, 대여, 보험 등 일반적인 내용 외에, 미술관에 따라 소장품 정책의 내용 구성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은 내적 여건과 대외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소장품 정책 가이드라인 사례

- 미국박물관·미술관협회(AAM, American Alliance of Museum)는 ‘홈페이지’와 <Developing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2018)을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의 구성 요소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표 IV-7] 미국박물관·미술관협회(AAM) 소장품 관리 정책 필수 요소

구분	내용
소장품을 보유한 기관 (생물/비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당국의 정책 승인 날짜 • 소장품의 범위 및 범주 • 소장품의 취득 및 등록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포함) • 소장품의 해제 및 처분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포함) • 소장품의 대여 및 반입/반출 (대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시) • 소장품 목록을 포함한 소장품 문서화 및 기록 • 소장품 관리 및 보존 • 소장품 접근 및 사용 • 소장품 관련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 및 권한 • 소장품 관련 윤리적 문제 • 소장품 해제, 신규 취득 및 직접 관리로 인한 자금 사용에 관한 사항 (직접 관리가 허용된 자금 사용인 경우, 다음의 정책을 포함) • 소장품의 직접 관리 범위 • 의사결정 관여자 및 자금 사용 결정을 위한 절차
소장품 미보유 기관 (전시, 교육, 연구를 위해 소장품을 대여·사용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보관 중인 소장품에 대한 관리 및 문서화 • 대여 정책 및 기준 • 임시 보관 중인 소장품의 접근 및 사용 • 대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 관리 당국의 정책 승인 날짜

출처: AAM 홈페이지(접속일: 2021.11.17.)

[표 IV-8] 미국뮤지엄협회(AAM) 소장품 관리 정책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미션, 비전 및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절차, 계획이 미션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뮤지엄 정책 문서는 그들의 미션을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시작함. 이 섹션은 뮤지엄의 소장품 선택 관점과 소장품 관리 임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권한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섹션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품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당국, 관련 위원회,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요약함 보통 박물관의 이름, 목적, 법적 및 수탁 문제에 관한 책임자의 식별을 포함
법률 및 윤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은 주로 그들의 소장품과 수집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주,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명시하며, 수집과 관련된 윤리 강령이 있어야 함
소장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 소장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며, 뮤지엄이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는지, 어떻게 소장품이 사용되는지를 설명함
소장품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이 관리하고, 기록하고, 사용하는 소장품의 범주를 설명함. 이 섹션에서는 해당 범주의 소장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획득되고, 등록되고, 관리되고, 접근 해제되고 폐기되는지 설명될 수 있음
소장품 취득/신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은 뮤지엄의 소장품을 획득하는 행위이고, '신규승인'은 뮤지엄의 영구 소장품으로 대상을 합법적,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임. 이 섹션은 뮤지엄의 미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하며, 수집 및 등록에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설명함
소장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각'은 '공식승인'의 반대 개념으로, 뮤지엄 소장품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것을 말하며, 소장품 관리의 일반 업무이자 소장품의 개선 방법이기도 함. '처분'은 법적, 윤리적 함의를 이해하고 뮤지엄이 대중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의사결정 및 승인 과정뿐만 아니라, 소장품에서 대상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해제 소장품의 적절한 처분 방법과 수익의 사용에 관한 설명을 포함함
소장품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는 소장품을 다른 뮤지엄에 빌려주거나, 타 뮤지엄에서 소장품을 빌려와 소장품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여 승인 및 허가, 수수료, 문서화, 보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대여 제한 작품 내용 등 추가 가능함
보관 중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에서 발견되었거나, 버려지거나, 소유자가 없는 개체 등 불명확한 대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기술함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장품의 열화 방지를 위해 소장품 관리방침에 있어 보관, 온도, 습도, 병해충 방제, 보존, 취급, 재난 계획, 재고 등의 사항을 해결할 것을 권장함
문서화 및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의 상태, 역사, 사용 내역 및 가치를 문서화하여 소장품에 대한 물리적, 지적 통제를 유지하고 신원이나 출처를 보증함
소장품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은 대중에게 소장품과 소장품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함 소장품 정보 접근 자격, 대상, 사유, 제한 사항 및 안전장치를 설명함
소장품 감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들은 보험의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품을 감정할 수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작품 감정은 심각한 법적, 윤리적 고려가 수반되므로 금지됨. 따라서, 이 섹션에는 직원 평가에 대한 제한 사항과 개요를 마련하고, 기증자나 일반인을 위한 감정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함
지적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및 접근 소장품에 대한 저작권 취득 및 상표권, 공정 사용, 전자 사용,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상업적 사용, 로열티 및 수수료, 복제, 프라이버시, 시각예술가 권리법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법률의 준수를 다룸
검토/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관리 정책은 직원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함 뮤지엄은 소장품 정책에 검토 및 개정 과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용어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엄의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소장품 관리 정책의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한 용어집을 정책에 포함할 수 있음

출처: AAM(2018), Developing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 미술관 소장품 정책 사례

- J. 폴 게티 뮤지엄의 <COLLECTION POLICY>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미션과 소장품 정책의 목적, 이사회의 의무, 소장품 취득 정책 등 소장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다루고 있음 (세부내용 부록 참고)

[표 IV-9] 사례: 폴 게티 미술관 소장품 정책 항목

① 목적과 사명 (Statement of Purpose and Mission)	⑧ 소장품 매각 (Deaccessioning)
② 소장품 정책의 목적 (Purpose of the Collection Policy)	⑨ 소장품 관리 (Care of Collections)
③ 소장품의 범위 (Scope of Getty Museum Collections)	⑩ 기록과 목록 (Records and Inventories)
④ 이사회의 의무 (Duties of the Board of Trustees)	⑪ 소장품 접근 (Access to Museum Collections)
⑤ 소장품 취득 (Acquisitions)	⑫ 소장품 대여 (Outgoing Loans)
⑥ 공동 소유 예술작품 (Jointly Owned Works of Art)	⑬ 외부 작품의 대여 (Incoming Loans)
⑦ 소장품 취득 관련 직원 정책 (Staff Policies Related to Acquisitions)	⑭ 효력일 (Effective Dates)

출처: J. PAUL GETTY MUSEUM(2019)

-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의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재단의 임무, 소장품 정책의 목적, 위원회 및 이사회의 직무를 시작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세부내용 부록 참고)

[표 IV-10]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 소장품 정책 항목

①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⑦ 미술품 취득 기금 (Art Acquisition Funds)
② 소장품 관리 정책의 목적 (Purpose of the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⑧ 미술 처분 수익의 지출에 관한 임시 정책 (Interim Policy for the Expenditure of Proceeds from Art Deaccessions)
③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의 소장품 관리 직무 (Collection Management Duties of the Art and Museum Committee and the Board of Trustees)	⑨ 대여 (Loans)
④ 취득 (Acquisitions)	⑩ 부분 기증, 공동 소유 작품, 약정 기증 (Fractional Gifts, Co-Owned Works, and Promised Gifts)
⑤ 미술품 퇴역을 위한 정책과 절차 (Policy and Procedures for Decommissioning Works of Art)	⑪ 소장품에 대한 접근, 관리와 기록 (Access, Care, and Documentation of the Collection)
⑥ 미술품의 처분과 매각 (Policy and Procedures for the Deaccession and Disposition of Works of Art)	⑫ 보험 (Insurance)
	⑬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 (Study Collection and Archives)

출처: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2020)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구성 : 미션, 연구, 수집, 관리·보존, 이용

● 연구기능 강조를 통한 타 미술관과의 차별화 지점 마련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은 앞서 검토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대내적 환경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시립미술관은 대내적으로 소장품 수집의 체계적 기준 마련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미술사 및 동시대 미술 연구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즉, 소장품 수집의 범위, 유형, 방법과 함께, 소장품의 질적 수준과 특화전략을 위한 소장품 관련 연구를 강조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은 총 5개 영역, 21개 항목으로 다음과 제안함

[표 IV-1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영역	항목	방향
미션	① 미술관 미션	인천시립미술관 사명과 존재 이유 제시
	② 소장품 미션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점과 가치 제시
	③ 소장품 정책 목적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및 소장품 미션과 연동되는 정책 목적 제시
	④ 책임 및 권한	소장품 관련 위원회 및 내부직원의 책임 및 권한 명시
연구	① 소장품 연구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미학적·미술사적 가치 발굴 및 재맥락화
	② 정책 연구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실행
수집	① 수집범주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과 연동되는 영역설정에 따른 수집
	② 수집유형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유·무형의 작품 및 자료로 분류
	③ 수집방법	학예사에 의해 추천·제안 이후 위원회의 평가·심의에 기반한 관장의 결정
	④ 가치평가	작품 및 자료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가치평가 실행
	⑤ 저작권	수집 시 작품의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계약 내용 명시
관리·보존	① 분류	소장품 효과적 관리를 위한 소장품의 다층적 분류체계 개발
	② 등록	소장품 기술지침 마련을 통한 등록 정보 수집의 체계화 및 전산관리 추진
	③ 처분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소장품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
	④ 보험	소장품 운송, 전시, 보관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⑤ 보존	소장품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구축 및 보존처리 역량 강화
	⑥ 기록	소장품 관련 미술관의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최신화하여 활용성 제고
	⑦ 정보시스템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장품 정보시스템 구축
이용	① 열람·복제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
	② 대여	국내·외 기관 및 예술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천지역 문화예술진흥
	③ 콘텐츠 활용	소장품 기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미술관 및 소장품의 가치 확산

2 소장품 정책 수립방향

1) 미션

(1) 개요

- ‘미션’은 총 4개의 항목으로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소장품 미션’, ‘소장품 정책 목적’, ‘책임 및 권한’의 내용을 포함함

[표 IV-1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미션

항목	내용
① 미술관 미션	인천시립미술관 사명과 존재 이유 제시
② 소장품 미션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점과 가치 제시
③ 소장품 정책 목적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및 소장품 미션과 연동되는 정책 목적 제시
④ 책임 및 권한	소장품 관련 위원회 및 내부직원의 책임 및 권한 명시

(2) 수립방향

① 미술관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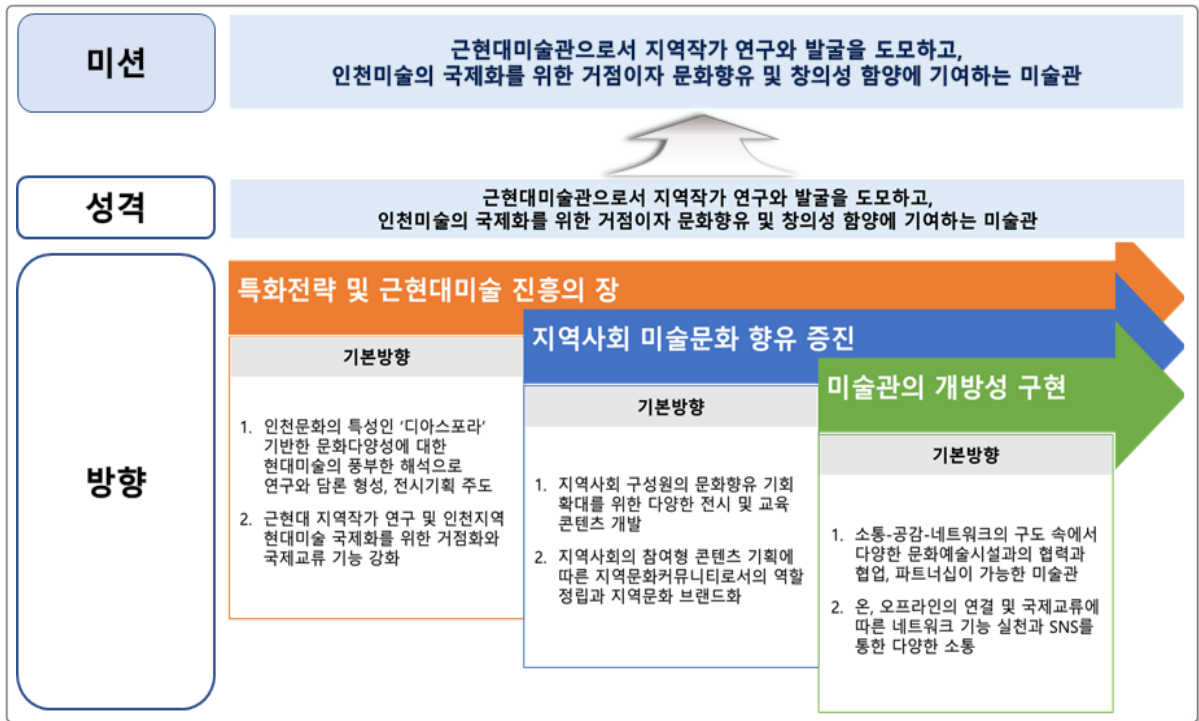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 사명과 존재 이유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을 도출하여 소장품 미션과 함께 소장품 정책 목적의 기본 이념을 마련함
- 미션은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과 존재하는 이유를 드러내는 것으로, 설립 목적을 전제로 조직의 특화된 부분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활동과 역할을 암시하는 목표를 제시함

[표 IV-13] 미션의 정의와 기본방향

정의	•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과 존재하는 이유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일반적 기능 및 역할과 함께 조직의 특화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함 • 조직의 설립 목적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활동과 역할을 암시하는 목표를 제시함 • 특히 대내외 환경 분석을 고려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분명히 드러냄 • 과도한 정책적 목표와 성과주의적 선언보다는 조직 활동에 근거한 질적 차원, 가치적 맥락,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위의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은 미션으로서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 성격으로 제시된 “근현대미술관으로서 지역작가 연구와 발굴을 도모하고,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이자 문화향유 및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는 미술관”을 미션에 준하는 내용으로 수용함



[그림 IV-6]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 관련 예시 : 미술관 미션 (Museum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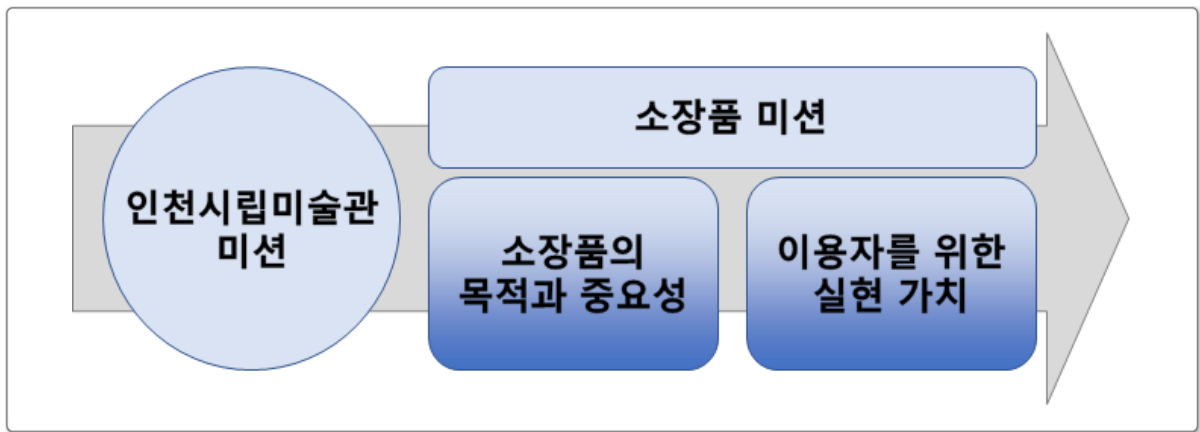
미술관명	개관연도	내용	비고
퐁피두 센터 Le Centre Pompidou	1979	<p>[국립현대미술관 및 창조산업센터]</p> <p>(미션) - 퐁피두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0세기 조형예술과 그래픽 예술, 사진, 실험영화, 비디오, 뉴미디어, 디자인, 산업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시하고 개발하기 위해 목록화하고 보존·복원함으로써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소장품에는 관련 자료와 기록물들도 포함된다.</p> <p>- 20세기 예술의 지식을 보급하고 확대하기 위한 모든 행사를 모든 장소에서 대중에게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현대적 창작을 촉진한다.</p> <p>[문화 및 창조부]</p> <p>(미션) - 현대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현대 창조물의 확장 보급에 참여한다.</p> <p>- 특히 라이브 공연, 영화 및 시청각, 새로운 예술 형식의 홍보, 세계의 주요 변화에 대한 반성 등 미션과 상통하는 모든 이벤트를 발표한다.</p>	<p>- 비전 불명</p> <p>- Organization 발체</p> <p>- 퐁피두센터는 전체를 관장하는 한명의 대표 (president)와 두 개의 부서(department), 여덟개의 국(direction), 그리고 회계기관으로 나뉘어 있음</p> <p>- 두 개 부서는 국립현대 미술관 및 창조산업센터, 문화 및 창조부로 나뉘며, 모든 부와 과는 각각의 업무별 미션을 두고 있음</p>

미술관명	개관연도	내용	비고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Barcelona	1995	<p>(미션) - 현대미술, 특히 카탈로니아 현대미술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으로, 연구, 지식의 생성 및 보급을 통해 개인과 사회 간의 변화적 영향과 열망을 통해 예술과 현대 문화에 대한 즐거움과 관심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비판의식을 가진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p> <p>(비전) - 가까운 과거를 되돌아보는 책임 및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함께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예술을 통해 작동하며 단일의 헤게모니적 내러티브를 거부합니다.</p> <p>(전략) - 1995년 개관 이래 카탈로니아의 동시대 미술 시스템은 미술관의 개발 및 성장과 병행하여 고도의 진화 과정을 거처옴.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은 카탈로니아에 공공 미술 컬렉션을 구축하는 기관이었으며, 현대미술에 대한 성찰, 연구 및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p>	- About MACBA 발취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Fukuoka Asian Art Museum	1999	<p>(미션) - 아시아와의 교류거점 후쿠오카 :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후쿠오카시는 고대부터 아시아 대륙 문화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아시아의 핵심 인터랙티브 도시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은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의 교류를위한 도시의 진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1999년에 개관했습니다. 개장 이후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일본은 물론 아시아 및 세계 각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일 아시아 근현대 전문 미술관 - 창조와 교류의 장 - 도시 중심의 살아있는 미술관 	- Mission 발취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2004	<p>(미션) -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도시계획은 21세기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협력 정신을 통해 가나자와의 창조적 에너지를 일깨우고 매력적인 지역의 문화 명소가 되겠습니다.</p>	- Mission Statement 발취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Taipei Fine Arts Museum	1983	<p>(미션) - 타이베이 미술관의 미션은 대만 근현대미술의 보존·연구·개발 및 대중화 촉진하는 것, 글로벌 트렌드 파악 및 다양한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것,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것, 대만 근현대미술의 변창을 돕는 것, 그리고 미적 감각과 문화적 지각을 갖춘 동시대 사회 형성을 위해 대중의 예술적 성취를 배양하는 것입니다.</p>	- Mission&Vision 발취
홍콩예술관 Hong Kong Museum of Art	1991	<p>(미션) - 홍콩의 관점과 대조되는 세계를 큐레이팅하고 신선한 경험과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예술과 사람을 연결한다.</p> <p>(비전) - 홍콩의 순수예술 기관으로서,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과 예술 관련 창작 활동에 있어 선두에 서기를 희망한다.</p>	- About the Museum 발취

② 소장품 미션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점과 가치 제시

- 소장품 미션은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과 연동되어 소장품 정책의 목적을 수립하는 데 기초 근거가 됨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이 정의하는 소장품은 무엇인지를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과 연동하여 소장품과 관련된 목적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공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서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인지를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소장품 미션 예시: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가시화하는 자원으로, 소장품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지역미술 진흥을 위한 매개 역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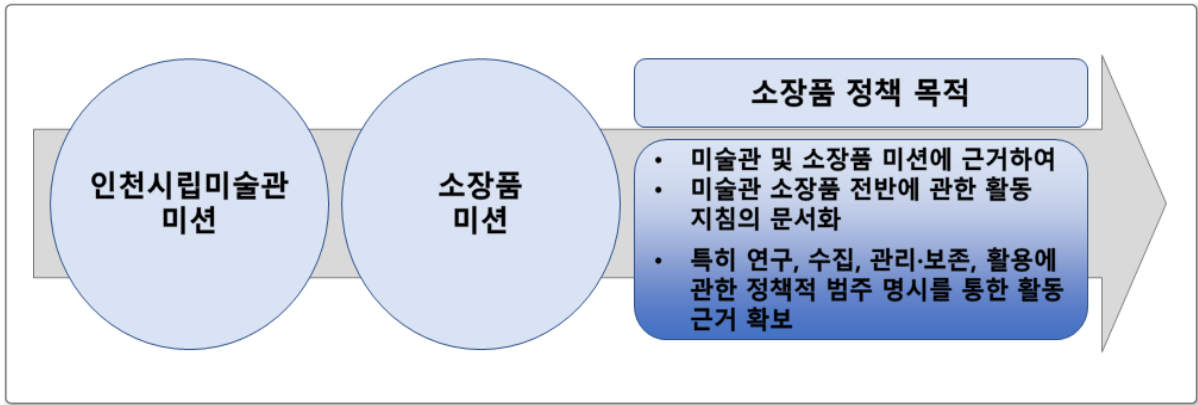
[그림 IV-7] 소장품 미션의 핵심내용

● 관련 예시 : 소장품 미션 (Collection's Mission)

- **(MISSOULA ART MUSEUM)** MAM은 동시대 몬태나(MONTANA) 지역 예술가에 중점을 두고, 미국 서부 문화와 관련된 예술을 수집, 보존, 전시 및 연구합니다. MAM 컬렉션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독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대미술을 통해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MAM 사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006년 MAM 이사회에서 채택 (<https://missoulaartmuseum.org/collection>)
- **(BROOKLYN CHILDREN'S MUSEUM)** BCM 컬렉션의 미션은 체험학습과 탐구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심화하기 위한 실습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https://www.brooklynkids.org/history-mission/collections/>).
- **(WAYNE STATE UNIVERSITY)** 우리 대학의 소장품 미션은 예술을 통해 교육, 영감, 창의적 사고력 함양과 사회문화적 리더십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https://artcollection.wayne.edu/mission>).

③ 소장품 정책 목적

■ 인천시립미술관 미션 및 소장품 미션과 연동되는 정책 목적 제시



[그림 IV-8] 소장품 정책 목적의 핵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정의를 “인천시립미술관 미션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수집, 관리·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설정함
- 이에, 소장품 정책의 기본목적은 인천시립미술관 및 소장품 미션을 바탕으로 미술관 소장품 전반에 관한 활동 지침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음
- 특히 소장품 정책 목적에는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소장품 수집, 관리·보존, 이용에 관한 내용적 범주를 명시함으로써 소장품 정책의 목적을 가시화하고, 이에 기반한 미술관 운영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 예시 : 소장품 정책 목적 (Purpose of the Collection Policy)

-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소장품 정책(이하 “정책”)은,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임무와 전문 미술관 기준에 일치하게 재단의 미술 소장품(이하 “소장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의 발전과 관리를 안내하는 정책을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다(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2020).
- **(J. PAULI GETTY MUSEUM)** 본 소장품 정책(이하, “정책”)은 미술관의 임무와 관련 전문 기준에 따라 미술관의 미술 소장품의 확장과 관리를 감독하는 정책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자 만들어졌다. 게티 신탁의 이사회는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이 적절하게 보호, 보증, 보존될 뿐만 아니라 기록, 보고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게티 미술관 소장품 내 작품들의 취득, 처분, 대여와 관련한 결정들을 미술관의 임무에 맞게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최고의 전문 기준을 고려하여 이뤄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 소장품 관련 활동들이 공공의 선을 증진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정책을 채택해 왔다(J. PAUL GETTY MUSEUM, 2019).

④ 책임 및 권한

■ 소장품 관련 위원회 및 내부직원의 책임 및 권한 명시

- ‘책임 및 권한’은 소장품 정책을 실천하는 미술관 내외의 행위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함.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는 행위 주체로는 내적으로 ‘관장 및 학예사’로 외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함
-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품 활동과 관련해 학예사와 협의하여 소장품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총 책임자로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소장품 수집계획의 수립과 함께 각 단계별 심의에 참여하며,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 수집, 관리·보존,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학예사의 활동 승인 권한을 지님
- ‘학예사’는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장품 연구, 수집,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님. 특히 소장품 연구를 바탕으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수집추천을 실행하는 권한을 지니며, 작품 수집 시에는 미술관 및 소장품 미션에 기반하여 공익적 이익을 담보해야 함. 뿐만 아니라, 소장품 처분, 대여,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실무적 판단의 권한을 지님
- 소장품 관련 위원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소장품 수집단계에서 의결권을 지니는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와 미술관 운영 및 소장품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운영위원회’로 구분됨
- ‘운영위원회’는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 처분, 보존, 이용에 관한 활동을 자문하고, 승인함. 반면에 ‘가치평가위원회’는 학예사의 소장품 수집 추천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가격평가위원회’는 선정된 작품에 대한 매입가격을 평가하고, ‘수집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으로서 수집대상을 심의하고 의결함

책임 및 권한	
위원회	관장 및 학예사
소장품 수집 관련 위원회	
가치평가위원회	→ 수집대상의 가치평가
가격평가위원회	→ 수집대상의 가격평가
수집심의위원회	→ 수집대상의 최종심의
소장품 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위원회	→ 소장품 연구, 처분, 보존, 활용 등 미술관의 소장품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승인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총 책임자 • 위원회 구성 및 소장품 수집 계획의 수립과 소장품 연구, 수집, 관리·보존,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및 학예사의 활동 승인 권한 보유 	
학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적 전문성에 기반한 소장품 관련 각 분야별 활동의 책임자 • 소장품 수집추천 및 처분, 대여, 연구, 활용 등에 관한 실무적 판단의 권한 보유 	

[그림 IV-9] 책임 및 권한의 주요내용

2) 연구

(1) 개요

- ‘연구’는 총 2개의 항목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을 시작으로, ‘소장품 연구’와 ‘정책 연구’로 구분됨

[표 IV-1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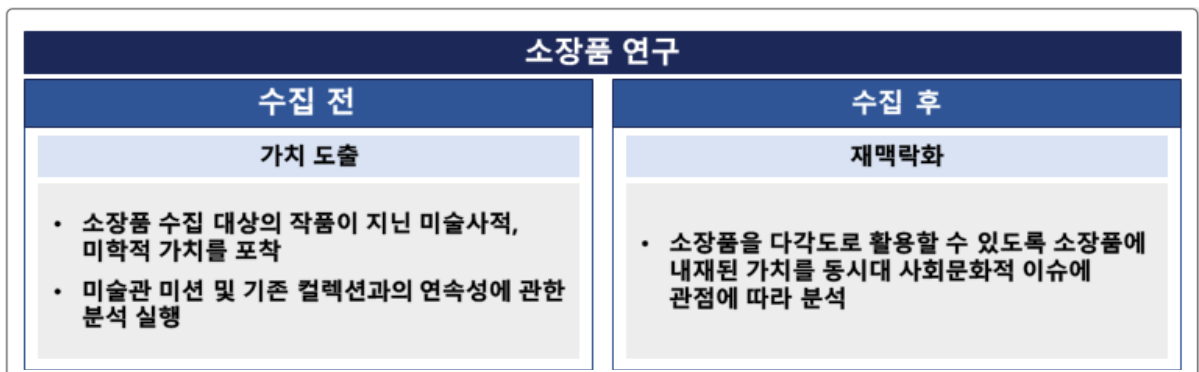
항목	내용
① 소장품 연구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미학적·미술사적 가치 발굴 및 재맥락화
② 정책 연구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실행

(2) 수립방향

① 소장품 연구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미학적·미술사적 가치 발굴 및 재맥락화

- 소장품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향후 소장품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 작품에 대한 연구로, 해당 작품의 미학적·미술사적 가치와 함께 미술관의 미션, 기존 컬렉션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분석함
- 둘째, 수집된 소장품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한 작품에 대한 재해석 및 재맥락화하는 연구로, 소장품에 내재된 다양한 특성을 동시대 사회문화적 이슈 및 관점에 따라 분석함
- 즉, 소장품 연구는 수집을 위한 연구이자 활용을 위한 연구로, 인천시립미술관은 양질의 컬렉션 구축과 함께, 수집된 소장품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소장품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V-10] 소장품 연구 주요 내용

② 정책 연구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실행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은 “인천시립미술관 미션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소장품 관련 연구 및 수집, 관리·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정의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근거가 되는 소장품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미술관이 실행하게 될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원칙과 지향점을 명시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실행 기준과 근거를 제공함
- 위와 같은 소장품 정책은 소장품에 대한 미술관의 일관된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면서 항구성을 내재해야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인천시립미술관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화·발전시켜가야 함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며, 내용적 범위로는 ‘조직구성’, ‘수집연구’, ‘관리·보존연구’, ‘활용연구’ 4개 영역으로 구분 가능함

[표 IV-15] 정책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
조직구성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개발을 위한 인력체계 구성
수집연구	수집·연구·활용이 연계되는 소장품 수집전략 및 계획의 기반 마련
관리·보존연구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보존 안정성 제고 기반 마련
활용연구	소장품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가·일반인의 접근성 강화 기반 마련

● 조직구성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개발을 위한 인력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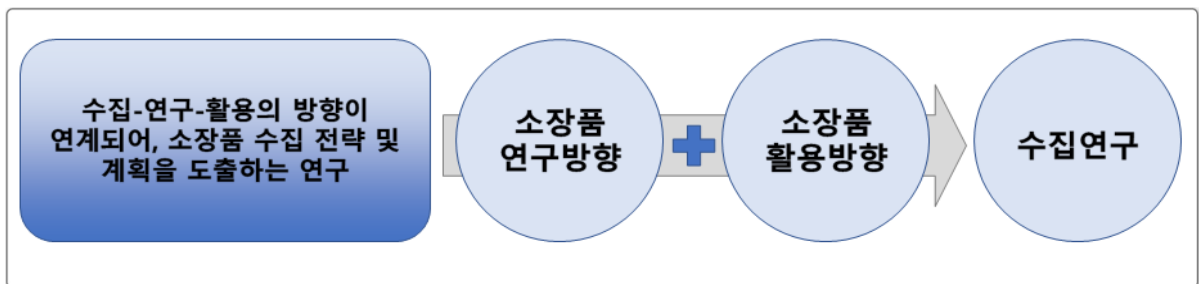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은 자체적으로 소장품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미국미술관협회에 따르면, 소장품 정책 개발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정책개발팀 구성’을 꼽고 있음
- 이는 미술관의 관장 및 학예사들에 의해 미술관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IV-16] 소장품 정책 개발의 프로세스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정책개발팀 구성	미술관 내 거버넌스, 행정, 수집, 보존, 교육, 연구 등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정책개발팀 구성
2단계	표준 및 자원 검토	관련 법적, 윤리적, 전문적 표준 및 수집관리 리소스를 검토하여 정책에 포함할 항목을 결정
3단계	정책 개발	보유 자원과 미술관의 미션 및 기타 정책 문서를 사용하여 뮤지엄 차원의 소장품 관리 정책을 개발
4단계	피드백	내부직원 및 다른 관련 단체에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
5단계	운영위원회 승인	검토 및 개정 과정에 따라, 미술관 운영위원회에 정책을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승인
6단계	절차 개발	정책이 승인되면 정책에 수반되어야 하는 모든 절차 개발
7단계	시행	관련 직원들이 소장품 정책과 해당 절차를 어떻게 이행할지 이해도 제고
8단계	주기적인 검토 및 개정	향후 미술관의 변화나 수집 활동에 따라 정책과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

출처: AAM(2018), Developing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수정

● 수집연구 : 수집·연구·활용이 연계되는 소장품 수집전략 및 계획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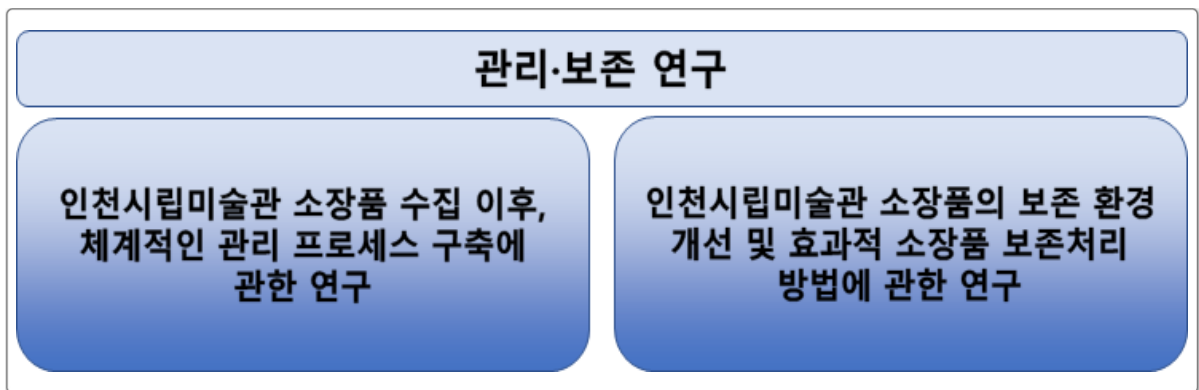


[그림 IV-1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연구의 핵심내용

-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연구는 수집을 ‘소장품 수집’을 시작으로, ‘소장품 연구’, ‘소장품 활용’의 3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도출하는 연구를 의미함
- 미술관이 체계적으로 소장품을 수집한다는 것은, 공공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수집 절차에 대한 체계성뿐만 아니라, 수집 이후 연구와 활용의 방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수집의 의의를 극대화하는 프로세스를 고려하는 것까지 포함함

- 이에, 미술관 소장품 수집 연구의 핵심과제는 “수집전략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됨. 수집전략과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미술관에서 소장품 연구에 필요한 작품’과 함께 ‘전시·교육 등의 미술관 콘텐츠 개발에 요구되는 작품’에 대한 수집이 고려되어야 함
- 즉, 수집 이후 미술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맥락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질적 가치 강화 및 활용성에 주목하여, 미술관의 학술적 연구기능과 함께 콘텐츠 개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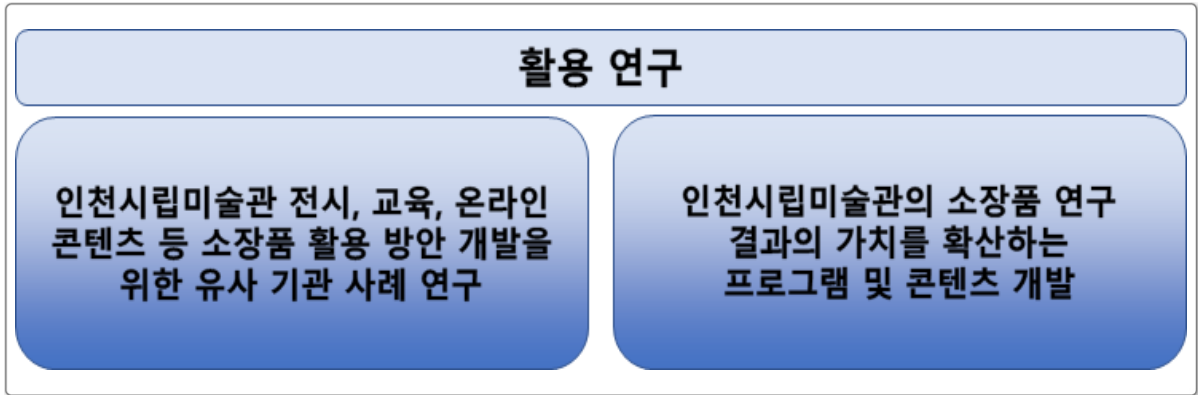
● **관리·보존연구 :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보존 안정성 제고 기반 마련**



[그림 IV-1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보존 연구의 핵심내용

- 소장품 관리·보존 연구는 소장품 수집 이후의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 프로세스 및 효과적인 소장품 보존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미술관 소장품 수집 이후 미술관 내 전문인력인 ‘레지스트라(registrar)’ 또는 학예사에 의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장품의 관리·보존 및 내부 전문인력의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게 됨
- 개관에 앞서, 레지스트라 및 학예사에 의해 인천시립미술관에 최적화된 관리·보존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관리·보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
- 예컨대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활용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 업무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연구가 선행과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소장품의 양적 증대에 따른 수장 공간의 부족과 함께 수집 작품 유형 재설정 등의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수장고의 보존환경과 더불어 소장품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수장고의 환경개선 및 소장품의 유형별 보존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여 소장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위와 같은 관리·보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립미술관은 관리·보존 연구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활용연구 : 소장품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가·일반인의 접근성 강화 기반 마련



[그림 IV-13]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활용 연구의 핵심내용

- 소장품 활용연구는 인천시립미술관 이용자들을 향유와 참여를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등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의미함
-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연구의 결과를 전시, 교육,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어떠한 형태로 소장품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그 가치를 전달 및 확산할지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소장품 활용을 통한 전시에 어떠한 주제를 담을 것인가?, 소장품 활용 교육 시 어떠한 가치를 담을 것이며, 교육의 대상은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의 연구가 존재할 수 있음
- 인천시립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활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술관(박물관 포함)의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유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장품 활용방식에 관한 사례를 파악하고, 이후 미술관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차별화된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소장품 활용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3) 수집

(1) 개요

- ‘수집’은 총 5개의 항목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범주’를 시작으로, ‘수집유형’, ‘수집방법’, ‘가치평가’,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함

[표 IV-17]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수집

항목	내용
① 수집범주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과 연동되는 영역설정에 따른 수집
② 수집유형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유·무형의 작품 및 자료로 분류
③ 수집방법	학예사에 의해 추천·제안 이후 위원회의 평가·심의에 기반한 관장의 결정
④ 가치평가	작품과 자료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가치평가 실행
⑤ 저작권	수집 시 작품의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계약내용 명시

(2) 수립 방향

① 수집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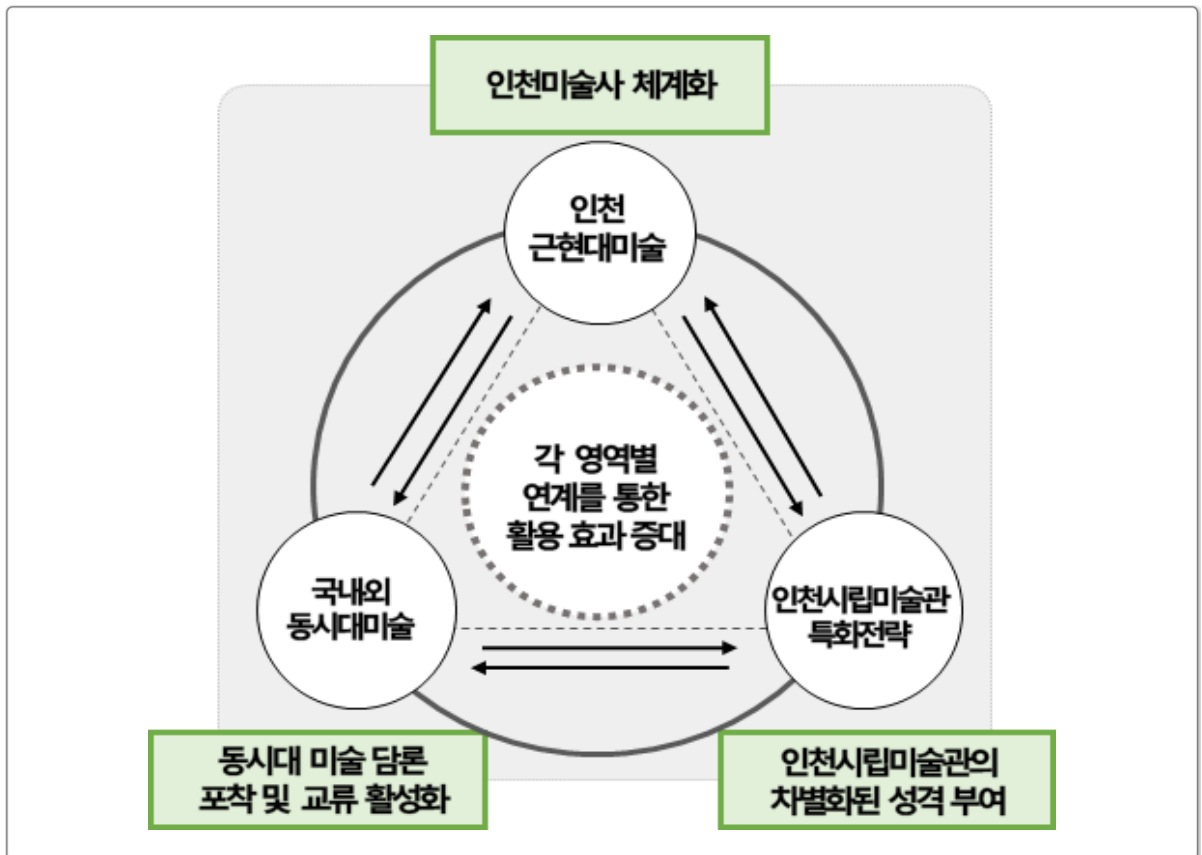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과 연동되는 영역설정에 따른 수집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범주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에 근거하여 도출함
- 인천시립미술관은 ‘근현대미술관으로서 지역작가 연구와 발굴을 도모하고,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이자 문화 향유 및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디아스포라’ 담론에 기반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범주 영역은 총 3가지로 구분 가능함
- 첫째, ‘인천 근현대미술’로 작품과 자료를 포괄하는 영역임. 해당 영역은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미술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이를 위해 인천미술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주요한 지역 연고 작가의 주요 작품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인천미술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유의미한 인천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대상으로 설정함
- 둘째, ‘국내·외 동시대 미술’로, 동시대 미술 담론을 포착하고 국내외 예술가 및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이를 위해 동시대 미술 연구에 있어 주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는 작품과 함께, 국내외 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 작품성이 검증된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수집대상으로 설정함

- 셋째,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 담론과 연관된 국내외 작가의 주요 작품을 수집하며, 인천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서도 특화된 주요 작품을 수집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세 영역의 소장품 수집범주는 서로 연계되면서 소장품 활용 효과를 증대하고, 근현대미술관이자,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차별화된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할 수 있음

[표 IV-18]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범주

영역	목적	내용
인천 근현대미술	인천미술사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미술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주요한 지역 연구 작가의 주요 작품 • 인천미술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유의미한 인천미술 관련 자료
국내·외 동시대 미술	동시대 미술담론 포착 및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 미술 연구에 있어 주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는 작품 • 국내외 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 작품성이 검증된 동시대 작가의 주요 작품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포라 담론과 연관된 국내외 작가의 주요 작품 • 특화된 주제에 의한 인천시립미술관 기획전을 통한 주요 작품



[그림 IV-1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범주의 구도

Ⅰ 인천미술 진흥을 위한 인천지역작가에 대한 배려

- 인천시립미술관이 지역미술관으로서 인천지역의 작가 양성과 지역미술 진흥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지역작가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하지만 지역작가에 대한 일정한 배분을 수치상으로 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장품 수집범주에 해당하는 주제 영역에서 우수한 지역작가 작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작가의 대표성으로 평가되도록 함
- 특히 인천의 근현대미술 부분의 경우, 인천미술의 역사성과 미학 및 비평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새롭게 인천 근현대미술사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함
- 다만, 지역작가를 어느 선까지 고려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함

[표 IV-19]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지역작가 기준

구분	내용
인천 활동자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 작가 (작업실 인천 소재 가능, 주소증빙) 또는 인천의 미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작가(활동 증빙)
인천 출신자	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작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증빙)

② 수집유형

■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유·무형의 작품 및 자료로 분류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영역은 작품과 자료로 구분하고, 작품은 총 10개 유형으로, 자료는 수집기록물(매뉴스크립트)로 설정할 수 있음
- 기존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서는 소장품의 수집을 ‘작품’에 한정하고, 총 ‘평면’, ‘입체’, ‘부조’, ‘미디어’, ‘기타’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는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형의 구분기준이 작품표면 두께 10cm에 초점을 두어,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의 유형이 ‘부조’라는 단일 유형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분류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동시대 미술관은 퍼포먼스와 같은 비물질 작품의 수집에 대한 접근이 전개되고 있어, 해당 장르에 대한 분류 기준의 설정이 요구됨
- 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품뿐만 아니라, 자료를 포함하는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이 동시대 소장품 분류체계 기준에 대응함과 동시에, 서예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미술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장품 분류체계의 재설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 IV-20]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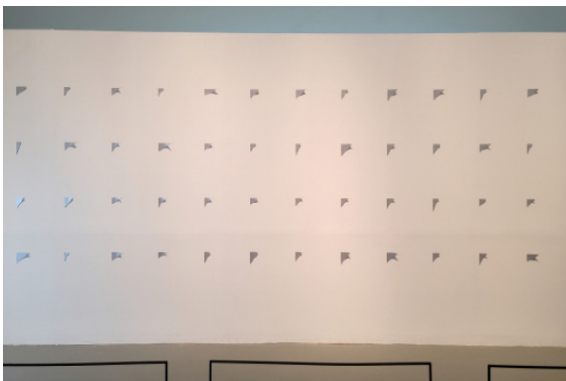
영역	기준(유형)	내용
작품	한국화	한국의 전통적 기법과 양식에 의해 제작된 작품
	회화	각종 안료를 써서 형상을 표현한 작품
	서예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
	판화	형상을 그려 만든 판에 잉크나 물감을 칠해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한 작품
	드로잉	선적인 표현의 회화 작품
	조각	공간·장소 내에 입체성을 구현한 작품
	설치	공간·장소와의 맥락에 중점을 두는 작품
	사진·영상	아날로그 카메라·필름·비디오를 매개로한 예술작품
	뉴미디어아트	디지털 기술매체 및 첨단기술에 기반한 작품
	퍼포먼스	퍼포먼스 매뉴얼
자료	수집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인천 근현대 미술자료 일체 및 기타 학예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및 미술관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술인 및 단체, 공간 등의 기록물

● **작품 :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유형은 ‘한국화’, ‘회화’, ‘서예’,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사진·영상’, ‘뉴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총 10개로 분류함
- ‘서예’의 경우 인천미술의 역사에서 서예가 갖는 위상이 분명한 만큼 수집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인천뮤지엄파크의 박물관의 소장품과 수집범주가 중첩될 여지가 있음. 이에 ‘서예’의 수집은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및 전시 기획 주제에 적합한 서예작품이 존재할 경우 수집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퍼포먼스 작품을 수집하여 비물질 작품 수집에 대한 동시대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담론에 대응하고, 인천시립미술관의 동시대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미술관 : 퍼포먼스 작품 수집

- 2019년 경기도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퍼포먼스(1970년대 이벤트, 전위적 행위예술 및 실험미술, 개념적 설치미술 등)를 소장품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성능경, 홍명섭 작가의 퍼포먼스 개념서(매뉴얼)을 수집함
- 경기도미술관은 매년 2점씩 수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물질이 아닌 퍼포먼스 개념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서(매뉴얼)’를 작가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림 IV-15] 홍명섭, <벽에 종이 찢어붙이기>, 1978



[그림 IV-16] 성능경, <신문읽기>, 1976

-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 적용되면서 다각화되는 뉴미디어아트¹²⁾의 동향에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됨. 특히 미술품 수집과 소유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야기하는 NFT 수집에 대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립미술관은 원본의 개념이 없던 디지털 아트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NFT를 소유하고, 작가와 상의하여 저작권 중 전시권을 개방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의 NFT 컬렉션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선도적 포지셔닝이 가능함

12) 본 연구에서 뉴미디어아트는 미디어아트, 디지털아트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함

시애틀 NFT 뮤지엄 : 세계 최초의 NFT 뮤지엄

- 2021년 12월, 미국 시애틀에 세계 최초의 대체불가토큰(NFT) 박물관 '시애틀 NFT 뮤지엄(Seattle NFT Museum·SNFT)'이 문을 열었음. 시애틀 NFT 뮤지엄은 대중들에게 NFT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세계 예술가의 NFT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마다 QR코드가 있어 수집가가 그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며 이미지 교체 역시 간단한 것이 특징임



[그림 IV-17] 시애틀 NFT 뮤지엄

● 자료 : 수집기록물(매뉴스크립트)

-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지역의 각종 근현대 미술자료의 수집을 통해 인천미술사의 체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소장품의 한 유형으로 포함함
- 수집기록물의 세부유형의 분류는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지역 미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실정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수집기록물은 작가 아카이브와 관련 전시 및 각종 행사 자료, 각종 매체별 영상 이미지 자료, 구술 자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한 유형화가 가능함

③ 수집방법

■ 학예사에 의해 추천·제안 이후 위원회의 평가·심의에 기반한 관장의 결정

- 소장품의 수집방법은 일반적으로, ‘구입’, ‘경매구입’, ‘수증’, ‘관리전환’의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서의 소장품 수집방법은 국내 광역단위 국공립미술관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기준은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수집방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수집주체’의 설정,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통한 방식의 선택, 그리고 ‘수증 및 관리전환’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있음

[표 IV-2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방법

수집방법	내용
수집주체 설정 (수집제한 및 결정권)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장’ 또는 ‘관장’으로 설정됨
내부추천제와 공모제 방식	소장품 수집제한 단계에서 관장 및 학예사에 의해 추천되는 ‘내부추천제’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작가, 컬렉터, 갤러리로부터 제안을 받는 ‘공모제’로 구분됨
수증 및 관리전환의 기준	소장품의 수증은 작가, 컬렉터, 갤러리로부터 기증을 받는 것이며, 관리전환은 인천시청 및 산하기관의 소장품의 관리권을 인천시립미술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함

● 수집주체 설정(수집제한 및 결정권) : 인천시립미술관 관장

- 현재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시장’에 의해 수집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음
- 이는 인천시립미술관 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장품 수집을 위해 ‘시장’을 주체로 설정되어 있지만, 향후 관장이 선임될 시기에 소장품 수집 주체를 ‘관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수집주체의 설정은 컬렉션 구축의 기본방향을 설정과 수집·관리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장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의 질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됨
- 이에 따라, 향후 관리규정과 더불어 인천시립미술관의 조례 제정 시, 소장품 수집의 주체는 ‘관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에는 소장품의 수집 주체를 ‘관장’으로 명시하고 있음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 제3장 소장작품의 수집 및 관리

- 제9조(소장작품 수집) ① 관장은 소장작품을 수집하는 경우 사전에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 수집계획 및 수집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내부추천제와 공모제 방식 : 내부추천제 or 내부추천제, 공모제 병행

- 2000년대 이후,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다수의 공립미술관은 소장품 수집을 위해 공모제 방식을 택해왔음
- 대다수의 공립미술관에서 택해온 ‘공모제’에 기반한 공립미술관의 수집제도는 각 미술관 별로 소장품의 구성이 유사해지고, 결국 각 미술관의 컬렉션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남 (김아영, 2020)
- 이에, 최근의 공립미술관은 ‘내부추천제’로 전환하거나,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음. 예컨대,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100% ‘내부추천제’에 의해 소장품을 수집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립미술관과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의 수립과 함께, 미술관의 자체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소장품 수집의 방향성을 도출함으로써 소장품의 질적 가치 제고와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 나아가 소장품에 기반한 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을 마련해가기 위한 접근의 일환이 됨
- 인천시립미술관은 2025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소장품 수집의 체계성을 마련하기 위해 ‘소장품 정책 연구’를 실행함에 따라, 소장품 정책에 기반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을 마련하는 소장품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됨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은 ‘내부추천제’를 중심으로, 수집방식을 두 가지 안으로 설정할 수 있음
- 1안은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은 건립추진단(관장, 학예사)에 의해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과 더불어 수집계획을 도출하고, 내부 전문인력에 의해 소장품 수집을 제안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소장품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미술관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컬렉션을 구축함
- 2안은 내부추천제와 함께 공모제를 병행하여, 미술시장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의 공급량을 증대하고 소장품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임. 공모제가 병행될 경우,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수집범주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별과정이 면밀하게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IV-2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방식(안)

1안 : 내부추천제	2안 : 내부추천제 + 공모제 병행
소장품 정책 및 수집계획을 기반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관장 및 학예사에 의해 수집에 적합한 작품을 조사·분석하여 소장품 수집을 제안함	내부추천제와 함께, 미술시장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의 공급량을 증대하여 수집의 효율성 증대 (공모를 통한 수집은 인천시립미술관 성격 및 범주에 따른 엄격한 선별과정이 전제됨)

■ 관련 예시 : 국립현대미술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절차

-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추천제’를 바탕으로, 내부직원이 직접 수집심의를 의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외부 전문가는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 및 가격 자문을 수행하는 수준임
- (서울시립미술관)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미술관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수집추천, 가격평가, 수집심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위원회

구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장 및 내부 학예연구직 • 관장이 선정하는 50인 이내의 외부 근현대미술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수집제안자(관장 및 내부 학예연구직) • 인터넷구입공고 접수자
가치평가	가치평가위원회	소장품수집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관장이 지명하는 내부 학예연구직 및 외부전문가 • 인원 : 내부 학예연구직 2인,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 역할 : 제안작품의 가치평가서¹³⁾ 작성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 전문가 및 관장 및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 • 인원 : 5명 이내 • 역할 : 소장작품 수집 추천 관한 사항 결정 • 특징 : 회의종료 시 해촉
가격평가	작품가격자문위원회	가격평가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외부가격전문가 • 인원 : 3인 이상 • 역할 :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미술분야 평론가, 작가, 화랑관계자, 예술경영인 중 • 인원 : 5명 ~ 7명 • 역할 : 수집추천작에 대한 가격 심의, 적정가격 산정 및 기증미술작품 평가액 심의·결정 • 특징 : 회의종료 시 해촉
수집심의	수집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관련 부서(팀)장 • 인원 : 5인 이상으로 구성 • 역할 : ‘가치평가위원회’, ‘가격자문위원회’ 결과를 참고하여 작품가격 및 수집여부 심의 • 특징 : 수집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관장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미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회 의원 등 • 인원 : 10명 ~ 15명 • 역할 : 작품수집의 최종 결정(의결) • 특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13) 가치평가기준 : 독창성(10), 회소성(10), 시대성(10), 미술사적 가치(10), 완성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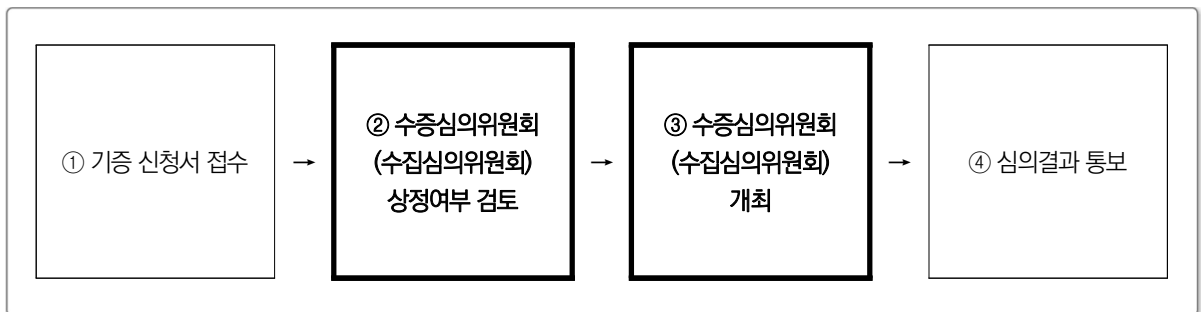
14)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는 기능은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미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관 허가 심의에 관한 사항”, “소장작품 수집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 자문을 담당하는 항구적 자문기구임 (임기: 2년)

● 수증 및 관리전환의 기준 :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수집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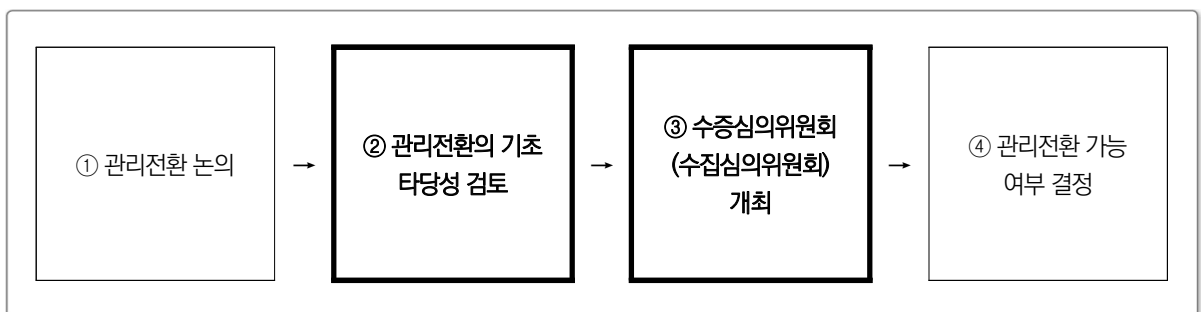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질적 가치 제고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작품 수증 및 관리전환의 프로세스가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체계적인 수증 및 관리전환의 절차를 수립하여 작품을 선별하고, 수증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수증과 관리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를 위해 인천시립미술관 관장과 학예사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기증신청 및 관리전환 대상 작품이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 ‘수집범주’에 부합하는지를 선행 검토해야 함
- 즉, 인천시립미술관은 수증심의위원회에게 수증 심의 사유를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수집 범주에 대한 부합 여부를 근거로 제시하여 수증 및 관리전환의 기초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표 IV-24] 수증 및 관리전환의 기준

구분	내용
인천시립미술관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미술관으로서 지역작가 연구와 발굴을 도모하고, 인천미술의 국제화를 위한 거점이자 문화 향유 및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는 미술관
수집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근현대미술 : 인천미술사의 체계화를 위한 • 국내외 동시대 미술 : 동시대 미술담론 포착 및 교류 활성화 •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 :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 부여 (디아스포라)



[그림 IV-18]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증 프로세스



[그림 IV-1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리전환 프로세스

④ 가치평가

■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른 가치평가 기준점의 한계

- 현재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준에 근거하여 작품 수집을 위한 가치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독창성’, ‘희소성’, ‘시대성’, ‘미술사적 가치’, ‘완성도’ 5개 항목(합계: 50점)으로 설정하고, 가치평가위원회에 의해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물론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나, 그럼에도 현재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이 보강되어야 하고, 또한 국립현대미술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별도로 제시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함

[표 IV-25] 기존 소장품 가치평가 기준

미술관	가치평가 기준구성
국립현대미술관 /인천시립미술관	독창성(10), 희소성(10), 시대성(10), 미술사적 가치(10), 완성도(10)

■ 작품과 자료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에 기반한 가치평가 실행

- 소장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산술적으로 주어질 수 없으며, 평가 자체도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성을 전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 그나마 적절한 평가지표와 지표 내 세부기준의 기술을 통해 평가자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감안할 수 있도록 돕고, 수집 논의 시 가치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을 위한 가치평가는 작품과 자료로 구분하고, 작품에 총 5가지 평가 기준과 자료에 1가지 평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작품의 기준은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기준을 담아내기 위한 목표를 두고 지표를 설정하였음. 먼저 미술사와 학술적 가치를 통해 역사적이고 이론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시대적 의미를 중시하면서 미술의 시대사적 반영과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독창적 가치를 통해 현대미술이 갖는 실험적 시도와 발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마지막으로 조형적 가치는 단순히 형식주의적인 조형성을 의미하기보다는 작품 자체의 총체적인 완성도로서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의 작품성을 의미함
- 자료의 기준은 자료 자체가 작품과 구별되기 어려운 지점까지를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미술사적 가치를 전제된 학술적 가치로 제시함

- 하지만 기준별 배점에 대해서는 배점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실제로 구입 작품의 범주 및 성격에 따라 지표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체점단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작품과 자료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동됨을 전제로 할 경우 일정하게 가치 기준의 재조정도 충분히 가능함

[표 IV-26]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가치평가 기준 (신규)

영역	기준 (배점)	세부 기준
작품	미술사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동시대·근현대미술사에서의 대표성 • 추후 미술사적 평가에 대한 전망 여부
	학술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 동시대 현대미술 담론 형성과 이론적 평가에 대한 기대치
	시대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반영 정도 •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사적 의미의 구현 정도
	독창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대 사회적, 문화예술적 담론에 대한 독창적 시각과 이해도 • 예술 형식과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과 실험성
	조형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품으로서 조형적 측면에 대한 질적 완성도 • 내용과 형식에서 작품 완성도의 총체적 측면의 구현
자료	학술적 가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 자료 자체가 작품일 경우,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와 이론적 가치의 총합으로서의 가치 보유 여부

⑤ 저작권

■ 수집 시 작품의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관한 계약내용 명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유형을 ‘저작권격권’,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IV-27] 저작권의 분류

구분		내용
저작 인격권	공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
저작 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대여권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 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은 작가로부터 소장품 구입, 수증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장품에 대한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법리적 관계를 명시해야 함
- 다른 한편, 컬렉터와 갤러리로부터 소장품을 구입·수증할 경우 진술 및 보증 계약내용을 통해 미술관이 소장품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보장받도록 함

[표 IV-28] 미술관의 대상별 저작권 계약

구분	내용	비고
작가	계약 시,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	저작권 계약
컬렉터	컬렉터는 작품에 대한 적법하고 온전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술관이 전시, 보관, 사용수익, 매각, 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해야 함	진술·보증 계약
갤러리	갤러리는 작품에 대한 적법하고 온전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술인 또는 소장자 등으로부터 본 작품에 매매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보증하며 매매 이후 미술관이 전시, 보관, 사용수익, 매각, 처분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해야 함	진술·보증 계약

● **작가로부터 구입 : 비영리적 사용의 자율성 확보, 영리적 활용 시 별도 계약 필요**

- 미술관은 저작권권과 관련하여 구입·수증한 작품을 예술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변경, 삭제, 개변, 훼손, 파괴 등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여 예술인의 저작권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작품을 전시 등에 활용할 때 예술인의 성명,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적절하게 표시해야 함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 한편, 미술관은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비영리적 활용에 있어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영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 서면 계약을 체결함

(사례) 경기도미술관 예술작품 구매계약서 - 미술관과 작가와의 구입계약 : 제 7조 저작권권

- ① 미술관은 구매한 작품을 예술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변경, 삭제, 개변, 훼손, 파괴, 왜곡하는 등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여 예술인의 저작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 등에 이용할 때 예술인의 성명,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사례) 경기도미술관 예술작품 구매계약서 - 미술관과 작가와의 구입계약 : 제 8조 저작재산권과 이용허락

- ①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예술인에 귀속된다.
- ② 미술관은 작품 원본의 소장자로서 미술관 등의 장소에서 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미술관은 미술관에서의 전시, 전시 홍보, 언론 홍보, 미술관 소장품 도록 및 책자 제작, 교육, 학술, 아카이빙, 웹사이트 전송, 방송, 소장품 관리, 기타 통상적 미술관의 이용 및 기타 비영리적 이용을 함에 있어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④ 미술관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 머천다이징 및 기타 영리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술인과 별도의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권 이용허락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예술인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용 또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미술관은 예술인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작가로부터 기증 :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무상 이용 허락**

- 미술관은 작가로부터 기증을 받는 경우, 기증작품의 적법한 저작권자임을 인정하고 미술관이 소장자로서 작품의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무상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함

(사례) 경기도미술관 예술작품 기증계약서 - 작가가 기증자인 경우 : 제 4조 저작재산권

- ① 기증자는 기증 작품의 적법한 저작권자이다.
- ② 기증자는 미술관이 소장자로서 작품을 전시, 공개, 사용수익, 매각, 관리, 보관, 연구 등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무상 이용허락한다.
- ③ 기증자는 기증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미술관의 소장품 관리, 보관, 전시, 출판, 대여, 홍보, 문화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이나 방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미술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관리 · 보존

(1) 개요

- ‘관리·보존’은 총 7개의 항목으로 ‘분류’, ‘등록’, ‘처분’, ‘보험’, ‘보존’, ‘기록’, ‘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을 포함함

[표 IV-29]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관리·보존

항목	내용
① 분류	소장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소장품의 다층적 분류체계 개발
② 등록	소장품 기술지침에 따른 소장품 등록
③ 처분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소장품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
④ 보험	소장품 운송, 전시, 보관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⑤ 보존	소장품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구축 및 보존처리 역량 강화
⑥ 기록	소장품 관련 미술관의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최신화하여 활용성 제고
⑦ 정보시스템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장품 정보시스템 구축

(2) 수립방향

① 분류

■ 소장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소장품의 다층적 분류체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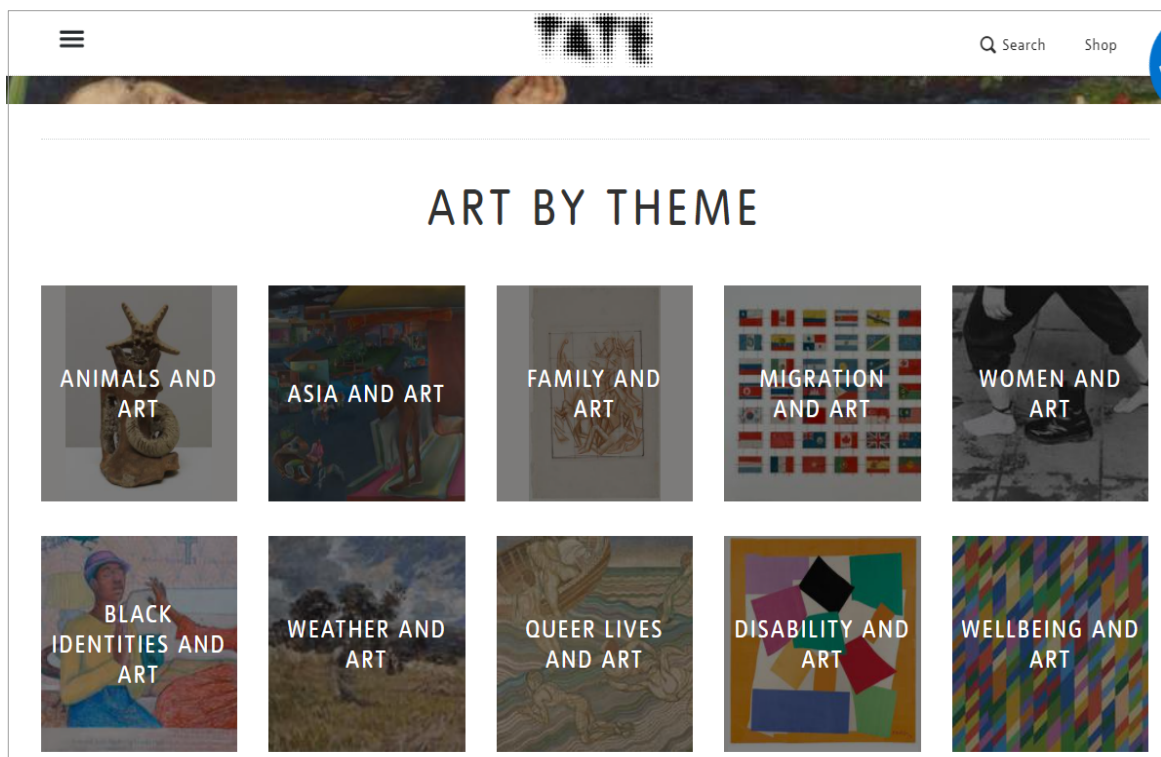
- 국내 미술관의 소장품 분류체계는 일반적으로 장르에 기반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미술관 별로 분류체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표 IV-31참고)
- 예컨대 박미화(2014)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의 재정비와 기술지침에 대한 연구에서,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등의 장르 구분을 미술관 소장품의 분류체계로 지칭함.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기술지침>을 통해 소장품 분류체계를 장르 구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미술관은 기존 장르 중심의 소장품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주제별 분류체계를 시도하면서 소장품 분류방식의 다각화를 전개하고 있음. 이는 소장품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미술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원 및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가시화하는 특징을 지님
- 예컨대 TATE는 홈페이지를 통해 ‘ART BY THEME’이란 타이틀로, ‘동물과 예술’, ‘아시아와 예술’, ‘가족과 예술’ 등 다양한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보이고 있음

TATE : 주제별 분류

- TATE는 총 10가지의 주제를 설정하고 분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소장품 이미지 및 정보를 공유함
- 기존 장르별 분류체계는 미술관이 소장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추상적인 특징이 있으나, 주제별 분류는 미술관이 중시하는 가치들을 가시화함. 예컨대, TATE는 이주민, 흑인, 퀴어, 장애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포용적 미술관으로서의 가치를 견지하고자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이처럼 주제별 분류체계는 미술관이 차별화된 특징을 마련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됨

[표 IV-30] TATE : 주제별 분류 및 내용

분류	내용
동물과 예술(Animals and Art)	미술사 전반에 걸쳐 묘사된 동물의 모습을 탐험하세요.
아시아와 예술(Asia and Art)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예술과 아이디어를 발견하세요.
가족과 예술(Family and Art)	예술가가 가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세요.
이주와 예술(Migration and Art)	예술가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세요.
여성과 예술(Women and Art)	여성 예술가들의 성취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흑인과 예술(Black Identity and Art)	흑인 예술과 흑인 예술가를 살펴보세요.
날씨와 예술(Weather and Art)	예술가가 계절과 변화하는 자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세요.
퀴어의 삶과 예술 (Queer Lives and Art)	LGBTQ+ 예술가와 예술을 살펴보세요.
장애와 예술(Disability and Art)	예술을 통해 인간의 능력 범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세요.
웰빙과 예술(Wellbeing and Art)	예술이 감정과 웰빙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림 IV-20] TATE : ART BY THEME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

- 국내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체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급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정되어, e-뮤지엄(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을 통해 소장품 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됨
- 분류체계는 수집, 등록,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의 용이성’까지 고려되어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미술관의 경우 미술관별로 상이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분류체계는 ‘장르’ 구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활용의 용이성’이 낮은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활용의 용이성’을 담보하는 타 미술관과 구분되는 다층적 분류체계를 지닌 소장품 분류방식을 선도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함.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은 다음과 같음

[표 IV-3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

항목	내용	특징
장르별	한국화, 회화, 서예,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사진, 뉴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수집기록물	미술관의 기본 분류체계 확보
주제별 ¹⁵⁾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평화 및 환경, 문화 다양성 연계 주제 등	미술관이 지향하는 가치의 시각화 (차별화된 특징 및 정체성 제시)
연도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인천미술사 연구의 접근성 강화

- 첫째, 장르별 구분은 소장품 수집유형과 동일한 구분으로, 미술관의 일반적인 분류체계 방식임. 장르별 구분을 통해 미술관의 가장 일반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주제별 구분은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비전·핵심가치로 구성된 전략체계와 연동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핵심주제를 도출하여 분류함.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소장품을 통해 시각화하고, 미술관의 차별화된 특성을 마련함
- 마지막으로 연도별 구분은 1920년대를 시작¹⁶⁾으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소장품을 분류함.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인천지역미술사의 흐름과 함께, 국내외 미술과 시대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공유해왔는지 연구하여 이용자에게 인천미술사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 제고에 기여함

15) 해당 주제는 예시로서, 향후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에 의해 전략체계가 확정된 후 연동하여 개발할 것을 권장함

16) 인천미술연구자 박석태는 인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화단이 형성된 시기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신문들을 근거로 하여 1920년대로 본 바 있음

■ 참고 :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

[표 IV-32]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 예시

국립현대미술관 (10개 부문)	부산시립미술관 (10개)	서울시립미술관 (8개 부문)	대전시립미술관 (8개부문)	경남도립미술관 (9개 부문)
한국화	한국화	한국화	한국화	한국화
회화	회화	회화	회화	회화
조각	조각	조각·설치	조각	조각
공예	공예	공예	공예	공예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서예	서예	서예	서예	서예
디자인	디자인	드로잉·판화·디자인	드로잉·판화	드로잉
드로잉	드로잉&판화			판화
건축	건축	.	.	.
제주도립미술관 (12개 부문)	광주시립미술관 (10개 부문)	대구미술관 (8개 부문)	경기도미술관 (5개 부문)	인천시립미술관 ¹⁷⁾ (5개부문)
한국화	한국화	회화	평면	평면
회화	회화		입체	
조각	조각	조각/입체	설치	부조
공예	공예	공예	미디어	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	비물질	기타
사진	사진	사진		
서예	서예	서예		
드로잉&판화	드로잉&판화	판화		
설치	디자인	이건희컬렉션		
디자인	건축			
건축				
기타				

17) 이 구분은 기존 규정에 따른 것이고, 본 연구를 통해 수집유형을 작품과 자료로 나누고, 작품은 다시 세부 장르를 두어 10개로 제시하였음. p.31 참조

② 등록

■ 소장품 기술지침 마련을 통한 등록정보의 체계화 및 전산관리 추진

- 소장품 등록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소장품 관리의 첫 번째 과정으로, 미술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토대가 됨
- 미술관은 소장품 등록을 위해 소장품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은 소장품 명세서를 작성함. 이를 위해 미술관은 자체 ‘소장품 기술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장품 정보를 수집·정리함

(사례) 서울시립미술관(2017),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기술지침>

- 2017년, 서울시립미술관은 소장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장품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장품 기술지침>을 통해 표준화하였음.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작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장품 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음
- 기술체계의 기본구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항목
작가정보	작가명, 생몰연도, 국적, 학력, 경력
작품정보	작품명, 제작연도, 재료/기법, 규격, 에디션, 소장정보

- 미술관은 소장품 기술지침에 따라 작성된 소장품 명세서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소장품 등록을 실행함. 등록은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축할 수 있도록 함

[표 IV-33] 소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을 위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정보 전산화 및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메타데이터 검토 및 분류체계 정립 후 DB화 •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한 소장품의 고화질 이미지 확보
관리, 활용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통합적 기록 관리 체계 구축 • 수집-보험-대여-전시-출판 등에 이르는 통합적 작품 이력 관리 • 미술관 내부 인력의 데이터 공유 • 홈페이지와의 연동 (홈페이지 내 소장품 검색)

③ 처분

■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의 맥락에서 소장품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

- 미술관 소장품의 처분과 관련한 결정은 주의 깊게 내려야 함. 국내외 미술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르되, 본래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소장품 처분은 궁극적으로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의 차원을 강조하고 지향한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함
- 국외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에서는 미술관 처분의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술관 미션과 무관하거나 소장품이 중복되는 경우, 진품이 아닐 경우 등을 소장품 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함
-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처분을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해당 기준에 따르는 소장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작품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용결정이 된 작품은 ‘매각’, ‘폐기’, ‘반환’하여 처분함
- 나아가,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직원 혹은 미술관과 연관된 그 누구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술관에 의해 처분된 작품을 취득하도록 허락되지 않아야 함. 위원회 혹은 직원은 미술관 소장품의 판매 혹은 거래로부터 이익을 취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명시함

구겐하임재단(2020), <소장품 관리정책> : 처분 기준

1. 소장품이 재단의 임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소장품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3. 소장품이 중복된다.
4. 소장품의 보전과 보존 요구가 재단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다.
5. 소장품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소장품이 진품이 아님이 확실하다.
7. 재단이 소장품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8. 재단이 소장품과 관련된 기증 제한사항을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어서 작품을 기증자 혹은 기증자의 상속자 혹은 수탁인에게 반환한다.
9. 소장품이 사람들 혹은 다른 소장품에 위험을 초래한다.
10. 소장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다.

뉴욕현대미술관(2020), <소장품 관리정책> : 처분 기준

1. 소장품이 미술관 임무에 관련되지 않거나 미술관 소장품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
2. 소장품이 중복되거나 복제품이고 연구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다.
3. 소장품이 컬렉션에 이미 있거나 취득 예정인 같은 유형의 다른 소장품들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
4. 소장품의 진품성, 귀속, 혹은 진본성이 의심스럽거나 위조 혹은 사기임이 밝혀졌다.
5. 소장품이 충분한 미적인 가치나 미술사적인 중요성에 있어 그것의 유지를 보증하기에 부족하다.
6. 미술관이 책임지고 소장품을 보존할 능력이 안 되거나 소장품이 분해되었다고 확정되었다.
7. 소장품이 소유권 혹은 그것의 처분과 매각이 필요한 프로비넌스와 관련된 청구의 대상이다

④ 보험

■ 소장품 운송, 전시, 보관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 보험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인해 소장품에 발생하는 손해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미술관은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관장 및 학예사는 담보내용 및 가입대상을 정리하고, 보험가액(작품평가 총액)을 도출해야 함
- 인천시립미술관은 정리·도출한 보험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관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보험조건이 동일한 업체 중 비교견적에 의해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

[표 IV-34]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종합보험 가입 제안공고 및 입찰결과

구분	내용
보험종류	-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
가입기간	- 2022. 3. 16.(0시1분)~2023. 3. 16.(0시0분)(만12개월)
보험가액	- 금85,044,648,569원
가입대상	- 전(畵) 소장작품 총 5,654점
보장범위	- 화재, 낙뢰, 폭발, 방화설비의 누출, 연기, 홍수, 폭풍우, 전기사고, 기계적 사고, 절도, 미술품의 고의 파괴행위, 운송 위험, 분실, 파손 및 기타 잡위험 등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관내,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관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임시수장고, 서울숲 공원 야외조각전시장, 서소문 본관 야외조각전시장(서울시 서소문청사 별관), 서울식물원 야외조각 전시장의 전시 및 관내 이동에 따른 위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위험 - 담보기간 내 작품 수복 시 운송, 보관 중 발생하는 위험 ※ 단, 보존처리에 대한 위험부담은 포함되지 않음 - 작품설치에 따르는 위험 - 파손 후 수리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도토(塗土)류의 경우 파손정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을 요함
보험조건	- 자기부담금 없음 - 보험 관련 관계자 및 관련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 - 미디어작품에 대한 전기적 위험담보 포함
면책조항	- 전쟁 및 군사력에 의한 군사행동,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파괴 - 반란, 혁명, 권력찬탈 및 이의 저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방어조치 - 조직 및 정부기관의 결의·결정으로 인한 손해, 결의·결정의 실패로 인한 손해 - 핵반응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범죄적 행위 및 사기 - 감가상각 또는 점진적 손상 및 가치의 하락 - 박물관·미술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금지품목의 암거래, 불법교역
입찰결과	- 1순위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입찰금액 : 29,287,881원 - 2순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입찰금액 : 31,849,220원 - 3순위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입찰금액 : 31,891,700원

⑤ 보존

■ 소장품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구축 및 보존처리 역량 강화

- 보존은 소장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명을 연장하는 과학적 조치로,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존환경 구축을 시작으로, 향후 소장품의 보존처리 관련 연구를 통해 소장품 보존·관리의 안정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함

● 보존환경 구축

- ‘보존환경’은 일반적으로 전시공간 및 수장고를 의미하는데, 소장품이 보관되는 공간에는 적정 온도 및 습도, 적정 조도 및 자외선의 범위 등 안정적인 보존환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국제박물관미술관협회(ICOM)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준으로 원칙을 설정하되, 작품의 보존상태 및 전시·수장고 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당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보존을 위한 온·습도 환경의 경우, 재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도 18~22℃, 습도 50~70% 정도에서 변화가 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음

● 보존처리 역량 강화

- 소장품 보존처리는 소장품 상태의 악화와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 보존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짐
- 동시대 미술의 보존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인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따라 미술품의 보존·복원의 의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음. 예컨대 뉴미디어아트 경우 디지털 기기의 모델의 빠른 전환에 따른 활용 장비의 구형화 및 고장 등의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복잡한 기술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함
- 이에 따라 비물질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보존 전문가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각각의 작품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정도를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은 학계와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음
-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에서 뉴미디어아트가 수집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연구 및 타 미술관과의 협업과 연구를 인천시립미술관의 보존처리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⑥ 기록

■ 소장품 관련 미술관의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최신화하여 활용성 제고

- 기록은 미술관의 소장품 관련 업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공립미술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임
- 소장품 기록은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구분한 ‘생성기록물(기관아카이브)’, ‘수집기록물(매뉴스크립트)’ 중 생성기록물(기관아카이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장품의 수집·보존·관리, 조사 및 연구, 전시와 교육의 기획 등 소장품과 관련된 미술관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의미함
- 미국아키비스트협회는 소장품 기록을 아카이브의 한 종류로서, “전시나 설치의 오브제, 견본 파일과 같은 기록물을 포함하며, 아직 그 쓰임이 다하지 않아서 학예연구실이나 등록담당자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IV-35]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 : 뮤지엄아카이브분과(Museum Archives Sections)의 아카이브 가이드라인

아카이브 구분	내용
기관기록	미술관의 모든 수준에서의 행정과 관련되는 것들로, 행정문서뿐만 아니라 관장이나 미술관 주요 인사들의 편지, 메모, 회의록, 회계문서, 보고서, 수상기록, 부서 파일, 건축계획, 기록사진, 네거티브 필름, 오디오, 비디오 테잎, 박물관의 출판물 등을 포함함
소장품 기록	전시나 설치의 오브제, 견본 파일과 같은 기록물을 포함하며, 아직 그 쓰임이 다하지 않아서 학예연구실이나 등록담당자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까지 포함
수집기록물	미술관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영역과 관련되거나, 소장품이나 전시프로그램의 가치를 부가시켜서 미술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조직의 사적 기록(paper)까지 포함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기록을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장품 관련 업무를 통해 생성된 기록들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파일 시스템으로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미술관 아카이브(생성기록물)로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은 소장품 기록의 생성과 저장을 통해 소장품의 식별정보, 위치, 상태와 더불어 전시 상황 또는 외부대여 활동 등에 관하여 정확한 최신의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함

⑦ 정보시스템

■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장품 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은 정보를 생산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절차, 및 사람들의 집합으로, 일반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의 그룹’을 의미함. 기업 경영에서의 정보시스템(MIS)은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달성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의미함
- 이를 바탕으로 미술관에서의 ‘소장품 정보시스템(=소장품 관리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면, 소장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소장품을 통한 미술관 콘텐츠 개발과 유통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의미함
- 기존의 미술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왔으나,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계와 가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전개되고 있음. 예컨대, 2021년 오픈한 서울시립미술관의 <모두의 연구실 코랄>은 ‘주제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지식 구조체로서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음
- 즉 ‘소장품 정보시스템’은 소장품을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DB화를 넘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미술관의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함
-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관리를 단순한 자료의 저장이 아닌 정보재로서의 소장품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

[표 IV-36]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의 구분

데이터베이스(Database)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내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단순한 사실이나 결과값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료의 집합 • 소장품(작품 및 자료)을 전산 기록한 데이터 자료를 나열하는 소장품 데이터 저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해두었다가,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수단 • 소장품의 데이터를 기록·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을 위한 데이터 간의 연결로, 정보재로서의 소장품 가치 구현



[그림 IV-21] 정보시스템의 구도

서울시립미술관 : 모두의 연구실 코랄

- 서울시립미술관 <모두의 연구실 코랄>은 웹-온라인을 매개로 지식 생산자와 사용자가 서로 교차하며 다양한 형태의 미술 지식을 탐구하고 연결짓고 확장하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미술관의 의제 탐구, 미술작가의 연구 프로젝트, 현대미술의 비평과 이론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공동의 지식 구조체를 형성을 지향함
- 세마 코랄의 주제어는 지식 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고 연결지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함
- 이와 같이 세마 코랄 내에 저장된 텍스트 정보들을 주제어를 통해 연결하고, 다층적 맥락에서 정보를 이해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그림 IV-22] 세마 코랄 주제어

지식

2021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 1부: 새로운

그것이 그곳에서 그때

그것이 그곳에서 그때:

김범과 정서영의 글과

드로잉 장지한 저는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것이 그곳에서 그때- 김범과 정서영의 글과 드로잉』1이라는 작은 책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책의 부제에 쓰여있듯이 저는 김범과 정서영 두 작가의 글과 드로잉을 ...

SeMA-하나평론상
미술작품
동시대
범세계성
사변
사물
SeMA비평연구프로젝트
한국현대미술비평집담회
작가지식생산

2021 한국 현대미술비평 집담회 2부: 새로운

사랑과 야망

이진실: 자유롭게, 조금은

편하게, 이번에 출간한

『사랑과 야망: 한국

동시대 페미니즘 미술의 시차들』1, 이 책과 관련해서, 또 이 책에서 건드리고 있는 페미니즘 미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김화용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책을 오늘 처음 ...

SeMA-하나평론상
성별
젠더
실천
한국현대미술비평집담회
SeMA비평연구프로젝트
동물
비인간
생물

[그림 IV-23] 세마 코랄 내 텍스트 정보

5) 이용

(1) 개요

- ‘이용’은 총 3개의 항목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열람·복제’를 시작으로, ‘대여’,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표 IV-37]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 이용

항목	내용
① 열람·복제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장품 접근성의 제고
② 대여	국내·외 기관 및 예술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천지역 문화예술진흥
③ 콘텐츠 활용	소장품 기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미술관 및 소장품의 가치 확산

(2) 수립방향

① 열람·복제

■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

- 미술관 소장품의 열람과 복제는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장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짐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열람과 복제를 통해 작품 및 인천지역 미술 자료를 연구하는 연구자 및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지역 미술사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 ‘작품’과 ‘미술자료’의 열람방식 구분

-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장품(작품 및 미술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을 공유함
- 먼저, 작품의 경우 보존·관리의 중요성으로 인해 열람 허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작품의 열람을 희망하는 자가 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관장은 일련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가함
-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기타 미술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 한편, 미술자료의 경우 열람실 또는 아카이브실을 통해 자료열람의 권한을 개방적으로 운영함. 미술 자료의 열람자 범위는 ‘미술관 직원’ 및 ‘공공기관·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근무직원’, 그리고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또는 일반인을 포함함
- 그럼에도, 미술자료 중 무제한적으로 열람될 경우 쉽게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될 수 있거나,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자료의 비공개 자료로 설정하고, 열람을 제한함

[표 IV-38] 미술관 소장품 열람방식

구분	작품	미술자료
열람대상	기관 및 연구자	기관 및 연구자, 일반인
열람형태	제한적 열람	개방적 열람
비고	.	쉽게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함

● 복제 : 소장품 복제 허가 및 제한 범위의 가이드라인 제시

- 소장품의 복제는 일반적으로 ‘소장품을 촬영·모사·모조하거나 사진원판을 출판, 학술 등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소장품의 복제는 복제를 희망하는 자가 ‘복제허가신청서’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가능한데, 복제의 사유에는 홍보 및 보도 목적, 교육 목적, 학술연구의 목적 등 다양한 배경이 따름
- 이에, 미술관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허가 및 제한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IV-39] (참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복제 관련 가이드라인

구분	내용
복제허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호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미술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제한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	1.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할 것 2. 작품의 훼손·망실 및 도난을 방지할 것 3. 작품의 훼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4.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② 대여

■ 국내·외 기관 및 예술인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천지역 문화예술진흥

-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미술관의 소장품이 전시·연구의 목적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장이 미술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함
- 일반적으로 소장품 대여는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전환 한 기관 또는 기증 작가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기관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소장품의 대여는 무료로 이루어지며, 대여 가능 여부를 ‘대여목적의 공익성’, ‘대여작품의 보존상태’, ‘전시환경의 적정성’, ‘대여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기타 문화예술진흥 기여 여부’의 기분에 따라 관장이 결정함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대여 신청 및 결정, 대여에 따르는 준수사항에 관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국내외 예술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소장품을 대여하여, 미술관의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제주도립미술관(2021) : 제주지역 공공미술관 소장품 공유

- 2021년 2월 제주도립미술관은 ‘탐나는 봄’ 전시 개최를 위해 도내 10개 공공기관 소장품 중 ‘봄’을 묘사하거나 의미를 담은 38명 작가의 작품 64점을 대여하여 전시를 선보임
- 이번 전시는 타지역 기관 및 단체에서 작품을 대여하지 않고 제주도민이 슬기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보자는 의미에서 도내 예술기관과 제주지역 공공 문화기관의 소장품만으로 기획되었음
- 이를 통해 제주도립미술관은 미술관 간의 협업과 함께 미술관 별 작품 수집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미술관 간의 대여를 통해 소장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제주도의 예술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됨
- 참여 기관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으로 구성됨



[그림 IV-24] 제주도립미술관 <탐나는 봄> 전시작품

③ 콘텐츠 활용

■ 소장품 기반 콘텐츠 개발을 통한 미술관 및 소장품의 가치 확산

- 소장품은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드러내는 핵심자원으로, 최근 소장품 수집 이후 콘텐츠 개발의 맥락에서 활용에 대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는 ‘신소장품전’과 ‘소장품 강의’가 일반적이거나, 최근에는 뮤지엄샵의 활성화, 그리고 NFT 기술을 적용하는 등 미술관이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음
-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뮤지엄 조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은 미술관의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소장품 정책 내에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술관의 자체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술관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미술관과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를 확산함

[표 IV-40] 소장품 콘텐츠 유형

구분	내용
전시 (Exhibition)	소장품 기반의 상설전, 기획전, 야외조각공원 전시 등의 모든 전시 프로그램
교육 (Education)	소장품 기반의 감상형, 강좌형, 체험형의 교육방식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 대상별 모든 교육 프로그램
상업적 사용 (Commercial use)	소장품을 활용하여 미술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
디지털 활용 (Internet, mobile devices)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의 미술관 및 스마트뮤지엄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연구/출판 (Research)	학예사의 소장품 연구 활동 및 활동 결과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출판자료

3 소장품 수집계획 및 규정

1) 개요

(1) 수집계획 및 규정의 근거

① 예규 : 국립현대미술관

-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예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시함

② 조례 및 시행규칙 : 광역단위 공립미술관

- 광역단위 공립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소장품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개괄적인 수준의 구성부터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시하는 미술관까지 미술관별로 내용의 구성은 상이함

③ 규정 :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해 소장품에 관련한 세부 내용을 따로 정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관 내의 자체 규정을 개발함

[표 IV-41] 국공립미술관 예규, 조례, 규정

구분	미술관명	내용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립미술관	•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경남도립미술관	•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미술관	•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북도립미술관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정	서울시립미술관

[표 IV-42] 국내 광역 공립미술관 조례 및 시행규칙 구성 : 소장품 관련

미술관명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립미술관	제 21조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 제 22조 소장작품 구입 제 23조 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 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제 25조 소장작품 열람 등 제 26조 작품 기증	제 12조 작품수집방법 제 13조 수집대상의 구성 등 제 14조 소장작품선정 절차 등 제 15조 작품기증 등 제 16조 소장작품 관리 제 17조 작품 등의 관리전환 제 18조 작품대여의 대상 제 19조 대여의 결정 등 제 20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 21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 22조 작품 불용결정 등 제 23조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부산시립미술관	제 10조 소장품 수집 제 10조의 2 소장품 구입 제 10조의 3 소장품 기증 등 제 11조 소장품 이용 제 12조 소장품 대여 제 13조 준수사항 제 14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 15조 작품불용결정	제 5조 소장품 관리 제 6조 소장품 이용 제 7조 소장품 대여 신청 등 제 7조의 2 수집대상 작품선정 등
광주시립미술관	제 10조 소장작품의 수집 제 11조 수집대상 제 11조의 2 소장작품 기증 제 12조 소장작품 관리 제 13조 소장작품 이용 제 14조 대여의 대상 제 15조 대여신청 제 16조 대여결정 제 17조 준수사항 제 18조 인수 제 19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 20조 소장작품 불용결정	제 3조 수장품 관리 제 4조 수장품 이용 제 5조 대여신청 제 6조 대여기간 연장신청 제 7조 대관
경남도립미술관	제 22조 소장작품의 구입 제 23조 소장작품관리관 지정 등 제 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제 25조 소장작품 열람 등 제 26조 미술작품 등 기증	제 10조 작품소장 절차 등 제 11조 소장작품 관리 제 12조 소장작품 대여 제 13조 대여의 결정 등 제 14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 15조 대여허가의 취소 제 16조 작품 불용결정 등

미술관명	조례	시행규칙
대구미술관	제 18조 소장작품의 구입 제 19조 소장작품 기증 제 20조 소장작품의 관리책임 지정 등 제 21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제 22조 소장자료 열람 등 제 23조 작품 불용결정 등	제 7조 수집대상작품 결정 등 제 8조 경매에 의한 수집 제 9조 기증·기탁 등에 의한 수집 제 10조 소장작품 관리 제 11조 소장작품 대여 제 12조 대여의 결정 등 제 13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 14조 대여허가의 취소 등
전북도립미술관	제 9조 소장품 구입 제 9조의 2 소장품 관리대상 제 10조 소장품 이용 제 11조 소장품 대여 제 12조 준수사항 제 13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 14조 소장품 수증 제 15조 작품불용결정 제 16조 매각 및 폐기 제 16조의 2 도록 및 간행물	제 6조 소장작품 관리 제 7조 소장작품관리관 제 8조 소장작품운용원 제 9조 작품출납공무원 제 10조 소장작품 출납명령 제 11조 소장작품 상태관리 제 12조 소장작품 비상반출 제 13조 소장작품 수복 제 14조 소장작품 이용 제 15조 소장작품 대여 제 16조 소장품 수증 제 17조 기탁작품 제 18조 기탁방법 제 19조 기탁작품의 반환 제 20조 기탁기간의 연장 제 21조 전시작품 관리 제 22조 소장작품 수집계획 제 23조 소장작품 수집방법 제 24조 수집작품추천회 설치 및 구성 제 25조 추천회 운영 제 26조 추천 제 27조 수장고 운용 제 28조 수장고 유지관리 제 29조 수장고 촬영 제 30조 수장고 견학
제주도립미술관	제 29조 소장품 수집 제 30조 소장품 관리 제 31조 소장품 이용 등 제 32조 작품대여 대상 제 33조 대여신청 제 34조 대여허가 제 35조 대여자 준수사항 제 36조 대여허가 취소 등 제 37조 소장품불용결정	제 12조 소장품 관리 제 13조 소장품 이용허가신청 등 제 14조 작품대여 신청 등

2) 소장품 수집계획

(1) 정의와 필요성

■ 소장품 정책에 근거한 미술관 소장품 수집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마련 필요

- 국내 미술관은 소장품 수집계획의 필요성을 예규 및 조례·시행규칙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장품 수집계획은 미술관의 중장기 수집계획과 단기 수집계획 2가지로 구분됨. 중장기 수집계획은 5년간의 수집방향을 제시하며, 단기수집계획은 중장기 수집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의 수집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예규를 통해 관장은 5년 단위의 중장기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 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와 시행규칙을 통해 중장기 수집계획의 수립과 함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은 조례 및 시행규칙 내에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장품 정책’에 근거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소장품 수집계획을 도출해냄으로써 타 미술관과 차별화된 특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IV-43] 국립현대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예규	제3조(소장작품수집계획의 수립 및 수집대상) 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③ 수집대상의 범위는 근·현대기의 국내의 작품으로 한다.

[표 IV-44] 서울시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조례	제21조(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을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규정	제3조(작품수집계획 수립 및 수집대상) ① 서울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의 작품 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현대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표 IV-45] 전라북도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시행규칙	<p>제22조(소장작품 수집계획)</p> <p>① 관장은 매4년마다 미술관의 작품수집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수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시에는 부문별, 경향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관장은 제1항의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미술작품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으로 한다.</p>

[표 IV-46] 경상남도도립미술관 :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시행규칙	<p>제10조(작품소장 절차 등)</p> <p>① 관장은 당해연도 작품소장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11><개정 2007.10.11></p> <p>② 관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심의된 작품의 소장 우선순위를 부문별 심의위원장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2013.02.07></p> <p>③ 관장은 심의된 소장대상 작품의 상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2013.02.07, 2014.10.10></p>

(2) 내용구성

① 중장기 수집계획 (4~5년 단위)

■ 인천시립미술관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집방향 제시

- 중장기 수집계획은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을 기본 전제로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수집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수집계획 내에는 ‘미술관 미션’, ‘소장품 현황’, ‘수집목표’, ‘수집범주’, ‘수집로드맵’을 포함함
- 중장기 수집계획은 소장품 수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수집목표’가 핵심내용이 됨. ‘수집목표’는 ‘미술관 미션’과 ‘소장품 현황’에 근거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소장품 현황’은 공립미술관으로서 기소장품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소장품 정책에 부합하는 소장품 컬렉션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데서 비롯되는 보다 구체적인 당위성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됨
- ‘수집목표’ 수립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수집범주’와 ‘수집 로드맵’을 제시함

② 단기 수집계획 (당해연도)

■ 중장기 수집계획에 기반한 세부 수집방향 제시

- 단기 수집계획은 중장기 수집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당해연도의 세부 수집계획으로, 중장기 수집계획의 ‘수집 로드맵’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님
- 단기 수집계획 내에는 ‘수집목적’, ‘수집예산’, ‘수집대상’, ‘수집방법’, ‘수집절차’를 포함함
- ‘수집목적’은 중장기 수집계획의 ‘수집 로드맵’ 내에 제시된 연 단위 단계별 수집전략의 기본방향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함
- ‘수집목적’은 인천시립미술관이 당해연도의 소장품 수집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대내외적 가치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음. 예컨대,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에 부합하는 우수한 미술작품을 구입하여 인천시립미술관 컬렉션의 질적 가치 및 연속성 제고, 미술관의 정체성 강화, 소장품 중심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학술연구 등 미술관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등이 가능함
- 이후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집예산’, ‘수집대상’, ‘수집방법’, ‘수집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계함

[표 IV-47] 소장품 수집계획 내용구성(안)

구분		내용
중장기 수집계획	미술관 미션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
	소장품 현황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보유 현황에 관한 분석 (미술관 미션과 함께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
	수집목표	중장기 소장품 수집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수집범주	수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집 영역 (장르, 주제, 연도)
	수집 로드맵	연 단위의 단계별 수집 전략으로, 단기 수집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단기 수집계획	수집목적	중장기 수집계획의 ‘수집 로드맵’에 근거한 지향점
	수집예산	당해연도 소장품수집 관련 예산
	수집대상	소장품 수집 범주를 근거로, 당해연도 수집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설정
	수집방법	구입 수증 및 공모제, 내부추천제에 관한 사항 제시
	수집절차	소장품 수집의 프로세스 제시 (예시 : 수집공고 → 위원회 심의 → 구입)

3)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1) 정의 및 필요성

■ 미술관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은 미술관이 소장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을 담은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국내 국공립미술관은 예규 및 조례를 통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예규를, 공립미술관은 조례를 통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공립미술관은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전반을 규정하면서 소장품 관련 내용을 일부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2011년 11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내 제 23조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의 명으로 별도의 소장품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발하여 작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 방법, 범위, 서식 등을 따로 정함
- 서울시립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조례와 시행규칙 내에 제시된 내용 외에 별도의 세부 규정을 개발하여 미술관이 소장품 관련 업무 방향 및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은 향후 조례 및 시행규칙 내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IV-48]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개발 근거

구분	내용
조례	<p>제35조(자체규정의 제정 및 민간위탁)</p> <p>① 관장은 미술관의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방법·범위 등을 위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② 관장은 미술관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미술관의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p>
시행규칙	<p>제23조(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관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범위·서식 등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로 정한다.</p>
규정	<p><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p>

(2) 내용구성

서울시립미술관	인천시립미술관
<p>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용어의 정의)</p> <p>제 2장 소장작품의 수집 제 1절 작품 등의 구입 제 3조 (작품수집 계획 수립 및 수집대상) 제 4조 (수집방법 및 절차) 제 5조 (수집대상작품의 구성) 제 6조 (수집대상작품의 선별과 제한) 제 7조 (소장작품추천회의) 제 8조 (작품의 추천) 제 9조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제 10조 (인력풀 구성) 제 11조 (작품수집의 최종 결정) 제 12조 (위원회 상호간 중복 위촉 및 작품구입의 제한) 제 13조 (작품수집절차) 제 14조 (작품수비 관련자 업무지침)</p> <p>제 2절 작품 등의 기증 제 15조 (기증 신청) 제 16조 (수증 자문) 제 17조 (작품기증자에 대한 예우) 제 18조 (작품 등의 관리전환)</p> <p>제 3장 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 1절 미술관 작품의 관리 제 19조 (작품관리대상) 제 20조 (작품관리관리반사항 및 보험) 제 21조 (작품관리 담당자의 지정) 제 22조 (작품관리 담당자의 임무) 제 23조 (출납명령) 제 24조 (작품의 증감보고) 제 25조 (작품의 관리)</p> <p>제 2절 보존작품의 운용 제 26조 (작품의 보관) 제 27조 (수장고 관리, 운영) 제 28조 (소장작품등록대상 등재) 제 29조 (작품의 수복)</p> <p>제3절 작품의 대여, 복제 등 제 30조 (소장작품의 대여) 제 31조 (대여신청) 제 32조 (대여의 결정) 제 33조 (준수사항) 제 34조 (작품의 인수) 제 35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 36조 (작품 등의 열람 허가) 제 37조 (열람허가 제한 등)</p> <p>제 4절 작품의 불용결정, 처분 제 38조 (작품의 불용결정) 제 39조 (매각 및 폐기)</p>	<p>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p> <p>제 2장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3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결정) 제 4조 (작품가치평가위원회) 제 5조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제 6조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제 7조 (회의)</p> <p>제 3장 작품 수집 등 제 8조 (수집 대상) 제 9조 (수집 절차) 제 10조 (경매구입) 제 11조 (작품 기증) 제 12조 (작품 기탁)</p> <p>제 4장 작품의 관리 등 제 13조 (작품관리관 지정 등) 제 14조 (작품의 관리) 제 15조 (보험가입)</p>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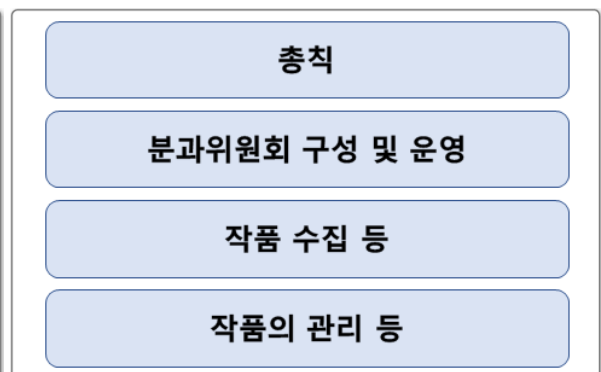
■ 수집, 관리 및 운용으로 구분하여 세부 규정 제시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소장작품의 수집’과 ‘작품의 관리 및 운용’으로 구분하여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소장작품 수집’에는 ‘구입’, ‘기증’ 두 종류의 수집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작품의 관리 및 운용’ 내에는 ‘관리’, ‘보존’, ‘대여·복제’, ‘불용결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미술관에서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범위의 내용을 정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②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

■ 분과위원회 및 수집·관리에 관한 기초 규정 제시

- 인천시립미술관은 개관 전 단계로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있어, 소장품의 수집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수집대상 및 절차, 경매구입, 기증, 기탁에 관한 내용으로 작품 수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한편, 관리에 관한 내용은 관리점검의 필요성, 소장작품 관리카드 작성, 수장고 보관, 보험가입 정도의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있음
- 인천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의 규정을 비교 검토했을 때,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은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제정 시, 별도의 관리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립추진단(관장 및 학예사)에 의해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함



[그림 IV-25]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구성 [그림 IV-26] 인천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구성

4 아카이브 정책

1) 아카이브의 이해

(1) 아카이브의 개념

■ 영구적으로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물 자체, 보관장소, 보존·관리 기관

- 아카이브(archive)는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자체 또는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뜻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님

[표 IV-49] 아카이브의 개념(이호신, 2018)

구분	특징
보존기록으로서의 아카이브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 혹은 입수한 기록으로, 그 초기의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를 지니거나 생산 주체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 자료를 뜻함(한국기록학회, 2008, p. 119). 편지, 보고서, 계약서, 회의록, 초안 및 최종 원고, 사진과 같은 영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나타냄
기록물 보관장소로서의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자료가 보관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 공간, 즉 아카이브 저장소 자체를 나타내기도 함
기관으로서의 아카이브	특정 그룹, 기관의 기록 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함. 예를 들어, 미술관, 박물관 내의 아카이브가 대표적인 예임

(2) 아카이브의 특징과 요소

■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을 통해 과거 사건을 유추하는 증거와 정보 제공

- 아카이브는 일정한 내용과 구조 그리고 맥락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료와는 구분됨
- 아카이브는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을 통해 과거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나 행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지를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 증거와 정보를 제공함(이호신, 2018)

[표 IV-50] 아카이브의 구성요소

구분	내용
내용	기록을 구성하는 문자, 데이터, 숫자, 이미지, 소리, 그래픽 등을 통해 표현되는 구체적인 정보
구조	구조는 기록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과 내용의 구성체계를 의미함 - 물리적 특성 : 기록이 어떤 물리적 매체와 물질을 활용해서 작성되고 있는 것인가 - 내용의 구성체계 : 기록물이 담고 있는 내용의 고유한 구성 방법 (서문, 본문, 부록 등)
맥락	기록의 생성, 입수, 보관, 활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의미하며, 기록의 생성일, 생성장소, 다른 기록과의 관계 등을 포함함

(3) 아카이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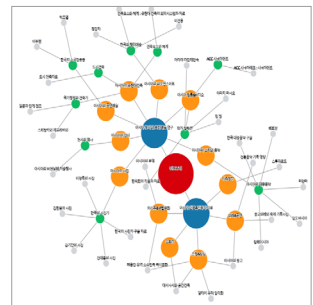
■ 기록물의 가치 공유 및 활용성 강조

- 문화예술분야에서 아카이브는 기록의 저장을 기본으로, 자료에 대한 연구와 산업적 측면에서 활성화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접근은 동시대 미술관 공간의 정체성에 기반이 되는 소장자료를 수집·보존·관리의 단계를 넘어 자료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에서 기인함
- 즉 아카이브의 운영은 증거적·정보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소장자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의 계기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사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아카이브 자료는 전시·교육·공연 등 콘텐츠 개발 시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아카이브 자료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파크(LIBRARY PARK)와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archive.acc.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시·교육·공연 등 콘텐츠 개발 시 원천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소장 컬렉션을 주제전문관(전시) 형태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 중이며, 국제교류전과 아카이브 기획전 등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IV-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사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2022년 8월 개관 예정)

“지식정보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현대미술 콘텐츠력 및 R&D 기능 신장”

- 2022년 8월 서울시 종로구에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기능을 특성화한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예술정보자원 기반의 지식활동 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주요 운영방향은 ‘한국현대미술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미술현장의 실체적 기반 조성’, ‘한국현대미술기록자원의 디지털 정보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현대미술 콘텐츠력 및 R&D 기능 신장’, ‘탐구와 일상의 만남’, ‘상호 배움’, ‘지역 문화자원의 공공화’ 5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사례)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아카이빙, 연구, 창조적 활용의 세 가지 기능 수행”

-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주요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아카이빙’, ‘연구’, ‘창조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아르코미술관과 인사미술공간의 전시를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의 출판물, 기록물과 작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고, 전시와 연계한 연구총서 출판기획, 한국 싱글채널 비디오 컬렉션인 아르코미디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이를 통해 아르코아카이브는 다양한 예술 실천을 전개하고 동시대 예술코드와 담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함
- 아르코미술관은 2021년 7월부터 《정재철: 사랑과 평화》전은 장소를 이동하며 수행했던 참여 형식의 프로젝트를 살펴봄, 현장작업의 결과물로 ‘기록과 수집’된 작업을 재구성한 전시로, 해당 전시에서는 아카이브 섹션을 구성하고,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정재철의 작품세계의 변화를 조망하여 아카이브 자료의 가치와 활용성을 선보임



[그림 IV-28] 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



[그림 IV-29] 《정재철: 사랑과 평화》전 아카이브 섹션

(사례)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전시 콘텐츠 운영 활성화

- 서울기록원은 2019년 5월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거대도시인 서울의 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의 책임을 갖고 체계적으로 영구히 관리하는 공간임
- ‘백년을 내다보는 기록관리 체계 구축’,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일상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시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기록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 콘텐츠로는 아카이브 자료에 기반한 기록전시, 특별전시·상설전시·복도전시의 방식으로 운영됨
- 현재 전시로는 상설전시(〈기록의 발현: 주공아파트 주민기록〉, 〈기록의 발원: 경북 청도군 범곡리 134-18,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와 복도전시(〈서울사진아카이브〉, 〈여공: 근대적 여성노동자의 탄생〉)를 운영하여 아카이브 자료에 기반하여 서울의 거시사와 미시사를 아우르는 전시 콘텐츠 선보임



[그림 IV-30]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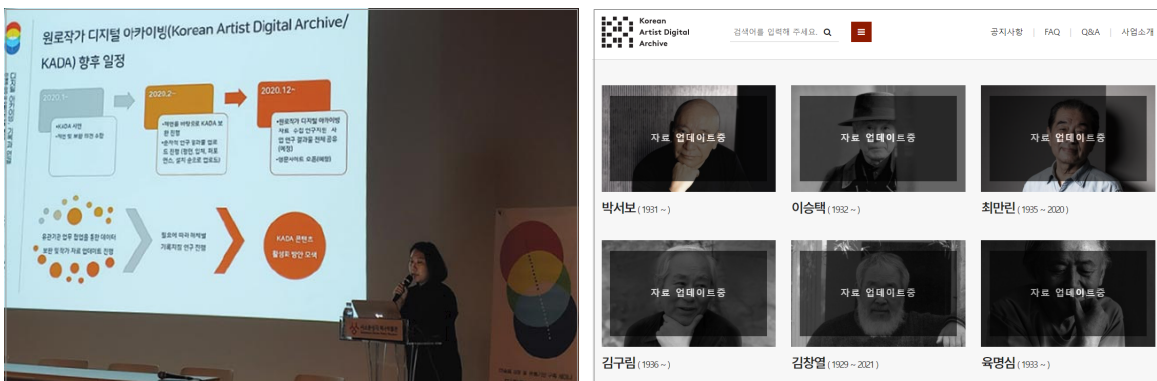
■ 디지털 아카이빙의 활성화

- 소장자료 활용성의 강조는 기관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확산으로 이어짐.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은 기록물의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한희정, 2018), 최근 국가적 목적과 시민들의 정보 공유 목적이 같이 맞물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등장함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콘텐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는 중요한 과제가 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됨

(사례) 예술경영지원센터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Korean Artist Digital Archive)

한국 근현대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에 기반한 작가 해외 프로모션 기여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원로작가의 화업 정리 및 연구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미술 자료 구축을 통한 작가 해외 프로모션을 위해 원로 작가에 대한 아카이빙 연구를 지원함
- 2015년 박서보, 최만린, 이승택, 16년 김구림, 윤석남, 육명심, 김창열, 17년 이강용, 정상화, 임충섭, 주재환, 18년 박영숙, 심문섭, 윤명로, 이강소, 김순기, 19년도 성능경, 안창홍, 윤광조, 박대성 20명이 선정되었으며, 65세 이상 생존작가를 대상으로 3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 초기 2015년 5,000만원, 2016년 6,000만원 지원에서 2017년부터 8,000만원(원고 번역비 및 온라인 아카이빙 비용 별도)으로 인상되며 11개월간 진행되어 왔음
- 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IV-31]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 및 홈페이지 개설

(사례) 부산시립미술관 : 디지털미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부산일보, 2020.07.23.)

- 2020년, 부산시립미술관이 부산시 3차 추경에 올린 '미술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안 1억 6,000만 원이 22일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립미술관 미술정보센터가 설립된 지 12년 만에 소장자료 5만여 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이를 통해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 서비스를 이어 가는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할 계기가 마련됨
- 시립미술관 미술자료관리시스템은 3단계 업데이트까지 완료한 국립현대미술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이번엔 확보된 예산 1억 6,000만 원 중 하드웨어 구축에 4,000만 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1억 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임
- 부산시립미술관은 디지털 미술 아카이브가 완성되면 부산에서 원로 작가들이 갖고 있는 부산 관련 희귀 자료의 기증을 권유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미술관 아카이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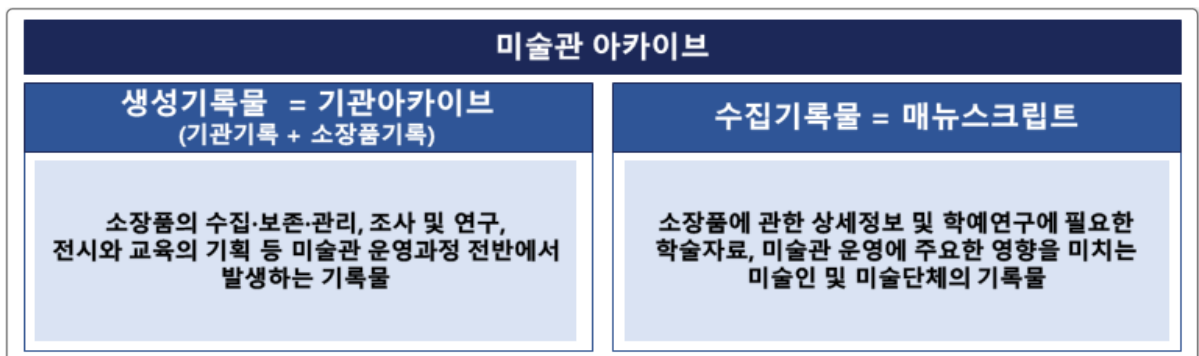
(1) 미술관 아카이브 구성

■ ‘생성기록물(기관아카이브)’과 ‘수집기록물(매뉴스크립트)’

- 미술관 아카이브는 미술관에 부속된 아카이브로서,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소장품에 대한 정보 자료, 미술과 관련된 학술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공간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함(김기현, 2000)
- 미술관 아카이브는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 및 관리, 조사와 연구, 전시와 교육의 기획, 미술관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함
- 미술관의 운영과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미술관 소장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나 학예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미술관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물까지 수집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함
- 즉 미술관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생산 주체와 수집방법에 따라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록과 외부에서 생성한 것을 수집한 기록으로 구분하여, ‘생성기록물’, ‘수집기록물’로 명명함
- 미술계에서는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록을 기관아카이브(Institutional) 또는 기관기록(Institutional Records)으로, 외부에서 생산된 수집기록을 매뉴스크립트(Manuscript)을 지칭하기도 함(이호신, 2018)

(참고) 미국아카이비스트협회(SAA) : 뮤지엄아카이브분과(Museum Archives Sections)의 아카이브 가이드라인

아카이브 구분	내용
기관기록	미술관의 모든 수준에서의 행정과 관련되는 것들로, 행정문서뿐만 아니라 관장이나 미술관 주요 인사들의 편지, 메모, 회의록, 회계문서, 보고서, 수상기록, 부서 파일, 건축계획, 기록사진, 네거티브 필름,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박물관의 출판물 등을 포함함
소장품기록	전시나 설치의 오브제, 견본 파일과 같은 기록물을 포함하며, 아직 그 쓰임이 다하지 않아서 학예연구실이나 등록담당자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까지 포함
수집기록물	미술관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 영역과 관련되거나, 소장품이나 전시프로그램의 가치를 부가시켜서 미술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조직의 사적 기록(paper)까지 포함함



[그림 IV-32] 미술관 아카이브 구성

● 미술관 생성기록물

- 미술관 생성기록물은 미술관의 건립과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과 더불어, 미술관에 소속된 개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된 기록물을 포함함
- 이러한 생성기록물은 작품의 수집과 관리, 전시, 연구, 교육 및 대중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록, 조직 운영과 관련된 기록, 기타 미술관 건축과 관련한 기록 등을 꼽을 수 있음
- 미술관의 조직규모와 특성에 따라 부서의 명칭과 수행 업무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부서별 생성 기록의 예시를 제시할 수 있음

[표 IV-51] 미술관 부서별 생성 기록 예시

구분	내용
학예연구	연구 텍스트, 작가 자료, 전시 공간 기획 자료, 전시 사진, 리서치 파일, 토크 및 심포지엄 자료 등
소장품 관리	작품 구매 관련 기록, 작품 복원 기록, 소장품 입반출 기록, 작품 대여 기록 등
교육	교육 교안, 리서치 파일, 교육 현장사진, 교육 기록 영상 등
출판	전시 포스터, 전시 프로그램 및 브로슈어, 전시 도록, 연구서 등
미술관 행정	인사 기록, 회계 기록, 계약서, 시설 공사 기록, 위원회 회의록 등

출처: 박상애(2014: 18)

● 미술관 수집기록물

- 미술관 수집기록물은 개인 및 외부기관의 기록 등을 포함하며, 특히 아카이브의 맥락에서 수집되는 구술사는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로서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할 대상임
- 국내의 기록수집 환경이 국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구술사를 미술관 아카이브에 편입시키기도 함. 이를 위해 미술관의 역사, 특정 인물, 혹은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생성함으로써 미술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됨

[표 IV-52] 미술관 수집 기록의 예시

구분	내용
개인기록 (작가 아카이브)	서신, 일기, 텍스트, 사진, 스케치, 습작, 프린트, 스크랩 자료, 각종 포스트, 브로슈어 등
기관 기록 (경매 아카이브)	경매 일지, 경매 대상 작품 기록, 경매 도록, 작가 자료, 작품 소장 이력 기록, 작품 이미지, 포스터 등
매체 특정적 기록 (사진 아카이브)	수집 범위의 주제와 시기에 맞는 사진, 디지털 이미지, 네거티브 필름 등
주제 특정적 기록 (건축 아카이브)	건축드로잉, 텍스트 설계안, 공사 계약서, 실측 기록, 건축 모형, 스크랩 등
구술사	면담 오디오/비디오 자료, 녹취록, 계약서, 현장 사진, 면담 기록, 구술사 자료 등

출처: 박상애(2014: 20)

(2) 미술관 아카이브 주요 사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도서, 아카이브)

-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자료는 크게 도서와 아카이브로 나뉘며, 미술아카이브는 다시 ‘수집기록’과 ‘미술관기록’으로 나뉨
- 수집기록은 한국 근현대미술가들의 미술관련 자료로, 미술가, 건축가, 이론가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대규모자료와 한국현대미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자료 등이 이에 해당됨. 자료는 특정 주제나 인물별로 정리하고 관리함
- 미술관기록은 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학술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로, 미술관의 주요한 기능에 따라 문화활동, 교육, 전시, 레지던시, 연구·학술 5개의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각 프로젝트마다 자료의 생산연대와 매체를 구분함
- 도서자료는 국내외 미술관련 이문서 및 국립현대미술관 발간도록 및 타기관 전시도록, 학위 논문, 연속 간행물 등을 포함하며 ‘미술도서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또한 ‘디지털도서관’에서 국내외 미술 분야 전문도서 이외에도 연속간행물, 웹 DB 5종, 전자책 2종, 전자신문 10종을 구독·서비스하고 있음
- ‘서울 디지털정보실’ 소속 ‘디지털아카이브’는 한국 근현대 주요 미술작가의 자료를 모은 ‘한국 현대미술가 과일’을 비롯하여 비디오 아티스트의 영상 아카이브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구분		자료형태
수집기록	한국 근현대 주요 미술가들의 미술자료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편지, 브로슈어, 간행물, 시청각자료 등
미술관기록	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등)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	일반문서, 증빙서류, 인쇄물, 포스터, 사진필름첩, 슬라이드첩, 행정파일, 포트폴리오 등
도서자료	국립현대미술관 출판물, 국내외 미술분야 도서 및 연속간행물, 전시도록 등	도서, 간행물, Web DB, 원문자료, 전자책 등
디지털 아카이브	국현대미술가파일,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증자료(이중섭·박수근 자료), 북한미술자료, 소장작가 자료 및 영상 등	디지털 파일, 단채널 영상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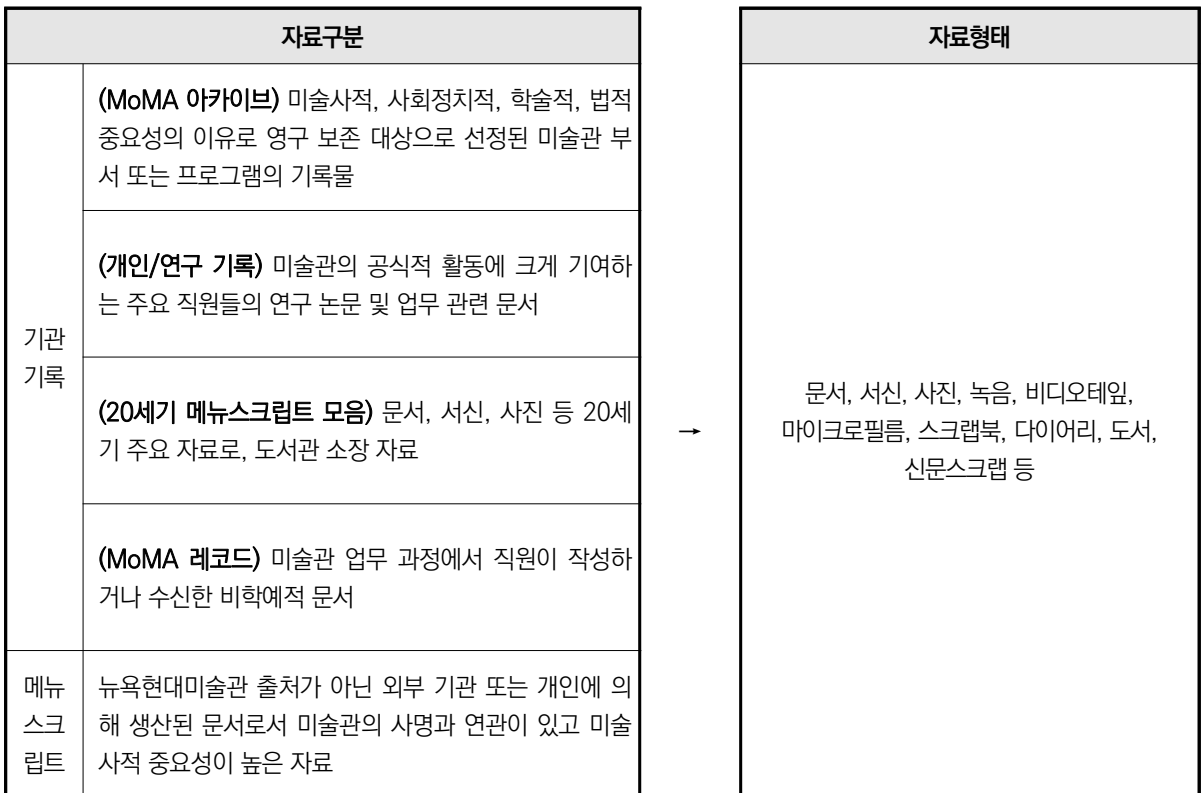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SeMA AA, 2022년 8월 개관예정)의 예술정보자원은 수집기록, 기관기록과 도서자료로 구분되어 있음

- 수집기록은 한국 미술 및 시각예술과 관련된 소장자(처) 혹은 주제별로 수집한 것이며, 기관기록은 서울시립미술관(SeMA)의 기관, 시설, 부서에서 기록을 모아 집적한 것임. 도서자료는 미술과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도서를 의미함



■ 뉴욕현대미술관(MoMA) 아카이브

-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아카이브 목록은 크게 기관기록과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관기록은 ‘MoMA 아카이브’, ‘개인/연구 기록’, ‘20세기 메뉴스크립트 모음’, ‘MoMA 레코드’ 4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 ‘기관기록’은 미술관의 전시 관련 기록, 큐레이터 및 감독의 개인 문서, 보도 자료 및 기록, 행사의 녹음 및 녹화 기록을 포함함. ‘메뉴스크립트’는 미술관 소장품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생성한 기록물을 말함



■ 게티미술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

- 게티미술연구소의 소장자료는 크게 ‘일반 컬렉션(도서류)’과 ‘특별 컬렉션(아카이브)’로 나뉘어져 있음. 일반 컬렉션은 도서, 정기간행물, 참고도서 등을 포함하며, 특별 컬렉션의 자료 유형에는 사진, 필름, 판화, 드로잉, 육필원고, 건축도면, 희귀서적, 비디오 등이 포함됨
- 게티 기관 아카이브는 게티 트러스트 소속 기관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록들을 보관함. 기관 아카이브 컬렉션의 범주를 ‘행정기록’, ‘협업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및 출판물’, ‘건축물’, ‘언론보도’, ‘수집 자료’, ‘구술사’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자료구분		자료형태
일반 컬렉션 (도서류)	미술사, 예술 이론 및 실무, 미술 분야별 전문 도서 등	도서, 정기간행물 등
특별 컬렉션 (아카이브)	특정 주제에 관한 희귀 도서 및 희귀 사진, 저명 아티스트 및 큐레이터의 개별 자료, 특정 인물 및 기관에 특화된 아카이브 컬렉션 등	사진, 필름, 판화, 드로잉, 육필원고, 건축도면, 희귀서적, 비디오 등
기관 아카이브 컬렉션	(행정기록) 게티의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 에서 생성된 기록물	문서, 매뉴얼, 사진,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도서, 보고서, 인쇄물 등
	(협업 프로젝트 및 지원사업) 외부 협력 및 자 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화 기록물	
	(프로그램 및 출판물) 전시, 출판, 행사 등 게티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 기록물	
	(건축물) 게티 소속 미술관 건축물의 건립 관련 기록물	문서, 도면, 건축 모형, 사진 등
	(언론 보도) 게티 및 게티의 활동에 대한 언론 보도 및 보도자료	책, 저널, 잡지, 신문 기사 등
	(수집 자료) J. Paul Getty 관련 소장자료 및 이사 및 주요 직원의 Getty 관련 개인 문서	문서, 일기, 논문, 엽서 등
	(구술사) 예술가, 미술사가, 게티 직원 및 관계 자의 구술 기록	문서, 녹취록, DVD, 비디오 녹화, 비디오 카세트, 오디오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등

3) 미술관 아카이브 정책의 구도

(1) 미술 아카이브 정책의 필요성

■ 아카이브 연구를 통한 인천지역 미술사 정립 필요성 강조

- 인천은 수도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까닭에 인천은 지방도시로서 문화의 고유성을 간직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함(김인환,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미술인들은 한국미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인천지역미술의 특수성과 개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음
- 1945년 12월 내동 금융조합 2층에서 개최된 <해방기념 미술전>을 시작으로, 5-60년대의 <앙데팡당전>, 6-70년대 <오소회전>, 80년대 모더니즘 미술운동을 주창했던 <현대미술 상황전>과, 같은 시대 리얼리즘을 이끌었던 <지평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형식 또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고민해온 인천지역의 깨어있던 작가군으로 꼽힘(이경모, 2007)
- 최근 인천미술계는 예총, 민예총은 물론 지역미술연구모임 등의 지역미술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전개함.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미술 관련 자료에 기반한 연구로 인천 지역미술사의 궤적을 포착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인천미술사 정립을 위한 근현대 미술 자료 수집 필요성의 강조

- 현재까지 인천지역 미술에 대한 연구는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진행되어왔으나, 연구의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지역 미술사의 연구와 체계화가 다소 더디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천 미술계는 인천시립미술관이 인천지역 미술사를 정립하기 위해 인천 근·현대미술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인천 근·현대미술자료의 수집은 어쩌면 인천시립미술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중요한 수집정책이다. 위에서 기술한 인천 근·현대미술사는 시대마다 주요한 지역 연구 작가의 활동과 작품이 존재해왔다. 체계적인 미술사는 서지학적 요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실재하는 작품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인천 화단 초창기의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과 1930~40년대 인천 출신 작가들의 작품 수집은 인천미술사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며, 이후 각 시대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와 작품 선별 목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박석태(2020: 46) -

■ 인천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지역미술 자료 수집 및 관리 정책 수립 필요

- 이에,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은 이철명이 화백이 스페이스빔에 기증한 인천지역미술자료를 비롯해, 지역 내 다양한 원로화가들이 축적해온 인천지역 미술에 관한 자료들의 수집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 수집·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¹⁸⁾

18)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립미술관 아카이브 정책은 별도의 정책으로 설정하지 않고, 소장품 정책에 포함하여 제시함

(2) 인천시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성 방향

① 아카이브 사업의 목표 설정

■ 역사의 현재화

- 아카이브는 자료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영구보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DB)와 차별성을 지님
- 이에,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의 수집·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내외부의 전문인력에 의해 연구되어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화하는 데서 의의를 지님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 아카이브 사업의 목표는 ‘인천지역 미술사를 체계화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의 역사를 현재화하여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의 역할로 설정할 수 있음

② 아카이브 사업 기반 마련

■ 공간, 시간, 전문성 확보

-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다른 사업과 견주었을 때 가시화되기 힘들고 절대적인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는 작업이기에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아카이브 자료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와 관련 예산의 투입, 그리고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아키비스트(Archivist)의 확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음
- 그러나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여러 기능 중 조사·연구영역을 담당하는 기본토대로, 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업임
- 이에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수집과 그에 따른 제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함. 즉,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 절대적인 시간, 전문적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함(이지은·김지현, 2015)

[표 IV-53] 아카이브 구축 운영을 위한 필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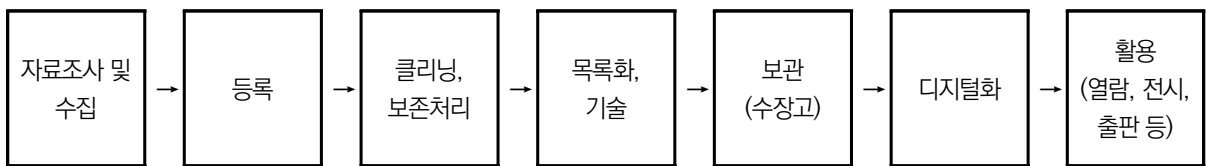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공간	아카이브 자료는 수장고 내에 보관하되, 열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시간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 목록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장기적 시간이 필요함
전문인력	자료 등록, 분류, 기술 등의 업무처리에 전문성을 지닌 아키비스트의 확보가 필요함

③ 아카이브 사업 체계 구축

■ 아카이브 업무 프로세스 구축

- 아카이브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 업무는 '자료조사 및 수집', '등록', '클리닝·보존처리', '목록화', '보관', '디지털화', '활용'의 단계로 미술품 관리와 유사한 단계로 작동됨
-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영역은 '자료조사 및 수집'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과 이후 '활용' 단계에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즉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그 가치를 확산한다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 IV-54] 아카이브 관련 업무 흐름도



출처: 류한승(2012: 288)

● 자료수집의 방향과 운영 : 인천지역 미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 인천시립미술관의 자료수집은 '생성기록물(기관아카이브)'과 '수집기록물(매뉴스크립트)'를 두 축으로 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원로화가들이 축적해온 인천지역 미술에 관한 자료들의 수집에 방점을 둘 수 있도록 함
- 수집된 자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공공재로서 오픈소스화하여 레지던시 입주작가와 일반 이용자, 기획을 준비하는 내부직원 등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아카이브 활용방안 모색 : 분류체계의 다각화

-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은 인천지역 미술사를 체계화하는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전시·교육과 같은 콘텐츠 개발의 맥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카이브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저자, 작가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그러나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아카이브 분류체계의 다각화가 필요함. 예컨대 주제별, '연도별' 분류를 통해 주제적, 시대적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아카이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5 소장품 활용방안

1) 활용방안

(1) 소장품 활용 영역

■ 소장품 가치 확산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장품 활용 시도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활용은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을 구현한다는 목적을 두고 총 6개의 영역에서 활용을 시도할 수 있음
- 전시 : 소장품 기반 전시 활용은 미술관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우로서 기본적으로 소장품 연구에 따른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진행됨. 또한, 단순한 소장품 소개와 같은 개별화된 방식이 아닌 주제적 해석을 통한 소장품 재맥락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임
- 교육 : 소장품 기반 교육 활용은 다양한 미술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여 소장품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교육 활용을 통해 소장품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적 관점 적용과 온·오프라인 병행을 시도함
- 연구·출판 : 소장품 기반 연구·출판은 소장품에 대한 미학적·미술사적 가치 및 재맥락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따른 결과물 출판 등의 활용을 말함. 이에 따른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기능 강화는, 기본적으로 학예 역량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미술관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동함
- 열람·복제 : 소장품 열람·복제는 학술연구 및 다양한 목적을 갖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품이나 자료, 데이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특히 비물질 소장품 대상의 자료열람 서비스 제공은 데이터화 작업이나 자료 접근성 방식을 위한 별도의 연구와 계획수립이 요구됨. 열람·복제를 위한 소장품의 접근성은 열람실, 자료실, 아카이브와 같은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 있음.
- 대여 : 소장품 대여는 소장품의 대외 활용이라는 차원으로 국내외 미술관과 기관, 예술인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함. 동시에 다양한 목적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실행으로서 미술관 인지도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
- 콘텐츠 : 소장품 기반 콘텐츠 활용은 굿즈와 같은 문화상품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주어지며,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 확산 및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최근 NFT 기념품 제작이나 QR코드 배포를 통한 소장품 접근성 제고 등의 사례를 참고로 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활용의 영역을 체계화하고, 이에 근거한 활용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 인천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인천시립미술관 및 소장품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

[표 IV-55] 소장품 활용 영역 및 특징

구분	특징
전시	주제별 전시를 통한 소장품의 재맥락화 및 다각적인 이해 촉진
교육	소장품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 및 소장품 이해도 제고
연구·출판	소장품의 미학적·미술사적 가치 및 재맥락화를 위한 연구 및 결과물의 출판
열람·복제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
대여	국내외 기관 및 예술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콘텐츠	미술관 소장품의 가치 확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2) 영역별 활용사례

(1) 전시

■ 소장품 재맥락화에 따른 전시 기획 및 다양한 목표별 전시 활용

- 소장품 기반 전시 활용의 경우, 여타 기획전과 다른 맥락이지만 미술관 소장품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① 소장품 연구 전시

■ <Tate Modern 소장품전> : 주제별 구성에 따른 전시 기획을 통한 소장품의 재맥락화

-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영국 테이트모던미술관장을 역임한 니콜라스 세로타 경은 2000년 테이트모던을 개관하면서 상설전을 기존의 연대별·사조별 구분이 아닌 작품의 주제별로 구성하여 소장품 기획전을 마련함
- 또한 유명 석유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륨(British Petroleum)의 후원을 받아 매년 기획을 바꿔 새롭게 상설전을 구성함으로써 재원 조성과 마케팅 효과도 얻어냄



[그림 IV-33] TATE Modern

■ 대구미술관 <소장품 100선>전 (2020.01.24.~2020.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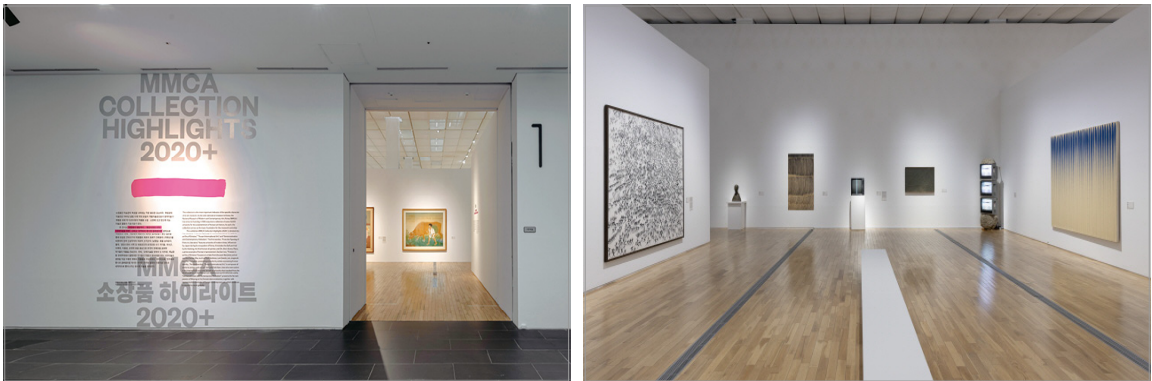
- 대구미술관이 개최한 <소장품 100선>전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전 전시로, 대구미술관의 향후 10년을 소장품을 통해 전망하고자 함. 전시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대구미술관 소장품 수집방향과 주요성과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자 함. 대구미술관 소장품 전시 중 가장 대규모 전시로 꼽인식 외 99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보임
-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9명이 소장품 이해를 돕는 해제에 참여하는 등 소장품 선집 발간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업함. 선집 발간을 통해 소장품 연구를 발전시키고, 기록하는 계기가 되고자 함



[그림 IV-34] 대구미술관 <소장품 100선>전시 전경

■ 국립현대미술관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 (2020.05.06.~2021.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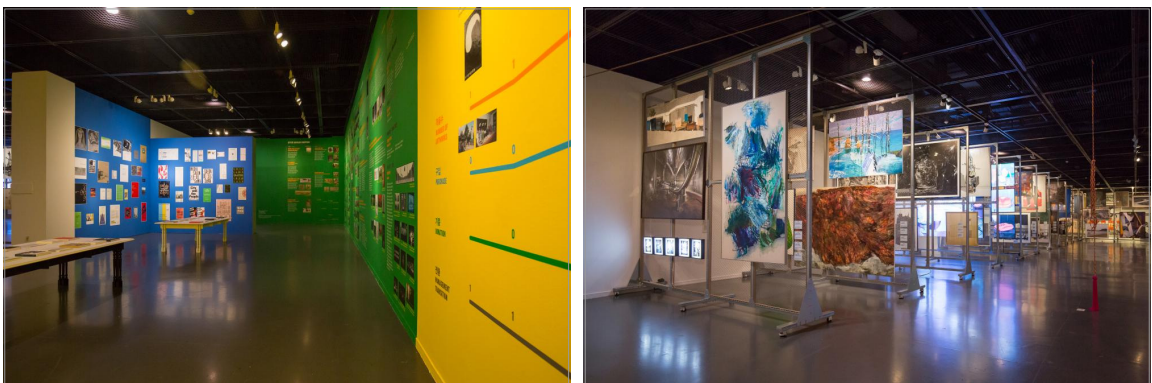
-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전시는 서울관의 첫 상설전이며, 20세기 한국미술 대표 작가 50여 명의 작품 54점을 선보임. 2019년 12월 발간 후 미술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른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에 수록된 소장품을 포함하며, 올해 발간 예정인 「한국 근현대미술사 개론」(가제)을 중심으로 전시 주제와 작품을 선정함
-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은 1900년부터 오늘날 동시대 미술까지 다루고 있음. 본 전시는 '개항에서 해방까지', '정체성의 모색', '세계와 함께', '다원화와 글로벌리즘' 등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1950년대 이전 작품부터, 1950년대 이후 앵포르멜 회화, 조각 작품, 단색화, 실험미술, 민중미술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됨. 특히 소장품 중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작품 3점이 출품됨.(고희동 <자화상>, 오지호 <남향집>, 김환기 <문도>)



[그림 IV-35] 국립현대미술관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전시 전경

■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소장품전 <멀티-엑세스4913>전 (2019.04.16.~06.02.)

- SeMA 신소장품전 <멀티-엑세스4913>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18년 새로 수집한 162점(구입 139점, 수증 23점)의 작품들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로, 기존 작품과 더불어 미술관 소장품의 전체 성격을 보여주는 전시임
- 매년 수집한 작품만 선보였던 '신소장품 전시'의 관례화된 전형을 벗어나 아카이브 전시와 스크리닝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2018년 신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스크리닝'에서는 작품을 별도의 분류 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고, 컬렉션이 수장고에 입고될 때 부여받는 고유 코드, 즉 관리번호 순서로 설치하여 작품 하나하나를 수장고와 같은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함.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전시의 주제나 분류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품을 자유롭게 접근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음



[그림 IV-36] 서울시립미술관 <멀티-엑세스4913> 전시 전경

② 개방형 수장고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방형 수장고 전시(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 2018 개관)

-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청주관은 열린 미술관을 표방하여 미술품을 수장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개방형 수장고를 1, 3층에 마련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임. 1·3층에 마련된 개방형 수장고에서는 근대 조각의 선구자인 김복진의 '미륵불'과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의 '데카르트', 프랑스 미술가 니키드생팔의 '검은나나' 등이 있음
- 관람객은 선반과 좌대에 놓인 작품들을 보며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음. 또한 미술관 내부에서도 가장 폐쇄성이 강한 보존과학실도 이곳에서는 '보이는' 형태로 운영함. 관람객들은 투명한 창을 통해 그림 수복 과정 등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음



[그림 IV-3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개방형 수장고 전경

■ MOA(캐나다 인류학박물관)를 시작으로 한 개방형 수장고 전시

- MoA 개방형 수장고 전시의 영향으로 80년대 이후 캐나다 글렌보우 박물관(Glenbow Museum) 등 주요 인류학 계열 박물관들이 개방형 수장고를 도입하게 되었음
- 헨리 루스 재단은 1989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시작으로 뉴욕 역사협회, 부르크린 박물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이 차례로 이 재단의 지원으로 미국미술 소장품의 개방형 수장고 전시 및 연구센터를 조성하였음
- 개방형 수장고는 특정한 주제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의 소장품(때로는 전수에 가까운)을 수장고에 격납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보여주는 전시 형태임

미술관명	내용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우 미국미술 소장품의 80%가 개방형 수장고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미술 소장품 중 일반 전시장에 상설전시 중이거나 외부대여 중인 소장품을 제외하면 거의 전수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셈임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의 개방형 수장고는 대중에 공개되는 소장품 수를 4배 이상 증가시킨 효과를 가져왔음
샤우라거 (Schaulager) 뮤지엄	- 2003년 스위스 바젤에 개관한 샤우라거(Schaulager)는 뮤지엄 자체가 일명 수장고형 미술관, 창고형 미술관으로 불리는 신개념 미술관임. 이 미술관은 엠마누엘 호프먼 재단(Emanuel Hoffmann Foundation)이 수집한 150명 작가의 현대미술 컬렉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명칭 그대로 '보는 창고'(viewing warehouse)의 뜻인 샤우라거는 소장품을 포장하여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기보다, 개방된 공간에서 최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있는 상태로 설계되었음. 뮤지엄 전체가 보존과 연구, 교육, 전시 기능이 혼합된 공간임

③ 소장품 순회전

■ 국립현대미술관(2020) : 소장품 순회전 (광주, 전북, 대전시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역미술관과 국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미술관 지원을 위한 <2020년 지역 미술관 협력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공립미술관 순회전시'를 진행함. 대전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각각 소장품 전시를 선보임
-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이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달간 대표 소장품 42점을 선보임. 안톤 비도클, 질 아이요, 요제프 보이스, 이방 르 보젝 등 서구 현대미술 작가들의 예술적 실험정신을 살펴볼 수 있음.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갤러리 0 제로>전은 김창열, 김병기, 이우환, 임옥상, 양지양 그룹 등 국내·외 작가 33명의 작품을 전시함. 마지막으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이응노, 서세옥, 정재호 등 한국화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수묵 신작로>전을 선보임
- 이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은 '2020년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사업 확대로 지역미술관과 더욱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지역미술관 신진작가 지원사업, 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역미술관에 공유하고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그림 IV-38]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전 '이것에 대하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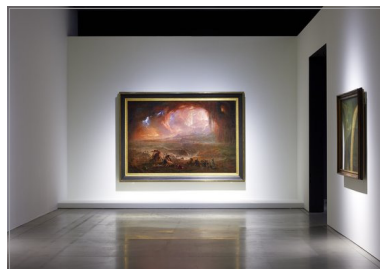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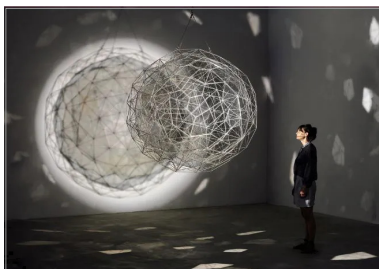
[그림 IV-39]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전 '갤러리0(제로)' (2020)



[그림 IV-40]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전 '수묵 신작로' (2020)

■ 북서울시립미술관 : <빛 :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2021.12.21.~2022.05.08.)

- 영국 테이트 미술관은 설립 이후 지난 100여 년 간 영국 국립미술관의 역할을 지속해오며 근현대 미술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으로 독보적임. 런던의 테이트 모던을 비롯해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리버풀,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등 영국 내 4개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 전시의 역사를 새로 쓴 <데이비드 호크니>展을 함께 기획함. 그리고 2년 만에 누구나 공감할만한 주제인 '빛(Light)'을 주제로 전시를 공동 기획함.
- 이번 전시는 상하이 푸둥미술관에서 개관특별전으로 진행된 후, 더욱 풍성한 작품과 함께 총 43명의 작가, 110점의 작품으로 한국의 관객을 만나며, 이어 해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임
- 영국 테이트미술관 대표 소장품으로 기획되었으며, 관람객들은 18세기 윌리엄 블레이크, 19세기 윌리엄 터너 및 클로드 모네, 20세기 및 동시대 작가 백남준, 댄 플라빈, 제임스 터헬, 올라퍼 엘리아슨 등 '빛'을 주제로 탐구한 다양한 작품의 연대기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림 IV-41] 북서울시립미술관 <빛 :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전시 전경

④ 소장품 야외전시

■ 스톤킹아트센터 : 야외 조각공원 - 상설전시의 주기적 교체

- 스톤킹 아트센터의 조각공원 전시는 상설전시뿐만 아니라 기획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시를 리뉴얼하여 관람객들에게 동시대 예술의 흐름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음

전시명	주요내용
KIKI SMITH RIVER LIGHT	Kiki Smith(1954~)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움직임이 강물에 흐르는 물의 썰물과 흐름을 모방한 새로운 깃발 작품을 선보임
OUTLOOKS : MARTHA TUTTLE	Martha Tuttle(1989~)는 스톤킹에서 모은 바위로 만든 일련의 인공 석재와 2020년 겨울과 봄에 손으로 만든 성형 유리와 조각된 대리석 돌로 구성한 작품을 선보임.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에너지 사이의 접촉점을 만들어 시청자가 육지와 육지, 특히 스톤킹과 허드슨 밸리에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그림 IV-42] KIKI SMITH RIVER LIGHT



[그림 IV-43] OUTLOOKS : MARTHA TUTTLE

■ 소마미술관·서울올림픽공원 야외조각공원

- 서울 올림픽 조각공원은 88서울올림픽대회 문화예술축전 행사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32개국 36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제1·2차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과 66개국 155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한 국제야외조각전 초대전의 작품들로 이루어짐
- 다양한 작품들이 올림픽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조각적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산책로와 올림픽 공원의 광장 곳곳에 작품들이 위치하여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의 조각공원으로서 알려져 있음

구분	내용	조각공원 권역 별 구분
Red Zone	소마 미술관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작품	
Blue Zone	컨벤션 센터, 올림픽홀, K-아트홀 등 공원 내 부대시설 중심으로 위치하는 작품	
Yellow Zone	공원 내 경기장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작품	
Green Zone	88호수, 피크닉 광장 같은 자연환경 위주로 위치하는 작품	
Black Zone	올림픽회관과 평화의 문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작품	
Blue Zone		

■ 리움미술관 야외조각 전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Tall Tree & the Eye>, (2011)

- 아니쉬 카푸어 (Anish Kapoor)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의뢰로 '큰 나무와 눈(Tall Tree & the Eye)'이란 조각을 리움 야외정원에 설치함. 15m 높이에 73개의 반짝이는 스테인리스스틸 공(球)으로 이뤄진 이 조각은 주변상황과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작품에 투영되는 이미지들이 달라지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임
- 작가는 'Tall Tree..'를 지난 2009년 런던 로얄아카데미에서 가진 대규모 개인전을 통해 처음 선보인 이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등에도 이 작품을 설치함. 한남동 리움 야외정원에 설치된 'Tall Tree & the Eye'는 리움을 위해 2011년 버전으로 새로 제작된 커미션 작품임



[그림 IV-44] 리움미술관 야외조각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야외프로젝트 <코디 최: 베네치안 랩소디-허세의 힘>, (청주관 입구 외벽, 2019-2020)

- 국립현대미술관은 야외프로젝트로 미술관 신소장품인 코디 최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베네치안 랩소디-허세의 힘>을 선보임. 이 작품은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출품작으로 국내 아르코미술관 실내 전시장에서 귀국 보고전을 한차례 가졌지만, 작품 원래의 취지대로 야외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임
-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규격과 형태가 달라지는 현장제작 설치작품의 특성에 맞춰 청주관 건물에 맞게 작품의 크기와 구성을 조정함. 가로, 높이가 약 14m 달하는 거대한 작품은 호랑이, 공작, 용 등의 동물 형상에 네온과 LED 조명이 화려하게 빛을 뿜어냄



[그림 IV-45]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야외프로젝트

(2)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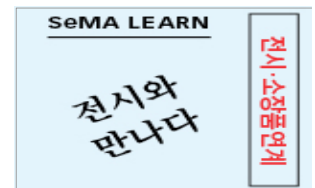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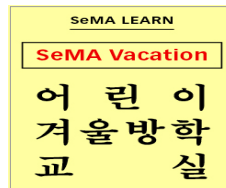
■ 소장품 기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소장품 이해도 제고

- 소장품 대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미술관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관점을 실행하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확산됨

① 전시연계 교육

■ 국립현대미술관(2019) : 「신소장품 2017-2018」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No.	일시	교육대상	교육명	강사	인원
1	2019.05.22.	일반인	전시기획자와 함께하는 전시 이야기	장순강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50명
2	2019.06.05.	사진·미술 전공자 및 일반인	원성원 작가의 작품세계와 <IT 전문가의 물물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다	원성원 작가	50명
3	2019.07.31.	미술 전공자 및 일반인	이용백 작가의 작품세계와 '엔젤 솔저'를 이야기하다.	이용백 작가	50명
4	2019.08.28.	미술 전공자 및 일반인	과천관 1원형전시실에서 만나는 근대미술	권행가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50명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No.	일시(장소)	교육명	내용	강사	대상 및 인원
1	2021.04.28. (북서울미술관)	2021 SeMA 소장품 하이라이트 <자연을 들이다 : 풍경과 정물> 전시연계 토크	- 강사와 함께 자연과 생태, 우리가 하나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다양한 시와 그림을 살펴보고 팬데믹 시대, 그동안 스스로 만들어온 삶의 방식들을 되돌아보고,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함	나태주 시인	성인, 일반인 (40명)
2	2019.04.16., 2019.04.23. (서소문본관)	2019 SeMA 신소장품 <멀티-액세스4913> 전시연계 예술가의 런치박스 : 이우성	- 그림 그리는 워크숍 <저기요, 잠깐만요>는 60분 동안 작가와 대화하며, 그림을 완성함 - 다과를 먹기도 하며 드로잉을 통해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마주보고, 옆에 앉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이우성 작가	인근 직장인, 성인 (30명)
3	2017.02.23. (북서울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도시·도시인>전 연계 초등학교 방학 프로그램	- 현대 사회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다양한 표현매체로 제작된 소장품을 통해 살펴보고, 시각적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미술활동 연계	-	초등학생 (전 학년)
4	2014.05.28. (서소문본관)	신소장품展 연계 <전시와 만나다> 아티스트 토크	- 2013년 전시 <선물>에서 퍼포먼스 영상 'siaraM' 연작을 선보인 박승원 작가의 작품 전반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봄	박승원 작가	성인, 일반인 (150명)



[그림 IV-46]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소장품 연계 교육프로그램

② 생애주기별 교육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유지업 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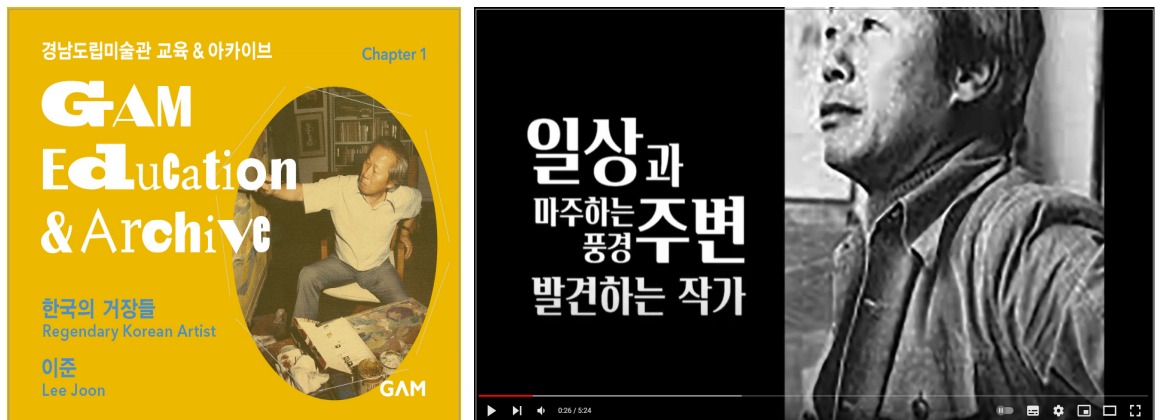
-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2004년 개관 기념사업으로 개최한 <유지업 크루즈 프로젝트>에서 가나자와시의 초중학생 약 4만 명이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지업 크루즈>는 가나자와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함
- 한 회당 한 학교가 초대되며 약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미술관을 투어함. 아이들은 '크루즈 크루'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스태프와 함께 작품 감상 또는 미술관 체험을 진행함. 크루들은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람하고 다양한 반응을 유도함



[그림 IV-47]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의 <유지업 크루즈>

■ 경남도립미술관(2021) : 소장품 활용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거장들>

- 경남도립미술관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와 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미술관 교육 <한국의 거장들>을 운영함
- <한국의 거장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의 방향과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심점 역할을 하는 '소장품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고 '교육', '소장품', '아카이브'를 연결하는 경남도립미술관의 중장기 계획의 일환임
- '한국의 거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원하는 기관, 학교나 단체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교육 자료는 프로그램 안내, 영상자료, 수업 진행용 ppt, 보조자료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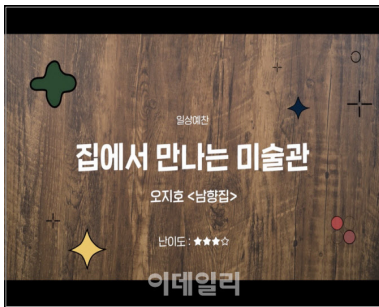


[그림 IV-48] 경남도립미술관의 소장품 활용 교육 프로그램 <한국의 거장들> '이준' 편

③ 문화 접근성 향상 교육

■ 국립현대미술관(2021) : 치매환자를 위한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운영

- ‘일상예찬-집에서 만나는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치매학회가 함께 운영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2020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참여를 받고 비대면 교육 자료를 배포함
- 2020년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활용한 교구재를 개발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배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매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 특히 2021년에는 각 가정에서도 교구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 2편을 제작함
- 미술관에서 개발한 교구재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오지호 <남향집>(1939), 유영국 <작품>(1957) 2점을 소개하고 작품 감상을 매개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내용의 워크숍을 담음



[그림 IV-49] 국립현대미술관의 치매환자를 위한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프로그램

■ 스웨덴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 장애인을 위한 소장품 촉각체험 지원

-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모든 관점들에 대해 존중하고자 함
-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사람들에게 열린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해왔음. 예컨대 이민자의 경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 스웨덴에 새로 정착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구성된 해설투어, 워크숍과 기타 활동을 진행함. 2020년 기준 7개 언어로 투어를 제공하고 있음(영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핀란드어, 페르시아어)
-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각을 통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예컨대 시각장애인 촉각적 체험을 위해 마르셀 뒤샹의 <자전거 바퀴>의 복제품을 제작하는 등 포용적 미술관의 개념을 실천하고 있음



[그림 IV-50] 시각장애인 촉각 체험 프로그램

[그림 IV-51] 가족 참여 프로그램

④ 야외작품 연계 교육

■ 경남도립미술관(2021) : 야외조각 소장품 기반 자율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경남도립미술관은 2021년에 새롭게 기획한 야외조각 교육 프로그램 '정원 산책'을 선보임. '정원 산책'은 그동안 미술관 주변에 숨겨진, 혹은 쉽게 지나친 야외조각 소장품들을 산책자의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자율형 교육 프로그램임
- 본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야외조각 소장품들은 경남도립미술관 설립 전후로 미술관 둘레길, 경상남도청 정원에 자리한 작품들임. 관람객들은 다양한 관람 코스를 만들어 정원에 펼쳐진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음
- 관람객은 온·오프라인에 게시 및 비치된 '정원 산책' 활동지로 경남도립미술관의 야외조각 소장품을 총망라해 감상함과 동시에 산책자의 시선으로 주변 환경을 새롭게 감응할 수 있음. 또한 소장품 조각을 감상 후 자신만의 조각품을 만들어 야외에 전시하기도 함



[그림 IV-52] 경남도립미술관의 야외조각 교육 프로그램 <정원산책>

⑤ 온라인 교육

■ 국립현대미술관(2020) : <소장품 집콕놀이> 이벤트

- <소장품 집콕놀이>는 온라인으로 미술관 소장품을 향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한 행사임.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을 위해 미술관 소장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중섭, 장욱진, 김종태, 권오상, 씨니킴, 정연두 등의 작품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드로잉, 사진, 영상 등으로 재창조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해시태그(#국현대미술관 #MMCAchallenge)와 함께 게시물을 공유하는 형식임. 미술관 인스타그램 혹은 트위터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코로나19 극복 미술로 응원합니다)을 달아도 됨
- 행사를 통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드비전을 통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기도 함. '사랑의 도시락'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하루 한끼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소장품 재현작 1회에 도시락 3개, 응원 댓글 1회에 도시락 1개가 전달됨
- 기발하고 재치 있게 소장품을 재현한 참가자 111명에게는 문화상품도 제공함



[그림 IV-53]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교육 <소장품 집콕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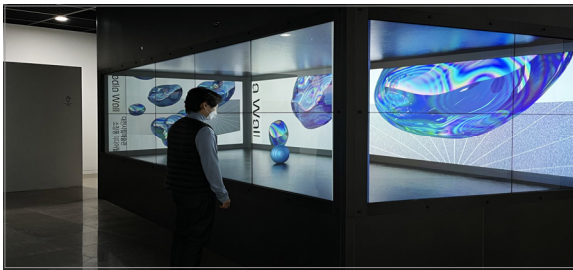
(3) 연구 · 출판

■ 소장품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활동과 출판물 발간

- 소장품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는 추후 전시 및 다양한 활동 등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며, 궁극적으로 미술관 인지도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효과를 보여줌

■ 대전시립미술관(2020) : 지역미술 '소장품 해제 연구' 실시 및 실감 콘텐츠 공개

- 대전시립미술관은 매해 전년도 수집한 작품을 신소장품전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으로 그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따라서 소장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미술에 대한 소장품 해제(미술관 소장품과 작가 연구를 하여 설명문을 작성하는 것)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해당 연구는 소장품 1,302점 중 이미 연구가 진행된 776점 외 160점의 대전지역 소장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조사로 사실상 전체의 72%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역미술 지형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으로 간주함
- 연구용역 결과는 미술관 홈페이지와 실감 콘텐츠 '미디어 월'에 공개해 공감 미술을 실천할 예정임
- 다른 한편,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손 끝에서 만나는 소장품'은 문체부와 대전시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사업으로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에 첨단기술을 접목, 새로운 실감 콘텐츠를 구축해 시민들과 새롭게 상호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IV-54] 대전시립미술관의 '손 끝에서 만나는 소장품' 미디어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21) : 큐레이터가 조사연구한 '근현대사 소장품 연구' 성과물 공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최장헌)은 박물관 소장품에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를 추진하고 첫 번째 결과물로 4권의 단행본을 발간함
- 박물관의 학예연구직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여 소장품의 가치를 높이고 전시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4명의 학예연구직이 각기 다른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에 담긴 역사, 사회문화사적 스토리, 생활사적 가치를 분석함
- 4권의 단행본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E-book과 PDF 파일로도 만나볼 수 있음.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산된 2천여 점의 사진과 원문 역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아카이브(자료보관소) 서비스로 제공함



[그림 IV-55]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현대사 소장품 연구

■ 소장품 선집 발간 사례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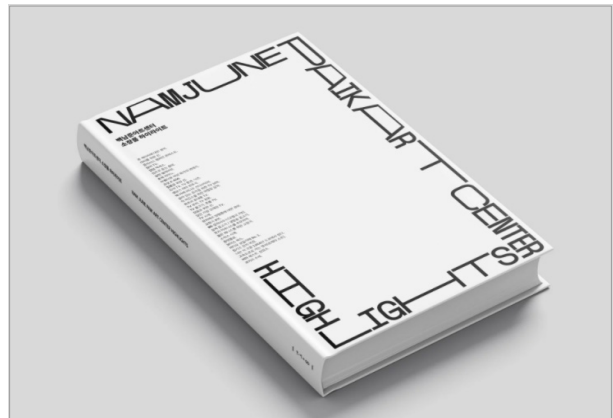
-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2020년 1월, 개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표 소장품을 엄선해 엮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을 국문 및 영문 버전으로 발간함. 2004년 개관 35주년 기념 소장품 선집을 펴낸 지 15년만임
- 미술관 학예연구사 35명이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1910년에서 200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작품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의 형성 및 운동 경과, 한국미술의 현대적 상황, 동시대 미술의 쟁점 등을 소개함. 소장품 선집에 선정된 작품은 미술관 전 학예직이 참여하는 토론과 회의,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거쳐 결정함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개관 이래, 꾸준히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수집, 연구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를 발간함. 작가가 40여 년에 걸쳐 선보였던 주요 작품 중 소장하고 있는 대표작품 50점을 선별하고 해설과 함께 실음
- 작품 해제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학예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하며 연구한 필자들이 작성하였으며, 개관 이래 이루어 온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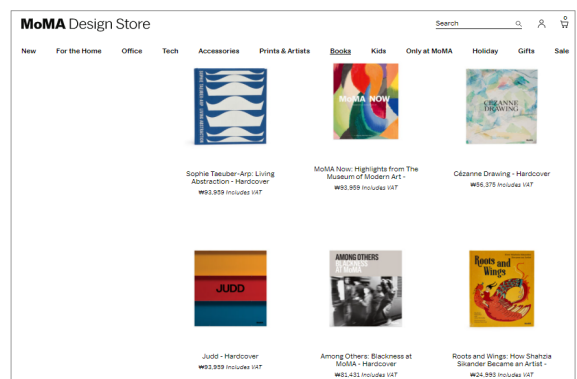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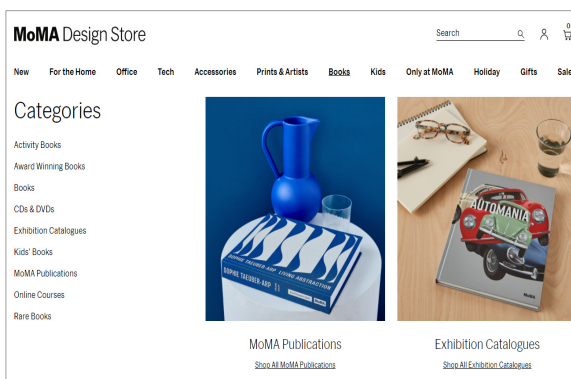
[그림 IV-56]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그림 IV-57]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하이라이트

■ 뉴욕현대미술관(MoMA) 출판

- 뉴욕현대미술관은 1929년 설립 이후 뮤지엄 미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출판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음. 전시 카탈로그 및 소장품 관련 도록 등을 주로 발간하며, 뉴욕현대미술관 오프라인 뮤지엄 스토어 및 디자인스토어, 온라인 스토어 등에서 판매하고 전 세계 서점 및 도서관에도 유통됨



[그림 IV-58] MoMA Design Store 홈페이지 - MoMA 출판물 및 전시 카탈로그

(4) 열람 · 복제

■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

- 열람·복제를 통한 소장품의 접근성 제고는 열람실, 자료실, 아카이브, 온라인 소장작품검색, 온라인 아카이브 등의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음

■ 테이트(Tate) : Prints and Drawings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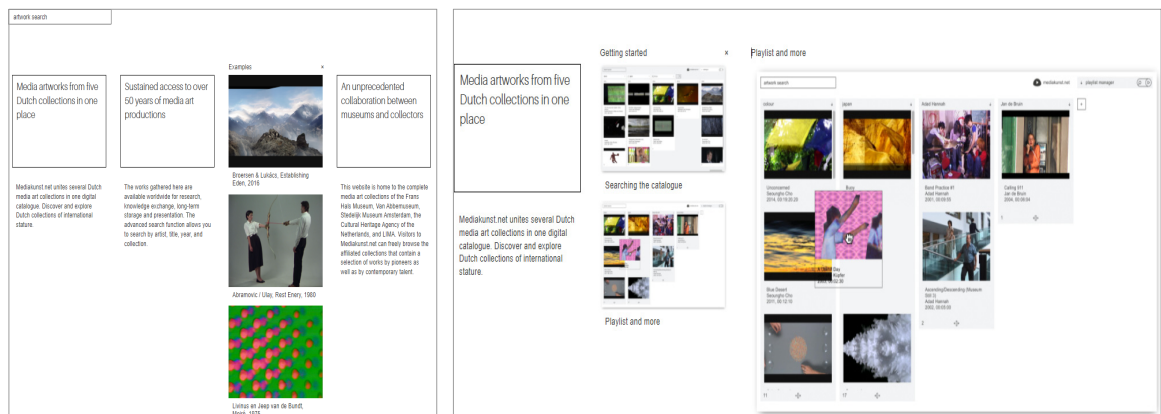
- 테이트는 현재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지 않은 Tate의 소장품 중 드로잉 및 인쇄물 등을 볼 수 있는 'Prints and Drawings Room'을 운영함. 소장품 중 드로잉, 수채화, 판화 등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갤러리에 자주 전시할 수 없는 작품을 신청한 방문객들이 감상 또는 연구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Prints and Drawings Room 소장품은 선구적인 19세기 예술가 JMW Turner의 스케치와 수채화에서부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현대적 판화와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그림 IV-59] 테이트 브리튼 Prints and Drawings Room

■ mediakunst.net : 미디어아트 소장품 통합 아카이브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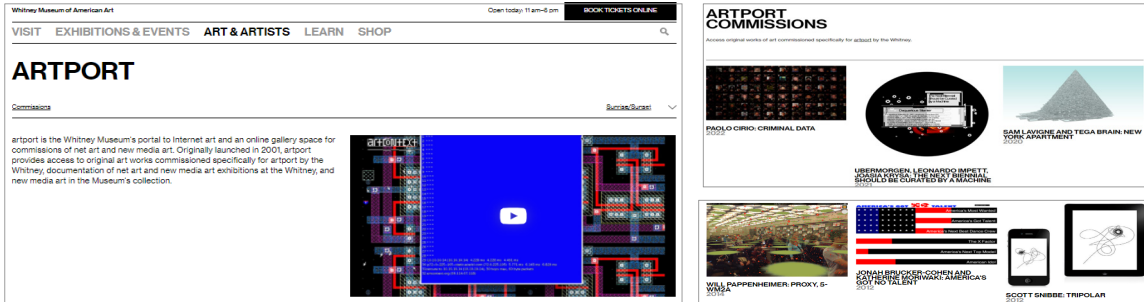
- 네덜란드는 수집과 아카이브가 어려운 미디어아트 소장품을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아카이브 하고 있음. 반아베 미술관, 문화유산청, 스테델릭미술관, 리마컬렉션, 프란스할스미술관이 협업하여 미디어아트 소장품 통합 아카이브 플랫폼 <mediakunst.net> 구축함
- 웹사이트는 5개 기관의 전체 미디어아트 컬렉션을 아카이브하고 있으며, Mediakunst.net의 방문자 제휴 컬렉션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음. 고급 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아티스트, 제목, 연도 및 컬렉션별로 검색할 수 있음
- 수집된 작품은 연구, 지식 교환, 장기 저장 및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



[그림 IV-60] Mediakunst.net 홈페이지

■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 artport

- 휘트니미술관은 웹사이트 내 'artport' 섹션에서 인터넷 아트 및 뉴미디어 아트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를 제공함
- 2001년에 시작된 'artport'는 휘트니미술관이 'artport'를 위해 특별히 의뢰한 온라인 기반 예술 작품, 넷 아트 및 뉴미디어 아트 전시에 관한 아카이브, 미술관의 컬렉션 중 뉴미디어 아트에 액세스를 제공함



[그림 IV-61] 휘트니미술관 홈페이지 - artport

■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 Permanent Collection Documentation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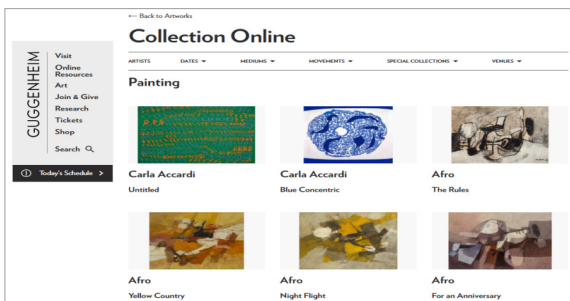
- 휘트니미술관은 'Permanent Collection Documentation Office'를 운영하여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의 목록과 예술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문서화하고 자료가 필요한 직원 및 방문 연구원에게 제공함
- documentation@whitney.org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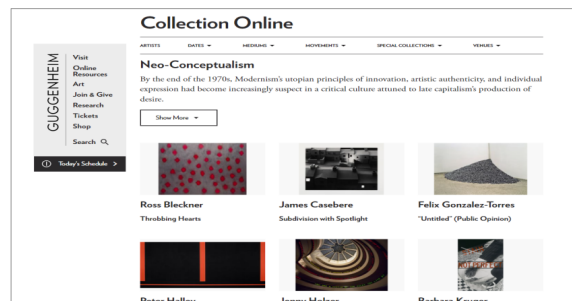
[그림 IV-62] 휘트니미술관 - Permanent Collection Documentation Office

■ 구겐하임미술관 : Collection Online

- 구겐하임미술관의 Collection Online은 8,000여 개의 구겐하임 소장품 중, 625명 예술가의 1,700개 이상의 작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함. 이는 구겐하임 재단의 광범위한 소장품의 폭과 다양성, 취지를 반영하며, 핵심 소장품 및 최근에 취득한 소장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
- 작품을 작가별, 시기별, 매체별, 미술사조별, 장소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인구 그룹별로도 색인 가능함
- 작품 이미지 클릭 시, 작품의 이미지와 개요, 큐레이터가 작성한 작품 설명 등을 열람할 수 있음



[그림 IV-63] 구겐하임미술관 - Collection Online(매체별)



[그림 IV-64] 구겐하임미술관 - Collection Online(미술사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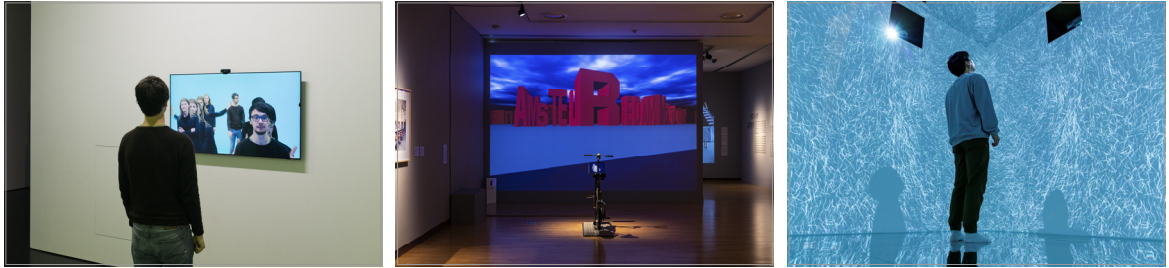
(5) 대여

■ 국내·외 기관 및 예술인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천지역 문화예술 진흥

- 소장품 대여를 통한 지역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및 미술관 소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광주시립미술관 : <ZKM 베스트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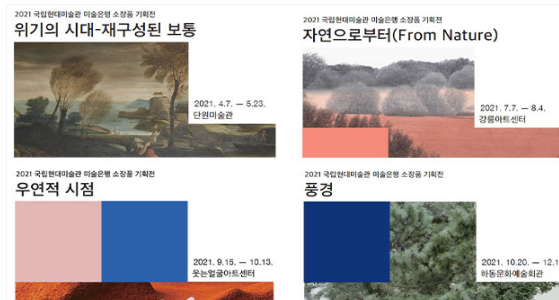
-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과 미디어 센터(Zentrum für Kunst und Medien 이하 ZKM)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래의 역사쓰기 : ZKM 베스트 컬렉션>전에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로 손꼽히는 주요 소장품을 선보임
- 그래픽과 사진, 영화 및 영상, 인터랙티브 컴퓨터 기반 설치미술부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작품까지 90편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됨
- '미래의 역사쓰기' 전시는 먼저 ZKM에서 2019년 2월 23일에 시작되었고 2022년 9월 1일까지 진행됨. 4명의 큐레이션을 통해 각색되어 광주에서 열리는 '미래의 역사쓰기 : ZKM 베스트 컬렉션'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ZKM이 공동으로 기획함



[그림 IV-65] 광주시립미술관 <미래의 역사쓰기 : ZKM 베스트 컬렉션> 전시 전경

■ 국립현대미술관(MMCA) 미술은행 소장품 대여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2005년 2월 설립됨
-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 이들 작품을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기업 등에 대여·전시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 공간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한국의 현대미술을 알리는 문화 전령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미술은행은 국민들에게 일상 속 다양한 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대여사업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일환으로 매년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등과 협업해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음
- 2021년에는 미술은행 소장품을 지역에 선보이는 전시가 전국 4곳(안산 단원미술관, 강릉아트센터, 대구웃는얼굴아트센터,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림



[그림 IV-66] 2021년 미술은행 소장품 지역 전시



[그림 IV-67]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미술은행 홈페이지)

■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 소장품 대여 전시

-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은 1921년 미국의 기업가 던컨 필립스(duncan phillips)에 의해 설립된 워싱턴 dc 소재의 미술관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근대 회화 전시를 시작한 곳임. 예술에 대한 사랑이 물질적인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유명 작품들을 수집, 연구해 온 필립스컬렉션은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심미안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3,000점이 넘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음
- 예술적 가치가 큰 작품들도 다수 포함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구입,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며 무명의 미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IV-68]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

■ 대전시립미술관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2014.07.02.~201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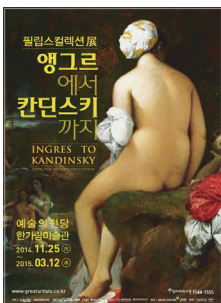
-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은 필립스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유명 걸작들을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로서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하여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 앙그르, 들라크루아, 오노레 도미에 등 서양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68명의 예술가들이 그린 명화 85점을 엄선하여 근·현대회화 작품을 선보임



[그림 IV-69] 대전시립미술관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전시 전경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앙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2014.11.25.~2015.03.12.)

- <앙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는 미국의 기업가 던컨 필립스가 수집한 다수의 소장하고 있는 서양미술 걸작품 중 일부를 선보임. 본 전시는 국내에 미공개된 유화작품 85점을 공개하는 전시임
- 앙그르, 호세 데 고야, 마네, 모네, 반 고흐, 피카소 등 68명의 거장들이 그린 명화를 만날 수 있으며, 19세기 고전주의와 사실주의를 시작으로 인상주의를 거쳐 추상표현주의에 이르는 근현대 서양미술사를 이끈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100년 간의 서양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음



[그림 IV-70] 한가람미술관 <앙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시 전경

(6)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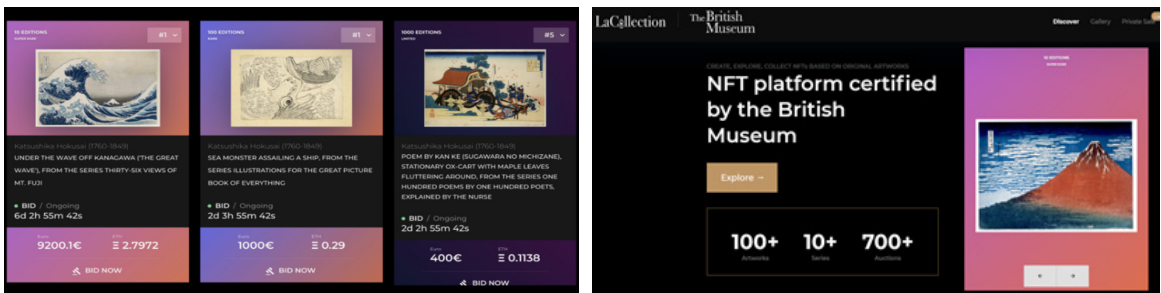
■ 굿즈 및 온라인 콘텐츠 등의 활용에 따른 소장품 가치 확산 및 접근성 강화

- 소장품 대상 미술관 문화상품 개발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소장품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가 가능함. 특히 NFT 제작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① 상업적 사용

■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LaCollection 협업 NFT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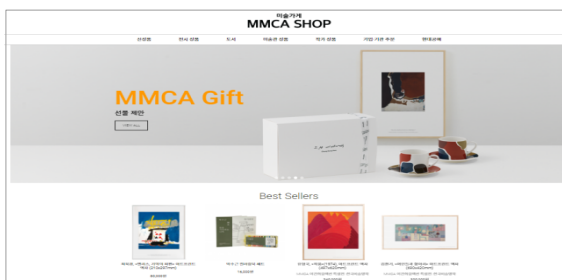
- 대영박물관은 '21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 'Hokusai, The Great Picture Book of Everything' 전시개막과 동시에 호쿠사이의 대표적인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를 포함한 100여 종의 작품을 NFT화하여 판매함
- 대영박물관은 작품별 등급에 따라 발행량에 차등을 두었음.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는 '슈퍼레어'급으로 책정되어, NFT가 단 10점만 발행되었음. 등급에 따라 많게는 1000점, 1만 점씩 발행되는 작품이 존재함
- 이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판화작품을 중심으로 NFT를 통해 '기념품화'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분석됨
- NFT는 프랑스 블록체인 기업 라콜렉션(LaCollection.io)의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NFT의 2차 거래에 따른 로열티는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경우 10%는 대영박물관, 3%는 LaCollection.io에 부여될 계획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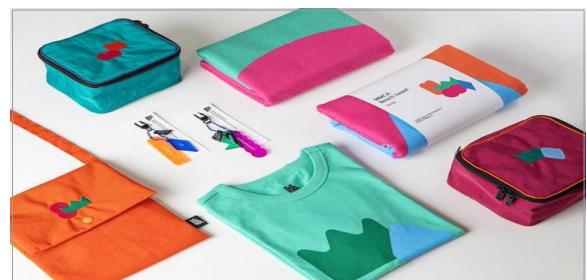
[그림 IV-71] LaCollection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중인 Hokusai의 NFT

■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상품 및 온라인숍 '미술가게'

-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MMCA)은 2020년 8월부터 미술관 도록과 문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숍 '미술가게'를 운영함
- 국립현대미술관은 온라인숍에서는 미술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아낸 아트상품, 국립현대미술관 도록과 연구 서적, 전시·소장품 연계 문화상품 등을 판매함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윤형근, 서세옥, 박서보, 장욱진, 이중섭 등의 작품을 활용하여 아트프린트, 문구류, 컵, 패션잡화류, 엽서 등의 상품을 제작하며, 온라인숍을 통해 판매함



[그림 IV-72]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숍 미술가게 홈페이지



[그림 IV-73]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숍 아트상품

■ 간송미술문화재단 : 훈민정음 해례본 NFT 발행

-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소장품인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 NFT로 발행하였으며, 토큰 1개당 가격을 1억원으로 책정함
- 간송미술관은 문화보국 정신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FT 발행과 기술 협력은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PUBLISH, Inc)가 지원하고, 헤리티지아트(주)를 통해 기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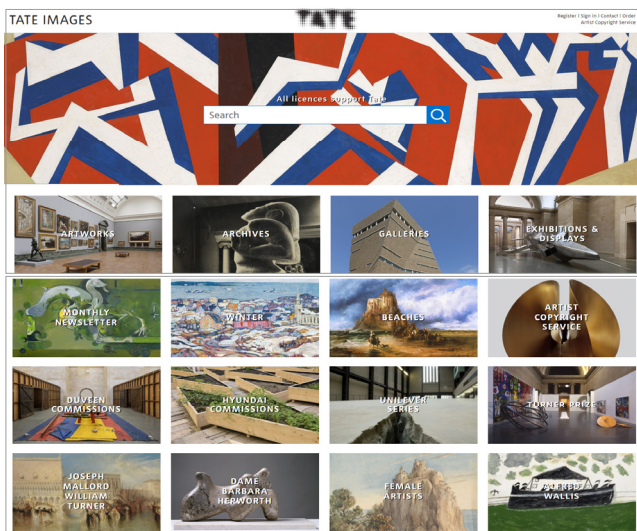
[그림 IV-74] 훈민정음 한정판 NFT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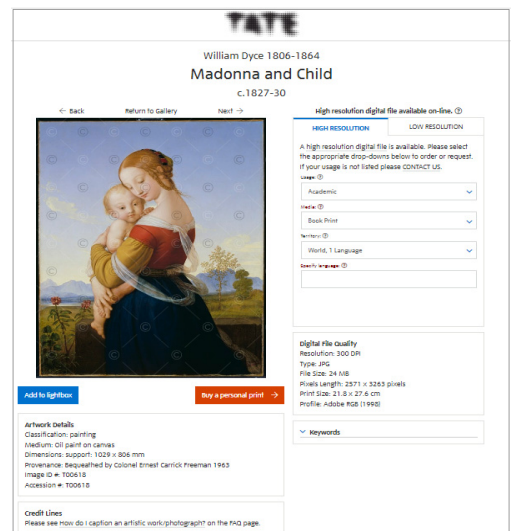
[그림 IV-75] NFT 제작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 Tate Images : 이미지 라이선싱 및 프린트 구매

- Tate Images는 Tate의 사진 라이브러리이며 Tate 사진 부서에서 만든 디지털 사진에 대한 액세스 및 라이선스를 제공함. 출판물, 전시물, 강의, 웹사이트, 상품, 제품, TV프로그램 및 영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디지털 사진에 대한 복제 권한을 관리하며, 특정 작품에 대한 저작권 허가 및 취소 권한을 행사함
- Tate Images의 웹사이트(www.tate-images.com)는 Tate 사진 라이브러리의 디지털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온라인에 예술작품 고해상도 사진(저작권 만료된 경우)이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음. 고해상도 사진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별도의 요청을 통해 라이선싱할 수 있음
- Tate Images는 온라인 맞춤형 인화 서비스를 제공함. 맞춤형 인화는 Tate Images 웹사이트에서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음. 액자가 있는(또는 없는) 고품질 복제품과 제한된 시간 동안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복제품을 제공함



[그림 IV-76] 테이트 이미지(Tate Images) 홈페이지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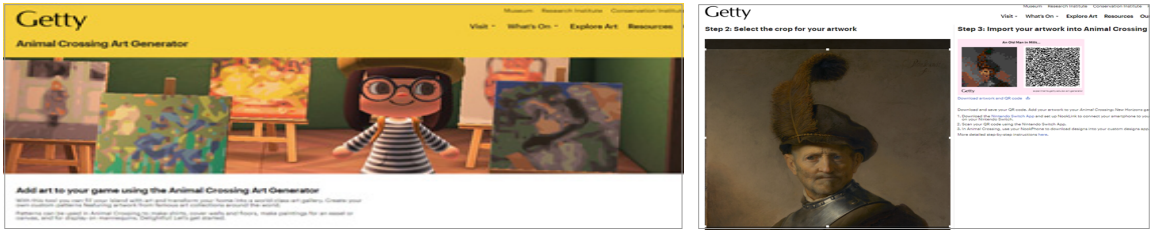


[그림 IV-77] 테이트 이미지(Tate Images) 상세페이지

② 디지털 활용

■ 폴 게티 미술관(J. Paul Getty Museum) & 애슈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 : 게임 내 소장품 QR코드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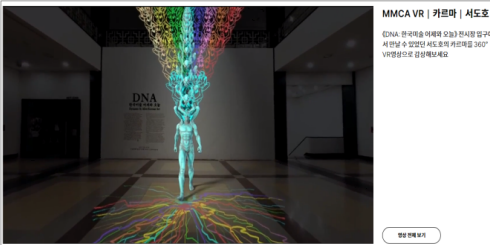
- 2020년 4월, J. Paul Getty Museum과 영국의 Ashmolean Museum은 함께 닌텐도 게임인 <놀러와요 동물의 숲>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술작품 QR코드를 무료로 배포함
- 박물관은 코로나19로 박물관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게임이 행복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 특히 “게임 <동물의 숲>은 ‘모두가 바라던 평화로운 도피처’라며” 박물관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품을 가상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밝힘
-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두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명화 QR코드를 찾고, 그 후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동물의 숲 앱을 깔아 실행한 뒤 ‘마이 디자인’ 탭에서 원하는 QR코드를 스캔해 저장하면 게임 속에서 명화를 감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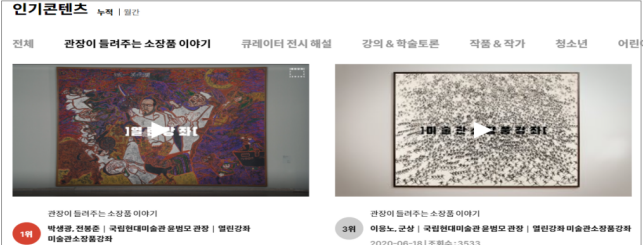
[그림 IV-78] <놀러와요 동물의 숲>의 소장품 QR코드 배포

■ 국립현대미술관 : 디지털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은 홈페이지 내 ‘디지털미술관’ 섹션을 통해 소장품 및 전시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함. 영상 콘텐츠가 다수를 차지하며, VR영상 또는 오디오 음성 해설 콘텐츠 등이 있음
- MMCA VR 콘텐츠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나 전시작품을 VR로 만나볼 수 있음
- ‘관장이 들려주는 소장품 이야기’는 관장이 직접 소장품을 10분 내외로 소개하는 콘텐츠로,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는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되어 관객의 온라인 접근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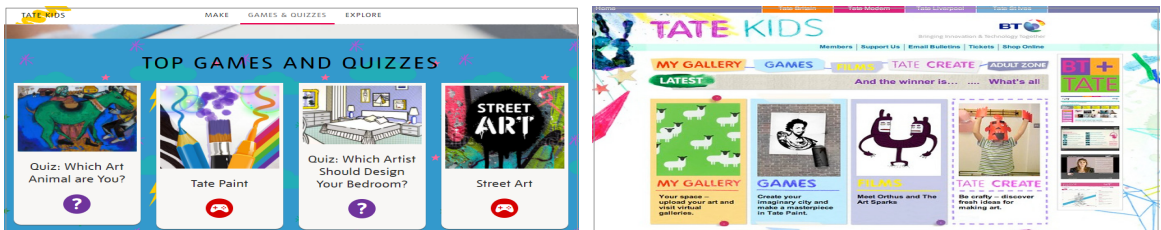
[그림 IV-79] MMCA VR, 서도호 <카르마>



[그림 IV-80] MMCA 콘텐츠 <관장이 들려주는 소장품 이야기>

■ 테이트(Tate) : 테이트 키즈 웹사이트

- 테이트 키즈(Tate Kids)는 Tate에서 만든 어린이 미술 관련 웹사이트임. 아이들은 테이트 키즈 웹사이트를 탐색하며 예술에 관한 게임과 퀴즈, 비디오 시청이 가능함. 또한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의 다른 아이들과 본인 작품을 공유할 수 있음
- 테이트 키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는 테이트의 소장품과 미술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 함



[그림 IV-81] 테이트 키즈(Tate Kids) 웹사이트

CHAPTER

V

소장품 수집 로드맵

1. 개관 전 (2022 ~ 2025)
2. 개관 후 (2025. 12. ~ 2030)

V 소장품 수집 로드맵

[표 V-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로드맵

구분	과제	개관 전				개관 후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개관 전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원 확보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제정									
		건립추진단 조직 1차 추진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1차 정비									
		개관 전 1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건립추진단 조직구성 완료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									
		〈소장품 정책〉 확립 및 공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2차 정비									
		개관 전 2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개관 후	개관 및 미술관 운영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									
		당해연도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소장품 정책 및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수집정책 및 계획의 환류									

1 개관 전 (2022 ~ 2025)

1)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1) 핵심과제

■ 인천시립미술관 조례 제정 → 건립추진단 조직 추진 (1차)

-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는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및 소장품 수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이 가능한 인력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에서는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관장과 학예사로 구성된 건립추진단을 조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미술관 개관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개관을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함

(2) 단계별 추진과제

■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원 확보 ~ 1차 소장품 수집

- 2022년 4월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 종료 기점으로, 소장품 정책 및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의 기초자원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거쳐, 건립추진단 조직 추진(1차) 및 관리규정의 정비와 1차 소장품 수집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표 V-2]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 단계별 추진과제

시기	과제	내용
2022년 상반기	①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종료 •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원 확보
2022년 하반기	②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제정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추진단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③ 건립추진단 조직 1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 조직을 위한 관장 및 학예사 채용 등 1차 조직 정비
2023년 상반기	④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1차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
2023년 상반기	⑤ 개관 전 1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전 1차 소장품 구입 및 수증계획서 마련 및 실행

(3) 단계별 세부내용

①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원 확보

■ 개요

- 추진시기 : 2022년 상반기
- 추진내용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 종료에 따른 연구결과 확보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과 ‘수집 및 관리규정’의 기본 틀 마련

■ 추진방법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종료와 함께,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

②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제정

■ 개요

- 추진시기 : 2022년 하반기
- 추진내용 :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발 및 제정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 조직 및 자체 규정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방법

- 인천시립미술관의 개관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구조의 확보 및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관한 근거를 조례의 내용에 담아 개관 준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조례는 향후 개정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용 기반을 세부적으로 담도록 함

③ 건립추진단 조직 1차 추진

■ 개요

- 추진시기 :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 추진내용 : 건립추진단 조직을 위한 관장 선임 및 1차 학예사 채용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및 소장품 수집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 추진방법

-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미술관 및 인천지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망 있는 전문가를 관장으로 선임하며, 미술관 개관 및 소장품 수집 관련 경험이 있는 학예사를 채용함

④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1차 정비

■ 개요

- 추진시기 : 2023년 상반기
- 추진내용 : 기존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수정·보완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관련 자체 규정 확보

■ 추진방법

-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미술관 건립 단계의 실정에 부합하는 규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⑤ 개관 전 1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 개요

- 추진시기 : 2023년 상반기
- 추진내용 : 1차 소장품 수집계획을 개발하고, 소장품 수집 추진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1차 소장품 수집 완료

■ 추진방법

-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및 소장품 수집 범주 등 소장품 정책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개관 전 1차 소장품 수집계획을 개발하고 수집을 추진함

2)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1) 핵심과제

■ 건립추진단 조직구성 완료 → 소장품 정책 확립 및 공표

-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은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최종적으로 대비하는 단계를 의미함
-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에서 특히 건립추진단의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전문인력들에 의해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립하고, 공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됨
-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 안정적인 소장품 수집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소장품에 기반하여 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단계별 추진과제

■ 건립추진단 조직 완료 ~ 2차 소장품 수집 실행

- 2023년 하반기 건립추진단 조직 완료를 시작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후 소장품 정책을 확립·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재정비하고, 개관 전 2차 소장품 수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표 V-3]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 단계별 추진과제

시기	과제	내용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① 건립추진단 조직 완료	• 미술관 개관준비 조직구성 완료
2024년 상반기	②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	• 운영 및 관리사항에 관한 조례 구체화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③ <소장품 정책> 확립 및 공표	• 소장품 정책 최종 확정 및 공표를 통한 미술관 소장품 정책 선도적 사례 제시
2024년 하반기	④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2차 정비	• 소장품 정책 최종 확정에 따른 규정 내용 수정·보완
2024년 하반기 ~ 2025년 12월	⑤ 개관 전 2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 조례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개관 전 2차 소장품 구입 및 수증계획서 마련 및 실행

(3) 단계별 세부내용

① 건립추진단 조직 완료

■ 개요

- 추진시기 : 2022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 추진내용 : 건립추진단 조직구성 완료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의 개관 전·후 운영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 확보

■ 추진방법

-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전·후의 운영을 위해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홍보, 소장품 보존·관리 분야에 전문성 있는 학예사를 채용함

②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

■ 개요

- 추진시기 : 2024년 상반기
- 추진내용 : 인천시립미술관 운영조례 내용 보완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방법

- ‘건립추진단 조직 준비’ 단계에 진행한 운영조례 제정의 내용에서,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전반을 포괄하여 조례 구성의 체계성을 확립함

③ <소장품 정책> 확립 및 공표

■ 개요

- 추진시기 :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 추진내용 :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소장품 정책 확립 및 공표
- 추진결과 : 국내 미술관에서 소장품 정책을 최초로 확립, 제시하는 선도적 사례 제시 및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마련함

■ 추진방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장품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단이 최종적으로 소장품 정책을 확립함. 소장품 정책은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에 부합해야 하며, 소장품 정책은 소장품을 수집 및 관리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소장품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④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2차 정비

■ 개요

- 추진시기: 2024년 하반기
- 추진내용: 소장품 정책 내용과 연동되는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개발
- 추진결과: 소장품 관련 업무 추진의 체계적 지침 확보

■ 추진방법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1차 수정한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을 재검토하고, 건립추진단이 확립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과 연동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함

⑤ 개관 전 2차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및 수집

■ 개요

- 추진시기: 2024년 하반기 ~ 2025년 12월
- 추진내용: 2차 소장품 수집계획을 개발하고, 소장품 수집 추진
- 추진결과: 인천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한 2차 소장품 수집 완료

■ 추진방법

-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 및 소장품 수집 범주 등 소장품 정책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개관 전 2차 소장품 수집계획을 개발하고 수집을 추진함

2 개관 후 (2025. 12. ~ 2030)

1) 개관 및 미술관 운영

(1) 핵심과제

■ 소장품 정책 및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 ‘개관 및 미술관 운영’은 인천시립미술관이 개관하고 소장품을 통한 미술관의 정체성 가시화를 본격적으로 이루는 단계임
- 개관 및 미술관 운영 후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는 ‘소장품 정책 및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소장품 정책 및 규정, 수집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인천시립미술관이 타 미술관과의 차별화된 성격을 마련하고, 미술관과 소장품의 질적 가치를 제고해 갈 수 있도록 함

(2) 단계별 추진과제

■ 건립추진단 조직 완료 ~ 2차 소장품 수집 실행

- 2025년 12월 인천시립미술관 개관 이후,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함. 이를 바탕으로 매해 당해연도의 세부 소장품 수집계획을 마련하고, 정책 및 계획에 근거한 소장품 수집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 5년 차가 되었을 때 정책 및 규정, 계획을 검토하고 환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함

[표 V-4] 건립추진단 조직 및 활동 : 단계별 추진과제

시기	과제	내용
2025년 12월	①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	• 소장품 수집의 체계성 및 컬렉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5개년 수집계획 수립
2025년 12월 ~ 2030년 12월	② 당해연도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의 세부 수집 계획 마련
2025년 12월 ~ 2030년 12월	③ 소장품 정책 및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 정책 및 수집계획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선별된 소장품 수집을 지속
2030년 12월	④ 수집정책 및 계획의 환류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소장품 정책 및 규정, 수집계획의 환류를 통한 보완

(3) 단계별 세부내용

①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수립

■ 개요

- 추진시기 : 2025년 12월
- 추진내용 :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 추진결과 : 인천시립미술관의 5개년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 마련

■ 추진방법

- 관장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에 기반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션과 연동되는 5개년 중장기 수집계획을 설계함

② 당해연도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 개요

- 추진시기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
- 추진내용 : 중장기 수집계획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의 소장품 수집계획 개발
- 추진결과 : 당해연도 소장품 수집을 위한 계획 마련

■ 추진방법

- 관장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중장기 소장품 수집계획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소장품 수집계획을 개발함. 이때, 기 소장품 현황을 분석하고 컬렉션 구성의 조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③ 소장품 정책 및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 개요

- 추진시기 : 2025년 12월 ~ 2030년 12월
- 추진내용 : 소장품 정책 및 중장기·당해연도 계획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전개
- 추진결과 : 소장품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컬렉션의 질적 가치 제고 및 연속성 확보

■ 추진방법

- 관장 및 학예사는 소장품 정책 및 중장기·당해연도 계획에 기반하여 소장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며, 소장품 수집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고, 수집 관련 심의 시 정책 기조에 준하여 수집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함

④ 수집정책 및 계획의 환류

■ 개요

- 추진시기 : 2030년 12월
- 추진내용 : 소장품 정책,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중장기 수집계획의 환류
- 추진결과 : 환류를 통한 정책, 규정, 계획의 수정·보완으로 실효성 강화

■ 추진방법

- 개관 5개년 차 미술관 운영 및 소장품 컬렉션에 관한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도출하여 기존 소장품 정책, 규정, 계획이 지닌 한계점을 도출하고 보완함

CHAPTER

VI

부 록

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안)
2. 국외 미술관 소장품 정책 사례
3. 연구형 자문위원회 회의록



VI

부 록

1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안)

[목 차]

1. 미션

- 1.1 미술관 미션
- 1.2 소장품 미션
- 1.3 소장품 정책 목적
- 1.4 책임 및 권한

2. 연구

- 2.1 소장품 연구
- 2.2 소장품 정책 연구

3. 수집

- 3.1 수집범주
- 3.2 수집유형
- 3.3 수집방법
- 3.4 가치평가
- 3.5 저작권

4. 관리·보존

- 4.1 분류
- 4.2 등록
- 4.3 처분
- 4.4 보험
- 4.5 보존
- 4.6 기록
- 4.7 정보시스템

5. 이용

- 5.1 열람·복제
- 5.2 대여
- 5.3 콘텐츠 활용

6. 아카이브

1. 미션

1.1 미술관 미션

- (작성 예시)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문도시로서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해왔으며, 이주와 이민으로 인한 문화다양성의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이다. 2025년 개관(예정)한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근현대미술 및 인천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시각예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적 가치를 공유한다.

1.2 소장품 미션

- (작성 예시) 소장품은 미술관의 존립 근거이자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자원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자 소장품을 둘러싼 정보와 지식이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는 원천소스로서 정보재이다. 인천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미션에 부합하는 소장품 관련 활동을 통해 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미술 진흥을 위한 매개 개념으로서 소장품의 역할을 규정한다.

1.3 소장품 정책 목적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의 목적은 미술관 미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장품 관련 수집, 연구, 관리·보존,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 본 정책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근거가 되는 소장품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미술관이 실행하게 될 소장품 수집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원칙과 지향점을 명시함으로써 미술관의 모든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실행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 본 정책은 인천시립미술관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법적, 윤리적, 전문적인 표준을 준수하며, 소장품 관련 활동이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1.4 책임 및 권한

-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연구, 관리, 보존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부여되는 행위 주체를 대내적으로는 ‘관장 및 학예사’로 대외적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둔다.
- ‘관장’은 미술관의 소장품 활동과 관련해 학예사와 협의하여 소장품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총책임자로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소장품 수집계획의 수립과 함께 단계별 심의에 참여하며,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및 처분, 보존 및 관리, 연구, 이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학예사’는 실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장품 연구, 수집, 관리, 보존,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책임을 지닌다. 특히 소장품 연구를 바탕으로 소장품 수집을 위한 작품 추천, 소장품의 처분, 대여, 이용, 연구에 관한 실무적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소장품 관련 위원회는 소장품 수집단계에서 의결권을 지니는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와 미술관 운영 및 소장품 관리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
- ‘가치평가위원회’는 학예사의 소장품 수집 추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 ‘가격평가위원회’는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한 매입 가격을 평가한다.
- ‘수집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수집 대상 작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2. 연구

2.1 소장품 연구

- 소장품 연구는 수집 대상 작품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와 인천 지역미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수집된 소장품에 대한 미학적, 미술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재맥락화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된다.
- 소장품 연구의 목표는 미술관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양질의 컬렉션을 확보하며, 기수집된 소장품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다.

2.2 소장품 정책 연구

- 소장품 정책은 미술관의 일관된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항구성을 가져야 하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상황에 맞게 수정·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장품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에 따라 소장품 정책의 기초인 ‘인천시립미술관의 미술관 정체성과 경쟁력의 근거가 되는 소장품의 개념과 역할을 정의하고, 미술관이 실행하게 될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원칙과 지향점을 명시하여 인천시립미술관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실행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는 원칙 속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소장품 정책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조직구성’, ‘수집연구’, ‘관리·보존연구’, ‘활용연구’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표 VI-1] 정책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구분	내용
조직구성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관련 전문인력 체계 개발 연구
수집연구	수집·연구·활용이 연계되는 소장품 수집전략 및 계획 개발 연구
관리·보존연구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보존 안정성 제고에 따른 연구
활용연구	소장품 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가·일반인의 접근성 강화 기반 마련

3. 수집

3.1 수집범주

- 소장품의 수집범주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에 근거하여 ‘인천 근현대미술’, ‘국내·외 동시대 미술’,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설정한다. 다만 세 개의 영역은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둔다.
- ‘인천 근현대미술’은 인천미술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영역으로, 유의미한 인천미술 관련 작품 및 자료를 수집 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지속적인 지역작가 연구와 개발, 역사적 맥락에 따른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 활동이 주어지도록 한다. 인천지역 작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연고가 있는 작가를 포함한다.
- ‘국내·외 동시대 미술’은 국내외 미술계 흐름과 담론을 포착함으로써 동시대 미술을 주도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동시대 미술 담론과 주요 전시, 작품 동향을 살피며, 국내외 미술관 기획전과 교류를 계기로 발굴된 우수 작품을 수집 대상으로 설정한다.
-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은 인천시립미술관의 차별화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 담론과 관련된 국내외 작가의 주요 작품을 수집하며, 인천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을 통해서도 특화된 주제의 주요 작품을 수집 대상으로 설정한다.

3.2 수집유형

- 수집유형은 크게 유형·무형을 포함하며, 미술 매체별 구분을 통해 ‘한국화’, ‘회화’, ‘서예’,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사진’, ‘뉴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총 10개 부문으로 유형화한다.
- 또한, 10개 유형의 ‘작품’과 별개로 ‘자료’에 해당하는 ‘수집기록물’을 수집한다. ‘수집기록물’은 인천 근현대 미술자료 및 학예 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미술관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술인 및 단체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표 VI-2]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유형

영역	기준(유형)	내용
작품	한국화	한국의 전통적 기법과 양식에 의해 제작된 작품
	회 화	각종 안료를 써서 형상을 표현한 작품
	서 예	문자를 소재로 하는 조형예술
	판 화	형상을 그려 만든 판에 잉크나 물감을 칠해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한 작품
	드로잉	선적인 표현의 회화 작품
	조 각	공간·장소 내에 입체성을 구현한 작품
	설 치	공간·장소와의 맥락에 중점을 두는 작품
	사진·영상	아날로그 카메라·필름·비디오를 매개로 한 작품
	뉴미디어아트	디지털 기술매체 및 첨단기술에 기반한 작품
	퍼포먼스	퍼포먼스 매뉴얼
자료	수집기록물 (매뉴스크립트)	인천 근현대 미술자료 일체 및 기타 학예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및 미술관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술인 및 단체, 공간 등의 기록물

3.3 수집방법

-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정책 및 수집계획을 기반으로, 인천시립미술관 관장 및 학예사를 중심으로 수집에 적합한 작품을 조사·분석하여 소장품 수집을 제안하는 ‘내부추천제’를 기반으로 소장품을 수집한다. (필요의 경우, 관장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추천제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수집할 수 있다.)
- (수집제안) 소장품 수집 대상을 추천하는 학예사는 작품의 설명, 보존상태, 제작연도, 소유이력, 출판이력, 전시이력, 미술관 소장품과의 관련성 및 중요도, 수집에 대한 정당성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한다.
- (가치평가)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소장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가치평가위원회’는 학예사의 소장품 수집 추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 (가격평가) ‘가격평가위원회’는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한 매입 가격을 평가한다.
- (수집평가) ‘수집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수집 대상 작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수증) 작품 수증의 경우 기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증심의위원회’가 상정 여부를 검토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신청서 검토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장품으로 등록한다.
- (관리전환) 관리 전환의 경우 관련 논의가 발생하면 해당 관리 전환 건의 기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관리전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3.4 가치평가

- 소장품 수집에 제안된 작품은 다음의 가치평가 기준과 배점에 따라 가치평가위원회가 대상 작품의 가치를 평가한다.
- 하지만 기준별 배점에 대해서는 배점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구입 작품의 범주 및 성격에 따라 지표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채점단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 또한, 작품과 자료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상호연동을 전제로 할 경우, 가치 기준의 재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I-3]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가치평가 기준

영역	기준 (배점)	세부 기준
작품	미술사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동시대·근현대미술사에서의 대표성 • 추후 미술사적 평가에 대한 전망 여부
	학술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 동시대 현대미술 담론 형성과 이론적 평가에 대한 기대치
	시대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반영 정도 • 미래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시대사적 의미의 구현 정도
	독창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대 사회적, 문화예술적 담론에 대한 독창적 시각과 이해도 • 예술 형식과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과 실험성
	조형적 가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품으로서 조형적 측면에 대한 질적 완성도 • 내용과 형식에서 작품 완성도의 총체적 측면의 구현
자료	학술적 가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역 및 국내외 근현대미술사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 자료 자체가 작품일 경우, 작품의 미술사적 의미와 이론적 가치의 총합으로서의 가치 보유 여부

3.5 저작권

- 미술관은 소장품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위험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직원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신규 소장품의 취득 시, 저작권자로부터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과 이용허락에 관한 법적 사항을 확인받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3의 작품소유자로부터 소장품을 구입·수증할 경우 미술관이 소장품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진술 및 보증 계약을 통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 (저작인격권) 미술관은 구입·수증한 작품을 예술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변경, 삭제, 개변, 훼손, 파괴 등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여 예술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작품을 전시 등에 활용할 때 예술인의 성명, 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적절하게 표시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 미술관은 작품의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비영리적 활용에 있어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영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이용하기 전에 협의해야 한다.
- 미술관은 소장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표권 및 특허권, 공정사용, 디지털사용, 이미지 사용, 상업적 사용, 저작권 사용료와 수수료, 복제, 개인정보보호,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한다.

4. 관리·보존

4.1 분류

- 소장품 분류체계는 장르별, 주제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소장품 분류를 다각화한다.
- 장르별 구분은 소장품 수집유형과 동일하게 작품 10개 자료 1개로 나누며, 미술관의 가장 일반화된 분류체계로 활용한다.
- 주제별 구분은 미술관의 미션·비전·핵심가치와 연동하여, 미술관이 지향하는 핵심 주제를 도출하여 분류한다. 이를 통해 소장품을 개별적인 단위가 아니라 주제적 연관성 속에서 일정한 흐름을 갖는 형태로 분류함으로써 활용 효율성을 높인다.
- 연도별 구분은 1920년대를 시작으로, 10년 단위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전개된 인천지역미술사의 흐름과 함께, 국내외 미술과 시대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공유해왔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 VI-4]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분류체계(안)

항목	내용	특징
장르별	한국화, 회화, 서예,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사진, 뉴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수집기록물	미술관의 기본 분류체계 확보
주제별	동아시아, 디아스포라, 평화 및 환경, 문화 다양성 연계 주제 등	미술관이 지향하는 가치의 시각화 (차별화된 특징 및 정체성 제시)
연도별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인천미술사 연구의 접근성 강화

4.2 등록

- 소장품 등록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소장품 관리의 첫 번째 과정으로, 미술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
- 소장품 등록을 위해 소장품 정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은 소장품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미술관은 자체 ‘소장품 기술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장품 정보를 수집·정리한다.
- ‘소장품 명세서’에는 작가정보(작가명, 생몰연도, 국적, 학력, 경력) 및 작품정보(작품명, 제작연도, 재료/기법, 규격, 에디션, 소장정보)를 기술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에 소장품 등록을 실행하여 공식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 소장품 등록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

4.3 처분

- 미술관의 소장품 처분에 관한 결정은 주의 깊게 내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미술관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르되, 본래 수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소장품 처분은 궁극적으로 미술관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작품은 영구 소장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 미술관의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 중복되는 작품이어서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조되거나 복제되어 진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인천시립미술관은 소장품 처분을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해당 기준에 따르는 소장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작품불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불용결정이 된 작품은 ‘매각’, ‘폐기’, ‘반환’하여 처분한다.
- 미술관 운영위원회 및 직원 혹은 미술관과 연관된 누구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술관에 의해 처분된 작품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 혹은 직원은 소장품의 거래로부터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4.4 보험

- 보험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로 인해 소장품에 발생하는 손해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미술관은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관장 및 학예사는 담보내용 및 가입대상을 결정하고, 가입한 보험의 유형과 금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장품의 현재 시장 가치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4.5 보존

- 미술관은 소장품의 원형 또는 예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장품을 관리 및 보존하고 작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하며, 소장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장고, 온도, 상대습도, 해충 방역, 보존, 물품의 취급, 재난 대비 계획, 위치 목록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장기적인 보존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보존 환경은 국제박물관미술관협회(ICOM)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준으로 원칙을 설정하되, 작품의 보존상태 및 전시·수장고 시설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적당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4.6 기록

- 미술관은 학예연구, 아카이브, 보존관리 부서를 통하여 모든 소장품의 식별 정보, 위치, 상태, 관련 활동, 기증자, 작가, 학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정확하게 최신의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 소장품 기록을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장품 관련 업무를 통해 생성된 기록들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파일 시스템으로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미술관 아카이브(생성기록물)로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모든 기록은 미술관 소장품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된 원본 문서 또한 잘 보관되어야 한다.
- 학예연구 부서는 소장품의 모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접근 권한의 관리 등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4.7 정보시스템

- 소장품 정보시스템은 소장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및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소장품을 통한 미술관 콘텐츠 개발과 유통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계가 가능하고, 새로운 콘텐츠 생산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술관은 소장품 관리를 단순한 자료의 저장이 아닌 정보재로서의 소장품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용

5.1 열람·복제

- 미술관 소장품의 열람과 복제는 학술연구의 목적을 지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장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작품 열람) 작품의 경우 보존·관리의 중요성으로 인해 열람 허가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작품의 열람을 희망하는 자가 문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시, 신청 목적과 신청 기관의 적합성에 따라 열람을 허가한다.
- (미술 자료 열람) 미술자료의 경우 아카이브실을 통해 자료 열람을 개방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미술관 직원, 공공기관 및 문화관련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학술연구를 위해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일반인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미술자료 중 무제한적으로 열람될 경우 쉽게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될 수 있거나, 기타 관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술자료의 비공개 자료로 설정하고,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복제) 소장품의 복제는 소장품을 촬영·모사·모조하거나 사진원판을 출판, 학술 등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장품을 복제 이용할 경우 복제를 희망하는 자가 ‘복제허가신청서’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제출하여, 일련의 기준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 대여

-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연구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이 소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사적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경우에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한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공개 전시
 -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3)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4)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전환 한 기관 또는 기증 작가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타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하는 것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 1) 대여목적의 공익성
 - 2) 대여작품의 보존상태
 - 3) 전시환경의 적정성
 - 4) 대여작품 보험가격의 타당성
 - 5) 기타 문화예술진흥 기여 여부
- 소장품의 대여 조건은 미술관의 대여 정책, 개별 대여 계약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운송 및 전시를 위한 품목의 물리적 적합성
- 2) 대여를 둘러싼 위험 정도에 대한 협의
- 3) 대여에 필요한 리소스
- 4) 대여 신청 기관의 적합성 및 대여 작품 활용 계획의 적합성
- 5) 대여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및 대여 기간

5.3 콘텐츠 활용

- 소장품은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을 드러내는 핵심자원으로, 소장품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소장품 접근성을 높이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 미술관 구도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 소장품 콘텐츠 유형은 전시, 교육, 상업적 사용, 디지털 활용, 연구/출판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VI-5] 소장품 콘텐츠 유형

구분	내용
전시 (Exhibition)	소장품 기반의 상설전, 기획전, 야외조각공원 전시 등의 모든 전시프로그램
교육 (Education)	소장품 기반의 감상형, 강좌형, 체험형의 교육방식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 대상별 모든 교육 프로그램
상업적 사용 (Commercial use)	소장품을 활용하여 미술관의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모든 유·무형의 상품
디지털 활용 (Internet, mobile devices)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의 미술관 및 스마트 뮤지엄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하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연구/출판 (Research)	학예사의 소장품 연구 활동 및 활동 결과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출판자료

6. 아카이브

- 아카이브의 목적은 미술관의 역사와 활동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는 영구적 가치가 있는 미술관의 기록을 수집, 보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카이브 소장 자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미술관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미술관 아카이브는 크게 ‘생성기록물’과 ‘수집기록물’로 분류된다. ‘생성기록물’은 소장품의 수집과 보존 및 관리, 조사와 연구, 전시와 교육의 기획, 미술관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며, ‘미술관수집기록물’은 미술관 소장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나 학예연구에 필요한 학술자료, 미술관 운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개인이나 단체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 아카이브 업무는 ‘자료조사 및 수집’, ‘등록’, ‘클리닝·보존처리’, ‘목록화’, ‘보관’, ‘디지털화’, ‘활용’의 단계로 구성된다.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 수집된 자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공공재로서 오픈소스화하여 레지던시 입주작가와 일반 이용자, 기획을 준비하는 내부 직원 등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2 국외 미술관 소장품 정책 사례

1) J. 폴 게티 미술관

1

소장품 정책(Collection Policy)

2019년 9월 15일 J. 폴 게티 이사회 승인

[목 차]

- I. 목적과 사명
- II. 소장품 정책의 목적
- III. 게티 미술관 소장품의 범위
- IV. 이사회의 의무
- V. 소장품 취득
- VI. 공동 소유 예술 작품
- VII. 소장품 취득 관련 직원 정책
- VIII. 소장품 매각
- IX. 소장품 관리
- X. 기록과 목록
- X I. 미술관 소장품 접근
- X II. 소장품 대여
- X III. 외부 작품의 대여
- X IV. 효력일

I. 목적과 사명

- J. 폴 게티 미술관은 “예술 및 일반 지식의 전파”를 목적으로 1953년 공익 신탁(이하 ‘신탁’)으로 설립되었다. 1976년 설립자 J 폴 게티(J. Paul Getty) 사망 이후, 신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활동의 범위는 시각 예술의 보존, 연구, 자선 활동에 대한 헌신까지 확장되었다. 오늘날, 신탁은 J. 폴 게티 미술관(이하 ‘게티 미술관’ 또는 ‘미술관’), 게티 연구소, 게티 보존 연구소, 게티 재단 등 총 4개의 기관을 관장하는 면세 운영 재단으로 존재한다. 이 기관들을 통해 게티는 시각 예술의 이해를 통한 기본 시민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일반대중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 기여하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II. 소장품 정책의 목적

- 게티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수집, 보존, 전시, 해석함으로써 예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소장품은 미술관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임으로, 미술관은 모든 관련된 법을 준수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규범에 따라 소장품을 구축해 나가는데 전념하고 있다. 본 소장품 정책(이하 ‘정책’)은 미술관의 사명과 관련 직무 기준에 맞춰 미술관의 예술 소장품을 관리하고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기록하고 통합하기 위함이다. 게티 이사회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정책을 채택하였다.
 -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이 적절하게 기록되고 다뤄지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존되고 있다.
 - 소장품의 취득 및 매각 그리고 대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은 미술관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관련 법을 준수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기준 하에 이루어진다.
 - 소장품 관련 활동들은 공익을 도모한다.

III. 게티 미술관 소장품의 범위

-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은 J 폴 게티의 사망 이후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은 고대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 문명과 1900년 이전의 유럽의 회화, 조각, 드로잉, 채색 필사본, 장식 예술품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진, 주로 유럽과 미국 작가들의 야외 조각으로 이루어진 근대와 현대 예술 작품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사회는 때때로 이러한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작품의 취득을 승인하기도 한다.

IV. 이사회의 의무

- 이사회는 미술관 소장품에 관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수탁자의 자격으로 소장품의 확장, 유지, 전시, 보존, 연구, 출판에 대한 관리감독
 - B. 백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신탁의 부속정관 3.2 항에 의거하여 이사들이 지정하는 모든 소장품 취득의 승인

- C.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고대 유물 취득의 승인
- D. 공동 소유 예술 작품에 대한 제안 승인
- E. 판매, 교환 혹은 다른 형태의 처리 등 예술 작품의 매각에 대한 승인
- F. 본 정책의 X II 조에 따른 미술관 소장품 대여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G. 미술관 소장품과 미술관이 외부에서 대여해 온 예술 작품에 대한 보험의 형태와 담보금액의 정기적인 검토

V. 소장품 취득

A. 일반 원칙

- 소장품 취득에 제안되는 모든 대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각적 효과, 독창성, 영향력 있는 주제, 미술사적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는 최고 수준
 - 기존 미술관 수집 영역에 포함
 - 계티의 교육적 사명을 발전시키는데 적합
 - 보존 상태 양호(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 대상의 중요도가 보존 상태 문제보다 더 클 경우/해당 미술관 보존 관리 부서가 복구할 수 있는 경우/물리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작품의 의미에 필수적인 경우)
 - 미술관은 모든 취득 소장품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미술관 업무에 따라 그 대상을 전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소유권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수집활동은 전문 직무 기준에 가장 높은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미술관관장협회(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이하 AAMD)가 때때로 발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B. 취득 절차

- 구입, 기증, 유증, 교환 등 모든 취득 대상에 대하여 그 대상을 추천하는 큐레이터는 작품의 설명, 보존 상태, 날짜, 소유이력, 출판이력, 전시이력, 미술관 소장품과의 관련성 및 중요도, 취득에 대한 정당성, 출처, 전시 및 출판 목적 등을 포함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존전문가는 모든 제안된 대상을 검사해야 하며 작품 분석 보고서와 그 보존 상태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큐레이터와 보존전문가의 보고서는 미술관 관장이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 고대 문명 혹은 고고학적 유물의 취득은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술관 수집의 모든 분야에서, 미술관 관장은 십만달러 이하의 수집품 취득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다. 신탁 대표는 백만달러 이하의 수집품 취득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백만 달러 초과와 수집품 취득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술관 관장은 이사회에 모든 취득 수집품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소장품 취득 제안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된 제한이 부담스럽거나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한을 두는 것이 미술관에게 유리할 경우) 미술관은 운송, 설치, 보관 혹은 복원 등의 비용과 관련한 우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증 혹은 유증을 거절할 수 있다.

- 만약 기증자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아닐 경우, 미술관은 취득하는 모든 예술 작품의 복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경우, 미술관은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비독점권을 요구해야 한다.
- 레지스트라는 새로 취득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식승인한다.
 - 미술관 소장품 관리 데이터베이스(TMS)에 취득 대상의 소유주를 기증자/판매자에서 미술관으로 변경한다.
 - 미술관 번호 체계에 따라 공식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 대상에 번호가 쓰였는지 확인한다. (대상물의 물리적 특성상 번호를 쓸 수 있는 경우)
 - 영구적인 관리 문서를 만들고 대상에 대한 기본정보(작가명, 작품명, 년도, 사이즈, 재료 등의 기본정보 tombstone information 역자주), 가치, 장소, 크레딧 라인을 TMS에 업데이트 한다.
 - 레지스트라는 공식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미술관과 신탁 직원에게 통보한다.

C. 소유 이력 지침

1. 모든 취득 소장품에 대한 지침

a) 조사 연구

-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취득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미술관은 소유권 획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 전에 예술 작품의 출처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구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 (a) 예술 작품의 소유 이력
 - (b) 예술 작품이 위치해 온 나라와 시기
 - (c) 있는 경우, 예술 작품의 전시 이력
 - (d) 있는 경우, 예술 작품의 출판 이력
 - (e) 해당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 된 적이 있는지
 - (f) 관련 도난 작품 목록에 해당 예술 작품이 올라 간 적이 있는지
 - (g) 미술관에 해당 예술 작품이 제안되기 까지의 상황
- 모든 취득 소장품에 대하여, 미술관은 최근 수출입 기록은 물론 모든 가능한 정보와 해당 작품의 소유 이력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문서를 얻기 위해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한다. 미술관의 소장품 취득 과정은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b) 공식승인, 전시, 출판

- 소장품이 취득되면, 해당 예술 작품은 미술관의 기준 절차대로 공식승인 되고 목록화 되어야 한다. 미술관은 작품의 대표 이미지와 관련 소유이력/출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빨리 취득 소장품을 전시해야 한다.

c) 보증 및 배상

-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예술작품이 어떠한 유치권, 소유권 주장, 저당권 등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과 보증을 확보해야 한다. 미술관은 보증 위반의 경우 해당 예술 작품에 대해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 소유권 주장

- 미술관은 소장품에 있는 작품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계는 청구인에게 해당 작품을 이전하는 결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전은 공익신탁의 관리자로서의 이사들의 법적 의무와 신탁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

2. 나치 시대의 소유 이력

- 미술관은 나치/세계2차 세계대전 시기(1933-1945)동안의 예술 작품의 약탈에 대한 1998년 AAMD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지침을 따른다. (Addendum 2001) <https://www.aamd.org> 그리고 모든 취득 소장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미술관은 1933년과 1945년 사이 독일이 점령한 유럽에 위치하고 있었을 만한 작품의 취득을 고려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

a) 제안된 취득 대상 소장품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큐레이터는 해당 작품에 대해 나치 시대 동안 소유 이력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불법 소유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기증이나 구매는 진행될 수 있다. 적절한 반환 혹은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불법 소유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미술관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작품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b) 만약 미술관이 연구과정 도중에 소장품에 있는 작품 중 나치 시대동안 불법적으로 소유되었고, 그 이후 적절한 반환이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 미술관은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합법적인 소유자가 등장하면, 미술관은 지체없이 서로의 합의하에 공평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c) 제3자가 미술관의 소장품 중 나치 시대동안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그 이후 적절한 반환이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작품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 미술관은 즉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 미술관은 해당 작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주장 당사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주장 당사자와의 확인 후 해당 주장이 맞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미술관은 서로의 합의하에 공평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고고학적 유물과 고대 문명 유물

- 모든 취득 소장품에 대해 철저한 연구와 기록의 확보가 요구되지만, 미술관은 고고학적 유물과 고대 문명 유물 등 골동품의 취득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a) 미술관은 제안된 모든 골동품에 대한 소유 이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입 기록과 소유 이력에 대한 정확한 문서를 획득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이 포함된다.

- b) 미술관은 판매자 혹은 기증자에게 해당 취득 예정 소장품에 대한 적절한 보증서는 물론 모든 기록물과 판매자 혹은 기증자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c) 게티 미술관은 취득 예정 소장품에 대한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주정부, 연방 정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 d) 미술관은 1970년 이전 현대시대에 출토된 나라 이외의 지역에 있었다는 것 혹은 1970년 이후 현대시대에 출토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소유 이력에 대한 연구가 없는 유물은 일반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 e) 19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유 이력의 기록이 불완전하더라도, 광범위한 연구 끝에 해당 유물이 1970년 전에 현대시대에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나라 밖에 있었거나 1970년 이후에 현대시대에 출토된 것으로 보이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면 취득할 수 있다.
- f) 미술관이 위의 V.C.3e 조항에 해당하는 소장품을 취득한 경우, 미술관은 이미지를 포함하여 취득 결정에 영향을 준 관련 정보와 알려진 소유 이력 등 해당 소장품에 대한 확인 정보를 게티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 g) 고대 문명 혹은 고고학적 유물 취득과 관련하여 미술관은 가능한 재정 자원과, 미래 세대의 교육적 이점을 위해 소장품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보존하는 이점에 반하는 소장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성의 문제와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 h) 고대 문명 혹은 고고학적 유물 취득은 이사회의 골동품 검토 위원회의 검토 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 만약 미술관이 연구과정 도중에 소장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미술관은 이 정보를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자가 해당 소유자가 해당 소장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미술관에 알려준다면, 미술관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이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여기에는, 증명이 될 경우, 작품의 반환도 포함된다.

VI. 공동 소유 예술 작품

- 어떠한 경우에는 한 소장품에 대하여 다른 단체 혹은 개인과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제안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 해당 소장품의 보관과 보존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 발생 가능한 취득 비용 분담, 전시와 출판에 대한 권리의 할당 등을 포함하여 공동 소유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큐레이터는 모든 공동 소유 취득에 대한 적절한 조건에 대해 법무자문단과 긴밀하게 업무 협력하여야 한다.

Ⅶ. 소장품 취득 관련 직원 정책

A. 감정평가

- 미술관은 기증자에게 감정평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IRS 지침에 따라 기증을 받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인한 내재적인 충돌 때문에 미술관은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만약 기증자가 적절한 감정평가사를 찾는 것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신탁 직원은 몇몇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는 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를 추천해야 한다. 미술관은 감정평가를 위한 업무에 관여할 수도 없고 비용을 지불해서도 안된다. 미술관은 감정평가사에게 해당 작품 자체에 대한 접근과 작품의 이미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B. 개인적인 수집활동

- 신탁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들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예술 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들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들 개인과 미술관 사이에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신탁 윤리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 미술관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은 구매에 있어서 미술관과 경쟁상대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작품을 취득하는데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미술관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Ⅷ. 소장품 매각

A. 일반

-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장품을 구축하고 유지함에 있어, 이사회는 기존 소장품을 간헐적으로 판매, 교환 혹은 기증하는 것이 소장품을 개선하는데 합당하며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소장품에서 일부 작품을 제외하는(매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목적은 전체 소장품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소장품의 매각은 그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 미술관 소장품에서 작품의 제외는 작품을 취득할 때와 동일한 조심성과 신중함으로 분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관은 예술 작품의 기증이나 유증에 부여되는 모든 법적인 규제와 기증이나 유증에 동반하는 실행가능한 요구사항까지 존중할 것이다. 생존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동일 작가의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취득하기 위함 일 때를 제외하고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작가의 동의 하에 진행된다.

B. 기준

-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품은 영구 소장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작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다른 소장품 취득 자금으로 쓰여 소장품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
2. 전체 소장품의 전반적인 수준에 미달하는 작품
3. 중복되는 작품이어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
4. 더 나은 작품과 전체 혹은 일부 교환될 수 있는 작품
5. 작품의 상태가 복구 불가능 하거나 복구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경우
6. 위조되거나 복제된 작품
7. 미술관이 수집하고 있는 어떠한 분야에도 속하지 않는 작품
8. 작품 거래가 가능하고 미술관 전체 소장품 측면에서 거래가 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해당 작품의 소유가 불법이거나 신탁 정책에 맞지 않는 경우

C. 지침

1. 승인

- 관장과 대표는 십만달러 이하 소장품의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 십만달러 초과 작품의 매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소장품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은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 수익금

- 작품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미술관의 소장품 취득을 위한 기금에 예치된다. 작품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경매에서의 수수료를 제외하고)은 미술관 운영자금에서 충당되며 판매를 통한 수익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규제

- 어떤 소장품의 매각에 대한 권고 이전에, 미술관이 해당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며(소유권 문제가 매각 자체의 이유가 아닌 이상) 처분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제약도 없어야 한다. 해당 소장품이 법적 규제에 묶여 있을 경우, 그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법 당국에 의해 주시될 것이다.

4. 기증자 크레딧

- 기증 혹은 유증 된 소장품이 판매 혹은 교환될 경우,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취득 소장품에 원 기증자의 크레딧이 적절한 곳에 이전될 것이다.

5. 통지

- 조건 없는 기증 소장품의 경우, 미술관은 해당 소장품에서의 해당 작품 제외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매각에 대한 승인 요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6. 기증에 대한 소유 조건

- 공식승인 된 작품은 매각 전에 최소한 3년은 소장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7. 위조와 복제

- 위조가 너무 눈에 띄고, 만약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혼돈 없이 폐기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면 미술관은 해당 작품을 시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8. 기록

- 레지스트라는 소장품에서 제외되는 상황과 작품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매각된 모든 작품의 영구적인 기록을 보관할 것이다.

9. 양도의 방법

- 소장품 양도의 방법은 해당 소장품의 형태에 따른 기존 시장과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매각 소장품의 기본적인 6가지 양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 일반 경매에서 판매

- 위탁을 통한 판매/ 전체 혹은 부분 교환 혹은 딜러 혹은 판매자에게 직접 판매
- 기증, 전체 혹은 부분 교환, 다른 미술관 혹은 적합한 기관에게 직접 판매
- 원래 매도인에게 상환을 위한 반환
- 이전 소유자 혹은 기원한 나라에게 반환/ 이러한 보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
- 만약 시장 가치가 미미하거나 없을 경우, 해당 작품은 연구나 복원에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1. 윤리 심의

- 미술관 직원, 이사회 구성원, 그들의 배우자, 혹은 본인 혹은 그들의 배우자가 5%가 넘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은 미술관에서 매각하는 소장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그 판매 혹은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관련 법 혹은 신탁 정책에 의하여 미술관과 거래가 금지된 사람 혹은 법인이 매각하는 작품 또한 미술관이 취득할 수 없다.

IX. 소장품 관리

- 미술관은 외부로부터 대여해 온 작품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품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힘써야 한다. 미술관이 소장품을 관리하는데 보존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미술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소장품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미술관은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장품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경비시스템과 환경 조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미술관은 소장품을 보존하기 위해 이동과 보관에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미술관의 보존 기준은 다른 미술관이나 외부에서 대여해 온 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X. 기록과 목록

- 미술관은 학예연구실, 기록부서, 보존관리 부서를 통하여 소장품에 있는 모든 유물과 작품의 식별정보, 위치, 상태와 전시, 대여, 연구와 같은 관련 활동, 기증자, 작가, 학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을 정확하게 최신의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록은 미술관 소장품 관리 데이터베이스(TMS)에 기록되어야 한다. 소장품 취득에 관련된 원본 종이 문서 또한 잘 보관되어야 한다. 각 학예연구실은 공식승인된 작품, 계류된 작품, 매각된 작품, 부서별 대여 작품, 전시별 대여작품, 기증 혹은 구매 가능성이 있어 미술관에 보관중인 작품에 대해 일관되고 체계화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예연구실은 소장품의 모든 기록을 TMS에 기록하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으며 비밀 기록에 적절하고 제한된 접근권한의 관리 등 TMS를 제대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미술관의 적절한 사업영역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은 미술관의 자산이며 기록 유지 정책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되거나 파기되어서는 안된다.
- 미술관은 기밀 정보이거나 물리적으로 만졌을 경우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들은 자격을 갖춘 연구자와 학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 미술관은 일간 설치 및 철수된 작품의 수, 월간 전시실 감사, 분기별 보존 연구실 목록,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감사 등을 포함하여 정확한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품의 물리적인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게티 보안실은 미술관 전시실과 전시 케이스를 매일 점검할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의 목록은 내무 감사인의 검토 대상이다.

XI. 미술관 소장품 접근

- 게티 미술관은 전 세계적의 예술적 유산을 전시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며 해석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미술관은 시각 예술의 이해를 통한 기본 시민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일반대중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에 기여하며,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게티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소장품과 외부에서 대여해 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은 연구실과 다른 기관에 작품을 대여함으로써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접근을 높일 것이다. 미술관은 학문적이고 일반적인 담론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미술관 소장품의 이해를 높이고 기록하고 출판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와 조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소장품 및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출판, 공공 프로그램, 게티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와 상호 소통 수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XII. 소장품 대여

A. 일반

- 더 많은 사람들이 게티의 소장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미술사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게티 미술관은 영구 소장품에 있는 작품들을 대여할 것이다.

B. 기준

- 전시 혹은 다른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작품을 대여하는 것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학문적 목적 및 대여 작품의 대중 노출도 등 프로젝트의 수준
 2. 엄격한 기준의 운송 및 관리, 공공 전시에 적합한 소장품의 상태와 능력
 3. 소장품을 안전하게 다루고, 전시하며, 관리할 수 있는 대여해가는 기관의 능력
 4. 전쟁, 테러, 극단적인 기후 환경 등 대여해가는 기관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 평가

C. 지침

1. 모든 대여작품은 관장에게 승인되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2. 5천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개별 대여 건은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대여는 관장이 승인한 현재 미술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4. 모든 대여는 모든 요구 사항과 조건이 서술되어 있는, 대여해가는 이가 동의한 서면 계약서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모든 대여는 대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5.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공공 혹은 사립 미술관에만 대여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개인이나 상업 갤러리에 대여하지 않는다.
6. 미술관 전시실 설치나 전시 프로그램에 필요하여 미술관 내에 해당 소장품을 전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은 대여하지 않는다.

XIII. 외부 작품의 대여

A. 일반

- 게티 미술관은 전시, 보존처리, 취득 여부 판단, 혹은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품을 대여해 온다.

B. 지침

1. 소장품과 함께 전시하기 위한 목적, 보존처리, 취득 여부 판단, 혹은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대여해 온 작품은 해당 소장품을 관리하는 부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전시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대여해 오는 작품은 미술관 관장이 대여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전시를 책임지는 부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시적인 보관을 포함한 모든 대여 작품들은 현재 미술관의 대여 승인 및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3. 모든 대여 건은 대여에 대한 요구 사항과 조건 및 가치가 서술되어 있는, 대여자와 동의한 서면 계약서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모든 대여는 대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XIV. 효력일

- 본 개정 정책은 이사회의 승인 즉시 발효되며, 여기에 언급된 항목은 기존 정책을 대체한다.

2)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

소장품 관리 정책(Collection Management Policy)

2020년 5월 27일 이사회 승인

I.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의 임무

- 1937년 설립한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이하 “재단”)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은 혁신에 헌신하며, 근현대 미술을 수집, 보존, 해석하며, 역동적인 학예 및 교육적 술선과 협업을 통하여 문화를 가로지르는 발상들을 탐구한다. 건축적, 문화적으로 탁월한 미술관, 전시, 출판, 디지털 플랫폼들의 성과를 가지고, 재단은 지역과 세계 관람객 모두를 사로잡는다.
- 재단은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과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 문서에서 재단이라는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과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모두를 지시한다.
- 재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장품을 보유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재단 회장과 직원의 리더십을 통하여 그리고 이사회,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 소장품 자문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단은 근현대 미술의 흐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소장품의 구축, 보존, 기록에 헌신한다.

II. 소장품 관리 정책의 목적

- 이 소장품 관리 정책(이하 “정책”)은,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수시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의 임무와 전문 미술관 기준에 일치하게 재단의 미술 소장품(이하 “소장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의 발전과 관리를 안내하는 정책을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문서는 관외 대여와 들어오는 대여를 포함한, 재단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미술작품의 취득, 사용, 보존을 다룬다.
- 이 정책을 통해서 재단은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소장품, 연구 소장품, 아카이브는 재단의 임무와 공익재단의 책임을 지지한다;
 2. 소장품, 연구 소장품, 아카이브는 안전하며, 저장 잡힘 없이, 관리되며, 보존되며, 기록된다;
 3. 소장품의 연구, 보존, 관리는 증진된다;
 4. 대중은 소장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5. 소장품에 대한 학문은 고무되고 촉진된다;
6. 소장품 내 어떠한 물건의 처분 혹은 매각도 재단 임무의 진흥을 위한 것이며, 만약 물건이 매각된 경우, 판매 수익금은 소장품을 위한 미술작품 취득에 제한된다;
7.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는 유지, 보전되며 접근 가능하다;
8. 활동과 관련된 소장품은 개인의 재정적 이득보다 공공의 선을 진작한다; 그리고
9. 모든 소장품 관련 활동은 그 임무, 최고의 윤리적, 전문적 미술관 기준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 교육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of the State of New York), 미국 국세청(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 이탈리아 예술부(Italian Ministry of Fine Arts.), 이탈리아 재무부(Italian Ministry of Finance)가 공포한 준거 법과 규정에 합치한다.

III.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의 소장품 관리 직무

- 재단의 소장품에 미술작품을 신규 수납하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처분 혹은 대여하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이사회에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이사회는 제안에 대해 표결하고 적절한 자금원을 승인한다.

A.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Art and Museum Committee)

-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사회에 권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미술작품의 기증 혹은 유증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권고해야 하고, 미술작품의 구매에 관한 승인과 한정된 미술취득 기금의 사용에 대해 권고해야 한다. 다만, 각 년도 마지막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 회의와 당해 12월31일 사이 기간 동안에 이사회 승인 없이 신규 수납을 위해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회장 혹은 공동회장들이 관장과 수석 학예사와 함께 만장일치 표결로 기증을 수락할 수 있다.
 2.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이사회에 미술작품의 대여를 권고해야 한다. 다만, 이런 대여에 대한 요청이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회장 혹은 공동 회장들의 주장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정기회의 사이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회장 혹은 공동회장들이 관장과 수석 학예사와 함께 만장일치 표결로 대여를 수락할 수 있다.
 3.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이사회에 미술작품의 폐기처분 혹은 재취득을 권고해야 하며, 처분된 작품이 물건 형태로 현재 존재할 경우에는 매각을 권고하며, 이러한 조치는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의한 사전 검토 및 승인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만 된다.
 4.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이사회에 미술작품의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B. 이사회(Board of Trustees)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이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장품을 위한 미술작품의 기증 혹은 유증을 수락 혹은 거절하며, 신규 수납을 위해 미술작품의 구매를 승인한다;
 2. 처분된 미술작품의 판매로 얻은 기금을 포함하여 한정된 미술품 취득 자금의 지출을 승인한다;
 3. 이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술작품의 모든 관외 대출을 승인한다.
 4. 미술작품의 폐기처분 혹은 재취득을 승인한다; 그리고
 5. 미술작품을 처분한다.

IV. 취득

A. 원칙

- 학예사는 재단이 표명한 임무를 주요하게 향상할 수 있는 소장품의 신규 수납을 위한 미술작품을 제안해야 한다. 모든 작품은, 악화된 물리적 조건이 작품의 의미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보전에 적합한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미술관 관행에 따라 제안된 취득에 대해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의 보전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헌신해야 한다.
- 사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일탈을 지시할 수 있는 한편, 기증, 유증, 다른 취득은 제한이 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미술작품에 대한 어떠한 제한 사항도 작품을 신규 수납하기 전에 공개되어야 하고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재단이 독립적으로 취득할 수 없을 예외적인 작품을 획득할 기회를 포함하여 합당한 사정인 경우, 작품은 공동 소유권을 통해 취득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미술작품이 하나 이상의 미술관들에 의해 공동 소유될 때 선호된다.
- 제안된 약정 기증은 약정이 이뤄진 당시에 승인을 위하여 미술과 미술위원회에 발표되어야 하며 기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약정 기증은 법률자문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약정 기증 계약서에 따라서 체결되어야 한다. 미술작품의 분할되지 않은 분리 이익의 기증은 각 분리 기증의 정도에 따라 신규 수납된다.
- 일반적으로, 재단은 소장품 혹은 연구 소장품에 합당한 미술의 기증을 간청하고 수락한다. 그러나, 재단은 기증자가 기증이 추구되는 목적과 판매 수익금이 사용되는 목적을 명백히 알고 있다면, 자선 경매에 판매되는 작품을 포함하여, 재단의 프로그램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미술작품의 작가 혹은 수집가로부터 기증을 간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B. 신규 수납 절차

- 모든 제출된 미술작품의 기증과 유증은 관장과 수석 학예사에 의해 검토된다. 소장품에 해당하다고 확인된 것들은 아래 기술된 취득 절차에 따라 신규 수납을 위해 제시된다. 작품이 기증에 의해 취득되기 전에, 미술관 보유하에 있는 휴면 자산과 미등록 자산과 관련하여, 기증자에게 이 정책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뉴욕주 교육법 § 233 aa조항을 인지시켜야 한다.
- 신규 수납을 위해 미술작품을 추천한 학예사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품에 관한 기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장품의 다른 물건과의 관련; 전시, 출판, 보존의 역사; 수용의 정당성; 프로비넌스;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알려지거나 예상되는 요건과 취득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만약 있다면 조립, 재료 혹은 장비, 액자, 보관, 보존, 그리고 특별한 설치 요구를 위한 소요 비용. 학예사는, 소장품 자문위원회, 사적 기부, 혹은 다른 종류의, 취득을 위해 제안된 기금원에 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학예사는 기증에 관해 기증자가 명시한 가치뿐만 아니라 작품에 유효한 현행 감정 가치를 포함한다.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 작품은 취득을 위해 제안되기에 앞서 검토되어야 한다.
- 관장과 수석 학예사는 재단 직원과 협력하면서 미술작품의 신규 수납을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제안한다. 관장과 학예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특정한 작품을 제안하기 위한 권고내용과 이유를 제시한다.
- 기증, 유증, 혹은 구매에 의한 작품의 신규 수납을 고려할 때,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는 무엇보다도 신규 수납할 물건 혹은 컬렉션의 질, 소장품 전체와의 관계, 역사적 중요성, 소장품에 이미 속해 있는 같은 예술가의 다른 작품 혹은 같은 시기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서의 질, 그 작품이 소장품에 더 큰 깊이를 제공하고 소장품을 강화할 것인지의 여부,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작가와 선견지명 제시에 대한 재단의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는 각각의 취득이 재단에 이익이 되고 부적절한 사적 이익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해 모든 기증 제한사항, 공동 소유권 조건, 혹은 다른 특별한 고려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신규 수납을 위하여 그들에게 발표된 작품들에 표결해야 하며, 그 권고는 그것에 표결할 이사회에 발표되어야 한다. 미술작품의 취득과 관련한 결정에 관하여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이해의 충돌이 있는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 혹은 이사회의 어떤 구성원이든,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원, 이사, 혹은 이들의 가족이 잠재적인 거래에 관련된 기증자, 판매자, 혹은 딜러로서 가지는 어떠한 이익이라도 제한 없이 포함되며, 2014년 5월 20일 개정본이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이해 충돌 정책에 따라서 해당되는 표결 이전에 이해충돌 내용을 알려야 한다.

C. 프로비넌스 지침

1. 일반 사항. 모든 취득에 있어, 재단은 해당되는 지역, 주, 연방 법률뿐만 아니라 1970년 문화유산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협약(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을 준수한다. 재단은, 제한 없이 연방도품법, 문화재시행법협정, 외국자산통제실에 의해 집행된 제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포함하여, 미국법을 위반하면서

본국으로부터 혹은 중간 국가로부터 취득되었거나 수출된 어떤 작품도 고의로 취득하지 않는다. 관련 법들의 견지에서 사실들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보증하기 위하여, 취득을 위해 작품을 권고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재단의 법률 부서에 자문을 받는다.

2. 나치/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재단은 또한 1933년과 1945년 사이 나치 치하 유럽(이하 “나치 시대”)에 있었다고 알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작품의 향후 기증, 유증, 그리고 구매와 관련하여, 모든 취득에 요구되는 조사와 기록문서뿐만 아니라 다음의 지침을 준수한다.
 - a. 재단은 작품에 대해, 특히 나치 시대 동안의 작품에 대해 기증자와 판매자(유증의 경우 유언집행인)에게 가능한 한 많은 프로비넌스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 b. 나치 시대 프로비넌스가 불완전한 경우, 재단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불법적으로 징발된 예술에 대한 유효한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작품의 프로비넌스를 엄격히 조사한다. 불법적인 징발에 관한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고 반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재단은 만족할 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 수 없다면 그 작품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반환 없는 불법적 징발에 대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 그 작품은 불법적으로 징발된 것이 아니라고 추정될 수 있고 취득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은 그 작품의 이미지와 유효한 프로비넌스 정보를 전자 형식으로 재단 웹사이트나 다른 적절한 곳에 게시해야 하고, 취득 후 실현 가능한대로 최대한 빨리 그러한 정보는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c.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재단은 판매자로부터 판매자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며 그 작품에 어떤 청구권도 없다는 신타진술과 보증을 청해야 하고, 보증에 위반이 발생할 시 작품에 대한 전액 환불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 d. 지속적인 조사 결과, 재단의 소장작품이 나치 시기 동안 반환 없이 불법적으로 징발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면, 재단은 이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청구자가 나선다면, 재단은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하고 상호 동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e. 소장품 내 작품이 이후 반환 없이 나치 시기 동안 불법적으로 징발된 것이라고 제3자가 주장하는 경우, 재단은 그 청구에 대해 즉시 그리고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 재단은 그 작품의 프로비넌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청구자에게 소유권의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재단이 청구자와 협력한 후, 작품이 이후 반환 없이 불법적으로 징발된 것으로 확인되면, 재단은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하고 상호 동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V. 미술작품 폐기처분을 위한 정책과 절차

- 2016년 6월에 정해진 소장품 관리를 위한 이 분류는 재단 직원에 의해 진품성 혹은 상태를 이유로 생존 불가능하지만,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은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거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보존될 예정인 모든 작품을 지칭한다. 폐기처분(Decommissioning)으로 확인된 작품은 구성요소 그리고/또는 문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물건인 작품의 현존적 현현에 의해 소장품에 표시될 수 있다. 관장, 수석 학예사, 수석 보존전문가가 재단 직원과 협업하여 미술작품을 폐기처분할 것을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에 제안한다. 재단 직원이 특정 작품의 폐기처분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기록 문서를 발표하고 권고사항과 이유를 제시한다.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제안된 폐기처분에 표결하며 이사회에 그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작품의 폐기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 취해진다.

- 폐기처분 작품은 소장품 내에 계속 유지된다. 그 작품이 어떤 행태로든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는 상태로 두어야 한다. 작품이 물건 형태로 실현되었고 매각이 권고된 경우, 그러한 조치는 오직 이사회의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과 함께 취해진다. 물건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 그 물건은 적절한 기후 통제 창고, 미술품 취급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동; 미술관 미술 보험 가입 등 폐기처분되지 않은 소장품 내 작품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관리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폐기처분되지 않은 영구 소장품 내 작품들과 구별하는 식별 시스템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아 재단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미술관 시스템(The Museum System: TMS)에 기록될 것이다. 설명 노트와 함께 작품이 전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태 플래크”가 주어진 물건의 기록에 추가될 것이다. 폐기처분 작품의 보존 처리는 개별 사례별로 이뤄질 것이다. 매우 선별적인 상황에서, 폐기처분 작품은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보여질 수 있다.
- 폐기처분 작품은 결과적으로 그 진품성 그리고/또는 생존 가능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 경우 재취득할 수 있다. 관장, 수석 학예사, 수석 보존전문가가 재단 직원과 협력하여 미술작품의 재취득을 이사회의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제안한다. 재단 직원은 특정 작품의 재취득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문서 기록을 발표하고 그 권고사항과 이유를 발표한다.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제안된 재취득(re-commission)에 대해 표결하며 이사회에 그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작품의 재취득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 표결에 의해 내려진다.

VI. 미술작품의 처분과 매각

- 처분(Deaccessioning)은 소장품으로부터 작품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 이후 그 작품은 (i) 아래 XII 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의해, 예컨대 도서관, 아카이브 혹은 연구 소장품 내에 수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지위로 수용될 수 있다; 또는 (ii) 적법한 소유자에게 판매, 교환, 혹은 반환될 수 있다. 작품의 어떠한 처분도 재단 임무의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해당 기증 증서의 조건들, 이 정책과 당시 시행 중인 모든 지역, 주, 연방 해당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한다. 그 밖에, 재단은 생존 작가의 작품을 그 작가와 상의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 소장품으로부터 처분된 작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아래 VII 항의 규정에 따라 (VIII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술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앞서 언급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작품은 다음 상황의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될 수 있다.
 1. 작품이 재단의 임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2. 작품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3. 작품이 중복된다;
 4. 작품의 보존과 보존 요구가 재단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다;
 5. 소장품을 개선할 목적으로;

6. 작품이 진품이 아님이 확실하다;
 7. 재단이 작품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8. 재단이 작품과 관련된 기증 제한사항을 더 이상 이행할 수가 없어서 작품을 기증자 혹은 기증자의 상속자 혹은 수탁인에게 반환한다;
 9. 작품이 사람들 혹은 다른 소장 품목들에 위험을 초래한다; 또는
 10. 작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다.
- 관장과 수석 학예사가 재단 직원과 협력하여 미술작품의 처분을 이사회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제안한다. 재단 직원이 특정 작품의 처분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기록 문서를 발표하고 권고사항과 이유를 제시한다.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제안된 처분에 표결하며 이사회에 그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작품의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 표결을 통해 취해진다.
 - 2007년 4월 18일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이사회는 1937년(재단이 설립된 해)과 1949년(솔로몬 R. 구겐하임이 사망한 해) 사이에 솔로몬 R. 구겐하임이 재단에 기증하거나 그 기간 동안 재단이 구매한 약 610점의 미술작품을 정식으로 “창립 소장품”으로서 지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소장품 내 작품들의 처분에 관한 제한사항들을 강화함으로써 솔로몬 R. 구겐하임의 유산과 재단의 70주년을 명예롭게 하였다. 창립 소장품의 일부인 작품의 경우, 그 작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회 3분의 2의 표결이 요구된다.
 - 재단 이사회 구성원, 운영위원회, 직원, 혹은 재단이 그/그녀에게 처분된 작품 취득에 대한 이권을 줄 수 있는 이 기관과 관련된 어떤 이도 그 작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외 판매 혹은 거래로부터 혜택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VII. 미술품 취득 기금

- 처분된 미술작품의 판매 수익금 모두를 포함하여 미술의 취득에 한정된 모든 기금(“미술품 취득 기금”)은 미술품의 구매, 교환, 기증, 그리고 유증으로 오로지 소장품에 작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VIII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자문위원회에 의해 기부된 기금은 위의 IV 항에 따라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 승인 하에 취득 자문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사용되어야 한다.
- 미술품 취득 기금의 사용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관장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관장은 제안된 지출이 미술품 취득 기금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수석 학예사,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법률 자문위원과 상의해야 한다. 지출에 대한 최종 승인은, 위의 IV 항에 따라 소장품으로의 작품의 신규 등록에 관한 제안과 관련하여,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권고 후에 이사회 표결로 결정된다. 처분 혹은 교환에서 발생한 기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작품은, 거의 없으나 그러한 기증자 혹은 기증자의 대리인이 다른 요구 혹은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원래 기증자를 확인해주는 크레딧 라인을 포함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 학예 및 재무 부서는 이전 보고 이후 기간동안의 본 기금에 대한 모든 지출, 증가분, 투자 증가를 보고하는 미술품 취득 기금의 회계보고를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발표해야 한다.

VIII. 미술품 처분 수익의 지출에 관한 임시 정책, 2020년 5월27일-2022년 4월10일

- 미술관관장협회(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 “AAMD”)은 코로나19 위기와 미술관에 대한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4월 미술관에게 처분 미술작품의 매각 수익을 미술작품 취득(이 정책의 VI항과 VI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미술관 관장과 이사회가 어떤 지출이 직접 관리 항목인지 명시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소장 물품의 직접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작품이 2020년 4월10일 이전 혹은 이후에 처분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AAMD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를 인식하고, 상기간 동안 이러한 선택을 이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선의에 의해 운영된다고 간주하고 어떠한 제재나 문책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임시 정책이 효력을 보유한 기간 동안, 소장품에 속한 물건들의 처분은 미술작품의 식별, 연구, 매각과 관련한 최선의 실무와 절차를 유지하면서 재단의 소장품 관리 정책 VI 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소장품 관리 정책의 모든 다른 규정과, AAMD의 결의안에 따라 미국 미술관 연맹(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의 지침과 법률(처분된 미술작품의 매각에서 나온 모든 수익금이 이 임시 기간 동안 미술의 취득 혹은 소장품 내 작품의 직접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언급되는 정책이 명시한 기금에 대한 재단의 사용에 적용된다. 이 임시 정책은, 원래의 임시 기간이 AAMD의 추가적인 결의안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2년 4월 10일 자동적으로 만료될 것이다.
- 소장품의 보호와 관리는 공중에 의해 재단에 맡겨진 가장 근본적인 책임 중 하나이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단은 상당한 자원을 직접적인 관리에 바친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AAM에 따라, 소장품의 직접 관리는 “소장품의 수명, 유용성, 혹은 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공공에 대한 혜택의 지속을 보증함으로써 현존 소장품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재단은 처분 수익금을, 분석, 처리, 목록, 조사, 문서기록, 사진, 액자, 이미지화, 디지털화, 정보기술, 기후 통제 창고 및 미술관 공간을 포함하는, 소장품의 보존, 보전, 등록, 유지보수, 보관, 보안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용들은 무엇보다도 직접 관리에 연관된 직원들의 임금 할당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급업체와 계약 직원과 관련된 직접 관리, 그리고 이 정책이 개괄한 직접 관리 활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재료, 장비, 시스템, 시설도 포함된다.
- 재단의 최고 재무 관리자(CFO)는 직접 관리를 위한 모든 사용 제안에 이 정책과 모든 해당 회계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이 임시 정책에서 처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고 개괄된 직접 관리 비용에 대한 검증은 관장, 부관장, 법률자문위원, 총무부장; 예술 감독과 수석 학예사; 부관장과 수석 보존전문가; 소장품의 선임 감독과 선임 학예사; 소장품 운영 선임 감독과 수석 등록담당; 최고 재무 관리자(CFO) (혹은 각각 지명된 관련 선임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위원회는 위에서 개괄한 직접 관리 활동과 관련된 임금과 시설비용의 적절하고 할당가능한 몫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필요하다면 더 자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안된 직접 관리 비용과 할당가능한 임금 및 시설비 몫은 검토와 승인을 위해 이사회의 집행 위원회에 발표해야 한다.

IX. 대여

A. 관외 단기 대여(Outgoing Short-Term Loans)

1. 일반 사항. 이 정책은 학문을 증진하는 주요한 전시를 위하여 동료 기관들에 대한 대여를 진작한다. 미술작품에 대한 모든 대여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학예 부서, 보존 부서, 등록 부서의 직원들에 의해 검토되고 토의되어야 한다.

- 작품을 재단 자체 프로그램과 통합하려는 재단의 요구;
- 전시의 학술적 가치;
- 요청된 미술작품의 상태;
- 대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여 기관의 능력; 그리고
- 모든 기증 제한 사항들

대여 검토 과정은 대여 요청이 접수된 후 관장 또는 학예 부서에 의해 착수된다. 대여에 대한 승인은, 보존 처리나 특별 보호책이 있든 없든 간에 대여 요청이 이행되는 경우 필요한 준비, 포장, 운송, 취급, 전시 기간을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보존전문가가 확정하기 위한, 각 미술작품의 검사 여하에 달려 있다. 차용 기관은 재단의 요구 기준을 충족시키고 대여품의 안전을 보증하는 현행 시설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차용 기관의 시설, 공조 시스템, 보안 통제를 포함하여 대여 협의 사항이 철저히 고려되도록 한다.

직원에 의해 제안된 대여 요청은 승인을 위해 관장에게 발표된다. 그리고 관장이 승인한 대여 요청은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표결을 위해 발표되며,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는 최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그 제안을 발표한다. 만약,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의 회장 혹은 공동 회장들의 의견에 따라 대여 요청이 위원회의 정기 회의들 사이의 공백기에 즉각적으로 이뤄지길 요구한다면, 대여는 회장 혹은 공동 회장들, 관장, 수석 학예사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승인될 수 있다.

대여는 운송 전에 서명되어야 하는, 재단과 차용자 간의 서면 대여 계약서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만약 대여가 보존 처리 혹은 특별 보호책을 조건으로 승인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은 차용자에게 운송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상업 갤러리 대여. 대여는 특별한 학술적 전시를 위해서만 딜러나 상업 갤러리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대여는 기타 대여에 요구되는 승인, 전시가 판매용 미술작품을 포함하는지 여부, 학술 출판물이 제작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조건으로 한다.

딜러나 상업 갤러리에 대한 대여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될 경우, 재단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한다: (a) 먼저 보존전문가가 현장이 보고된 그대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 (b) 충분한 보안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c) 소장 작품의 이미지가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d) 차용자의 채권자에 대항하여 작품에 대한 재단의 이익을 지키고 판매 위탁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B. 관외 연장 및 장기 대여

- 장기 대여는 재단이 대여품 자체 혹은 일반 대중에게 유익하다고 간주하는 적절한 소장품 혹은 시대적인 맥락 안에서 대여작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은 적절한 등록, 보존, 보안 조치가 장기 대여와 관련하여 유지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일반적으로, 장기 대여의 대여 기간은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와 이사회의 추가적인 승인 여부에 따라 갱신 혹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학예 부서, 보존 부서, 등록부서가 모든 장기 대여의 상황을 매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기에는 재단 직원 혹은 다른 승인된 전문가에 의한 미술작품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전시 조건에 대한 관찰을 비롯하여, 작품을 자체 프로그램에 통합하려는 재단의 모든 예상 가능한 요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발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1년 이상 지속되는 모든 미결 대여의 위치와 상태, 모든 주요한 보존 문제 혹은 우려, 대여 기간과 이러한 대여의 취소 혹은 연장에 대한 모든 계획 혹은 제안이 포함된다.

C. 들어오는 대여(Incoming Loans)

- 재단의 임무는 주요한 미술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재단으로 들어오는 작품 대여를 통하여 확장함으로써 증진된다. 재단은 차용한 미술작품의 관리에 자체 소장품과 동일한 기준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재단은 대여물이 대여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진열되지 않을 것이라면 미술작품의 장기 대여를 수락하지 않는다. 1년 이상 혹은 무기한의 대여를 수락하는 계약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D. 휴면 자산과 미등록 자산

- 재단에 들어온 대여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각 대여자와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들어온 대여에 대해 재단이 (i) “휴면” 자산의 보유라고 판단한 경우, 즉 미술관에 들어온 대여 자산이 그와 관련하여 재단이 대여자나 대여자의 대리인과 명시된 대여 기간이 만료된 이후 5년 동안 연락할 수 없었거나, 무기한 대여 개시 후 10년 동안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미등록” 자산의 보유라고 판단한 경우, 즉 미술관의 관리 하에서, 내재적인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혹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최소 10년 동안 재단의 소유이고 재단이 대여자, 기증자, 혹은 소유자의 정체성을 합리적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석 학예사 혹은 다른 적법한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위원에게 연락하여,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 자산과 미등록 자산에 관하여 관련 대여 문서 혹은 뉴욕 교육법 §233 aa 조항에 합치하는 지도를 요청해야 한다.

X. 부분 기증, 공동 소유 작품, 그리고 약정 기증

A. 일반 사항

- 부분 기증과 그로 인해 작품에 대한 기증자의 비분리 공동 소유권 이익이 수년간 재단에 주어지고, 재단에 대한 기증이 완료될 때까지 재단과 기증자가 작품의 소유권을 공유함에 따라, 재단의 임무는 증진되고 소장품은 확장된다. 덧붙여, 위의 IV.항 A.에서 명시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는 재단과 기증자 혹은 공동구매자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소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밖에, 미술의 약정 기증은 재단이 소장품의 향후 확장을 계획할 수 있게 해 준다.

B. 연간 보고

- 학예 부서와 등록 부서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모든 부분 소유 미술 기증, 다른 공동 소유 소장 작품, 그리고 모든 약정 기증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i) 미술 작품을 식별하고, (ii) 지난번 보고 이후 기간에 작품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표시하고, (iii) 작품을 전시하거나 출판하기 위하여 재단에 의한 소유 또는 의도에 대한 모든 예상되는 변화를 기술하고, (iv) 작품의 상태에 모든 주요한 변화를 밝힌다.

C. 보유

- 학예 부서는 재단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보유할 재단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 재단이 이러한 지분을 부분 기증, 공동 구매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받을지 여부를 매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학예사들은 재단의 임박한 교육, 연구, 전시 요구뿐만 아니라 관외 대여 프로그램과 물건의 상태를 평가해야 하며, 등록 부서, 보존 부서, 미술 서비스 및 준비 부서와 적절하게 협업해야 한다. 재단이 부분 기증의 보유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석 학예사는 이 검토 과정 중에 법률자문부서와 협업해야 한다.

D. 상태 보고

- 재단은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재단 공동 소유의 소장작품들의 상태를, 그 작품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태 보고서(재단 직원에 의한 검사,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보고서, 혹은 공동 소유 기관 직원의 보고서를 포함할 수도 있다)를 받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감시관리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 횟수는 작품의 성격과 알려진 상태에 근거하여 학예 부서와 보존 부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재단은 또한 재단이 보유한 작품의 공동 소유자와 그 공동 소유자에 의한 정기적 점검 혹은 상태 보고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XI. 소장품에 대한 접근, 관리, 그리고 문서기록

A. 소장품에 대한 접근

- 소장품 내 작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재단의 핵심적인 임무이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재단은 자체 시설과 네트워크 미술관에서, 그리고 순회전으로 소장품 내 작품을 포함한 전시회를 연다. 그리고 재단은 소장작품을 다른 기관에 전시를 위해 대여한다. 재단은 소장품에 대한 기록, 출판, 이해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더 넓은 학술적 담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문적 조사와 연구를 지원한다. 출판, 프로그램, 재단 웹사이트와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재단은 소장품에 대한 넓은 인식과 이해를 촉진한다.
- 재단은 공개되지 않은 소장작품을 보려는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요청들을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B. 소장품의 관리

- 소장품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재단의 교육적 임무에 필수적이다. 재단은 소장 작품이 보존에 관한 전문적 미술관 기준에 따라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재단이 대여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재단의 보존 부서, 학예 부서, 등록 부서는 재단 소장품의 연구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장기 보존 전략과 방법 개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재단의 보존 부서는 재단의 임무와 소장품 내 작품들의 물질적, 개념적 보존을 증진시킬 학문과 혁신적인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자, 생존 예술가, 다른 미술관 또는 기관, 그리고 다양한 학제의 전문가들과 밀접하게 협업해야 한다.

C. 보관

- 재단은 미술 보관을 위한 전문 기준을 유지하도록 디자인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도와 습도 기준, 화재 방지, 보안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 통제가 되는, 소장품 보관을 위한 안전하고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D. 보안

- 재단은 소장품과 재단이 보관 중인 모든 미술작품이 안전하며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 그리고 각 보관 시설을 위하여 재난과 긴급 상황을 위한 계획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재단은 모든 전시 및 보관 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통제 하에 유지해야 하며, 타자의 관리 하에 있는 소장 물품에 대해 이러한 보안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재단 보안 인력은 도난, 화재, 또는 소장품과 재단이 보관 중인 다른 작품들에 대한 기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 기준에 따라 훈련되어야 한다. 경비원은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과 폐기 구겐하임 컬렉션의 공공장소에 이 시설들이 대중에 개방된 시간 동안 배치되어야 한다. 그밖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재단은 지역 경찰서, 소방서,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

E. 소장품 기록

- 재단은 소장품 내 모든 물건들에 대한 식별 정보, 위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최신의 기록 뿐만 아니라 관리 중인 다른 미술작품과 전시, 연구, 기증자와 예술가, 학자들과의 통신과 같은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관장실 뿐만 아니라 학예 부서, 등록 부서, 보존 부서의 책임이며, 그 기록들은 각 부서 내 체계적인 파일 시스템에 두어야 한다. 재단은 신규 등록된, 미등록된, 처분된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전시와 들어온 대여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는 소장품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학예 부서, 등록 부서, 보존 부서는 각각 관련 부서에 적절하게 전자 기록을 갱신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수석 학예사, 등록부서장, 수석 보존전문가는 기밀 기록에 대한 제한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자 부서 내 데이터베이스-관리 권한의 운영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재단 기록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등록 부서는 정기적으로 소장품 내 작품들의 위치를 점검한다. 어떠한 중대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 담당은 즉시 그 사실을 관장, 최고 운영 책임자, 수석 학예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들은 필요에 따라 미술 및 미술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재무 부서는 소장품과 관련한 절차와 기록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재단의 업무상 거래에서 생성되거나 수신한 모든 기록은 재단의 자산이며, 재단의 기록 보유 정책을 따르지 않고서는 해산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재단은 기밀이 아니라면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 연구자와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XII. 보험

- 등록 부서는 해마다 소장품에 대한 보험의 유형과 금액을 검토해야 한다. 소장작품이 대여되었을 때, 재단은 차용자가 대체 약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작품에 대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이 차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재단을 추가 피보험자 및 손실금 수령자로 지명하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증거가 작품이 양도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소장작품에 대한 최신의 합당한 제3자 감정서가 그 작품이 대여되어 나가기 전에 입수되어야 함을 보증할 책임은 학예 부서에 있다. 소장품 내 작품의 현행 시장 가치에 대한 의견들은, 의견의 출처와 날짜뿐만 아니라 귀속된 가치를 포함하여, 대여 파일에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만약 들어오는 대여가 재단의 보험 아래 가입될 것이라면, 대여해주는 기관이 산정한 보험 가치를 검토하고 그 가치가 합당하다고 확인하는 것은 학예 부서의 책임이다.

XIII.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

- 연구 소장품과 아카이브 내 물건들이 소장 작품의 방식으로 정식으로 신규 수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임무와 연관된 목적만을 위해 유지된다.

A. 연구 소장품

- 재단은 주로 소장품에 포함된 예술가 및 미술작품과 관련된 작품들 또는 재단 혹은 설립자의 역사와 연관된 작품들로 된 연구 소장품을 유지한다. 연구 소장품 내 물건들은 연구와 물리적 검사를 목적으로 취득되거나 보존되며, 특별 요청, 출판, 교육프로그램, 혹은 보존 관련 전시를 통하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소장품의 작품들이 교육과 보존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장작품들과 함께 보관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소장품의 작품들에 대한 관리 기준은 소장작품보다 덜 엄격하다. 연구 소장품에 대한 추가와 처분은 수석 학예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아카이브

- 재단 아카이브는 오랜 시간에 걸친 재단의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포함하며 재단의 역사적 기록문서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아카이브 자료는 표준 보존 규약에 주의하여 처리되고 보관된다. 기록들은 가능한 한 공적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일반적으로, 제한은 기밀 문서에만 부과된다. 아카이브에 대한 추가와 처분은 도서관 및 아카이브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III. 금융자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소장품

- 재단은 모든 소장품, 연구 소장품, 아카이브가 자본화되지 않으며, 저당 잡히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되지 않으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단의 금융자산으로 취급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3 연구형 자문위원회 회의록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연구형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1차) 회의록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1. 10. 22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14:00 ~ 16:15
- 장 소 : 스페이스빔 (인천 동구 서해대로513번길 15 인천문화양조장)
- 내 용 :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도출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현황 공유 및 자문
- 참여자 : 12인(연구형 자문위원회, 5인 / 인천시청 3인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4인)

구분	소속 및 분야	성명
연구형 자문위원회	미술평론가 (인천미술의 역사)	이 경 모
	스페이스빔 대표 (인천미술아카이브 등)	민 운 기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과장 (인천미술의 역사)	박 석 태
	임시공간 대표 (인천미술공간)	채 은 영
	독립기획자 (인천현대미술)	고 경 표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팀 장	김 성 배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이 진 영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임 경 미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박 신 의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정 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원 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보조원	김 유 진



2. 회의내용

1) 소장품 관련 사항

■ 소장 수집 범주 : 서예작품을 ‘평면’ 내 포함

- 현재 조례상 수집기준으로 제시된 ‘평면’, ‘입체’ 등의 구분 내에 서예를 ‘평면’ 부분으로 흡수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서각 작품도 참조)
- 다만 인천미술의 역사에서 서예가 갖는 위상이 분명한 만큼 역사적 가치 속에서 조망하도록 함. 그러나 인천미술의 역사에 포함되는 부분 외의 서예작품은 실제 미술관 성격과 방향 및 전시기획 주제에 적합한 서예작품이 있을 경우, 포함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해함

수집구도	수집범위
인천미술사	인천미술사와 관련된 모든 장르 수집 가능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	주제(성격과 방향 / 기획전시 주제)와 연결성이 높다면 장르에 구분 없이 수집 가능
기획전 컬렉션	

■ 인천시청 및 인천문화재단 보유 작품 이관 관련

- 인천시청 보유 및 인천문화재단 보유작품의 인천시립미술관 이관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다만, 소장품 수집정책 내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정책 수립 이후 논의되어야 할 이차적 사항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로)
- 그럼에도 현재 보유작품에 대한 점검과 일정한 분석을 진행함 (자문위원에게 사진 자료가 부가된 목록을 공유하도록 함)

■ 아카이브 관련 현황

- 수집의 방향은 작품수집과 아카이브 수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작품수집과 별개로 아카이브 자료 수집과 DB화에 대한 요구가 강조될 필요 있음
- 이철명 작가가 기증한 인천 아카이브 자료(스페이스빔 보관)를 정리, 수집이 필요함

■ 인천문화재단, 작고작가 작품 수집을 위한 리스트 정리 중

- 인천미술은행은 활동 작가 위주의 공모제였으나, 작품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제를 한 개의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음(2021년부터). 이를 위해 인천지역의 작고작가 리스트를 정리 중에 있음

2) 인천미술 관련

■ 인천미술의 흐름 체계화 필요

- 20년대 일본 화가들이 인천의 풍경을 그려 선전에 출품함으로써 인천의 풍경이 기록되어 있음. 30년대에 한국 작가들이 섞이게 되었지만, 초반에는 대부분 일본 화가
- 1950~60년대는 우문국, 오소회(단체) 등이 활동했던 주요 시기였으며, 1980년대 현대미술운동의 흐름을 타면서 민중미술 활성화가 된 시기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시대적으로 주요 담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인천미술의 흐름 관련 자료 활용

- <인천미술의 초석>전, <인천미술 100년>전 등 인천미술을 조망한 관련 전시 도록 참고가 가능함
- 민중미술 관련 경기도미술관 「시점時點·시점時點-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 전시도록 활용 가능. 이 내용은 스페이스빔에서 이철명선생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스페이스빔 출간 미술전문잡지 「시각」 100호 내 수록된 인천미술과 아카이브 구축방안과 동일함
- I-View 와 「시각」지를 참고하여 인천미술의 흐름 전반 이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저자	발행지	발간일	제목
박석태	I-View (인천시 인터넷신문)	2020.01.20.	이국적 미술 소재 대상이던 '차이나타운'
		2020.02.03.	인천이 낳고 평생 인천을 사랑한 작가
		2020.02.17.	인천 서예 대가 유희강, 박세림의 작품세계
		2020.03.02.	화폭에 담은 '새벽종이 울렸네'
		2020.03.16.	다방이 전시장 ... 개인전시 '전성시대'
		2020.03.30.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팽팽히 맞서다
		2020.04.20.	본격 리얼리즘의 시대를 열다
		2020.05.11.	90년대 다양성을 경험한 인천 작가들 '인미협' 창립
		2020.06.01.	위계질서 거부한 인천 청년작가들의 새로운 도전
		2020.06.29.	'비엔날레' 국제행사로 희망의 시대를 열어
민운기	시각	1997~1999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1~10

■ 인천작가 및 단체 (회의 시 언급)

구분	작가명	생년	비고
작가	김은호	1892 ~ 1979	원도심 내 이당기념관 존재(80년대)
	장 발	1901 ~ 2001	서울대미술관에 다수 보관 개별적으로 작품 수집에는 한계 존재
	김영건	1910 ~ 1976	
	우문국	1917 ~ 1998	제물포구락부 전시 진행 중 2021년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김상유	1926 ~ 2002	
	박영성	1928 ~ 1996	국전 대통령상 수상 이력
	김옥순	1931 ~ 2012	마산여고 졸업, 인천에서 미술교사로 활동(이종구 작가의 스승), 임직순, 오지호 등 소품 소장, 조카가 자료 관리, 1973년 여류작 가회 창립 건인
	이규선	1938 ~ 2014	
	장선백	1934 ~	
	이철명	1935 ~	아카이브 자료 기증자, 김상유 작가 작품 보유
	강 광	1940 ~	
	강하진	1943 ~	
	이종구	1955 ~	
	정 현	1956 ~	
	우순옥	1958 ~	
서예	유희강	1911 ~ 1976	인천서예 역사 계보, 주요 작품 소장처 정리 (박석태 과장)
	정재흥	1918 ~ 1998	
	박세림	1924 ~ 1975	
	장인식	1928 ~ 1993	
	민승기	1944 ~	
	전도진	1948 ~	
미술단체	오소회 (五素會)	1969년 결성	1969년 미술평론가 이경성의 발의로 <오소회>가 발족, 결성, 인천 지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정립하고자 고심했던 미술인들의 모임

3) 미술관 성격과 방향 관련 인식조사 논의

■ 인식조사의 효율성 문제

- 인천시립미술관 성격과 방향에 관한 공감대와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가 일정하게 전문성을 전제한 것으로 의견 조사의 효율성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조사대상으로 작가와 일반인(건축, 대학생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도, 미술작가의 경우 이런 문제를 평소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일반인의 경우 더욱 의견수렴에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초점집단면접(FGI) 방식 제안

- 이에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작가(신진, 중견, 원로 등의 구분)를 5~6인의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 Focusing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제시됨. FGI는 그룹 당 5~6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30~40명까지 참여 대상 고려가 필요함
- 연구진 의견 : 애초에 이 조사는 연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의견조정 결과를 통해 추가된 것으로 설문 형식의 조사를 진행하고자 준비 중임. 그렇지만 FGI로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님. 무엇보다도 그룹별로 의견을 묻기에는 참여대상이 이 주제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굳이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집단면접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음. 그리고 면접 참여비가 일 인당 10만원~15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연구진은 원래 방식에서 이메일 방식으로 의견 수렴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를 위해 설문 설계를 잘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례를 검토하여 정성 결과로서의 의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3. 기타사항

■ 전달 자료

- 「인천미술협회 60년사」 - 인천시청 제공
- <시각> 100호(‘인천미술과 아카이브 구축방안’ 참조) - 민운기 대표 제공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연구형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2차) 회의록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1. 11. 18.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14:00 ~ 15:3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H동 다목적실
- 내 용 : 인식조사방안과 지역작가 기준 논의 및 연구형자문위원회 자료 공유
- 참여자 : 12인(연구형 자문위원회 5인 / 인천시청 3인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4인)

구분	소속 및 분야	성명
연구형 자문위원회	미술평론가 (인천미술의 역사)	이 경 모
	스페이스빔 대표 (인천미술아카이브 등)	민 윤 기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과장 (인천미술의 역사)	박 석 태
	임시공간 대표 (인천미술공간)	채 은 영
	독립기획자 (인천현대미술)	고 경 표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팀 장	김 성 배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이 진 영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임 경 미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박 신 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원 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보조원	김 유 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보조원	김 도 경



2. 회의내용

1) 연구형자문위원회 : 조사·연구 자료 공유

성명	내용
이경모	- 김옥순 화백 소장작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 (박신의 책임연구원 추후 논의) · 공유자료 : 이경모(2007), 『인천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인천: 다인아트 이경모(2012) 『지역문화의 변동과 미술비평의 대응』, 인천: 다인아트
민운기	-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천미술을 살펴보고, 인천의 지역미술에 대한 자생성, 정체성을 고민을 했던 시도 확인 - 양대팡당전 등의 전시를 기반으로 인천에 현대미술 담론이 존재함을 확인 (추후 개관전 등 기획전을 통해 한국미술계가 주목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자료 : 시각지(1997년 가을호 ~ 1999년 겨울호) 총 10권
박석태, 고경표	- 검여 유희강, 동정 박세림, 우초 장인식, 송석 정재흥, 무여 신경희 등 인천지역 서예의 맥을 짚어보는 작업 진행 - 대표적 컬렉터 : 이규명(컬렉터), 이경호(영림목재 회장) · 공유자료 : 인천근대미술신문자료 (원고) 인천 서예와 서예가들 (원고) 이규명(2021), 『미추홀구의 기억』 전시도록
채은영	- 2000년대 인천지역의 미술 활동의 특징과 대표적인 작가 및 예총·민예총 외 제 3지대 작가 조사 및 리스트업 (12월 초까지) · 인천은 미술 관련 공적 공간이 부재하여 프로젝트 베이스의 전시가 대수 개최되었음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여성비엔날레의 축제 및 콜트·콜텍 관련 프로젝트 등)

2) 인식조사 관련

■ 대상 수정

- (전문가 대상) 기존 일반시민을 포함했던 방식에서 지역기반 활동 미술인을 대상으로 초점을 모아 진행 필요
- (세부대상설정) 작가, 기획자, 비평가, 교수, 대학원생, 정책연구자 등 전문가 범주 세분화 필요

■ 문항 수정

- (문항1,2) 방문빈도, 방문동기를 묻는 질문은 전문가 대상으로 하면서 삭제
- (문항4) 인천시립미술관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 내용 조정(일반시민과 지역미술을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적 성격에 관한 내용 포함 필요) 및 중복선택 가능하도록 설정(최대 2개)
- (문항7) 근대산업과 노동자문화(민중미술)로 제시된 내용에서 (민중미술) 삭제

■ 기간 설정

- 조사기간은 최대 10일로 변경

■ 진행 방식

- 인식조사내용 수정 결과를 연구형자문위원회와 공유 이후 진행

3) 지역작가 기준

■ 인천문화재단 기준 참고

- <인천미술활성화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천 연고’의 기준은 폭 넓게 제시한 기준으로, <인천형 예술인지원>의 원로예술인의 기준을 함께 참고

4) 작품수집 기준

■ 작품수집은 작품 가치에 근거

-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지역작가, 동시대의 지역작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수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작품의 가치에 근거함
- 작품수집 시 인천 연고의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인천문화재단 기준에 준하는 연고 기준을 설정하여 따르고, 작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미술로 나누는 데 비평과 작품의 평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즉 작품의 수월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인천미술연구에 기반한 소장품 수집 필요

- 인천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은 개관에 즈음하여 단기간에 실행할 것이 아니라, 인천미술에 대한 비평·연구 과정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며, 추후 위원회 구성 등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원칙을 강조함
- 특히 소장품 수집을 계기로 진행된 조사와 연구(아카이브 포함)는 지역 내 산재되었던 연구를 모아 인천미술계에서 논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미술의 중요한 맥락과 특징을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이 유의미한 작품을 소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용역』
연구형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3차) 회의록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1. 12. 23.

1. 회의개요

- 일 시 : 2021년 12월 23일(목) 16:00 ~ 17:30
- 장 소 : 인천생활문화센터 A동 모임방
- 내 용 : 인식조사방안과 지역작가 기준 논의 및 연구형자문위원회 자료 공유
- 참여자 : 13인(연구형 자문위원회 5인 / 인천시청 4인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4인)

구분	소속 및 분야	성명
연구형 자문위원회	미술평론가 (인천미술의 역사)	이 경 모
	스페이스빔 대표 (인천미술아카이브 등)	민 윤 기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과장 (인천미술의 역사)	박 석 태
	임시공간 대표 (인천현대미술)	채 은 영
	독립기획자 (인천미술의 역사 및 현대미술)	고 경 표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문화콘텐츠과 과장	김 경 아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팀장	김 성 배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이 진 영
	인천광역시청 미술관건립TF 주무관	임 경 미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박 신 의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정 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원 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보조원	김 유 진



2. 회의 결과

1) 인천미술의 역사 및 지역성 관련

■ 인천미술의 흐름 검토 의견 및 수정 사항

- 인천미술의 흐름 6단계에 대해 연구형 자문위원은 동의 의견을 표함
- 변방성, 지역성, 현장성, 인천이 가진 본연의 한계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 존재함
- 1990년대의 경우, 전국적으로 미술운동이 지역과 상관없이 전개된 경향이 있음. 따라서 현대성이 담보된 인천 지역성 관련 위당의 수정이 요구됨 (90년대: 인천 지역성의 탐색 -> 탐색 및 확장 / 2000년대: 인천미술의 활성화 -> 다양화)

2) 소장자료 수집 관련

■ 수집 범주 설정에 관한 의견

- ‘인천 근현대미술’, ‘국내외 동시대미술’, ‘인천시립미술관 특화전략’세 범주로 나눈 것에 대해 연구형 자문위원은 동의 의견을 표함
- 최근 문화지형 변화 양상(장르 구분 모호, 일상 영역으로의 확장, 창작 주체의 확장, 청중의 시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며, 동시대 담론 파트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함

■ 수집 주체 변경: ‘시장’ → ‘관장’

-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내 수집 주체를 시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견 없음

■ 아카이브 관련 : 프로세스 제시 및 공간확보의 필요성 강조

- 아카이브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추후 미술관이 주도하여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기술함과 동시에 아카이브의 개념 및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것으로 정리함
- 아카이브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보고서 내에 서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건축 과제 용역 담당자와의 소통이 필요함
- 향후 인천미술의 흐름 중 현대(80년대 이후)의 경우 균형 있게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수집가의 자료 필요성 강조

■ 자료수집을 위한 관장 선임 필요

- 수집을 책임질 수 있는 학예팀을 구성하고 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시급함. 미술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임

3) 기타 사항

- (인천시립미술관 특화 방안) 특화전략의 경우 하나의 장르를 특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일정 수정) 인천 지역작가'의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 충분히 수렴되어, '인천 지역작가 자문회의'를 생략할 것을 인천시에 건의함. 추후 자문회의는 인천지역 전문가 단위와 수집정책 전문가 단위로 진행 예정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학술·학위논문]

- 권인철·강금만(2020), 국외 미술관의 뉴미디어 작품 보존 현황 조사·연구, 『2020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연구논문집』
- 김은경(2010), 미술관 종사자의 소장품 관리에 대한 인식연구: 소장품 처분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한승(2012), 미술관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 285-296.
- 박미화(2014),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분류체계의 재정비와 기술지침,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집, 6, 50-69.
- 박상애(2014), 미술관 아카이브와 교육, 『박물관교육연구』, 11, 11-31.
- 박신의(2014), 소장품 경영, 새로운 지평과 접근, 2014년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1-13.
- 배수빈·한경순(2018), 뉴미디어 아트 보존에 대한 고찰,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3, 137-147.
- 신소연(2021), 국립미술관의 소장품과 소장품의 전시활용 연구: 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성(2021),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틴아메리카 미술관(MALBA) 소장품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2(3), 255-268.
- 양지연(2014), 소장품의 활용과 개방형 수장고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9(4), 1-23.
- 유지선(2012),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은·김지현(2015), 미술관 아카이브 기술요소 제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6, 45-93.
- 이진형(2012), 소박물관 자료 관리 정책 연구: 국공립 박물관 소장품 정책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화·김설희(2016),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소장품 네트워크 구축, 『예술경영연구』, 40, 117-146.
- 이호신(2018), 미술관 기관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정리에 관한 사례연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24.
- 한주원(2008), 국내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규성(2006), 미술관의 수집정책과 소장품관리 체계, 『박물관학보』, 10, 493-523.

[단행본]

- 국립현대미술관(2020),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 김상태(2012), 『박물관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서울: 예경
- 이경모(2007), 『인천미술의 현장과 작가들』,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 _____ (2012), 『지역문화의 변동과 미술비평의 대응』,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인천광역시청(2020), <2020 주민등록통계보고서>
 _____(2020), <2020 인천의 사회지표>
 인천문화재단(2021), <2020 인천의 문화지표 조사결과보고서>

[아티클]

강하진(1998),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1980년대의 현대미술상황전을 중심으로, <시각>, 통권 4호, 38-40.
 김인환(1997),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일제치하 및 해방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시각>, 통권 1호, 13-15.
 김인환(1998),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1970년 전후의 오소회를 중심으로, <시각>, 통권 3호, 59-62.
 민운기(1999),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1990년 ~ 현재, 「수렴과 발산전」을 중심으로, <시각>, 통권 7호, 37-41.
 _____(1999),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1994년 ~ 현재, 「뉴에이지, 뉴이미지」전을 중심으로, <시각>, 통권 10호, 43-46.
 박석태(2020), 인천 미술 탐색과 도전사이 ① ~ ⑩, I-view,
https://enews.incheon.go.kr/usr/cms/search.do?pageIndex=1&menuNo=10000&upperMenuId=10&search_keyword2=menu_1&search_keyword1=%EB%B0%95%EC%84%9D%ED%83%9C
 _____(2022), 인천미술사를 통해 본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정책 제언,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발제자료
 박신의(2021), 한국 미술계의 소장품 경쟁력은 어디에?, <월간미술>, 2021년 9월호, 106-109.
 이종구(1998),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80년대, 인천, 미술운동, 그리고 지평, <시각>, 통권 5호, 36-39.
 이철명(1997),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인천미술대전의 전신, 1960년 전후의 양데빵당전을 중심으로, <시각>, 통권 2호, 26-27.
 허용철(1999), 인천미술의 정신을 찾아서 - 1994년~현재, 「인천미술인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각>, 통권 8호, 38-42.

[정책자료]

경기도미술관(n.d.), <경기도미술관 예술작품 구매계약서>
 경상남도(202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_____(202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2021),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_____(2021),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국립현대미술관(2021),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국제박물관협의회(2007), 『박물관윤리규정』
 대구광역시(2013),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_____ (2015),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2020),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_____ (2021),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 서울시립미술관(2013), <서울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규정>
- _____ (2017),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기술지침』
- _____ (2021), 『SeMA Agenda 2020 '수집' - 소유에서 공유로, 유물에서 비트로』
- 서울특별시(201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_____ (2021.),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2020),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 전라북도(2017),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_____ (2019),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_____ (202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0. 11.), <예술활동증명 누적완료자 현황>
- American Alliance of Museums(2012), <Developing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 Guggenheim Foundation(2020),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 TATE(2020), <TATE 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 The J. Paul Getty Trust(2019), <J. Paul Getty Museum Collection Policy>
- The Museum of Modern Art(2020),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9), <Acquisition and disposal policy>
-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9), <Collections Care and Conservation Policy>
-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9),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 Victoria and Albert Museum(2019), <National Art Library Collections Development Policy>

[누리집]

- 경기도미술관 <https://gmoma.ggcf.kr/>
- 경남도립미술관 <https://www.gyeongnam.go.kr/>
- 광주시립미술관 <https://artmuse.gwangju.go.kr/>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
- 대구미술관 <https://mam.daegu.go.kr/>
- 대전시립미술관 <https://www.daejeon.go.kr/dma/>
- 부산시립미술관 <https://art.busan.go.kr/>
- 서울시립미술관 <https://sema.seoul.go.kr/>
- 인천문화재단 <https://ifac.or.kr/>
- 인천시청 <https://www.incheon.go.kr/>
- 제주도립미술관 <http://jmoa.jeju.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main.do>

BROOKLN CHILDREN'S MUSEUM <https://www.brooklynkids.org/history-mission/collections/>

J. Paul Getty Museum <https://www.getty.edu/visit/center/>

MISSOULA ART MUSEUM <https://missoulaartmuseum.org/collection>)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https://www2.archivists.org/>

TATE <https://www.tate.org.uk/>

The Museum of Modern Art <https://www.moma.org/>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https://www.guggenheim.org/foundation>

WAYNE STATE UNIVERSITY <https://artcollection.wayne.edu/mission>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 정책 연구용역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구기관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오비스홀 105호

Tel. 02-961-9211

